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9. 10

금융소비자연구실

머 리 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 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연금 가입실태, 보험금 청구, 민원, 보험이해도, 보험 가입 및 판매행태,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 서비스, 자동차보험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과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10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안 철 경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는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통계는 전국 해당 가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 국민 2,464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함
3. 통계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4. 활용 통계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 통계 자료를 이용함
 - 가구기준: 2015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인구기준: 2019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행정안전부)
5.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 조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조사개요에 수록되어 있으며,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결과 값은 해석에서 제외함(예: 은퇴자, 무직 등)
6.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조사는 되었으나 정보가 없는 경우
 - [0]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사값인 경우
7. 수록된 자료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점은 보험연구원으로 문의

■ 목차

요약 / 1

I. 조사의 개요 / 52

1. 조사의 목적 / 52
2. 주요 조사항목 / 53
3. 조사방법 / 56
4. 표본의 특성 / 57
5. 구분 기준 / 58

II. 생명보험 / 60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60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70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 88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 92

III. 손해보험 / 114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114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123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 136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138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 149

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관련 / 149
2. 보험금 청구 / 169
3. 민원 / 205
4. 보험이해도 / 209
5. 보험 가입 및 판매 형태 / 243
6.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 251
7. 보험계약 전환 관련 / 259
8. 건강생활서비스 / 273

■ 목차

9. 사고예방 서비스 / 327

10. 자동차보험 / 342

| 부록 | 설문지 / 376

■ 표 차례

- 〈표 I-1〉 표본의 특성 / 57
- 〈표 II-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60
-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61
-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62
-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 63
-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 65
- 〈표 II-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65
-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 66
-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66
-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66
-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67
-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67
-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68
- 〈표 II-1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 68
-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69
- 〈표 II-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70
-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71
-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71
-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72
-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복수응답) / 72
-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복수응답) / 73
-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복수응답) / 73
-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 74
- 〈표 II-23〉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 75
- 〈표 II-24〉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76
- 〈표 II-25〉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77
- 〈표 II-26〉 간병보험 채널별 구성비 / 78
- 〈표 II-27〉 사망보험 채널별 구성비 / 79

■ 표 차례

-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 80
- 〈표 II-29〉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 81
- 〈표 II-30〉 어린이보험 채널별 구성비 / 82
- 〈표 II-31〉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 83
- 〈표 II-3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84
- 〈표 II-3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84
-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85
-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85
- 〈표 II-3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86
- 〈표 II-3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86
- 〈표 II-3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87
- 〈표 II-39〉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88
- 〈표 II-40〉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89
- 〈표 II-41〉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90
- 〈표 II-42〉 생명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 92
- 〈표 II-4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94
- 〈표 II-44〉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 95
- 〈표 II-45〉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96
- 〈표 II-46〉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97
- 〈표 II-47〉 간병보험 가입 이유 / 98
- 〈표 II-48〉 사망보험 가입 이유 / 99
- 〈표 II-49〉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 100
- 〈표 II-50〉 연금보험 가입 이유 / 101
- 〈표 II-51〉 어린이보험 가입 이유 / 102
- 〈표 II-52〉 변액보험 가입 이유 / 103
- 〈표 II-5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05
- 〈표 II-54〉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 106
- 〈표 II-55〉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 107

■ 표 차례

- 〈표 II-5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110
- 〈표 II-5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12
- 〈표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 114
- 〈표 III-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115
- 〈표 III-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115
- 〈표 III-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116
- 〈표 III-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 116
- 〈표 III-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 118
- 〈표 III-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119
- 〈표 III-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119
- 〈표 III-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120
- 〈표 III-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120
- 〈표 III-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121
- 〈표 III-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121
- 〈표 III-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122
- 〈표 III-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 123
- 〈표 III-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4
- 〈표 III-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24
- 〈표 III-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5
- 〈표 III-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25
- 〈표 III-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6
- 〈표 III-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26
- 〈표 III-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27
- 〈표 III-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 128
- 〈표 III-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29
- 〈표 III-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 130
- 〈표 III-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 131
- 〈표 III-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132

■ 표 차례

- 〈표 III-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132
- 〈표 III-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133
- 〈표 III-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133
- 〈표 III-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134
- 〈표 III-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134
- 〈표 III-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134
- 〈표 III-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 136
- 〈표 III-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136
- 〈표 III-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37
- 〈표 III-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 138
- 〈표 III-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139
- 〈표 III-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41
- 〈표 III-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 142
- 〈표 III-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43
- 〈표 III-41〉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 145
- 〈표 III-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47
- 〈표 IV-1〉 가구 개인연금 가입 여부 / 150
- 〈표 IV-2〉 가구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152
- 〈표 IV-3〉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기간 / 154
- 〈표 IV-4〉 가구 개인연금 수령 방법 / 156
- 〈표 IV-5〉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158
- 〈표 IV-6〉 가구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160
- 〈표 IV-7〉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162
- 〈표 IV-8〉 퇴직연금 가입 유형 / 164
- 〈표 IV-9〉 향후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166
- 〈표 IV-10〉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호 방법 / 168
- 〈표 IV-1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 170
- 〈표 IV-1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 172

■ 표 차례

- 〈표 IV-13〉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 174
- 〈표 IV-14〉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유무 / 176
- 〈표 IV-1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 178
- 〈표 IV-1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 180
- 〈표 IV-1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 182
- 〈표 IV-18〉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 184
- 〈표 IV-1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 186
- 〈표 IV-20〉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 188
- 〈표 IV-21〉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 190
- 〈표 IV-22〉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 192
- 〈표 IV-2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 194
- 〈표 IV-24〉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 196
- 〈표 IV-25〉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 198
- 〈표 IV-2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 200
- 〈표 IV-2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 202
- 〈표 IV-2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 204
- 〈표 IV-29〉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 206

■ 표 차례

- 〈표 IV-30〉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 208
- 〈표 IV-31〉 정보 탐색 경험 / 210
- 〈표 IV-32〉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 212
- 〈표 IV-33〉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 214
- 〈표 IV-34〉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 216
- 〈표 IV-35〉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 218
- 〈표 IV-36〉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 220
- 〈표 IV-37〉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 222
- 〈표 IV-38〉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O/X / 224
- 〈표 IV-39〉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26
- 〈표 IV-40〉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O/X / 228
- 〈표 IV-4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30
- 〈표 IV-42〉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O/X / 232
- 〈표 IV-43〉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34
- 〈표 IV-44〉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O/X / 236
- 〈표 IV-45〉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38
- 〈표 IV-46〉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O/X / 240
- 〈표 IV-47〉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확신 정도 / 242
- 〈표 IV-48〉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 244
- 〈표 IV-49〉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 246
- 〈표 IV-50〉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 248

■ 표 차례

- 〈표 IV-51〉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 250
- 〈표 IV-52〉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 252
- 〈표 IV-53〉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254
- 〈표 IV-54〉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256
- 〈표 IV-55〉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 258
- 〈표 IV-56〉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 260
- 〈표 IV-57〉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 262
- 〈표 IV-58〉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 264
- 〈표 IV-59〉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 266
- 〈표 IV-60〉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 268
- 〈표 IV-61〉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 270
- 〈표 IV-62〉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 272
- 〈표 IV-63〉 생활습관 개선 필요: 규칙적 운동하기 / 274
- 〈표 IV-64〉 생활습관 개선 필요: 식생활 개선 / 275
- 〈표 IV-65〉 생활습관 개선 필요: 금연 / 276
- 〈표 IV-66〉 생활습관 개선 필요: 금주 혹은 절주 / 277
- 〈표 IV-67〉 생활습관 개선 필요: 스트레스 관리 / 278
- 〈표 IV-68〉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규칙적 운동하기 / 280
- 〈표 IV-69〉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식생활 개선 / 282
- 〈표 IV-70〉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연 / 284
- 〈표 IV-71〉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주 혹은 절주 / 286
- 〈표 IV-72〉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스트레스 관리 / 288

■ 표 차례

- 〈표 IV-7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 공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90
- 〈표 IV-7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292
- 〈표 IV-75〉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94
- 〈표 IV-76〉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96
- 〈표 IV-77〉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 298
- 〈표 IV-7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00
- 〈표 IV-7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02
- 〈표 IV-80〉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04
- 〈표 IV-8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06
- 〈표 IV-82〉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 308
- 〈표 IV-8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험 / 310
- 〈표 IV-8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급 / 312
- 〈표 IV-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 / 314
- 〈표 IV-8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316
- 〈표 IV-8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18

■ 표 차례

- 〈표 IV-8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20
- 〈표 IV-8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22
- 〈표 IV-9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24
- 〈표 IV-9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 326
- 〈표 IV-9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 328
- 〈표 IV-9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 330
- 〈표 IV-94〉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 332
- 〈표 IV-95〉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335
- 〈표 IV-96〉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 337
- 〈표 IV-97〉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 (복수응답) / 339
- 〈표 IV-98〉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341
- 〈표 IV-99〉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 343
- 〈표 IV-100〉 운전면허 취득 시기 / 345
- 〈표 IV-101〉 보유 차량 연식 / 347
- 〈표 IV-102〉 차종 / 349
- 〈표 IV-103〉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유무 / 351
- 〈표 IV-104〉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 / 353
- 〈표 IV-105〉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 355
- 〈표 IV-106〉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 357
- 〈표 IV-107〉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 359

■ 표 차례

- 〈표 IV-108〉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 361
- 〈표 IV-109〉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 363
- 〈표 IV-110〉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 365
- 〈표 IV-111〉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 367
- 〈표 IV-112〉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 369
- 〈표 IV-11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 371
- 〈표 IV-114〉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 373
- 〈표 IV-115〉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 375

■ 그림 차례

- 〈그림 I-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52
- 〈그림 II-1〉 2019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60
-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63
-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64
-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70
- 〈그림 II-5〉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87
- 〈그림 II-6〉 생명보험 보상 경험 / 92
- 〈그림 II-7〉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93
- 〈그림 II-8〉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04
- 〈그림 II-9〉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109
- 〈그림 II-1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11
- 〈그림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 114
- 〈그림 III-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117
- 〈그림 III-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118
- 〈그림 III-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135
- 〈그림 III-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139
- 〈그림 III-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40
- 〈그림 III-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 144
- 〈그림 III-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기준) / 146
- 〈그림 IV-1〉 가구 개인연금 가입 여부 / 149
- 〈그림 IV-2〉 가구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151
- 〈그림 IV-3〉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기간 / 153
- 〈그림 IV-4〉 가구 개인연금 납입 방법 / 155
- 〈그림 IV-5〉 가구 개인연금 수령 방법 / 155
- 〈그림 IV-6〉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157
- 〈그림 IV-7〉 가구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159
- 〈그림 IV-8〉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161
- 〈그림 IV-9〉 퇴직연금 가입 유형 / 163

■ 그림 차례

- 〈그림 IV-10〉 향후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165
- 〈그림 IV-11〉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호 방법 / 167
- 〈그림 IV-1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 169
- 〈그림 IV-13〉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 171
- 〈그림 IV-14〉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 173
- 〈그림 IV-1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유무 / 175
- 〈그림 IV-1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 177
- 〈그림 IV-1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 179
- 〈그림 IV-1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 181
- 〈그림 IV-1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 183
- 〈그림 IV-20〉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 185
- 〈그림 IV-21〉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 187
- 〈그림 IV-22〉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 189
- 〈그림 IV-2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 191
- 〈그림 IV-24〉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 193
- 〈그림 IV-25〉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 195
- 〈그림 IV-26〉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 197
- 〈그림 IV-2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 199

■ 그림 차례

- 〈그림 IV-2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 201
- 〈그림 IV-29〉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 203
- 〈그림 IV-30〉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 205
- 〈그림 IV-31〉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 207
- 〈그림 IV-32〉 정보 탐색 경험 / 209
- 〈그림 IV-33〉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 211
- 〈그림 IV-34〉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 213
- 〈그림 IV-35〉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 215
- 〈그림 IV-36〉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 217
- 〈그림 IV-37〉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 219
- 〈그림 IV-38〉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 221
- 〈그림 IV-39〉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O/X / 223
- 〈그림 IV-40〉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25
- 〈그림 IV-4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O/X / 227
- 〈그림 IV-4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29
- 〈그림 IV-43〉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O/X / 231
- 〈그림 IV-44〉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33
- 〈그림 IV-45〉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O/X / 235
- 〈그림 IV-46〉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237
- 〈그림 IV-47〉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O/X / 239
- 〈그림 IV-48〉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확신 정도 / 241

■ 그림 차례

- 〈그림 IV-49〉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 243
- 〈그림 IV-50〉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 245
- 〈그림 IV-51〉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 247
- 〈그림 IV-52〉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 249
- 〈그림 IV-53〉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 251
- 〈그림 IV-54〉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253
- 〈그림 IV-55〉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255
- 〈그림 IV-56〉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 257
- 〈그림 IV-57〉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 259
- 〈그림 IV-58〉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 261
- 〈그림 IV-59〉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 263
- 〈그림 IV-60〉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 265
- 〈그림 IV-61〉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 267
- 〈그림 IV-62〉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 269
- 〈그림 IV-63〉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 271
- 〈그림 IV-64〉 생활습관 개선 필요 / 273
- 〈그림 IV-65〉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규칙적 운동하기 / 279
- 〈그림 IV-66〉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식생활 개선 / 281
- 〈그림 IV-67〉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연 / 283
- 〈그림 IV-68〉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주 혹은 절주 / 285

■ 그림 차례

- 〈그림 IV-69〉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스트레스 관리 / 287
- 〈그림 IV-7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89
- 〈그림 IV-71〉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291
- 〈그림 IV-72〉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293
- 〈그림 IV-7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295
- 〈그림 IV-7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 297
- 〈그림 IV-75〉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299
- 〈그림 IV-76〉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01
- 〈그림 IV-77〉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03
- 〈그림 IV-7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05
- 〈그림 IV-7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 307
- 〈그림 IV-8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험 / 309
- 〈그림 IV-8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급 / 311
- 〈그림 IV-8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 / 313
- 〈그림 IV-8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315
- 〈그림 IV-84〉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 317

■ 그림 차례

- 〈그림 IV-85〉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 319
- 〈그림 IV-86〉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 321
- 〈그림 IV-8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 323
- 〈그림 IV-8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 325
- 〈그림 IV-89〉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 327
- 〈그림 IV-90〉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 329
- 〈그림 IV-9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 331
- 〈그림 IV-9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334
- 〈그림 IV-9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 336
- 〈그림 IV-94〉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 338
- 〈그림 IV-95〉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340
- 〈그림 IV-96〉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 342
- 〈그림 IV-97〉 운전면허 취득 시기 / 344
- 〈그림 IV-98〉 보유 차량 연식 / 346
- 〈그림 IV-99〉 차종 / 348
- 〈그림 IV-100〉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유무 / 350
- 〈그림 IV-101〉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 / 352
- 〈그림 IV-102〉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 354
- 〈그림 IV-103〉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 356
- 〈그림 IV-104〉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 358

■ 그림 차례

- 〈그림 IV-105〉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 360
- 〈그림 IV-106〉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 362
- 〈그림 IV-107〉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 364
- 〈그림 IV-108〉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 366
- 〈그림 IV-109〉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 368
- 〈그림 IV-110〉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 370
- 〈그림 IV-111〉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 372
- 〈그림 IV-112〉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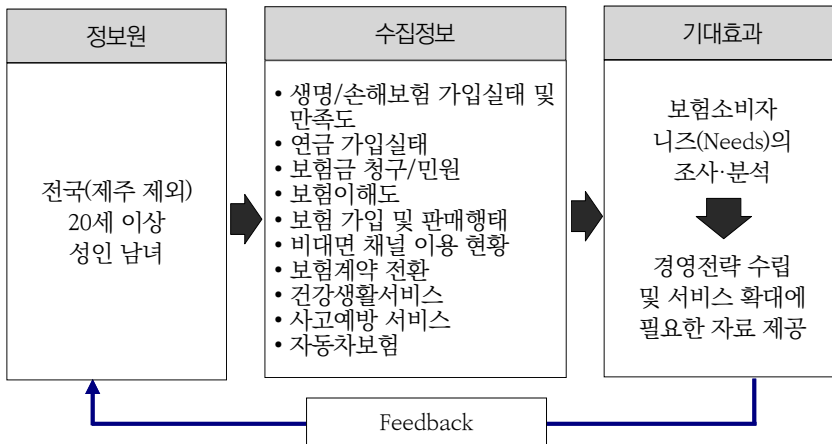
요약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요약 그림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나. 조사 방법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총 2,464명(유효표본)
-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 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안전부, 2019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0\%$
- 조사기간: 2019년 6월 3일 ~ 2019년 7월 22일(약 7주간)
-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다. 주요 조사항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조사와 최근 보험산업과 관련된 이슈별 설문조사를 포함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연금 가입실태, 보험금 청구, 민원/보험이해도, 보험가입 및 판매행태,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 서비스, 자동차보험 등을 설문 내용에 포함함

2. 보험 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가. 가구당 가입 현황

- 2019년 조사에서는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2%¹⁾로 나타남
 - 2019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0.9%이고, 가구당 가입건수는 3.0건으로 조사됨
 - 2019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8.5%이며, 가입건수는 가구당 3.5건임

1)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함

〈요약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구당 가입률(%)		96.1	96.1	97.5	99.7	96.3	97.0	98.4	98.2
생명 보험	가입률(%)	86.3	83.0	85.8	87.2	81.8	84.9	85.9	80.9
	가입건수(건)	3.8	3.6	4.0	3.5	3.4	4.0	3.7	3.0
손해 보험	가입률(%)	87.2	86.8	87.7	91.8	88.9	89.5	91.0	88.5
	가입건수(건)	2.9	3.1	3.3	3.4	3.5	3.4	3.7	3.5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등에 따른 가구당 보험가입률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하락이 손해보험 보다 더 컸음

-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보험가입률이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하락하였으나 군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함
-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하락폭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30대(6.2%p)와 60대 이상(9.6%p) 연령층에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하락 폭이 컸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약간 상승함

〈요약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체 가입률					97.0	98.4	98.2	84.9	85.9	80.9	89.5	91.0	88.5
거주 지역별	대도시				97.9	99.0	98.6	87.3	86.1	83.5	91.8	90.5	89.8
	중·소도시				96.8	98.1	97.6	84.0	85.4	78.9	88.0	91.7	86.2
	군지역				93.6	96.9	98.8	77.0	87.7	78.3	85.6	89.6	91.1
세대주 연령	30대				99.0	99.7	99.4	87.4	83.6	77.4	91.9	93.7	92.5
	40대				99.6	99.6	99.4	90.2	87.6	86.0	95.3	97.6	94.8
	50대				98.4	99.7	99.7	91.0	92.6	87.9	94.0	96.3	93.9
	60대 이상				93.9	96.1	95.7	75.3	84.0	74.4	83.3	80.7	79.8
가구 소득	저소득				87.7	93.2	93.8	66.5	72.9	73.1	69.5	75.9	70.0
	중소득				98.8	99.6	99.1	87.2	86.8	80.8	92.3	93.7	91.7
	고소득				100.0	100.0	99.9	93.1	94.2	86.3	97.9	96.8	96.1

나. 개인별 보험 가입 현황

■ 2018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5.1%를 기록하였음

- 생명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2.7%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개인 보험가입률은 76.2%를 기록함

〈요약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명보험	78.9	73.4	78.2	79.5	72.7
손해보험	79.7	76.2	78.4	80.0	76.2
전체	96.7	93.8	94.5	96.7	95.1

■ 전체적으로 30~50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여성의, 손해보험의 경우 남성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대와 60대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개인 보험가입률이 감소하였으나 농/임/어업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은퇴자의 경우도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증가함
- 저소득 가구에 속한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손해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작년 대비 개인 보험가입률 감소폭이 증가함

〈요약 표 4〉 개인별 보험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체 가입률		94.5	96.7	95.1	78.2	79.5	72.7	78.4	80.0	76.2
성별	남성	94.2	97.1	95.9	77.0	78.1	70.4	83.4	88.6	84.1
	여성	94.8	96.2	94.3	79.3	80.8	75.0	73.4	71.6	68.4
연령	20대	88.8	93.5	91.2	69.7	63.8	58.5	63.0	77.1	66.5
	30대	96.7	98.6	96.8	77.6	77.3	73.1	81.7	87.6	82.6
	40대	98.9	99.2	98.2	86.6	84.3	79.7	86.6	88.8	85.8
	50대	98.0	98.8	98.6	87.9	89.2	82.6	87.7	83.8	83.8
	60대 이상	90.1	93.7	91.2	69.1	79.3	68.0	71.5	66.6	64.5
직업	화이트칼라	97.6	98.3	97.3	85.7	82.6	74.6	82.6	87.3	83.6
	블루칼라	93.6	96.8	95.4	75.8	72.9	72.2	76.4	81.5	72.6
	농/임/어업	78.9	92.1	96.3	53.7	63.2	65.0	68.4	65.8	80.0
	자영업	98.2	98.6	97.3	86.1	85.7	78.0	85.6	86.0	84.5
	주부	95.6	96.4	94.0	75.8	83.1	74.7	75.1	66.4	66.2
	은퇴자	89.5	92.3	85.7	36.8	92.3	42.9	89.5	53.8	76.2
	학생	79.7	85.7	80.6	57.6	57.1	43.1	59.3	64.3	56.9
	무직/기타	71.0	59.5	72.3	54.8	40.5	48.9	48.4	48.6	55.3
학력	중졸 이하	81.1	88.7	83.4	55.6	68.5	56.3	57.7	60.1	45.7
	고졸	94.9	97.4	95.2	77.5	80.8	74.3	77.9	76.9	73.0
	대재 이상	96.9	97.7	96.4	83.7	80.5	73.3	83.3	86.5	83.1
결혼 여부	기혼	95.9	97.2	95.4	80.3	83.6	76.0	81.3	79.9	76.9
	미혼	89.2	94.9	94.0	69.9	63.6	62.1	67.3	80.4	74.0
가구 소득	저소득	85.5	90.8	91.1	62.6	69.0	68.4	61.3	66.2	59.3
	중소득	95.7	97.6	94.9	79.4	79.8	72.0	81.2	82.7	77.5
	고소득	98.4	99.2	98.0	86.8	86.9	76.7	84.3	84.7	85.5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의 가입률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실손의료보험(28.8%), 사망보험(13.8%) 등의 순임

〈요약 표 5〉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손 의료 보험	질병 보장 보험	재해 상해 보험	간병 보험	사망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 보험	비가입
전체	(2,464)	28.8	52.8	11.0	1.7	13.8	9.4	4.6	3.1	3.9	27.3
성별	남성	(1,224)	28.1	49.5	10.8	1.6	14.7	9.3	4.7	2.0	29.6
	여성	(1,240)	29.4	56.1	11.1	1.8	12.9	9.5	4.6	4.2	25.0
연령	20대	(388)	27.8	35.8	7.0	0.5	7.0	4.1	2.1	0.3	41.5
	30대	(432)	34.5	48.1	10.0	0.2	11.6	11.6	3.9	9.0	26.9
	40대	(492)	30.7	57.1	12.8	0.6	17.5	14.0	7.3	7.3	20.3
	50대	(505)	28.9	65.7	13.3	2.6	19.2	10.9	8.5	0.0	17.4
	60대 이상	(647)	24.0	52.9	10.8	3.6	12.4	6.5	1.5	0.0	32.0
지역 규모	대도시	(1,118)	35.4	55.7	9.3	1.4	14.3	11.5	5.5	3.8	23.3
	중·소도시	(1,010)	24.5	53.1	13.1	2.2	12.9	8.0	4.6	2.6	30.3
	군지역	(336)	19.6	42.6	10.1	1.2	14.9	6.5	2.1	2.4	31.5
직업	화이트칼라	(678)	33.5	48.8	11.2	1.3	16.8	12.5	5.2	3.7	25.4
	블루칼라	(605)	30.2	51.1	11.7	1.7	13.1	8.9	4.6	1.8	27.8
	농/임/어업	(80)	7.5	57.5	17.5	1.3	10.0	6.3	1.3	1.3	35.0
	자영업	(478)	27.0	61.7	11.3	1.3	14.4	10.0	6.7	1.9	22.0
	주부	(482)	28.4	56.8	9.3	1.7	12.0	7.5	3.7	6.2	25.3
	은퇴자	(21)	14.3	33.3	9.5	14.3	9.5	0.0	0.0	0.0	57.1
	학생	(72)	25.0	29.2	4.2	0.0	1.4	2.8	0.0	0.0	56.9
	무직/기타	(47)	12.8	40.4	10.6	10.6	17.0	4.3	0.0	0.0	51.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21.2	47.0	10.6	3.3	7.9	4.0	0.0	0.0	43.7
	고졸	(1,131)	27.9	56.5	11.4	2.5	13.4	9.0	3.8	2.2	25.7
	대재 이상	(1,181)	30.5	50.0	10.6	0.8	15.0	10.4	6.0	4.2	26.7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6.0	54.8	10.1	1.9	6.8	5.0	3.5	1.7	31.6
	중소득	(1,180)	30.4	52.7	10.8	1.8	11.2	9.9	4.8	4.1	28.0
	고소득	(768)	28.1	51.7	11.7	1.4	22.5	11.6	5.1	2.5	23.3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0.0%), 40대(76.6%), 중·소도시(69.7%), 자영업(71.8%), 대재 이상(72.9%), 그리고 고소득층(76.8%)의 개인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은 남성(70.1%), 40대(62.0%), 대도시(48.0%), 화이트칼라(71.8%), 대재 이상(55.7%), 그리고 고소득층(54.7%)의 개인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요약 표 6〉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장기손해 보험	자동차 보험 ¹⁾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2,464)	67.5	45.7	1.0	0.1	23.8
성별	남성	(1,224)	70.0	70.1	1.0	0.0	15.9
	여성	(1,240)	65.0	21.5	1.0	0.2	31.6
연령	20대	(388)	59.5	22.7	1.5	0.0	33.5
	30대	(432)	71.5	55.1	1.2	0.0	17.4
	40대	(492)	76.6	62.0	1.2	0.0	14.2
	50대	(505)	75.2	54.7	0.4	0.4	16.2
	60대 이상	(647)	56.6	33.7	0.8	0.2	35.5
지역규모	대도시	(1,118)	65.6	48.0	0.9	0.3	22.6
	중·소도시	(1,010)	69.7	43.2	0.9	0.0	25.2
	군지역	(336)	67.3	45.2	1.5	0.0	23.5
직업	화이트칼라	(678)	60.0	71.8	1.2	0.0	16.4
	블루칼라	(605)	42.3	64.5	1.0	0.2	27.4
	농/임/어업	(80)	68.8	58.8	1.3	0.0	20.0
	자영업	(478)	71.8	65.7	0.8	0.2	15.5
	주부	(482)	64.3	14.5	0.6	0.2	33.8
	은퇴자	(21)	71.4	66.7	4.8	0.0	23.8
	학생	(72)	54.2	6.9	1.4	0.0	43.1
	무직/기타	(47)	48.9	25.5	0.0	0.0	44.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1.1	12.6	0.7	0.0	54.3
	고졸	(1,131)	65.3	39.5	0.7	0.3	27.0
	대재 이상	(1,181)	72.9	55.7	1.3	0.0	16.9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53.1	26.6	0.4	0.0	40.7
	중소득	(1,180)	67.7	48.1	0.9	0.1	22.5
	고소득	(768)	76.8	54.7	1.4	0.3	14.5

주: 1) 자동차보험이 법정 의무보험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100.0%임

-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의 경우 67.5%로 2018년(71.1%) 대비 3.6%p 하락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하락한 가운데 20대가 59.5%로 전년(68.1%) 대비 가장 크게(8.6%p) 하락함
 - 반면, 50대는 전년(73.8%) 대비 1.4%p 상승함
 - 소득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에서는 개인 보험가입률이 상승한 반면, 저소득·중소득층에서는 다소 하락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졸 이하의 하락폭(12.0%p)이 가장 큼

〈요약 표 7〉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2018	2019
가입률		71.1	67.5
연령	20대	68.1	59.5
	30대	78.7	71.5
	40대	77.9	76.6
	50대	73.8	75.2
	60대 이상	60.3	56.6
학력	중졸 이하	53.1	41.1
	고졸	69.7	65.3
	대재 이상	75.7	72.9
결혼	기혼	71.0	68.5
	미혼	71.7	64.3
가구 소득	저소득	59.2	53.1
	중소득	74.4	67.7
	고소득	73.0	76.8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²⁾은 94.6%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91.4%로 나타남

2) 전체 보험상품 가입자 중 각각 채널로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대면채널과 은행채널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은 모든 채널에서 가입 비율이 2018년에 비하여 증가함
 - 생명보험의 경우 대면채널과 은행채널 가입률이 전년 대비 각각 1.3%p, 1.2%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대면채널, 직판채널, 은행채널, 그리고 기타채널 가입률이 각각 2.8%p, 1.0%p, 1.4%p, 0.3%p 상승함

〈요약 표 8〉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 채널별 가입률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명보험	대면	96.0	95.5	96.4	97.3	96.8	95.8	93.3	94.6
	직판	2.6	2.4	1.9	1.6	2.7	3.6	5.4	4.9
	은행	1.6	3.1	3.2	1.7	1.9	2.4	2.9	4.1
	기타	0.0	0.0	0.0	0.0	2.0	2.8	3.2	3.1
손해보험	대면	92.7	93.2	94.2	94.0	95.2	90.8	88.6	91.4
	직판	6.2	8.0	9.1	7.8	8.0	13.3	14.2	15.2
	은행	1.1	1.9	1.3	0.3	0.9	1.0	1.1	2.5
	기타	0.0	0.0	0.0	0.0	2.6	4.3	4.1	4.4

주: 1) 상기 채널별 가입률은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 채널별 비중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2) 판매채널의 구분은 〈I. 조사의 개요〉를 참고바람

3)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4)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다.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이 8.4%로 가장 높았음

- 질병보장보험의 뒤를 이어 간병보험 7.0%, 실손의료보험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9〉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8.8	93.5	6.5
질병보장보험	52.8	91.6	8.4
재해상해보험	11.0	96.1	3.9
간병보험	1.7	93.0	7.0
사망보험	13.8	98.4	1.6
저축성보험	9.4	96.4	3.6
연금보험	4.6	96.2	3.8
어린이보험	3.1	98.7	1.3
변액보험	3.9	99.4	0.6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36.2%, 장기 손해보험 3.4%, 상해보험 2.5%로 나타남

〈요약 표 10〉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5.7	63.8	36.2
장기손해보험	67.5	96.6	3.4
상해보험	1.0	97.5	2.5

- 가입이유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모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수단(13.4%), 노후자금 마련(8.8%), 유산상속 목적(2.0%)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98.4%였으며, 목돈 마련 저축수단(3.6%), 노후자금 마련(2.1%), 투자수단(1.2%) 등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1〉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8	2019	2018	2019
위험보장	93.4	95.6	95.1	98.4
목돈 마련 저축수단	9.9	13.4	3.6	3.6
노후자금 마련	12.9	8.8	3.2	2.1
자산증식 투자수단	2.4	1.7	1.7	1.2
세제혜택 유리	0.5	0.7	1.1	0.8
유산상속 목적	3.2	2.0	0.3	0.5

라.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사 상품에 가입한 가입률³⁾은 생명보험의 경우 57.4%, 손해보험의 경우 64.9%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다음으로 중·소형사 27.0%, 외국사 20.1%, 공제/기타 7.7%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 33.5%, 직판사 8.1%, 공제/기타 2.8% 순임

〈요약 표 12〉 최근 3년 이내 가입자의 보험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고려사항 \ 선택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형사	73.6	62.9	65.4	68.8	57.4	82.3	77.0	79.9	77.3	64.9
중·소형사	21.8	23.2	27.7	26.7	27.0	18.7	20.1	19.1	22.9	33.5
외국사/직판사	8.7	9.8	9.6	10.7	20.1	3.6	1.8	5.1	4.6	8.1
공제/기타	4.8	4.0	2.8	2.7	7.7	2.0	1.1	0.7	0.9	2.8

주: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3년 이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회사군별 가입률을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품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브랜드 신뢰성(22.0%), 서비스 지원(14.8%), 가격 경쟁력(13.1%) 순으로 조사됨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37.1%)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20.3%)과 서비스 지원(16.3%), 가격 경쟁력(14.8%)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고려사항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상품 경쟁력	48.0	45.8	44.0	38.2	39.0	46.9	40.8	42.7	36.1	37.1		
브랜드 신뢰성	15.6	22.8	20.7	18.2	22.0	16.6	21.6	19.7	19.4	20.3		
서비스 지원	14.3	11.2	13.2	12.0	14.8	16.4	14.5	12.7	13.4	16.3		
가격 경쟁력	11.0	11.2	13.8	17.3	13.1	12.8	12.3	16.3	17.4	14.8		
개인적 관계	4.2	4.4	2.9	5.0	2.8	2.8	5.4	3.8	4.7	3.1		
회사 규모	2.7	2.2	1.9	4.1	1.3	1.8	2.2	2.1	2.7	1.7		
설계사 전문성	1.4	1.1	0.9	1.7	2.4	1.0	1.3	0.7	0.9	2.2		
경영 철학	0.6	0.3	0.7	1.2	1.7	0.6	1.2	0.7	0.6	1.3		
과거 거래 경험	1.2	0.3	1.0	1.1	1.1	0.6	0.5	1.0	2.6	0.9		
계약 편의성	1.1	0.8	0.9	1.2	1.8	0.6	0.3	0.7	2.0	2.4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3.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관련

가. 개인연금

1)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14.4%로 ‘비가입’(8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14〉 가구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464)	14.4	85.6

2)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 중’(8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연금 대기 중)’(7.9%), ‘연금수령 중’(2.5%)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납입 중 상태는 30대(100.0%), 화이트칼라(93.7%), 대재 이상(93.4%)에서 비교적 높았음

〈요약 표 15〉 가구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납입 중	납입완료 (연금대기 중)	연금수령 중
전체	(354)	89.5	7.9	2.5

3)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개인연금의 현재 가입 기간은 '9~10년 이하'가 2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6년'(22.3%), '10년 초과'(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6〉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이하	10년 초과
전체	(354)	1.1	4.0	12.4	22.3	13.0	25.1	22.0

4) 개인연금 납입 방법

- 개인연금의 납입 방법으로는 '월납'이 100.0%로 나타남

5) 개인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의향

- 향후 개인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의향은 '연금수령'(68.9%), '연금+일시금'(20.3%), '일시금'(10.7%)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7〉 가구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수령	연금+일시금	일시금
전체	(354)	68.9	20.3	10.7

6)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15.3%),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14.4%), '생명보험회사'(13.6%), '증권회사'(4.5%) 등의 순임

〈요약 표 18〉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은행	생명 보험 회사	손해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잘 모름
전체	(354)	44.9	13.6	15.3	4.5	14.4	7.3

7)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8.6%로 응답자 10명 중 약 5명 정도가 개인연금상품에 만족하고 있었음

〈요약 표 19〉 가구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전체	(354)	0.0	2.3	49.2	43.5	5.1	3.51

8)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0.9%로 ‘없다’(79.1%)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요약 표 20〉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110)	20.9	79.1

나. 퇴직연금

1)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 전체 응답자 중 학생, 무직, 주부를 제외한 1,862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유형을 물었을 때,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75.3%로 가장 많았고, DB형(확정급여형, 14.7%), DC형(확정기여형, 5.9%), IRP(개인형 퇴직연금, 4.7%)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21〉 퇴직연금 가입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DB형	DC형	IRP	없음
전체	(1,862)	14.7	5.9	4.7	75.3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6%로 ‘가입 의향이 없다’(90.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요약 표 22〉 향후 개인형 IRP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775)	9.6	90.4

3)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은퇴시점이 다가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본 결과, ‘연금’이라는 응답이 65.1%로 ‘일시금’(34.9%)이라는 응답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23〉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호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	일시금
전체	(2,464)	65.1	34.9

4. 보험금 청구

가. 보험금 청구, 심사 및 서류 처리 관련

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5%로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4〉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17.5	82.5

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횟수를 살펴본 결과, '1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24.1%), '3회'(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평균 보험금 청구 횟수는 2.52회임

〈요약 표 2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회)
전체	(432)	41.7	24.1	16.7	4.2	13.4	2.52

3)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 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접수’가 39.8%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팩스’(27.1%), ‘보험회사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23.4%)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요약 표 26〉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 설계사를 통한 접수	팩스	보험회사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보험회사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전체	(432)	39.8	27.1	23.4	4.4	3.9	1.4

4)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0.2%로 10명 중 약 1명 정도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32)	10.2	89.8

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 보험금 청구 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경험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77.3%로 가장 많았음

■ 보험금 청구 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 관련 평균 횟수는 1.30회로 나타남

〈요약 표 2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5회 이상	평균(회)
전체	(44)	77.3	20.5	2.3	1.30

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0%로 대부분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29〉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32)	3.0	97.0

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함

〈요약 표 30〉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평균(회)
전체	(13)	84.6	15.4	1.15

8)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61.5%로 '없다'(38.5%)에 비해 23.0%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31〉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	61.5	38.5

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라는 응답이 87.5%로 대다수를 차지함

〈요약 표 3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평균(회)
전체	(8)	87.5	12.5	1.13

10)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0.9%로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0.9	99.1

11)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81.0%로 대부분을 차지함
-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평균 횟수는 2.71회임

〈요약 표 34〉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3회	5회 이상	평균(회)
전체	(21)	81.0	9.5	9.5	2.71

12)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0.6%로 대부분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5〉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0.6	99.4

1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횟수는 ‘1회’가 93.3%로 나타남

- 위임장에 동의한 평균 횟수는 1.07회임

〈요약 표 36〉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평균(회)
전체	(15)	93.3	6.7	1.07

나.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1)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4%로 대부분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37〉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2.4	97.6

2)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험 횟수를 살펴본 결과, '2회'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회'(3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횟수는 2.02회임

〈요약 표 38〉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회)
전체	(58)	36.2	43.1	10.3	3.4	6.9	2.02

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포기 관련

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남

〈요약 표 39〉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6.2	93.8

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3회'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29.6%), '1회'(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보험금 청구 포기 횟수는 2.86회임

〈요약 표 40〉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회)
전체	(152)	17.8	29.6	32.2	7.9	12.5	2.86

3)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로는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가 82.2%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41.4%),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유료라서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26.3%), '청구서류가 많아서'(13.8%)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요약 표 4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유료라서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서류가 많아서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전체	(152)	82.2	41.4	26.3	13.8	2.0

5. 민원

가.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처 및 이유

1)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로 ‘보험회사’가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계사’(36.2%), ‘금감원 민원센터’(10.2%), ‘소비자원’(4.7%), ‘민간 소비자단체’(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2〉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회사	설계사	금감원 민원센터	소비자원	민간 소비자 단체	기타
전체	(2,464)	46.9	36.2	10.2	4.7	1.9	0.1

2)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연락하기 쉬워서’가 37.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신뢰할 수 있어서’(22.6%),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17.4%),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13.5%),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 할 것 같아서’(9.1%) 등의 순임

〈요약 표 43〉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락하기 쉬워서	신뢰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2,464)	37.0	22.6	17.4	9.1	13.5	0.4

6. 보험이해도

가. 보험 가입 전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경로, 인지 정도

1) 정보 탐색 경험: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사업비나 예정이율

- 보험 가입 전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납입보험료 회사별 비교'에 대해서는 43.6%, '납입기간 및 보장기간'에 대해서는 54.5%, 그리고 '사업비 또는 예정이율'에 대해서는 17.8%로 응답자가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44〉 정보 탐색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납입보험료 회사별 비교	(2,464)	43.6	56.4
납입기간 및 보장기간	(2,464)	54.5	45.5
사업비 또는 예정이율	(2,464)	17.8	82.2

2)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를 정보 탐색 해본 경로로 '설계사'가 68.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포털 등 인터넷 검색'(18.1%), '비교공시 사이트'(9.9%),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2.3%)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요약 표 45〉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금융기관 창구	비교 공시 사이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쇼핑 채널	보험회사 등 우편안내 자료	기타
전체	(1,074)	68.3	2.3	9.9	18.1	0.7	0.7	0.1

3)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정보 탐색해 본 경로로 '설계사'가 76.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포털 등 인터넷 검색'(11.5%), '비교공시 사이트'(6.5%),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46〉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금융기관 창구	비교 공시 사이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 쇼핑 채널	보험회사 등 우편안내 자료	기타
전체	(1,342)	76.3	3.1	6.5	11.5	0.7	1.9	0.1

4)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 사업비나 예정이율을 정보 탐색 해본 경로로 '설계사'가 75.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포털 등 인터넷 검색'(10.7%), '비교공시 사이트' 및 '우편안내자료'(5.0%),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2.7%)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요약 표 47〉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금융기관 창구	비교 공시 사이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쇼핑 채널	보험회사 등 우편안내 자료
전체	(439)	75.6	2.7	5.0	10.7	0.9	5.0

5)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5.1%로 '모른다(대체로+전혀)'(44.9%)에 비해 10.2%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48〉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장내용 인지 정도				종합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2,464)	0.7	54.4	41.4	3.6	55.1	44.9

6)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약 및 보장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1.5%로 ‘모른다(대체로+전혀)’(48.5%)에 비해 3.0%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49〉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특약 보장내용 인지 정도				종합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2,464)	0.8	50.8	43.2	5.3	51.5	48.5

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1)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33.7%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높다’는 응답은 9.1%로 그침

〈요약 표 50〉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본인의 보험이해력 평가						종합결과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잘모르 겠다	높다	보통	낮다	잘모르 겠다
전체	(2,464)	0.2	8.9	55.8	27.0	6.7	1.4	9.1	55.8	33.7	1.4

2) 보험 설명 O/X

-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53.0%로 ‘X’(47.0%)에 비해 6.0%p 높게 나타남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83.8%로 ‘X’(16.2%)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71.5%로 ‘X’(28.5%)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39.1%로 ‘X’(60.9%)에 비해 21.8%p 낮게 나타남
-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48.1%로 ‘X’(51.9%)에 비해 3.8%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51〉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O/X

(단위: %)

보험내용	사례 수	O	X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2,464)	53.0	47.0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2,464)	83.8	16.2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464)	71.5	28.5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2,464)	39.1	60.9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2,464)	48.1	51.9

3)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29.1%로 ‘불확실하다’(22.6%)는 응답에 비해 6.5%p 높게 나타남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47.8%로 ‘불확실하다’(14.0%)는 응답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42.9%로 ‘불확실하다’(15.3%)는 응답에 비해 27.6%p 높았음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26.3%로 ‘불확실하다’(24.9%)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26.4%로 ‘불확실하다’(24.6%)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요약 표 52〉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단위: %)

보험내용	사례 수	확신 정도					종합결과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불확실	보통	확실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2,464)	5.0	17.7	48.3	26.9	2.2	22.6	48.3	29.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2,464)	3.0	11.0	38.1	37.9	10.0	14.0	38.1	47.8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464)	3.7	11.6	41.7	35.9	7.0	15.3	41.7	42.9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2,464)	4.5	20.4	48.8	24.0	2.3	24.9	48.8	26.3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2,464)	4.4	20.2	49.0	23.8	2.6	24.6	49.0	26.4

7. 보험 가입 및 판매 형태

가.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2%로 나타남

〈요약 표 53〉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8.2	91.8

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 결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서'가 44.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26.7%), '수익률(이자율)이 높아서'(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4〉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수익률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서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기타
전체	(202)	26.2	44.6	26.7	2.5

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는 ‘보험설계사’가 70.8%로 가장 많았고, ‘방카슈랑스’(21.3%), ‘인터넷 혹은 전화’(6.4%) 등의 순임

〈요약 표 55〉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인터넷 혹은 전화	기타
전체	(202)	70.8	21.3	6.4	1.5

라.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안내 받았다’는 응답이 32.7%로 ‘안내 받지 못했다’(19.8%)는 응답에 비해 12.9%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56〉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안내 받았다	안내 받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체	(202)	32.7	19.8	47.5

8.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가.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남

〈요약 표 57〉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해 보았다	가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가입은 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 시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전체	(2,464)	9.6	18.1	72.3

나.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상세한 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가 32.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가입과정이 복잡해서’(29.5%),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20.5%),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서’(18.0%)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58〉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해서	가입과정이 복잡해서	상세한 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서
전체	(682)	20.5	29.5	32.0	18.0

다.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가입 필요를 느낀 적이 없다’(19.7%), ‘온라인 보험 가입의 장점을 모르겠따’(15.9%), ‘온라인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5.9%)는 응답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요약 표 59〉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 가입 필요를 느낀 적이 없어서	온라인 보험이 있는 줄 몰라서	온라인 보험 가입의 장점을 모르겠어서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편리해서
전체	(1,782)	19.7	5.9	15.9	58.5

라.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을 살펴본 결과, ‘사람과 전화통화’가 55.9%로 가장 많았고, ‘자세한 설명서 제공’(24.7%), ‘인공지능과 음성 및 문자 대화’(10.6%), ‘사람과 문자(채팅) 대화’(8.8%)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요약 표 60〉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세한 설명서 제공	인공지능과 음성 및 문자 대화	사람과 문자(채팅) 대화	사람과 전화 통화
전체	(2,464)	24.7	10.6	8.8	55.9

9. 보험계약 전환 관련

가. 보험계약 전환 의향

1)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2.2%로 대부분 사망(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1〉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2.2	97.8

2)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41.5%로 '없다'(58.5%)에 비해 17.0%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62〉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53)	41.5	58.5

3)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26.4%로 나타남

〈요약 표 63〉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53)	26.4	73.6

4)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를 알아본 결과 '연금보험'이 78.6%, 이어서 '건강보험'이 21.4%로 나타남

〈요약 표 64〉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보험	건강보험
전체	(14)	78.6	21.4

나. 보험계약 전환 경험

1)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0%로 대부분 보험계약 전환 방식으로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5〉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64)	1.0	99.0

2)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10명 중 약 8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66〉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	87.5	12.5

3)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계약 전환에 관한 보험소비자의 질문 제기 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설명’이 66.7%, ‘계약 전환 후 계약내용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 33.3%로 나타남

〈요약 표 67〉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전환 전후 계약내용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계약 전환에 관한 질문 제기 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설명
전체	(3)	33.3	66.7

10. 사고예방 서비스

가.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관심있다’는 응답이 28.8%로 ‘관심없다’(71.2%)에 비해 약 3배 정도 낮게 나타남

〈요약 표 68〉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28.8	71.2

나.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련 개인건강정보 제공

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 보험회사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49.1%, ‘의향 없다’는 응답이 50.9%로 비슷하게 나타남

〈요약 표 69〉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709)	49.1	50.9

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실시간 혈압’(60.6%), ‘키, 체중’(59.2%), ‘정기 건강검진 시 혈액 검사 결과’(55.7%), ‘정기 건강검진 시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52.0%)는 반 이상이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직계 존속의 병력’(23.0%)은 상대적으로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70〉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시간 혈압	키, 체중	혈액 검사 결과	내시경 검사 결과	실시간 혈당	수면 시간 및 숙면 정도	하루 걸음 수
전체	(348)	60.6	59.2	55.7	52.0	49.7	43.1	42.0

특성별	사례 수	실시간 섭취 음식	하루 운동 시간 및 정도, 칼로리 소모	실시간 심박수	과거 본인의 병력	실시간 흡연 및 음주 여부 및 정도	직계 존속의 병력
전체	(348)	41.1	38.8	37.1	35.9	35.1	23.0

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본 결과,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원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46.8%)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반면, ‘불법유출, 불이익,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내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25.2%)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요약 표 7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회사가 건강 정보를 이용하여 원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의 건강정보가 제3자에게 불법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건강 정보를 이용하여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불법유출, 불이익,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내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전체	(361)	46.8	44.9	44.6	25.2

다.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련 비용 지불

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비용이 적당하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가 21.4%로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비용 지불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7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비용이 적당하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서비스 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싶지는 않다
전체	(709)	21.4	78.6

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 (복수응답)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험회사 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므로 내가 이에 대한 대

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음

〈요약 표 7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내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서비스가 매력적이지는 않다	보험회사 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므로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사고예방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대가를 보험회사가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체	(557)	46.5	49.7	35.7

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건강관리 서비스는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더 잘 할 것으로 보임'이 5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44.6%),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건강에 관여하는 것이 싫음'(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4〉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건강에 관여하는 것이 싫음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건강관리 서비스는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더 잘 할 것으로 보임	기타
전체	(1,755)	28.0	44.6	53.7	0.6

11. 자동차보험

가.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53.9%로 ‘아니다’(46.1%)에 비해 7.8%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75〉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53.9	46.1

나. 운전면허 취득 시기 및 자차 정보

1) 운전면허 취득 시기

- 직접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년 이상’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20년’(31.1%), ‘5~10년’(22.6%), ‘1~5년’(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6〉 운전면허 취득 시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1,329)	0.2	12.3	22.6	31.1	33.9

2) 보유 차량 연식

-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5~10년’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년’(42.4%), ‘10~20년’(8.8%), ‘1년 미만 신차’(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77〉 보유 차량 연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신차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모름
전체	(1,329)	3.0	42.4	45.1	8.8	0.4	0.2

3) 차종

- 보유하고 있는 차종은 '승용차'가 84.2%로 10명 중 약 8명 정도 차지했고, 이어서 승합차(12.3%), 화물차(3.5%) 순이었음

〈요약 표 78〉 차종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체	(1,329)	84.2	12.3	3.5

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관련

1)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 있다'는 응답이 12.4%로 10명 중 약 1명 정도가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79〉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29)	12.4	87.6

2)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횟수

-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고 횟수를 알아본 결과, 최근

3년간 겪은 평균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는 1.21회이고, '1회'가 82.4%로 가장 많았음

〈요약 표 80〉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평균(회)
전체	(165)	82.4	15.2	1.8	0.6	1.21

3)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7.6%로 10명 중 약 7명 정도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81〉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65)	77.6	22.4

4)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손실 보험 처리 횟수는 1.21회이고, '1회'가 82.0%로 가장 많았음

〈요약 표 82〉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평균(회)
전체	(128)	82.0	14.8	3.1	1.21

5)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만족'이 47.7%로 '불만족'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83〉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과실비율 산정 만족도					종합결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보통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28)	0.8	8.6	43.0	46.9	0.8	9.4	43.0	47.7

6)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55.5%로 '없다'(44.5%)에 비해 11.0%p 높게 나타남

〈요약 표 84〉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28)	55.5	44.5

7)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심있다'는 응답이 57.7%로 '관심

없다'(9.9%)는 응답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85〉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된 금액 관심도					종합결과		
		전혀 관심없다	별로 관심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관심 있다	매우 관심 많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체	(71)	0.0	9.9	32.4	49.3	8.5	9.9	32.4	57.7

8)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본 결과, '만족'이 42.3%로 '불만족'(21.1%)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86〉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된 금액 만족도					종합결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71)	1.4	19.7	36.6	36.6	5.6	21.1	36.6	42.3

9)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 하는지 여부

-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9.3%로 ‘그렇지 않다’(14.1%)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87〉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71)	1.4	12.7	36.6	46.5	2.8	14.1	36.6	49.3

라. 한방병원 이용 관련

1)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 평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는지 살펴본 결과, ‘이용한다’는 응답이 13.4%로 ‘이용하지 않는다’(54.5%)에 비해 41.1%p 낮게 나타남

〈요약 표 88〉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종합결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 이용한다	항상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음	보통임	이용함
전체	(2,464)	23.0	31.5	32.2	12.5	0.9	54.5	32.2	13.4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경험한 적이 있다’가 15.1%로 나타남

〈요약 표 89〉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통원	입원	입원+통원	내원 경험 없음
전체	(2,464)	13.4	0.5	1.2	85.0

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4.9%로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90〉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70)	24.9	75.1

주: BASE: 한방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4)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0.5%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1.9%)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요약 표 91〉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한방의료기관이 회복에 미친 영향					종합결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영향을 미친 편이다	절대 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영향을 미침
전체	(370)	1.9	10.0	47.6	39.7	0.8	11.9	47.6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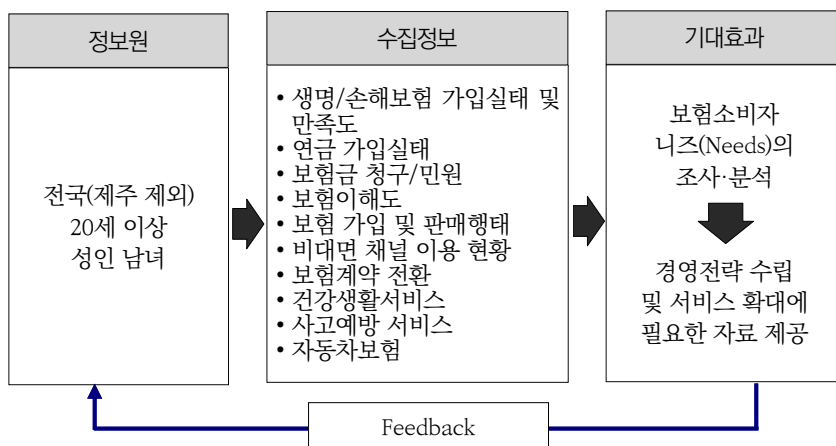
주: BASE: 한방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적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등을 조사함
 - 또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함
 - 주요 이슈로는 연금 가입실태, 보험금 청구, 민원/보험이해도, 보험 가입 및 판매행태,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 서비스, 자동차보험 등을 설문 내용에 포함함

〈그림 I-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제공서비스 만족도(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가입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생명/자동차보험)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연금 가입실태
 - 개인연금의 가입 여부/가입 상태/가입 기간/납입 방법/향후 수령 방법/가입 금융회사/가입 만족도/불만족 이유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개인형 IRP 가입 의향
 - 선호 연금 수령 방법(연금, 일시금)
-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경험/청구 서류 접수 방법
 - 보험금 청구 반송 또는 재접수 청구 경험/현장심사 경험 및 사전통보 여부
 - 진료의무기록 사본 제출 또는 열람 동의 요구받은 경험

■ 민원

- 보험계약 관련 민원제기 경험/경로/만족도
- 향후 보험계약 문의 시 선호 채널 및 이유

■ 보험이해도

- 가입 가입 전 정보탐색 여부 및 경로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 보험 가입 및 판매행태

- 목돈 형성을 위한 보험상품 가입 경험 및 이유

■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 컴퓨터 및 휴대폰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불편한 점/미가입 이유
- 컴퓨터 및 휴대폰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선호하는 도움 방법

■ 보험계약 전환

-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경험/의향/만족도

■ 건강생활서비스

- 규칙적 운동/식생활 습관 개선/금연/음주/스트레스 관리 여부
- 생활습관 변화 의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여부

■ 사고예방 서비스

- 보험회사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도/무관심 이유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공가능한 개인건강정보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지불 의향

■ 자동차보험

- 자동차 사고 경험/보험 처리 여부
- 과실비율 산정 결과 만족도
- 상대방측에게 지급된 비용 관심 여부 및 적정성
- 한방병원 이용 여부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총 2,464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안전부, 2019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0\%$

■ 조사기간

- 2019년 6월 3일 ~ 2019년 7월 22일(약 7주간)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1〉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464)	100.0
성별	남성	(1,224)	49.7
	여성	(1,240)	50.3
응답자 연령별	20대	(388)	15.7
	30대	(432)	17.5
	40대	(492)	20.0
	50대	(505)	20.5
	60대 이상	(647)	26.3
지역 규모별	대도시	(1,118)	45.4
	중·소도시	(1,010)	41.0
	군지역	(336)	13.6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678)	27.5
	블루칼라	(605)	24.6
	농/임/어업	(80)	3.2
	자영업	(478)	19.4
	주부	(482)	19.6
	은퇴자	(21)	0.9
	학생	(72)	2.9
	무직/기타	(47)	1.9
	모름/무응답	(1)	0.0
응답자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51)	6.1
	고졸	(1,131)	45.9
	대재 이상	(1,181)	47.9
	모름/무응답	(1)	0.0
가구연간 소득 수준별	저소득(3,000만 원 미만)	(516)	20.9
	중소득(3,000~6,000만 원 미만)	(1,180)	47.9
	고소득(6,000만 원 이상)	(768)	31.2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은퇴자 등과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결과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5. 구분 기준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임/어업: 농/임/어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국내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구 PCA생명), 하나생명(구 하나HSBC),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 (13개사)
 - 외국사: 동양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뉴욕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구 카디프생명, 구 SH&C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라이나생명(8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현대하이카다이렉트 포함),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4개사)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구 흥국쌍용화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ACE, CHUBB),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직판: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다음다 이렉트)(3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 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II.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가. 생명보험 가구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0.9%로 2018년(85.9%) 대비 5.0%p 감소했으며, 가구 가입건수는 2018년(3.7건) 대비 소폭 감소한 3.0건으로 조사됨

〈표 II-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구 가입률(%)	86.3	83.0	85.8	87.2	81.8	84.9	85.9	80.9
가구 가입건수(건)	3.8	3.6	4.0	3.5	3.4	4.0	3.7	3.0

〈그림 II-1〉 2019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n=2,464 / 단위: %, 건)



2) 세부 분석

- 세대주 직업별로 보면, 전년 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감소는 은퇴자(-22.6%p), 주부(-12.7%p), 자영업(-8.2%p), 그리고 화이트칼라(-6.7%)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 블루칼라의 경우는 다른 직업군과 달리 전년 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증가(1.9%p)함
- 가구소득으로 구분하면, 전년 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89.5	82.7	-6.7	4.3	3.3	-1.0
	블루칼라	78.3	80.2	1.9	2.9	2.7	-0.2
	농/임/어업	75.6	74.3	-1.2	3.2	2.4	-0.8
	자영업	90.5	82.2	-8.2	4.0	3.2	-0.8
	주부	76.7	64.0	-12.7	2.2	1.4	-0.8
	은퇴자	90.7	68.1	-22.6	3.7	2.5	-1.2
	무직/기타	63.4	73.2	9.8	2.6	2.6	0.0
가구 소득	저소득	72.9	73.1	0.2	1.9	2.1	0.2
	중소득	86.8	80.8	-5.9	3.8	3.0	-0.8
	고소득	94.2	86.3	-7.9	5.1	3.7	-1.4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거주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의 가구 가입률 감소폭이 컸음

- 특히, 군지역 생명보험 가입률은 2018년(87.7%) 대비 9.5%p 감소함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 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건)
지역 규모	대도시	86.1	83.5	-2.6	3.4	3.3	-0.1
	중·소도시	85.4	78.9	-6.5	3.9	3.0	-1.0
	군지역	87.7	78.3	-9.5	4.6	2.4	-2.3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질병보장보험의 가구 가입률이 6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33.3%), 사망보험(19.9%), 재해상해보험(15.5%), 저축성보험(10.5%), 연금보험(7.1%), 어린이보험(7.1%), 변액보험(6.9%), 간병보험(2.7%) 순으로 조사됨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도 질병보장보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2.1건), 재해상해보험(1.8건), 사망보험(1.6건), 어린이보험(1.5건), 간병보험(1.4건), 변액보험(1.2건), 연금보험(1.1건), 저축성보험(1.0건) 등으로 나타남
- 질병 및 생명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한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저축성보험 상품의 가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단위: %, 건)

구분	2019년 가구 가입률	2019년 가구 가입건수
실손의료보험	33.3	2.1
질병보장보험	61.0	2.2
재해상해보험	15.5	1.8
간병보험	2.7	1.4
사망보험	19.9	1.6
저축성보험	10.5	1.0
연금보험	7.1	1.1
어린이보험	7.1	1.5
변액보험	6.9	1.2
비가입	1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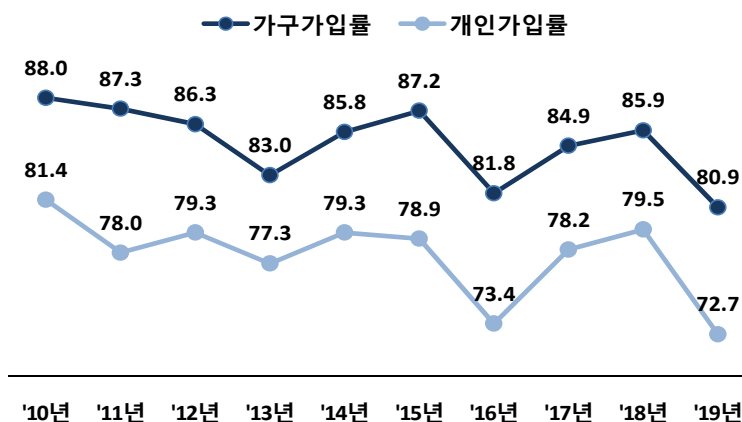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개인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2.7%로, 2018년(79.5%) 대비 6.8%p 감소함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2,464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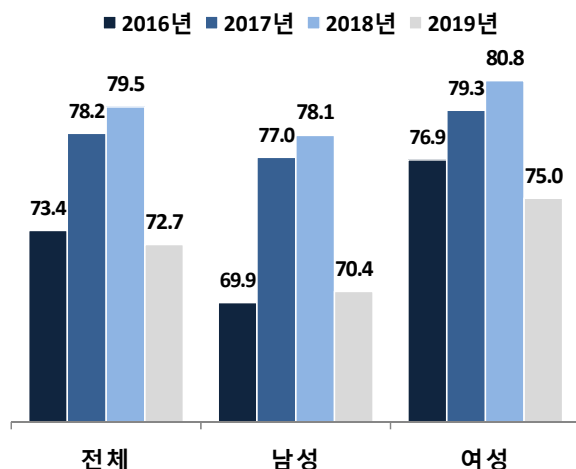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 성별에 따른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75.0%, 남성이 70.4%로, 여전히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 가입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전년(80.8%) 대비 5.8%p, 남성은 전년(78.1%) 대비 7.7%p 감소함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2,464 / 단위: %)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결혼 여부별

- 기혼자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기혼 76.0% > 미혼 62.1%)과 개인 가입건수(기혼 1.5건 > 미혼 1.0건)는 모두 미혼자에 비해 높았음
- 2018년 대비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미혼자 개인 가입률과 개인 가입건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함
 - 기혼자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7.6%p 감소하였으나, 미혼자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1.6%p 감소함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단위: %, 건)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건)
결혼 여부	기혼	83.6	76.0	-7.6	1.8	1.5	-0.2
	미혼	63.6	62.1	-1.6	1.1	1.0	-0.1

- 기혼 여성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8.0%로 기혼 남성(73.8%)에 비하여 4.2%p 높았고, 미혼 여성 개인 가입률은 63.4%로 미혼 남성(61.0%)에 비해 2.4%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73.8%, 78.0%)의 개인 가입률이 미혼자(각각 61.0%, 63.4%)의 개인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1.5건, 1.6건)의 개인 가입건수가 미혼자(각각 1.0건, 1.0건)보다 많았음

〈표 II-6〉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76.0	62.1	70.4		75.0	
			73.8	61.0	78.0	63.4
개인 가입건수(건)	1.5	1.0	1.4		1.5	
			1.5	1.0	1.6	1.0

주: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자녀 수별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7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70.3%로 자녀가 있는 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녀가 3명 이상인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19.3%p로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자녀가 2명 이하인 계층의 가입률은 감소함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가입률(%)	70.3	75.7	78.3	100.0
가입건수(건)	1.3	1.6	1.7	2.3
2018년 대비 가입률(%p)	-4.6	-6.0	-4.6	19.3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로는 50대(82.6%)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개인 가입건수도 역시 50대 및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40·50대 각각 1.7건)
- 전 연령대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58.5	73.1	79.7	82.6	68.0
가입건수(건)	0.9	1.5	1.7	1.7	1.2
2018년 대비 가입률(%p)	-5.3	-4.2	-4.6	-6.7	-11.3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76.7%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69.7%, 군지역 68.5%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대도시가 1.6건, 중·소도시 1.3건, 군지역 1.1건으로 나타남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대도시	76.7	1.6
중·소도시	69.7	1.3
군지역	68.5	1.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고졸 학력자(74.3%)에서 가장 높았고, 가입건수는 대재 이상 학력자(1.5건)에서 가장 높았음
- 중졸 이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56.3%로 고졸 학력자보다 18.0%p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 가입건수 역시 1.0건으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0.5건 적게 나타남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56.3	1.0
고졸	74.3	1.4
대재 이상	73.3	1.5
모름/무응답	100.0	6.0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자영업가 7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부(74.7%), 화이트칼라(74.6%), 블루칼라(7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는 자영업 및 화이트칼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부 및 블루칼라(1.4건), 농/임/어업(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74.6	1.5
블루칼라	72.2	1.4
농/임/어업	65.0	1.1
자영업	78.0	1.5
주부	74.7	1.4
은퇴자	42.9	0.8
학생	43.1	0.7
무직/기타	48.9	1.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 가입률(저소득 68.4% < 중소득 72.0% < 고소득 76.7%)과 개인 가입건수(저소득 1.2건 < 중소득 1.4건 < 고소득 1.5건)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건)
저소득	68.4	1.2
중소득	72.0	1.4
고소득	76.7	1.5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년 대비 가입률이 낮아졌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커졌음

〈표 II-1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p)
저소득	57.1	62.6	69.0	68.4	-0.6
중소득	76.4	79.4	79.8	72.0	-7.8
고소득	81.4	86.8	86.8	76.7	-10.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 가입률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28.8%), 사망보험(13.8%) 등의 순임
- 성별로 비교하면,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은 남자의 가입률이, 질병보장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여자의 가입률이 높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남자와 여자의 가입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사망 보험	재해 상해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변액 보험	어린이 보험	간병 보험	비가입
전체	(2,464)	52.8	28.8	13.8	11.0	9.4	4.6	3.9	3.1	1.7	27.3
성별	남성	(1,224)	49.5	28.1	14.7	10.8	9.3	4.7	4.9	2.0	29.6
	여성	(1,240)	56.1	29.4	12.9	11.1	9.5	4.6	2.9	4.2	25.0
연령	20대	(388)	35.8	27.8	7.0	7.0	4.1	2.1	1.5	0.3	41.5
	30대	(432)	48.1	34.5	11.6	10.0	11.6	3.9	4.6	9.0	26.9
	40대	(492)	57.1	30.7	17.5	12.8	14.0	7.3	5.7	7.3	20.3
	50대	(505)	65.7	28.9	19.2	13.3	10.9	8.5	5.9	0.0	2.6
	60대 이상	(647)	52.9	24.0	12.4	10.8	6.5	1.5	1.9	0.0	3.6
지역 규모	대도시	(1,118)	55.7	35.4	14.3	9.3	11.5	5.5	5.1	3.8	1.4
	중·소도시	(1,010)	53.1	24.5	12.9	13.1	8.0	4.6	2.8	2.6	2.2
	군지역	(336)	42.6	19.6	14.9	10.1	6.5	2.1	3.3	2.4	1.2
직업	화이트칼라	(678)	48.8	33.5	16.8	11.2	12.5	5.2	5.6	3.7	1.3
	블루칼라	(605)	51.1	30.2	13.1	11.7	8.9	4.6	3.3	1.8	1.7
	농/임/어업	(80)	57.5	7.5	10.0	17.5	6.3	1.3	1.3	1.3	35.0
	자영업	(478)	61.7	27.0	14.4	11.3	10.0	6.7	6.7	1.9	1.3
	주부	(482)	56.8	28.4	12.0	9.3	7.5	3.7	0.8	6.2	1.7
	은퇴자	(21)	33.3	14.3	9.5	9.5	0.0	0.0	0.0	0.0	14.3
	학생	(72)	29.2	25.0	1.4	4.2	2.8	0.0	1.4	0.0	56.9
	무직/기타	(47)	40.4	12.8	17.0	10.6	4.3	0.0	0.0	0.0	10.6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7.0	21.2	7.9	10.6	4.0	0.0	1.3	0.0	3.3
	고졸	(1,131)	56.5	27.9	13.4	11.4	9.0	3.8	2.9	2.2	2.5
	대재 이상	(1,181)	50.0	30.5	15.0	10.6	10.4	6.0	5.2	4.2	0.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10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54.8	26.0	6.8	10.1	5.0	3.5	2.5	1.7	1.9
	중소득	(1,180)	52.7	30.4	11.2	10.8	9.9	4.8	4.1	4.1	1.8
	고소득	(768)	51.7	28.1	22.5	11.7	11.6	5.1	4.6	2.5	1.4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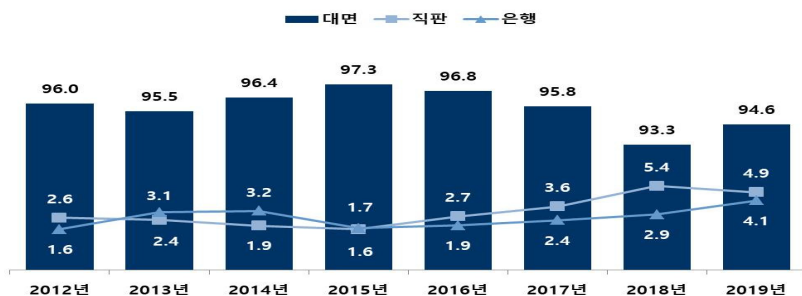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94.6%),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이 전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직판을 통한 가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은행을 통한 가입은 4.1%로 증가 추세를 유지함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n=2,464 / 단위: %)



〈표 II-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면	96.0	95.5	96.4	97.3	96.8	95.8	93.3	94.6
직판	2.6	2.4	1.9	1.6	2.7	3.6	5.4	4.9
은행	1.6	3.1	3.2	1.7	1.9	2.4	2.9	4.1
기타	-	-	-	-	2.0	2.8	3.2	3.1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 구분은 〈I. 조사의 개요〉를 참고바람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응답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4.2	95.1
직판	5.5	4.3
은행	3.9	4.3
기타	2.7	3.5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았음
- 20대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87.2%)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낮음
- 한편,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각각 13.2%, 9.5%)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7.2	93.4	95.7	97.4	95.9
직판	13.2	9.5	3.8	1.7	1.1
은행	2.2	6.0	5.1	3.1	3.9
기타	3.5	3.5	2.8	2.6	3.4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 지역에 걸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도시	대면	96.8	96.2	95.8	96.9	96.7	94.6	91.1	94.8
	직판	2.1	2.7	1.8	0.9	2.3	3.4	6.8	6.3
	은행	1.7	2.9	3.3	1.9	2.3	2.8	3.5	2.7
	기타	-	-	-	-	1.6	2.7	4.2	3.5
중·소도시	대면	94.8	94.8	97.1	97.7	97.5	97.2	95.5	94.0
	직판	3.2	2.0	2.4	2.5	2.8	4.0	4.6	3.6
	은행	1.5	2.9	1.9	1.1	0.8	1.9	1.8	6.5
	기타	-	-	-	-	2.5	3.0	2.6	3.1
군지역	대면	97.4	94.6	96.1	96.4	92.2	95.3	91.9	96.1
	직판	2.6	2.7	0.0	0.0	5.9	2.3	1.6	3.5
	은행	1.3	5.4	9.2	3.6	7.8	2.3	6.5	2.2
	기타	-	-	-	-	2.0	2.3	1.6	1.7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의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임
-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은행(9.6%)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복수응답)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임/어업	자영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92.5	92.9	96.2	97.6	96.7	100.0	93.5	91.3
직판	7.7	7.3	0.0	2.7	1.4	0.0	3.2	0.0
은행	6.5	3.2	9.6	1.9	3.6	0.0	3.2	4.3
기타	3.4	5.0	0.0	2.1	2.2	0.0	0.0	4.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모든 학력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중졸 이하 계층에서는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이 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대재 이상 계층에서는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6.9%로 특히 높음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88.2	96.4	93.5
직판	3.5	2.9	6.9
은행	8.2	2.7	5.1
기타	5.9	2.7	3.2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이용하는 비율이 90% 이상임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5.5	93.4	95.9
직판	3.1	5.9	4.4
은행	3.4	4.5	4.1
기타	1.7	4.1	2.5

나.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대부분의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저축성보험은 다른 종목에 비해 은행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실손의료보험	92.2	4.5	1.3	2.0
질병보장보험	92.5	3.1	1.8	2.5
재해상해보험	88.9	4.4	3.3	3.3
간병보험	92.9	-	4.8	2.4
사망보험	98.2	0.3	0.6	0.9
저축성보험	75.0	5.6	15.9	3.4
연금보험	91.2	3.5	1.8	3.5
어린이보험	92.1	3.9	1.3	2.6
변액보험	92.7	2.1	2.1	3.1

2) 세부 분석

■ 실손의료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실손의료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2%로 가장 높고, 직판은 4.5%, 은행 채널을 통한 가입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았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40대 이상에서보다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군지역(93.9%), 대도시(93.4%), 중·소도시(89.9%) 순으로 나타남
-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 II-23〉 실손의료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709)	92.2	4.5	1.3	2.0
성별	남성	(344)	91.0	4.9	1.7	2.3
	여성	(365)	93.4	4.1	0.8	1.6
연령	20대	(108)	81.5	13.9	1.9	2.8
	30대	(149)	87.9	8.7	1.3	2.0
	40대	(151)	96.0	2.0	0.7	1.3
	50대	(146)	95.2	0.7	2.1	2.1
	60대 이상	(155)	97.4	0.0	0.6	1.9
지역규모	대도시	(396)	93.4	4.8	0.3	1.5
	중·소도시	(247)	89.9	3.6	3.2	3.2
	군지역	(66)	93.9	6.1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27)	89.0	7.0	1.8	2.2
	블루칼라	(183)	89.1	7.1	1.6	2.2
	농/임/어업	(6)	100.0	0.0	0.0	0.0
	자영업	(129)	96.9	1.6	0.0	1.6
	주부	(137)	96.4	0.7	0.7	2.2
	은퇴자	(3)	100.0	0.0	0.0	0.0
	학생	(18)	94.4	0.0	5.6	0.0
	무직/기타	(6)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	96.9	0.0	0.0	3.1
	고졸	(316)	95.3	2.8	0.3	1.6
	대재 이상	(360)	89.2	6.4	2.2	2.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4)	94.8	4.5	0.0	0.7
	중소득	(359)	91.4	5.0	1.1	2.5
	고소득	(216)	92.1	3.7	2.3	1.9

주: 은퇴자와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질병보장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질병보장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5%로 가장 높고, 직판은 3.1%, 은행 채널을 통한 가입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84.9%)가 타 연령 대비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 채널(10.8%)을 통한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군지역(95.1%), 중·소도시(93.3%), 대도시(91.2.%) 순으로 나타남
- 자영업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96.3%로 높았음
- 가구 소득별로는 저소득 계층(95.1%)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질병보장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4〉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302)	92.5	3.1	1.8	2.5
성별	남성	(606)	93.1	3.0	1.7	2.3
	여성	(696)	92.0	3.3	2.0	2.7
연령	20대	(139)	84.9	10.8	0.7	3.6
	30대	(208)	87.5	5.8	2.9	3.8
	40대	(281)	93.6	2.5	1.8	2.1
	50대	(332)	95.2	1.5	1.5	1.8
	60대 이상	(342)	95.0	0.6	2.0	2.3
지역규모	대도시	(623)	91.2	4.5	1.1	3.2
	중·소도시	(536)	93.3	1.9	3.0	1.9
	군지역	(143)	95.1	2.1	0.7	2.1
직업	화이트칼라	(331)	89.1	5.1	3.0	2.7
	블루칼라	(309)	89.3	5.5	1.0	4.2
	농/임/어업	(46)	93.5	0.0	6.5	0.0
	자영업	(295)	96.3	1.7	1.0	1.0
	주부	(274)	95.6	0.4	1.5	2.6
	은퇴자	(7)	100.0	0.0	0.0	0.0
	학생	(21)	95.2	4.8	0.0	0.0
	무직/기타	(19)	89.5	0.0	5.3	5.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1)	87.3	2.8	7.0	2.8
	고졸	(639)	95.0	1.7	1.1	2.2
	대재 이상	(591)	90.4	4.7	2.0	2.9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83)	95.1	1.4	2.5	1.1
	중소득	(622)	91.5	3.4	1.9	3.2
	고소득	(397)	92.2	4.0	1.3	2.5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재해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재해상해보험은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88.9%, 직판채널은 4.4%, 은행채널은 3.3%로 조사됨

〈표 II-25〉 재해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270)	88.9	4.4	3.3	3.3
성별	남성	(132)	87.9	5.3	4.5	2.3
	여성	(138)	89.9	3.6	2.2	4.3
연령	20대	(27)	77.8	18.5	0.0	3.7
	30대	(43)	76.7	11.6	7.0	4.7
	40대	(63)	88.9	3.2	4.8	3.2
	50대	(67)	100.0	0.0	0.0	0.0
	60대 이상	(70)	90.0	0.0	4.3	5.7
지역규모	대도시	(104)	87.5	5.8	2.9	3.8
	중·소도시	(132)	87.9	4.5	4.5	3.0
	군지역	(34)	97.1	0.0	0.0	2.9
직업	화이트칼라	(76)	85.5	5.3	5.3	3.9
	블루칼라	(71)	87.3	8.5	0.0	4.2
	농/임/어업	(14)	100.0	0.0	0.0	0.0
	자영업	(54)	87.0	3.7	5.6	3.7
	주부	(45)	95.6	0.0	2.2	2.2
	은퇴자	(2)	100.0	0.0	0.0	0.0
	학생	(3)	100.0	0.0	0.0	0.0
	무직/기타	(5)	80.0	0.0	2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81.3	0.0	0.0	18.8
	고졸	(129)	93.0	3.1	2.3	1.6
	대재 이상	(125)	85.6	6.4	4.8	3.2
가구 소득	저소득	(52)	84.6	5.8	3.8	5.8
	중소득	(128)	90.6	3.1	2.3	3.9
	고소득	(90)	88.9	5.6	4.4	1.1

주: 은퇴자와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간병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간병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9%로 가장 높고, 은행채널은 4.8%임
- 대면채널을 통한 간병보험 가입은 남성(100.0%)이 여성(86.4%)보다 높으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함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간병보험 가입이 군지역(100.0%), 대도시(93.8%), 중·소도시(90.9%) 순으로 나타남

〈표 II-26〉 간병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은행	기타
전체		(42)	92.9	4.8	2.4
성별	남성	(20)	100.0	0.0	0.0
	여성	(22)	86.4	9.1	4.5
연령	20대	(2)	100.0	0.0	0.0
	30대	(1)	100.0	0.0	0.0
	40대	(3)	100.0	0.0	0.0
	50대	(13)	100.0	0.0	0.0
	60대 이상	(23)	87.0	8.7	4.3
지역규모	대도시	(16)	93.8	6.3	0.0
	중·소도시	(22)	90.9	4.5	4.5
	군지역	(4)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9)	100.0	0.0	0.0
	블루칼라	(10)	100.0	0.0	0.0
	농/임/어업	(1)	0.0	100.0	0.0
	자영업	(6)	83.3	0.0	16.7
	주부	(8)	87.5	12.5	0.0
	은퇴자	(3)	100.0	0.0	0.0
	무직/기타	(5)	10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60.0	20.0	20.0
	고졸	(28)	96.4	3.6	0.0
	대재 이상	(9)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90.0	0.0	10.0
	중소득	(21)	90.5	9.5	0.0
	고소득	(11)	100.0	0.0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사망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8.2%로 가장 높고, 은행은 0.6%, 직판은 0.3%로 나타남
- 교육 수준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험 가입이 대재 이상(98.9%), 고졸(98.0%), 중졸 이하(91.7%) 순으로 나타남

〈표 II-27〉 사망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340)	98.2	0.3	0.6	0.9
성별	남성	(180)	98.9	0.6	0.0	0.6
	여성	(160)	97.5	0.0	1.3	1.3
연령	20대	(27)	96.3	3.7	0.0	0.0
	30대	(50)	98.0	0.0	0.0	2.0
	40대	(86)	100.0	0.0	0.0	0.0
	50대	(97)	96.9	0.0	1.0	2.1
	60대 이상	(80)	98.8	0.0	1.3	0.0
지역규모	대도시	(160)	99.4	0.0	0.0	0.6
	중·소도시	(130)	96.9	0.0	1.5	1.5
	군지역	(50)	98.0	2.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14)	99.1	0.9	0.0	0.0
	블루칼라	(79)	98.7	0.0	0.0	1.3
	농/임/어업	(8)	75.0	0.0	25.0	0.0
	자영업	(69)	98.6	0.0	0.0	1.4
	주부	(58)	98.3	0.0	0.0	1.7
	은퇴자	(2)	100.0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무직/기타	(8)	100.0	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	91.7	0.0	8.3	0.0
	고졸	(151)	98.0	0.0	0.7	1.3
	대재 이상	(177)	98.9	0.6	0.0	0.6
자영업	저소득	(35)	100.0	0.0	0.0	0.0
	중소득	(132)	96.2	0.8	0.8	2.3
	고소득	(173)	99.4	0.0	0.6	0.0

주: 은퇴자와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저축성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75.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직판채널(15.9%), 은행(5.6%)임
- 여성(76.3%)이 남성(73.7%)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약간 높음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은 대도시(82.2%), 군지역(77.3%), 중·소도시(63.0%) 순으로 나타남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직판	기타
전체		(232)	75.0	5.6	15.9	3.4
성별	남성	(114)	73.7	7.9	16.7	1.8
	여성	(118)	76.3	3.4	15.3	5.1
연령	20대	(16)	75.0	12.5	12.5	0.0
	30대	(50)	70.0	8.0	20.0	2.0
	40대	(69)	71.0	4.3	20.3	4.3
	50대	(55)	83.6	1.8	10.9	3.6
	60대 이상	(42)	76.2	7.1	11.9	4.8
지역규모	대도시	(129)	82.2	5.4	10.1	2.3
	중소도시	(81)	63.0	6.2	24.7	6.2
	군지역	(22)	77.3	4.5	18.2	0.0
직업	화이트칼라	(85)	65.9	7.1	24.7	2.4
	블루칼라	(54)	68.5	9.3	14.8	7.4
	농/임/어업	(5)	80.0	0.0	20.0	0.0
	자영업	(48)	93.8	2.1	2.1	2.1
	주부	(36)	77.8	2.8	16.7	2.8
	학생	(2)	100.0	0.0	0.0	0.0
	무직/기타	(2)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66.7	16.7	16.7	0.0
	고졸	(102)	81.4	2.9	11.8	3.9
	대재 이상	(123)	69.9	7.3	19.5	3.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6)	76.9	7.7	15.4	0.0
	중소득	(117)	72.6	6.0	16.2	5.1
	고소득	(89)	77.5	4.5	15.7	2.2

주: 농/임/어업과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연금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연금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1.2%로 가장 높고, 은행은 3.5%,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8%로 나타남
- 20대의 경우 은행을 통한 연금보험 가입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9〉 연금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은행	직판	기타
전체		(114)	91.2	3.5	1.8	3.5
성별	남성	(57)	91.2	5.3	3.5	0.0
	여성	(57)	91.2	1.8	0.0	7.0
연령	20대	(8)	75.0	25.0	0.0	0.0
	30대	(17)	94.1	0.0	0.0	5.9
	40대	(36)	88.9	5.6	2.8	2.8
	50대	(43)	95.3	0.0	2.3	2.3
	60대 이상	(10)	90.0	0.0	0.0	10.0
지역규모	대도시	(61)	95.1	4.9	0.0	0.0
	중·소도시	(46)	87.0	0.0	4.3	8.7
	군지역	(7)	85.7	14.3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5)	82.9	8.6	5.7	2.9
	블루칼라	(28)	89.3	3.6	0.0	7.1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자영업	(32)	96.9	0.0	0.0	3.1
	주부	(18)	100.0	0.0	0.0	0.0
교육 수준	고졸	(43)	95.3	0.0	0.0	4.7
	대재 이상	(71)	88.7	5.6	2.8	2.8
가구 소득	저소득	(18)	94.4	0.0	0.0	5.6
	중소득	(57)	91.2	5.3	1.8	1.8
	고소득	(39)	89.7	2.6	2.6	5.1

주: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어린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어린이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이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95.8%)이 여성(90.4%)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높음
-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높음

〈표 II-30〉 어린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76)	92.1	3.9	1.3	2.6
성별	남성	(24)	95.8	4.2	0.0	0.0
	여성	(52)	90.4	3.8	1.9	3.8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30대	(39)	92.3	2.6	2.6	2.6
	40대	(36)	91.7	5.6	0.0	2.8
지역규모	대도시	(42)	88.1	7.1	2.4	2.4
	중·소도시	(26)	96.2	0.0	0.0	3.8
	군지역	(8)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5)	92.0	4.0	0.0	4.0
	블루칼라	(11)	100.0	0.0	0.0	0.0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자영업	(9)	100.0	0.0	0.0	0.0
	주부	(30)	86.7	6.7	3.3	3.3
교육 수준	고졸	(25)	100.0	0.0	0.0	0.0
	대재 이상	(50)	88.0	6.0	2.0	4.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	88.9	11.1	0.0	0.0
	중소득	(48)	95.8	2.1	0.0	2.1
	고소득	(19)	84.2	5.3	5.3	5.3

주: 20대와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변액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변액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이 92.7%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두 2.1%로 나타남

〈표 II-31〉 변액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96)	92.7	2.1	2.1	3.1
성별	남성	(60)	93.3	1.7	0.0	5.0
	여성	(36)	91.7	2.8	5.6	0.0
연령	20대	(6)	66.7	16.7	0.0	16.7
	30대	(20)	80.0	0.0	10.0	10.0
	40대	(28)	100.0	0.0	0.0	0.0
	50대	(30)	96.7	3.3	0.0	0.0
	60대 이상	(12)	100.0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57)	94.7	1.8	0.0	3.5
	중·소도시	(28)	92.9	0.0	3.6	3.6
	군지역	(11)	81.8	9.1	9.1	0.0
직업	화이트칼라	(38)	86.8	2.6	2.6	7.9
	블루칼라	(20)	95.0	0.0	5.0	0.0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자영업	(32)	96.9	3.1	0.0	0.0
	주부	(4)	100.0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0.0	0.0
	고졸	(33)	97.0	3.0	0.0	0.0
	대재 이상	(61)	90.2	1.6	3.3	4.9
가구 소득	저소득	(13)	84.6	0.0	7.7	7.7
	중소득	(48)	89.6	4.2	2.1	4.2
	고소득	(35)	100.0	0.0	0.0	0.0

다.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현재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94.6%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이 4.9%, 은행은 4.1%로 나타남
- 향후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6.8%로 가장 높았으나,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도 14.7%로 나타남

〈표 II-3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4.6	76.8
직판	4.9	14.7
은행	4.1	9.9
기타	3.1	6.5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남성과 여성 모두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선호 채널로 대면채널을 가장 많이 꼽음

〈표 II-3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73.7	79.7
직판	18.3	11.4
은행	9.8	10.0
기타	7.1	5.9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60대 이상이 87.9%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69.9%로 가장 낮았음
- 한편, 20대와 30대의 직판채널 선호도가 각각 28.1%와 21.0%로 향후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69.9	28.1	9.8	3.9
30대	70.1	21.0	9.6	7.6
40대	77.6	13.5	9.6	8.3
50대	81.8	6.4	10.9	6.4
60대 이상	87.9	0.0	9.8	6.1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은행을 통한 가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81.1	14.5	4.9	5.2
중·소도시	70.3	15.6	16.3	9.4
군지역	80.7	12.5	9.1	2.3

주: 군지역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대부분의 직업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학생(26.3%)에서,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농/임/어업(1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임/어업	자영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대면	70.1	76.1	80.0	83.2	85.2	100.0	73.7	70.0
직판	19.0	16.9	6.7	8.9	5.5	0.0	26.3	40.0
은행	10.4	11.4	13.3	7.9	8.6	0.0	10.5	0.0
기타	8.7	6.5	0.0	5.0	5.5	0.0	5.3	0.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대재 이상의 경우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으며,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중졸 이하	72.7	0.0	27.3	6.1
고졸	83.7	8.3	10.4	4.8
대재 이상	72.0	20.7	8.0	7.8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구매채널로 향후 대면채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은행을 통한 구매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실손의료보험	67.3	21.4	6.9	4.4
질병보장보험	72.1	17.8	5.3	4.8
재해상해보험	66.3	20.0	6.3	7.4
간병보험	83.2	4.6	5.8	6.4
사망보험	81.9	4.2	8.3	6.9
저축성보험	50.0	13.6	31.8	4.5
연금보험	66.7	19.4	8.6	5.4
어린이보험	72.7	21.2	6.1	-
변액보험	76.8	8.9	10.7	5.4

주: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저축성보험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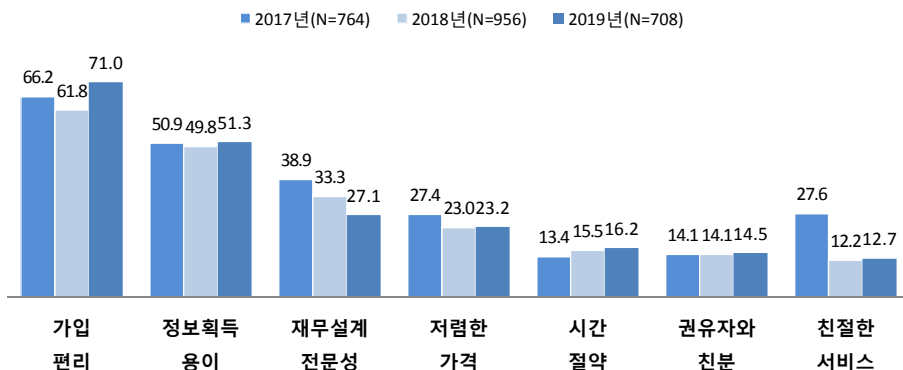
라.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채널별 선호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71.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51.3%), 재무설계 전문성(27.1%)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5〉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시 종목별 채널 선호 이유

- 대부분 생명보험 종목에서 가입 시 가입 편리성을 향후 채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어서 정보획득용이, 저렴한 가격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한편, 사망보험의 경우 정보획득의 용이성(66.7%)이 가장 높음

〈표 II-39〉 향후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가격	권유자 친분	친절한 보험 설계사	시간 절약	재무 설계 전문성	좋은 보험 서비스
실손의료보험	77.4	37.7	30.2	15.7	15.1	9.4	8.2	6.3
질병보장보험	65.9	47.1	26.9	13.0	10.1	12.0	18.3	6.3
재해상해보험	71.6	38.9	32.6	11.6	10.5	6.3	15.8	12.6
간병보험	67.6	44.5	17.3	12.7	13.9	13.3	21.4	8.7
사망보험	61.1	66.7	8.3	11.1	5.6	15.3	25.0	9.7
저축성보험	58.0	45.5	11.4	11.4	5.7	17.0	40.9	9.1
연금보험	48.4	40.9	16.1	4.3	6.5	16.1	41.9	24.7
어린이보험	57.6	42.4	30.3	15.2	21.2	12.1	18.2	3.0
변액보험	60.7	42.9	17.9	17.9	7.1	19.6	37.5	12.5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모든 생명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 가입 의향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병보험(7.0%), 실손의료보험(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40〉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실손의료보험	28.8	93.5	6.5
질병보장보험	52.8	91.6	8.4
재해상해보험	11.0	96.1	3.9
간병보험	1.7	93.0	7.0
사망보험	13.8	98.4	1.6
저축성보험	9.4	96.4	3.6
연금보험	4.6	96.2	3.8
어린이보험	3.1	98.7	1.3
변액보험	3.9	99.4	0.6

나.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남성(8.5%)과 여성(8.4%)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남성(6.7%)과 여성(6.2%)이 비슷하게 나타남
- 질병보장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그리고 사망보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질병보장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20대 향후 가입 의향은 10% 이상으로 나타남
 - 20대의 향후 1년 내 질병보장보험 가입 의향은 14.7%로 상대적으로 높음
- 화이트칼라의 경우 질병보장보험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으로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가입 의향이 저소득층보다 높으나 간병보험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41〉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질병 보장보험	간병보험	실손 의료보험	재해 상해보험	연금보험
전체		(2464)	8.4	7.0	6.5	3.9	3.8
성별	남성	(1224)	8.5	5.4	6.7	4.2	3.8
	여성	(1240)	8.4	8.6	6.2	3.5	3.7
연령	20대	(388)	14.7	1.0	11.3	6.7	5.7
	30대	(432)	10.6	3.2	5.8	4.6	8.1
	40대	(492)	10.4	6.1	7.1	4.7	4.7
	50대	(505)	5.7	9.1	5.1	3.0	2.2
	60대 이상	(647)	3.9	12.2	4.5	1.7	0.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8.1	7.8	5.3	3.8	3.8
	중·소도시	(1010)	9.6	6.5	7.7	3.6	4.2
	군지역	(336)	6.3	6.0	6.5	5.1	2.4
직업	화이트칼라	(678)	10.6	5.5	6.5	5.2	6.3
	블루칼라	(605)	11.2	7.8	8.1	4.5	4.0
	농/임/어업	(80)	7.5	6.3	7.5	1.3	0.0
	자영업	(478)	4.2	6.5	5.0	3.1	3.1
	주부	(482)	5.8	9.5	5.2	2.5	2.1
	은퇴자	(21)	0.0	14.3	0.0	0.0	0.0
	학생	(72)	13.9	0.0	6.9	4.2	0.0
	무직/기타	(47)	8.5	8.5	12.8	4.3	2.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2.6	16.6	3.3	0.7	0.0
	고졸	(1131)	7.5	8.5	5.7	3.4	2.4
	대재 이상	(1181)	10.1	4.4	7.6	4.7	5.6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7.4	9.9	6.0	3.7	2.7
	중소득	(1180)	8.8	5.9	7.2	3.7	4.2
	고소득	(768)	8.6	6.8	5.6	4.2	3.8

〈표 II-41〉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저축성보험	사망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
전체		(2,464)	3.6	1.6	1.3	0.6
성별	남성	(1,224)	3.2	1.8	0.9	0.5
	여성	(1,240)	4.0	1.3	1.8	0.7
연령	20대	(388)	9.5	3.1	0.8	1.2
	30대	(432)	6.0	2.5	4.4	1.4
	40대	(492)	2.6	1.9	2.2	0.7
	50대	(505)	2.0	0.6	0.0	0.3
	60대 이상	(647)	0.3	0.5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118)	3.0	1.6	1.9	0.8
	중·소도시	(1,010)	4.4	1.7	1.0	0.3
	군지역	(336)	3.3	1.0	0.6	0.9
직업	화이트칼라	(678)	5.6	2.3	1.9	0.8
	블루칼라	(605)	3.5	1.9	1.0	0.6
	농/임/어업	(80)	0.0	0.0	0.0	0.0
	자영업	(478)	1.3	0.8	0.6	0.4
	주부	(482)	3.5	1.1	2.3	0.9
	은퇴자	(21)	0.0	0.0	0.0	0.0
	학생	(72)	8.3	2.8	0.0	1.0
	무직/기타	(47)	0.0	0.0	0.0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0.0	1.0	0.0	0.0
	고졸	(1,131)	2.4	0.9	0.8	0.6
	대재 이상	(1,181)	5.2	2.2	2.0	0.8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5	0.9	0.6	0.3
	중소득	(1,180)	4.2	1.4	1.4	0.8
	고소득	(768)	3.4	2.3	1.7	0.7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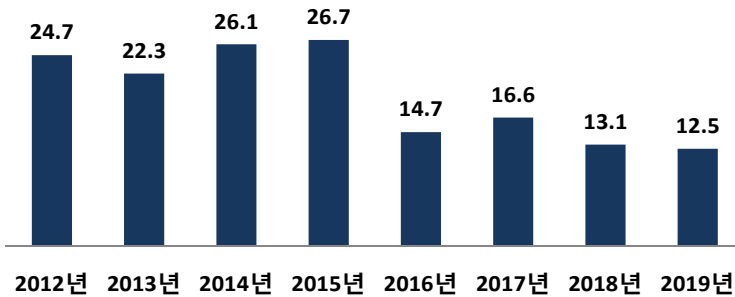
가. 생명보험 보상 경험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 가구 중 12.5%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었음

〈그림 II-6〉 생명보험 보상 경험

(생명보험 가입가구 대비 / 단위: %)



- 생명보험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4.6건, 평균 보상액수는 848,474원이었음

〈표 II-42〉 생명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309)	4.6	848,474.1
실손의료보험	(255)	5.0	392,909.0
중증질병	(11)	2.0	13,283,881.8
일반질병	(25)	2.2	249,120.0
성인병	(3)	9.0	200,000.0
재해(상해)	(12)	1.0	417,916.7
교통사고	(3)	1.0	250,333.3
자녀에 대한 보상	(14)	2.0	233,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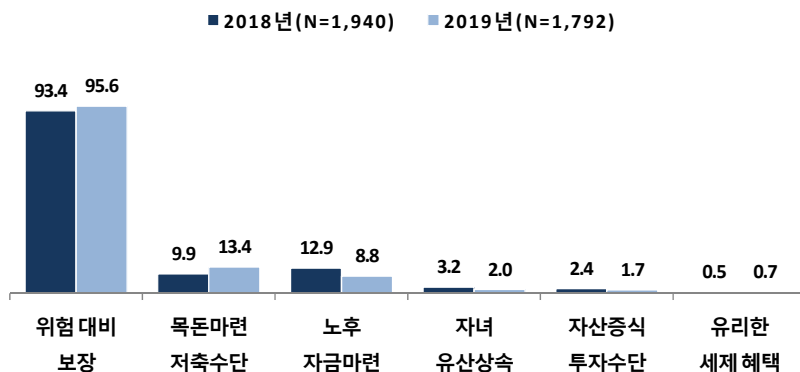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95.6%)을 생명보험 가입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목돈 마련 저축수단(13.4%), 노후자금 마련(8.8%) 등의 순이었음
- 유산상속, 자산증식, 세제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음

〈그림 II-7〉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보험종목별 가입 이유

- 실손의료보험(99.0%), 질병보장보험(97.2%), 재해상해보험(97.0%), 간병보험(95.2%), 어린이보험(92.1%), 사망보험(80.3%), 변액보험(30.2%)의 경우 위험보장을 가입 이유로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연금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66.7%)을 가장 많이 들었고,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목돈 마련(84.1%)을 가입 이유로 꼽음

〈표 II-43〉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자산 증식	목돈 마련	노후 자금	세제 혜택	유산 상속	기타
실손의료보험	99.0	0.4	0.3	-	0.1	-	0.1
질병보장보험	97.2	0.4	1.2	0.5	0.3	0.2	0.1
재해상해보험	97.0	0.4	0.7	0.7	-	1.1	-
간병보험	95.2	-	-	2.4	-	-	2.4
사망보험	80.3	0.6	1.5	10.9	0.3	6.5	-
저축성보험	6.0	3.4	84.1	6.0	0.4	-	-
연금보험	15.8	4.4	11.4	66.7	0.9	0.9	-
어린이보험	92.1	-	5.3	-	-	2.6	-
변액보험	30.2	9.4	27.1	25.0	4.2	5.2	-

2) 세부 분석

■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 연령, 지역규모 등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음

〈표 II-44〉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기타
전체		(709)	99.0	0.4	0.3	0.1	0.1
성별	남성	(344)	99.1	0.0	0.6	0.0	0.3
	여성	(365)	98.9	0.8	0.0	0.3	0.0
연령	20대	(108)	98.1	0.0	0.9	0.0	0.9
	30대	(149)	98.7	0.7	0.0	0.7	0.0
	40대	(151)	100.0	0.0	0.0	0.0	0.0
	50대	(146)	100.0	0.0	0.0	0.0	0.0
	60대 이상	(155)	98.1	1.3	0.6	0.0	0.0
지역 규모	대도시	(396)	99.7	0.3	0.0	0.0	0.0
	중·소도시	(247)	97.6	0.8	0.8	0.4	0.4
	군지역	(66)	100.0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27)	99.1	0.0	0.4	0.4	0.0
	블루칼라	(183)	99.5	0.0	0.5	0.0	0.0
	농/임/어업	(6)	100.0	0.0	0.0	0.0	0.0
	자영업	(129)	97.7	2.3	0.0	0.0	0.0
	주부	(137)	100.0	0.0	0.0	0.0	0.0
	은퇴자	(3)	100.0	0.0	0.0	0.0	0.0
	학생	(18)	94.4	0.0	0.0	0.0	5.6
	무직/기타	(6)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2)	96.9	3.1	0.0	0.0	0.0
	고졸	(316)	99.4	0.3	0.0	0.0	0.3
	대재 이상	(360)	98.9	0.3	0.6	0.3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4)	99.3	0.7	0.0	0.0	0.0
	중소득	(359)	99.2	0.3	0.0	0.3	0.3
	고소득	(216)	98.6	0.5	0.9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성별, 연령, 지역규모 등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음

〈표 II-45〉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수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	노후 자금 마련	타 금융 상품과 비교 하여 유리한 세제 혜택	자녀 에게 유산 상속 목적	기타
전체		(1,302)	97.2	1.2	0.5	0.5	0.4	0.3	0.2
성별	남성	(606)	97.4	1.5	0.7	0.7	0.3	0.0	0.0
	여성	(696)	97.1	1.0	0.4	0.4	0.4	0.6	0.4
연령	20대	(139)	96.4	2.2	0.7	0.7	0.0	0.7	0.0
	30대	(208)	95.7	0.5	1.4	1.4	1.4	0.5	0.0
	40대	(281)	96.8	2.1	0.4	0.4	0.7	0.0	0.0
	50대	(332)	98.2	0.9	0.3	0.3	0.0	0.3	0.3
	60대 이상	(342)	98.0	0.9	0.3	0.3	0.0	0.3	0.6
지역 규모	대도시	(623)	97.0	1.3	0.3	0.3	0.6	0.3	0.5
	중·소도시	(536)	97.2	1.5	0.9	0.9	0.2	0.0	0.0
	군지역	(143)	98.6	0.0	0.0	0.0	0.0	1.4	0.0
직업	화이트칼라	(331)	97.0	1.2	0.6	0.3	0.6	0.0	0.3
	블루칼라	(309)	96.8	1.6	1.0	0.3	0.3	0.0	0.0
	농/임/어업	(46)	100.0	0.0	0.0	0.0	0.0	0.0	0.0
	자영업	(295)	97.6	1.4	0.3	0.3	0.3	0.3	0.0
	주부	(274)	97.1	0.7	0.4	0.4	0.7	0.0	1.1
	은퇴자	(7)	100.0	0.0	0.0	0.0	0.0	0.0	0.0
	학생	(21)	95.2	4.8	0.0	0.0	0.0	0.0	0.0
	무직/기타	(19)	100.0	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1)	97.2	1.4	0.0	0.0	0.0	0.0	1.4
	고졸	(639)	97.3	0.9	0.8	0.8	0.3	0.3	0.3
	대재 이상	(591)	97.1	1.5	0.3	0.3	0.5	0.3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83)	98.2	1.1	0.4	0.4	0.0	0.4	0.0
	중소득	(622)	97.1	0.6	0.8	0.8	0.5	0.5	0.3
	고소득	(397)	96.7	2.3	0.3	0.3	0.5	0.0	0.3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 직업, 성별, 지역규모, 직업군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재해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6〉 재해상해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전체		(270)	97.0	1.1	0.7	0.7	0.4
성별	남성	(132)	97.7	0.8	1.5	0.0	0.0
	여성	(138)	96.4	1.4	0.0	1.4	0.7
연령	20대	(27)	96.3	0.0	3.7	0.0	0.0
	30대	(43)	100.0	0.0	0.0	0.0	0.0
	40대	(63)	100.0	0.0	0.0	0.0	0.0
	50대	(67)	95.5	1.5	1.5	1.5	0.0
	60대 이상	(70)	94.3	2.9	0.0	1.4	1.4
지역규모	대도시	(104)	97.1	1.0	1.0	1.0	0.0
	중·소도시	(132)	97.0	0.8	0.8	0.8	0.8
	군지역	(34)	97.1	2.9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76)	98.7	1.3	0.0	0.0	0.0
	블루칼라	(71)	97.2	0.0	1.4	1.4	0.0
	농/임/어업	(14)	92.9	7.1	0.0	0.0	0.0
	자영업	(54)	94.4	0.0	1.9	1.9	1.9
	주부	(45)	97.8	2.2	0.0	0.0	0.0
	은퇴자	(2)	100.0	0.0	0.0	0.0	0.0
	학생	(3)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5)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87.5	6.3	0.0	6.3	0.0
	고졸	(129)	96.1	1.6	0.8	0.8	0.8
	대재 이상	(125)	99.2	0.0	0.8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2)	96.2	1.9	0.0	1.9	0.0
	중소득	(128)	98.4	1.6	0.0	0.0	0.0
	고소득	(90)	95.6	0.0	2.2	1.1	1.1

주: 은퇴자와 학생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간병보험 가입 이유

- 직업, 성별, 지역 규모, 직업군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 마련을 위해 간병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음

〈표 II-47〉 간병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기타
전체		(42)	95.2	2.4	2.4
성별	남성	(20)	100.0	0.0	0.0
	여성	(22)	90.9	4.5	4.5
연령	20대	(2)	100.0	0.0	0.0
	30대	(1)	100.0	0.0	0.0
	40대	(3)	100.0	0.0	0.0
	50대	(13)	100.0	0.0	0.0
	60대 이상	(23)	91.3	4.3	4.3
지역규모	대도시	(16)	87.5	6.3	6.3
	중·소도시	(22)	100.0	0.0	0.0
	군지역	(4)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9)	100.0	0.0	0.0
	블루칼라	(10)	100.0	0.0	0.0
	농/임/어업	(1)	100.0	0.0	0.0
	자영업	(6)	100.0	0.0	0.0
	주부	(8)	87.5	0.0	12.5
	은퇴자	(3)	100.0	0.0	0.0
	무직/기타	(5)	80.0	20.0	0.0
	중졸 이하	(5)	80.0	20.0	0.0
교육 수준	고졸	(28)	96.4	0.0	3.6
	대재 이상	(9)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90.0	10.0	0.0
	중소득	(21)	95.2	0.0	4.8
	고소득	(11)	100.0	0.0	0.0

■ 사망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구 특성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48〉 사망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340)	80.3	10.9	6.5	1.5	0.6	0.3
성별	남성	(180)	82.8	8.9	5.6	1.7	0.6	0.6
	여성	(160)	77.5	13.1	7.5	1.3	0.6	0.0
연령	20대	(27)	88.9	11.1	0.0	0.0	0.0	0.0
	30대	(50)	86.0	12.0	0.0	0.0	2.0	0.0
	40대	(86)	81.4	9.3	9.3	0.0	0.0	0.0
	50대	(97)	74.2	12.4	8.2	3.1	1.0	1.0
	60대 이상	(80)	80.0	10.0	7.5	2.5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60)	78.8	15.0	5.0	0.6	0.0	0.6
	중·소도시	(130)	84.6	5.4	6.9	2.3	0.8	0.0
	군지역	(50)	74.0	12.0	10.0	2.0	2.0	0.0
직업	화이트칼라	(114)	83.3	9.6	5.3	0.9	0.9	0.0
	블루칼라	(79)	79.7	7.6	10.1	2.5	0.0	0.0
	농/임/어업	(8)	62.5	12.5	12.5	0.0	12.5	0.0
	자영업	(69)	78.3	13.0	4.3	2.9	0.0	1.4
	주부	(58)	75.9	17.2	6.9	0.0	0.0	0.0
	은퇴자	(2)	100.0	0.0	0.0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0.0	0.0
	무직/기타	(8)	100.0	0.0	0.0	0.0	0.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	50.0	8.3	33.3	8.3	0.0	0.0
	고졸	(151)	79.5	11.9	6.0	1.3	1.3	0.0
	대재 이상	(177)	83.1	10.2	5.1	1.1	0.0	0.6
가구 소득	저소득	(35)	80.0	2.9	8.6	8.6	0.0	0.0
	중소득	(132)	82.6	10.6	6.1	0.0	0.8	0.0
	고소득	(173)	78.6	12.7	6.4	1.2	0.6	0.6

주: 은퇴자와 학생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표 II-49〉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위험에 대비한 보장	노후자금 마련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232)	84.1	6.0	6.0	3.4	0.4
성별	남성	(114)	83.3	5.3	7.9	2.6	0.9
	여성	(118)	84.7	6.8	4.2	4.2	0.0
연령	20대	(16)	93.8	6.3	0.0	0.0	0.0
	30대	(50)	92.0	4.0	2.0	2.0	0.0
	40대	(69)	78.3	10.1	7.2	4.3	0.0
	50대	(55)	81.8	5.5	7.3	3.6	1.8
	60대 이상	(42)	83.3	2.4	9.5	4.8	0.0
	대도시	(129)	87.6	3.9	3.9	4.7	0.0
지역규모	중·소도시	(81)	80.2	9.9	9.9	0.0	0.0
	군지역	(22)	77.3	4.5	4.5	9.1	4.5
	화이트칼라	(85)	83.5	7.1	4.7	4.7	0.0
직업	블루칼라	(54)	81.5	3.7	9.3	3.7	1.9
	농/임/어업	(5)	100.0	0.0	0.0	0.0	0.0
	자영업	(48)	77.1	12.5	8.3	2.1	0.0
	주부	(36)	94.4	0.0	2.8	2.8	0.0
	학생	(2)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2)	100.0	0.0	0.0	0.0	0.0
	중졸 이하	(6)	83.3	0.0	0.0	16.7	0.0
교육 수준	고졸	(102)	86.3	2.9	7.8	2.9	0.0
	대재 이상	(123)	82.1	8.9	4.9	3.3	0.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저소득	(26)	88.5	3.8	0.0	7.7	0.0
가구 소득	중소득	(117)	84.6	5.1	6.0	3.4	0.9
	고소득	(89)	82.0	7.9	7.9	2.2	0.0

주: 농/임/어업과 학생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연금보험 가입 이유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높음

〈표 II-50〉 연금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노후자금 마련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114)	66.7	15.8	11.4	4.4	0.9	0.9
성별	남성	(57)	59.6	15.8	17.5	7.0	0.0	0.0
	여성	(57)	73.7	15.8	5.3	1.8	1.8	1.8
연령	20대	(8)	50.0	25.0	12.5	12.5	0.0	0.0
	30대	(17)	70.6	17.6	11.8	0.0	0.0	0.0
	40대	(36)	61.1	13.9	16.7	8.3	0.0	0.0
	50대	(43)	67.4	16.3	9.3	2.3	2.3	2.3
	60대 이상	(10)	90.0	10.0	0.0	0.0	0.0	0.0
지역규모	대도시	(61)	68.9	6.6	14.8	6.6	1.6	1.6
	중·소도시	(46)	63.0	26.1	8.7	2.2	0.0	0.0
	군지역	(7)	71.4	28.6	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5)	62.9	11.4	20.0	2.9	0.0	2.9
	블루칼라	(28)	60.7	21.4	7.1	10.7	0.0	0.0
	농/임/어업	(1)	0.0	100.0	0.0	0.0	0.0	0.0
	자영업	(32)	75.0	12.5	9.4	3.1	0.0	0.0
	주부	(18)	72.2	16.7	5.6	0.0	5.6	0.0
교육 수준	고졸	(43)	72.1	14.0	7.0	2.3	2.3	2.3
	대재 이상	(71)	63.4	16.9	14.1	5.6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8)	83.3	5.6	5.6	5.6	0.0	0.0
	중소득	(57)	64.9	12.3	15.8	3.5	1.8	1.8
	고소득	(39)	61.5	25.6	7.7	5.1	0.0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어린이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92.1%로 높게 나타남

〈표 II-51〉 어린이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전체		(76)	92.1	5.3	2.6
성별	남성	(24)	95.8	4.2	0.0
	여성	(52)	90.4	5.8	3.8
연령	20대	(1)	100.0	0.0	0.0
	30대	(39)	89.7	5.1	5.1
	40대	(36)	94.4	5.6	0.0
지역규모	대도시	(42)	90.5	9.5	0.0
	중·소도시	(26)	92.3	0.0	7.7
	군지역	(8)	10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25)	100.0	0.0	0.0
	블루칼라	(11)	100.0	0.0	0.0
	농/임/어업	(1)	100.0	0.0	0.0
	자영업	(9)	66.7	33.3	0.0
	주부	(30)	90.0	3.3	6.7
교육 수준	고졸	(25)	84.0	8.0	8.0
	대재 이상	(50)	96.0	4.0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	100.0	0.0	0.0
	중소득	(48)	89.6	6.3	4.2
	고소득	(19)	94.7	5.3	0.0

주: 20대와 농/임/어업은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변액보험 가입 이유

-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27.1%), 노후자금 마련(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52〉 변액보험 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위험에 대비한 보장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타 금융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전체		(96)	30.2	27.1	25.0	9.4	5.2	4.2
성별	남성	(60)	28.3	25.0	26.7	13.3	6.7	1.7
	여성	(36)	33.3	30.6	22.2	2.8	2.8	8.3
연령	20대	(6)	66.7	16.7	0.0	0.0	16.7	0.0
	30대	(20)	10.0	45.0	30.0	15.0	5.0	0.0
	40대	(28)	32.1	14.3	32.1	7.1	3.6	10.7
	50대	(30)	33.3	30.0	23.3	6.7	3.3	3.3
	60대 이상	(12)	33.3	25.0	16.7	16.7	8.3	0.0
지역규모	대도시	(57)	35.1	21.1	19.3	12.3	7.0	5.3
	중·소도시	(28)	28.6	35.7	25.0	7.1	3.6	3.6
	군지역	(11)	9.1	36.4	54.5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8)	23.7	36.8	15.8	13.2	7.9	5.3
	블루칼라	(20)	35.0	10.0	35.0	10.0	0.0	10.0
	농/임/어업	(1)	0.0	0.0	100.0	0.0	0.0	0.0
	자영업	(32)	34.4	25.0	28.1	6.3	6.3	0.0
	주부	(4)	25.0	50.0	25.0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0.0	50.0	50.0	0.0	0.0	0.0
	고졸	(33)	33.3	24.2	24.2	9.1	6.1	3.0
	대재 이상	(61)	29.5	27.9	24.6	9.8	4.9	4.9
가구 소득	저소득	(13)	15.4	30.8	46.2	7.7	0.0	0.0
	중소득	(48)	33.3	25.0	20.8	8.3	8.3	4.2
	고소득	(35)	31.4	28.6	22.9	11.4	2.9	5.7

주: 농/임/어업, 주부, 중졸 이하는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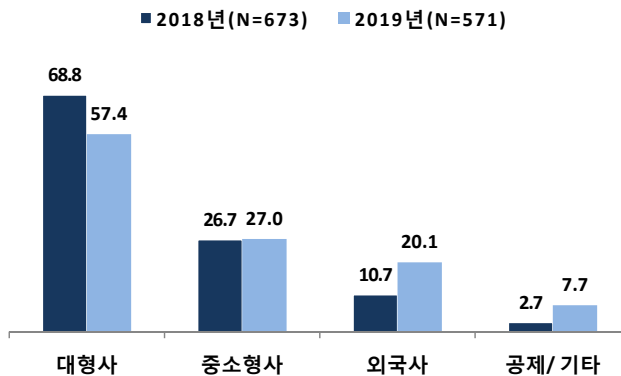
다.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회사군을 3개로 구분하여 국내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⁴⁾
- 최근 3년 이내 생명보험회사 가입자(n=571) 중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대형 보험회사 가입률⁵⁾은 57.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형사(27.0%), 외국사(20.1%), 공제/기타(7.7%) 순임

〈그림 II-8〉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주: 3년 이내에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한 사람 중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함

-
- 4) 대형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며,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13개 생명보험회사이며, 외국사는 ABL(구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한 8개 회사를 포함함
- 5) 3년 이내에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한 571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초과함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 비중

- 최근 3년 내 가입자 가운데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이 가장 높았음
- 대형사에 가입한 가입률은 50대(62.1%), 농/임/어업(66.7%), 중졸 이하(64.7%), 그리고 저소득층(69.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5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전체		(571)	57.4	27.0	20.1	7.7
성별	남성	(295)	58.3	24.1	21.0	7.1
	여성	(276)	56.5	30.1	19.2	8.3
연령	20대	(124)	57.3	27.4	22.6	2.4
	30대	(138)	55.8	32.6	21.0	5.1
	40대	(123)	55.3	29.3	15.4	13.8
	50대	(103)	62.1	22.3	19.4	8.7
	60대 이상	(83)	57.8	19.3	22.9	9.6
지역규모	대도시	(270)	60.0	27.0	21.1	5.2
	중·소도시	(230)	53.9	28.3	18.3	9.6
	군지역	(71)	59.2	22.5	22.5	11.3
직업	화이트칼라	(200)	52.0	30.5	23.5	6.5
	블루칼라	(154)	59.1	27.3	20.1	5.8
	농/임/어업	(9)	66.7	11.1	11.1	11.1
	자영업	(103)	60.2	21.4	22.3	9.7
	주부	(86)	61.6	27.9	10.5	12.8
	은퇴자	(2)	50.0	50.0	0.0	0.0
	학생	(15)	60.0	20.0	26.7	0.0
	무직/기타	(2)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	64.7	11.8	23.5	11.8
	고졸	(225)	60.0	21.8	22.2	8.4
	대재 이상	(329)	55.3	31.3	18.5	7.0
가구 소득	저소득	(97)	69.1	22.7	15.5	6.2
	중소득	(286)	57.7	26.9	20.3	6.6
	고소득	(188)	51.1	29.3	22.3	10.1

라.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종목별 만족도는 유니버설 종신(4.06)이 가장 높고 이어서 질병보장보험(3.97점), 정기사망보험(3.9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반면, 변액종신보험(3.40)과 변액연금(3.50)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54〉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가입 종목별 상품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상품 만족도(5점 만점)
실손의료보험		(216)	3.88
질병보장보험		(283)	3.97
재해상해보험		(80)	3.91
간병보험		(14)	3.71
사망보험	종신	(68)	3.91
	정기	(14)	3.93
저축성보험		(33)	3.91
연금보험		(32)	3.84
어린이보험		(49)	3.80
변액보험	연금	(4)	3.50
	유니버설 연금	(7)	3.71
	유니버설 종신	(16)	4.06
	종신	(10)	3.40

2) 세부 분석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는 성별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간병보험의 경우 남성이, 정기사망보험의 경우 여성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규모로 구분하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

〈표 II-55〉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실손 의료보험	질병 보장보험	재해 상해보험	간병보험	사망보험	
						종신	정기
전체		3.88	3.97	3.91	3.71	3.91	3.93
성별	남성	3.89	3.96	3.93	3.86	3.92	3.83
	여성	3.87	3.99	3.90	3.57	3.90	4.00
연령	20대	3.94	4.03	3.80	4.00	3.90	-
	30대	3.98	4.03	4.00	2.00	4.00	4.50
	40대	3.87	3.92	4.06	4.00	3.82	4.00
	50대	3.82	4.00	3.95	3.75	4.00	3.80
	60대 이상	3.58	3.84	3.71	3.86	3.80	3.83
지역규모	대도시	4.03	4.05	3.95	3.50	4.00	3.67
	중·소도시	3.76	3.93	3.91	3.88	3.90	4.00
	군지역	3.70	3.81	3.78	-	3.80	4.00
직업	화이트칼라	3.92	4.00	4.00	3.75	4.03	4.20
	블루칼라	3.92	3.99	3.79	4.00	3.71	3.75
	농/임/어업	4.00	3.83	3.75	4.00	-	-
	자영업	3.70	3.89	3.95	3.25	3.80	3.50
	주부	3.83	4.00	4.00	4.00	3.90	4.00
	은퇴자	4.00	4.00	-	4.00	-	-
	학생	4.11	4.13	4.00	-	4.00	-
	무직/기타	-	3.50	3.00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00	3.80	3.50	3.50	3.50	3.50
	고졸	3.84	3.97	3.92	4.00	3.83	3.89
	대재 이상	3.90	3.98	3.97	3.25	3.98	4.33
가구 소득	저소득	4.03	3.97	3.67	3.50	3.60	3.67
	중소득	3.89	3.92	3.88	3.88	3.89	4.00
	고소득	3.79	4.06	4.07	3.50	3.96	4.00

주: 간병보험, 사망정기보험, 변액보험 군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I-55〉 계속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어린이 보험	변액보험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설 연금	변액 유니버설 종신	변액 종신
전체		3.91	3.84	3.80	3.50	3.71	4.06	3.40
성별	남성	4.00	3.71	3.67	3.50	3.83	4.00	3.43
	여성	3.75	4.00	3.87	3.50	3.00	4.14	3.33
연령	20대	3.50	4.00	4.00	-	-	3.00	3.00
	30대	4.08	4.00	3.77	3.50	3.75	4.33	-
	40대	3.71	4.08	3.83	-	4.00	4.20	3.50
	50대	3.83	3.45	-	3.00	3.00	4.00	3.33
	60대 이상	4.25	4.00	-	4.00	-	3.50	4.00
지역규모	대도시	3.82	3.79	3.85	3.33	3.00	3.92	3.17
	중·소도시	4.08	3.88	3.61	4.00	4.00	4.50	4.00
	군지역	3.67	4.00	4.20	-	-	-	3.00
직업	화이트칼라	3.75	3.73	3.87	3.50	4.00	4.00	2.67
	블루칼라	4.11	3.89	3.50	3.00	3.00	4.33	3.50
	농/임/어업	-	-	-	-	-	-	-
	자영업	4.25	3.86	3.80	4.00	3.67	4.50	4.00
	주부	-	4.00	3.86	-	-	3.00	4.00
	은퇴자	-	-	-	-	-	-	-
	학생	-	-	-	-	-	-	3.00
	무직/기타	-	-	-	-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	-	-	4.00	-	-	-
	고졸	4.17	3.77	3.82	3.00	4.00	3.75	4.00
	대재 이상	3.76	3.89	3.78	3.50	3.60	4.17	2.80
가구 소득	저소득	4.33	3.83	4.00	4.00	4.00	-	-
	중소득	3.90	3.80	3.76	-	3.00	4.09	3.43
	고소득	3.80	3.91	3.83	3.33	3.75	4.00	3.33

주: 간병보험, 사망정기보험, 변액보험 군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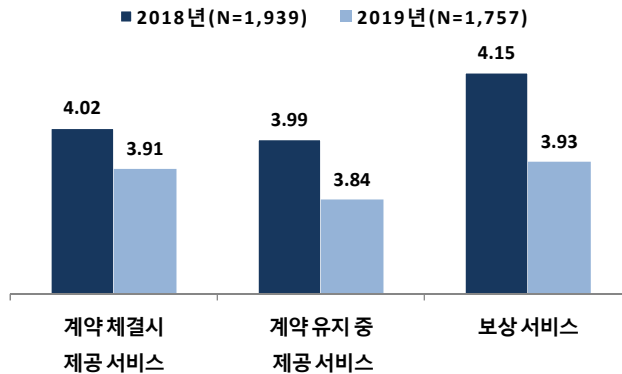
마.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n=1,757)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3.93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3.91점, 계약 유지 서비스가 3.84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분야에서 소폭 하락함

〈그림 II-9〉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주: 보상서비스의 경우 보상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응답함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성별, 지역규모, 직업, 교육 수준, 가구 연간 소득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II-5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서비스	사례 수	보상서비스
전체		(1,757)	3.91	3.84	(292)	3.93
성별	남성	(844)	3.91	3.82	(131)	3.86
	여성	(913)	3.92	3.85	(161)	3.99
연령	20대	(222)	3.89	3.84	(38)	3.97
	30대	(308)	3.96	3.86	(36)	3.89
	40대	(386)	3.90	3.84	(66)	4.00
	50대	(411)	3.95	3.85	(66)	3.97
	60대 이상	(430)	3.87	3.80	(86)	3.85
지역규모	대도시	(839)	3.91	3.87	(169)	3.99
	중·소도시	(690)	3.90	3.81	(100)	3.85
	군지역	(228)	3.96	3.81	(23)	3.83
직업	화이트칼라	(496)	3.93	3.84	(81)	3.99
	블루칼라	(429)	3.89	3.82	(78)	3.68
	농/임/어업	(51)	3.88	3.78	(5)	4.40
	자영업	(363)	3.91	3.86	(45)	4.13
	주부	(355)	3.94	3.85	(68)	4.01
	은퇴자	(9)	3.89	4.00	(2)	3.00
	학생	(31)	4.06	3.90	(8)	4.13
	무직/기타	(22)	3.55	3.41	(5)	3.60
	모름/무응답	(1)	4.00	4.00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4)	3.87	3.79	(22)	4.09
	고졸	(823)	3.91	3.83	(145)	3.87
	대재 이상	(849)	3.92	3.85	(125)	3.98
	모름/무응답	(1)	1.00	1.00	-	-
가구 소득	저소득	(345)	3.93	3.86	(60)	4.02
	중소득	(830)	3.91	3.81	(127)	3.91
	고소득	(582)	3.91	3.86	(105)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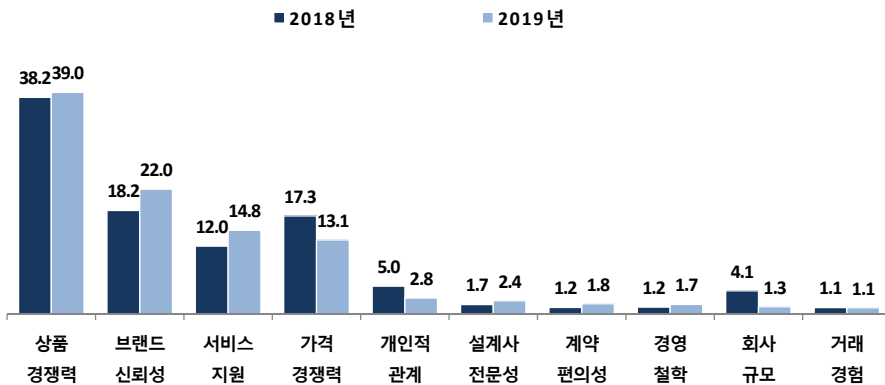
바.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39.0%)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22.0%), 서비스 지원(14.8%), 가격 경쟁력(13.1%) 등의 순임

〈그림 II-1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 단위: %)



2)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성별, 연령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5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 지원	가격 경쟁력	개인적 관계
전체		(2,464)	39.0	22.0	14.8	13.1	2.8
성별	남성	(1,224)	41.2	22.5	14.8	12.0	2.5
	여성	(1,240)	36.9	21.5	14.8	14.1	3.1
연령	20대	(388)	38.7	24.7	14.4	13.1	2.3
	30대	(432)	42.8	20.8	14.1	13.9	1.9
	40대	(492)	40.2	21.7	14.0	12.2	2.0
	50대	(505)	38.2	20.8	17.2	12.1	3.0
	60대 이상	(647)	36.5	22.3	14.1	13.9	4.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0.0	22.6	14.0	14.8	3.0
	중·소도시	(1,010)	42.2	21.0	14.3	11.9	2.3
	군지역	(336)	26.5	22.9	19.0	10.7	3.9
직업	화이트칼라	(678)	40.0	20.4	16.8	13.1	2.2
	블루칼라	(605)	40.2	22.8	14.5	10.6	2.8
	농/임/어업	(80)	32.5	23.8	18.8	15.0	1.3
	자영업	(478)	38.9	22.6	13.8	14.9	3.1
	주부	(482)	37.6	21.8	12.9	13.9	3.7
	은퇴자	(21)	47.6	9.5	19.0	14.3	4.8
	학생	(72)	36.1	31.9	12.5	12.5	1.4
	무직/기타	(47)	38.3	19.1	12.8	14.9	4.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28.5	16.6	17.2	19.2	6.6
	고졸	(1,131)	40.0	21.4	15.3	12.5	3.0
	대재 이상	(1,181)	39.5	23.3	14.0	12.9	2.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38.4	20.7	13.2	14.5	5.2
	중소득	(1,180)	40.5	23.2	13.8	11.7	2.5
	고소득	(768)	37.2	21.0	17.3	14.2	1.7

〈표 II-57〉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전문성	계약 편의성	경영 철학	회사 규모	거래 경험
전체		(2,464)	2.4	1.8	1.7	1.3	1.1
성별	남성	(1,224)	1.6	2.0	1.7	1.1	0.6
	여성	(1,240)	3.1	1.7	1.7	1.5	1.6
연령	20대	(388)	1.8	2.1	1.0	1.0	0.8
	30대	(432)	2.1	0.5	2.1	1.2	0.7
	40대	(492)	3.5	2.4	1.2	1.6	1.0
	50대	(505)	2.6	1.4	2.4	1.0	1.4
	60대 이상	(647)	1.9	2.5	1.7	1.5	1.4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1	1.1	0.7	0.8	0.9
	중·소도시	(1,010)	2.4	1.9	1.7	1.5	1.0
	군지역	(336)	3.3	4.2	5.1	2.4	2.1
직업	화이트칼라	(678)	2.4	1.5	1.9	0.7	1.0
	블루칼라	(605)	2.1	2.5	1.5	2.0	1.0
	농/임/어업	(80)	3.8	1.3	2.5	1.3	0.0
	자영업	(478)	2.1	1.3	1.5	1.0	0.8
	주부	(482)	3.1	1.9	1.9	1.5	1.9
	은퇴자	(21)	0.0	4.8	0.0	0.0	0.0
	학생	(72)	0.0	2.8	1.4	1.4	0.0
	무직/기타	(47)	2.1	2.1	2.1	2.1	2.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2.0	4.0	3.3	1.3	1.3
	고졸	(1,131)	2.1	1.7	1.3	1.7	1.1
	대재 이상	(1,181)	2.6	1.7	1.9	0.9	1.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4	3.3	1.2	1.0	1.2
	중소득	(1,180)	2.4	1.4	1.9	1.6	1.0
	고소득	(768)	3.0	1.6	1.8	1.0	1.2

III.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8.5%로 2018년(91.0%) 대비 2.5%p 감소하고, 가입건수는 가구당 3.5건으로 2018년(3.7건) 대비 0.2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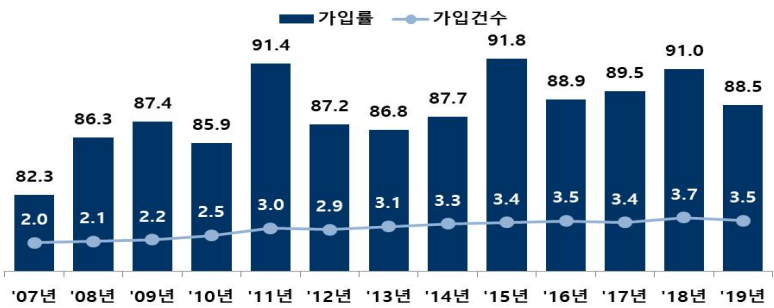
〈표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구 가입률	87.2	86.8	87.7	91.8	88.9	89.5	91.0	88.5
가구 가입건수	2.9	3.1	3.3	3.4	3.5	3.4	3.7	3.5

〈그림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연도별 가입가구 대비 / 단위: %, 건)



- 대부분의 계층에서 가구 가입률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농/임/어업, 주부, 무직/기타 계층에서는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구분		가구 가입률			가구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 (%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 (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4.6	94.5	-0.1	4.0	4.1	0.0
	블루칼라	88.8	82.3	-6.5	3.3	2.9	-0.3
	농/임/어업	77.8	85.8	8.1	3.3	3.2	-0.1
	자영업	93.9	91.0	-2.9	4.1	3.6	-0.5
	주부	53.3	68.0	14.7	1.7	2.0	0.4
	은퇴자	76.7	68.1	-8.7	2.3	2.7	0.4
	무직/기타	53.7	57.1	3.5	1.9	2.6	0.7
가구 소득	저소득	75.9	70.0	-5.9	1.7	1.8	0.1
	중소득	93.7	91.7	-2.0	3.8	3.5	-0.4
	고소득	96.8	96.1	-0.7	5.1	4.8	-0.3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89.8%), 중·소도시(86.2%), 군지역(91.1%)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남
- 군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달리 전년에 비해 가구당 가입률이 약간 증가하였음

〈표 III-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도시	88.3	86.1	86.9	90.6	92.0	91.8	90.5	89.8
중·소도시	87.0	89.5	88.8	92.4	87.0	88.0	91.7	86.2
군지역	82.4	76.9	85.6	94.8	82.5	85.6	89.6	91.1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의 경우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70.0% < 중소득 91.7% < 고소득 96.1%) 높음
- 저소득, 중소득 그리고 고소득 가구의 가입률은 전년 대비 각각 5.9%p, 2.0%p, 0.7%p 감소함

〈표 III-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저소득	66.6	63.0	63.6	73.2	66.5	69.5	75.9	70.0
중소득	92.4	92.7	90.9	94.3	94.2	92.3	93.7	91.7
고소득	96.0	96.8	95.2	97.8	97.4	97.9	96.8	96.1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이 7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보험(75.5%), 상해보험(1.5%) 순이었음
- 종목별 가구 가입건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3.3건, 상해보험 1.4건, 자동차보험 1.2건으로 나타남

〈표 III-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구분	2019년 가입률(%)	2019년 가입건수(건)
자동차보험 ¹⁾	75.5	1.2
장기손해보험	77.9	3.3
상해보험	1.5	1.4
기타	0.1	1.0

주: 1) 자동차보험이 법정 의무보험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10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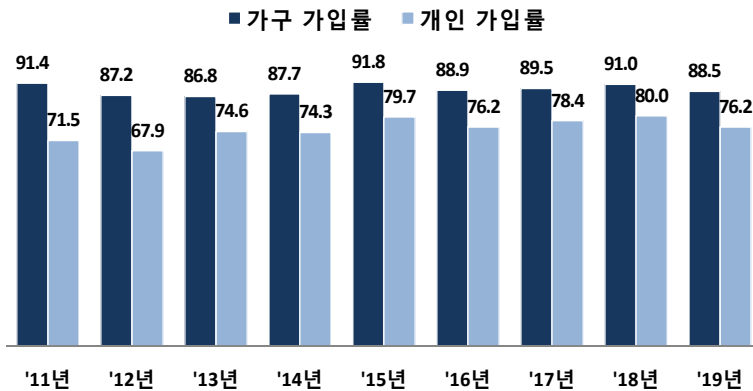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9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전년 대비 2.5%p 감소한 88.5%로 나타났으며,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3.8%p 감소한 76.2%로 나타남

〈그림 III-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연도별 가입가구 또는 가입자 대비 / 단위: %)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40대(85.8%, 2.1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74.0%, 1.3건)보다는 기혼(76.9%, 1.7건)에서 그리고 고소득(85.5%, 2.0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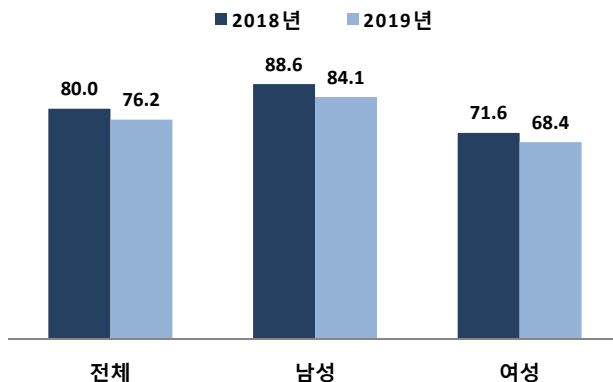
구분		개인 가입률			개인 가입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률(%p)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가입건수(건)
연령	20대	77.1	66.5	-10.6	1.3	1.1	-0.2
	30대	87.6	82.6	-5.0	1.9	1.7	-0.1
	40대	88.8	85.8	-3.1	2.0	2.1	0.1
	50대	83.8	83.8	0.0	1.9	1.9	0.0
	60대 이상	66.6	64.5	-2.1	1.3	1.3	0.0
결혼 여부	기혼	79.9	76.9	-3.1	1.7	1.7	0.0
	미혼	80.4	74.0	-6.5	1.5	1.3	-0.2
가구 소득	저소득	66.2	59.3	-6.9	1.2	1.1	-0.1
	중소득	82.7	77.5	-5.3	1.7	1.6	-0.1
	고소득	84.7	85.5	0.8	1.9	2.0	0.1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4.1%, 여성이 68.4%로 여전히 남성 가입률이 더 높았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4.5%p 감소한 반면, 여성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년 대비 3.2%p 감소함

〈그림 III-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2)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4.1%)이 여성(68.4%)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혼 남성의 개인 가입률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혼 남성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에 비해 전체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I-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건)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개인 가입률	76.9	74.0	84.1		68.4	
			86.6	77.0	68.0	70.1
개인 가입건수	1.7	1.3	1.9		1.3	
			2.1	1.4	1.3	1.2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전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연령대(30대 이하)에서 두드러짐
- 개인 가입건수는 20대 1.1건, 30대 1.7건, 40대 2.1건, 50대 1.9건, 60대 이상 1.3건으로 나타남

〈표 III-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단위: %, 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6.5	82.6	85.8	83.8	64.5
가입건수	1.1	1.7	2.1	1.9	1.3
2018년 대비 가입률(%p)	-10.6	-5.0	-3.1	0.0	-2.1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77.4%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74.8%, 76.5%로 나타남
- 지역별 개인 가입건수는 중·소도시 1.7건, 대도시 및 군지역 각각 1.6건 순으로 나타남

〈표 III-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 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대도시	77.4	1.6
중·소도시	74.8	1.7
군지역	76.5	1.6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대재 이상 고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83.1%, 개인 가입건수는 1.9건인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응답자의 개인 가입률은 45.7%, 가입건수는 0.8건임

〈표 III-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단위: %, 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중졸 이하	45.7	0.8
고졸	73.0	1.5
대재 이상	83.1	1.9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자영업(84.5%), 화이트칼라(83.6%), 농/임/어업(80.0%)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주부(66.2%), 학생(56.9%), 무직/기타(55.3%) 등 비경제활동 계층의 개인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개인 가입건수는 자영업(2.0건), 은퇴자(2.0건), 화이트칼라(1.9건), 농/임/어업

(1.8건), 화이트칼라(1.9건), 블루칼라(1.5건)가 1.5건 이상이었으나, 주부(1.2건), 무직/기타(1.1건), 학생(0.8건)은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단위: %, 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화이트칼라	83.6	1.9
블루칼라	72.6	1.5
농/임/어업	80.0	1.8
자영업	84.5	2.0
주부	66.2	1.2
은퇴자	76.2	2.0
학생	56.9	0.8
무직/기타	55.3	1.1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고소득(85.5%)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득(77.5%), 저소득 가구(59.3%) 순으로 나타남
- 개인 가입건수도 고소득(2.0건)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득(1.6건), 저소득(1.1건) 가구 순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단위: %, 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저소득	59.3	1.1
중소득	77.5	1.6
고소득	85.5	2.0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이 67.5%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의 경우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남성(70.0%), 40대와 50대(각각 76.6%, 75.2%), 고소득(76.8%) 가구에 속한 개인,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동차 보험 ²⁾	장기손해 보험	상해보험	기타	비가입
전체		(2,464)	45.7	67.5	1.0	0.1	23.8
성별	남성	(1,224)	70.1	70.0	1.0	0.0	15.9
	여성	(1,240)	21.5	65.0	1.0	0.2	31.6
연령	20대	(388)	22.7	59.5	1.5	0.0	33.5
	30대	(432)	55.1	71.5	1.2	0.0	17.4
	40대	(492)	62.0	76.6	1.2	0.0	14.2
	50대	(505)	54.7	75.2	0.4	0.4	16.2
	60대 이상	(647)	33.7	56.6	0.8	0.2	35.5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8.0	65.6	0.9	0.3	22.6
	중·소도시	(1,010)	43.2	69.7	0.9	0.0	25.2
	군지역	(336)	45.2	67.3	1.5	0.0	23.5
직업	화이트칼라	(678)	60.0	71.8	1.2	0.0	16.4
	블루칼라	(605)	42.3	64.5	1.0	0.2	27.4
	농/임/어업	(80)	58.8	68.8	1.3	0.0	20.0
	자영업	(478)	65.7	71.8	0.8	0.2	15.5
	주부	(482)	14.5	64.3	0.6	0.2	33.8
	은퇴자	(21)	66.7	71.4	4.8	0.0	23.8
	학생	(72)	6.9	54.2	1.4	0.0	43.1
	무직/기타	(47)	25.5	48.9	0.0	0.0	44.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2.6	41.1	0.7	0.0	54.3
	고졸	(1,131)	39.5	65.3	0.7	0.3	27.0
	대재 이상	(1,181)	55.7	72.9	1.3	0.0	16.9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6.6	53.1	0.4	0.0	40.7
	중소득	(1,180)	48.1	67.7	0.9	0.1	22.5
	고소득	(768)	54.7	76.8	1.4	0.3	14.5

주: 1) 가입상품 여부 기준임

2) 자동차보험이 법정 의무보험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100.0%임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91.4%)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15.2%로 나타났으며, 은행을 통한 가입률은 2.5% 수준임

〈표 III-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면	92.7	93.2	94.2	94.0	95.2	90.8	88.6	91.4
직판	6.2	8.0	9.1	7.8	8.0	13.3	14.2	15.2
은행	1.1	1.9	1.3	0.3	0.9	1.0	1.1	2.5
기타	0.0	0.0	0.0	0.0	2.6	4.3	4.1	4.4

주: 1)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손해보험 가운데 개인보험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채널별 보험료 비중과는 다를 수 있음(이하 동일)

2)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3)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직판 채널(18.5%)을 통한 보험가입률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0.5	92.6
직판	18.5	11.3
은행	2.6	2.4
기타	4.4	4.4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대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30대 이하)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90% 이상임
- 20대와 30대의 경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2.2	81.5	93.1	97.4	97.8
직판	24.8	30.5	14.5	9.0	3.4
은행	2.7	3.6	2.1	1.9	2.4
기타	2.7	4.5	6.2	5.2	2.6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85% 이상임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대도시 19.5%, 중·소도시 13.2%, 군지역 6.6%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88.9	92.6	96.5
직판	19.5	13.2	6.6
은행	2.4	3.2	0.8
기타	4.7	4.2	3.5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칼라의 대면채널 가입률이 타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2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임/어업	자영업	주부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	모름/무응답
대면	86.2	90.0	96.9	95.8	95.3	100.0	95.1	88.5	88.5
직판	24.2	16.2	9.4	11.1	6.3	0.0	9.8	11.5	11.5
은행	3.4	2.5	1.6	2.7	1.3	0.0	0.0	3.8	3.8
기타	4.6	6.8	3.1	3.7	2.5	6.3	0.0	0.0	0.0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가장 높았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2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대면	92.8	97.1	86.5	100.0
직판	5.8	6.9	22.9	0.0
은행	4.3	1.9	2.9	0.0
기타	4.3	4.1	4.6	0.0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고소득(93.6%)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판채널 가입률은 중소득(17.5%)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2.8	89.4	93.6
직판	11.1	17.5	14.0
은행	2.6	2.6	2.3
기타	3.3	5.5	3.3

나.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 종목별 가입 채널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채널 중에서 가장 높음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92.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보험(80.1%), 상해보험(70.8%)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상해보험이 20.8%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자동차보험	80.1	18.4	0.6	0.9
장기손해보험	92.8	7.6	2.4	4.4
상해보험	70.8	20.8	4.2	4.2

주: 1) 기타 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자동차보험은 은행채널이 없으므로 은행채널 통계는 제외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 자동차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80.1%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8.4%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판채널 이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규모가 클수록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낮아짐
- 직판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20대(48.9%)와 화이트칼라(26.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높아짐

〈표 III-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125)	80.1	18.4	0.6	0.9
성별	남성	(858)	79.8	18.5	0.6	1.0
	여성	(267)	80.9	18.0	0.7	0.4
연령	20대	(88)	50.0	48.9	0.0	1.1
	30대	(238)	62.6	34.0	2.1	1.3
	40대	(305)	82.3	16.7	0.3	0.7
	50대	(276)	90.2	9.1	0.0	0.7
	60대 이상	(218)	95.4	3.2	0.5	0.9
지역규모	대도시	(537)	74.7	24.0	0.7	0.6
	중·소도시	(436)	82.6	15.4	0.7	1.4
	군지역	(152)	92.1	7.2	0.0	0.7
직업	화이트칼라	(407)	71.3	26.3	1.0	1.5
	블루칼라	(256)	78.9	19.5	0.8	0.8
	농/임/어업	(47)	93.6	6.4	0.0	0.0
	자영업	(314)	88.2	10.8	0.3	0.6
	주부	(70)	87.1	12.9	0.0	0.0
	은퇴자	(14)	100.0	0.0	0.0	0.0
	학생	(5)	40.0	60.0	0.0	0.0
	무직/기타	(12)	91.7	8.3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9)	94.7	0.0	0.0	5.3
	고졸	(447)	91.1	7.8	0.2	0.9
	대재 이상	(658)	72.2	26.1	0.9	0.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37)	83.9	14.6	0.7	0.7
	중소득	(568)	77.3	21.5	0.4	0.9
	고소득	(420)	82.6	15.5	1.0	1.0

■ 장기손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장기손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2.8%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7.6%, 은행채널은 2.4%에 불과함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여성이 93.3%로 남성(92.3%)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20대(13.0%), 30대(16.5%)에서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1,663)	92.8	7.6	2.4	4.4
성별	남성	(857)	92.3	8.4	2.7	4.4
	여성	(806)	93.3	6.7	2.1	4.5
연령	20대	(231)	86.6	13.0	3.0	2.6
	30대	(309)	85.8	16.5	2.9	4.5
	40대	(377)	94.2	5.3	2.1	6.6
	50대	(380)	96.8	4.5	2.1	5.5
	60대 이상	(366)	97.0	2.2	2.2	2.2
지역규모	대도시	(733)	91.1	9.8	2.2	5.3
	중·소도시	(704)	93.0	6.3	3.1	3.8
	군지역	(226)	97.3	4.4	0.9	3.5
직업	화이트칼라	(487)	89.1	11.3	3.5	4.3
	블루칼라	(390)	91.8	7.9	2.3	7.2
	농/임/어업	(55)	94.5	7.3	1.8	3.6
	자영업	(343)	96.2	5.5	2.6	4.1
	주부	(310)	95.2	4.5	1.0	2.6
	은퇴자	(15)	93.3	0.0	0.0	6.7
	학생	(39)	97.4	2.6	0.0	0.0
	무직/기타	(23)	91.3	8.7	4.3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2)	93.5	6.5	4.8	3.2
	고졸	(739)	96.1	3.8	1.9	4.2
	대재 이상	(861)	89.9	10.9	2.7	4.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4)	93.1	7.3	2.6	3.3
	중소득	(799)	91.0	8.0	2.8	5.9
	고소득	(590)	95.1	7.1	1.9	3.1

■ 상해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상해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70.8%로 가장 높고,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20.8%로 나타남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반대로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직업군에서, 그리고 소득 및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4〉 상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24)	70.8	20.8	4.2	4.2
성별	남성	(12)	58.3	25.0	8.3	8.3
	여성	(12)	83.3	16.7	0.0	0.0
연령	20대	(6)	50.0	50.0	0.0	0.0
	30대	(5)	60.0	40.0	0.0	0.0
	40대	(6)	83.3	0.0	16.7	0.0
	50대	(2)	100.0	0.0	0.0	0.0
	60대 이상	(5)	80.0	0.0	0.0	20.0
지역규모	대도시	(10)	60.0	40.0	0.0	0.0
	중·소도시	(9)	66.7	11.1	11.1	11.1
	군지역	(5)	100.0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8)	62.5	25.0	0.0	12.5
	농/임/어업	(6)	50.0	50.0	0.0	0.0
	자영업	(4)	75.0	0.0	25.0	0.0
	주부	(3)	100.0	0.0	0.0	0.0
	학생	(1)	100.0	0.0	0.0	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고졸	(8)	87.5	12.5	0.0	0.0
	대재 이상	(15)	60.0	26.7	6.7	6.7
가구 소득	저소득	(2)	50.0	50.0	0.0	0.0
	중소득	(11)	72.7	27.3	0.0	0.0
	고소득	(11)	72.7	9.1	9.1	9.1

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183)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4.5%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채널 선호비율이 26.0%로 나타남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현재 가입률(91.4%)보다는 16.9%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15.2%)보다 10.8%p 높게 나타났음

〈표 III-2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1.4	74.5
직판	15.2	26.0
은행	2.5	3.5
기타	4.4	4.3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72.6%)과 여성(77.0%) 모두 가장 높음
- 남성은 직판(29.2%)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 대비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29.2%p 높게 나타남

〈표 III-26〉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성별	남성	72.6	29.2	2.7	3.0
	여성	77.0	21.3	4.5	6.1
결혼 여부	기혼	80.5	19.2	3.6	4.2
	미혼	54.5	48.4	2.9	4.7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87.6%로 가장 높음
- 20대에서는 직판채널(54.2%)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7〉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20대	50.3	54.2	2.2	4.5
30대	61.7	41.7	4.3	3.0
40대	78.0	24.5	2.6	6.2
50대	87.0	12.6	3.0	2.2
60대 이상	87.6	4.9	5.3	5.8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은 군지역(15.1%) 대비 대도시(30.9%)와 중·소도시(2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대도시	71.2	30.9	1.9	3.4
중·소도시	76.8	23.0	5.0	5.4
군지역	80.6	15.1	5.0	4.3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학생을 제외하면 직업군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 선호도는 학생(64.0%)과 화이트칼라(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2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화이트칼라	63.6	40.6	2.9	4.3
블루칼라	75.7	23.0	4.3	6.6
농/임/어업	91.1	8.9	2.2	0.0
자영업	83.4	16.2	2.4	0.8
주부	83.4	12.7	5.1	6.4
은퇴자	100.0	0.0	0.0	0.0
학생	40.0	64.0	4.0	8.0
무직/기타	61.5	30.8	7.7	7.7

주: 은퇴자는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고졸(85.7%)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80.5%), 대재 이상(65.6%)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4.9% < 고졸 12.6% < 대재 이상 37.3%) 상대적으로 높음
- 은행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중졸 이하(14.6%)에서 가장 높음

〈표 III-3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중졸 이하	80.5	4.9	14.6	7.3
고졸	85.7	12.6	3.7	4.7
대재 이상	65.6	37.3	2.6	3.8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가장 높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직판채널(저소득 21.3% < 중소득 25.8% < 고소득 28.9%)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3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저소득	73.1	21.3	6.1	5.6
중소득	74.8	25.8	3.0	4.2
고소득	74.6	28.9	2.9	3.8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종목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높게 나타남
- 상해보험은 직판채널(39.3%)에 대한 선호가 다른 보험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3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자동차보험	71.6	27.1	0.4	0.9
장기손해보험	72.4	19.0	7.3	7.6
상해보험	45.9	39.3	-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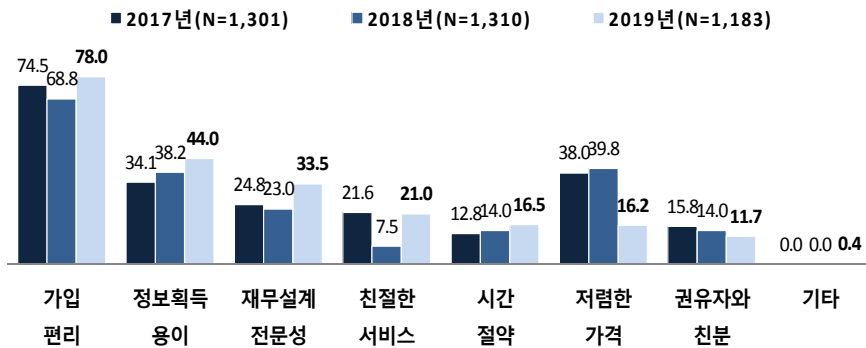
라.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의향자(n=1,183)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편리성이 78.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의 용이(44.0%), 재무설계 전문성(33.5%),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21.0%) 등의 순임

〈그림 III-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78.8%), 정보획득 용이(32.4%), 저렴한 가격(31.1%) 권유자와 친분(15.9%) 등이 꼽힘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도 가입 선호 이유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의 편리성(62.0%), 정보획득 용이(52.7%), 저렴한 가격(29.4%) 등이 꼽힘
- 상해보험의 경우는 가입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68.9%), 저렴한 가격(42.6%), 그리고 정보획득 용이(37.7%) 등이 꼽힘

〈표 III-33〉 향후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입 편리	정보 획득 용이	저렴한 가격	권유자 와 친분	시간 절약	친절한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 전문성	좋은 보험 서비스	기타
자동차보험	78.8	32.4	31.1	15.9	15.6	10.8	8.8	6.5	0.1
장기손해보험	62.0	52.7	29.4	12.4	21.0	10.2	23.3	12.9	0.8
상해보험	68.9	37.7	42.6	9.8	26.2	11.5	3.3	-	-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은 36.2%, 장기손해보험은 3.4%, 상해보험은 2.5%로 나타남

〈표 III-34〉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없다	있다
자동차보험	45.7	63.8	36.2
장기손해보험	67.5	96.6	3.4
상해보험	1.0	97.5	2.5

나. 세부 분석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2.8% < 고졸 3.0% < 대재 이상 3.7%)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블루칼라(2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의 경우 학생(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남성(47.4%)이 여성(25.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상해보험 가입 의향은 청년층(20대 및 30대)에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가구 소득으로 구분하면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중소득층의 가입 의향이, 상해보험은 고소득층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3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전체		36.2	3.4	2.5
성별	남성	47.4	3.3	2.5
	여성	25.2	3.4	2.5
연령	20대	30.2	4.5	5.2
	30대	41.9	4.0	4.2
	40대	45.3	3.9	2.8
	50대	42.0	2.8	1.2
	60대 이상	24.7	2.3	0.5
지역규모	대도시	38.4	3.6	3.6
	중소도시	36.7	3.0	1.1
	군지역	27.7	3.6	3.0
직업	화이트칼라	43.2	23.9	3.5
	블루칼라	35.9	27.1	2.8
	농/임/어업	51.3	2.3	1.3
	자영업	46.4	2.0	1.3
	주부	17.4	3.0	1.7
	은퇴자	52.4	2.0	4.8
	학생	20.8	3.4	5.6
	무직/기타	21.3	2.4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9	2.8	0.7
	고졸	32.4	3.0	1.1
	대재 이상	43.0	3.7	4.0
가구 소득	저소득	26.4	2.8	1.9
	중소득	40.3	3.9	2.3
	고소득	36.7	2.8	3.1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가. 손해보험 보상 경험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n=1,877) 가운데 21.4%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보상 경험자의 전체 평균 보상건수는 5.2건, 평균 보상액수는 553,943원이었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평균 보상건수가 5.5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균 보상액수는 453,156원이었음
- 중증 질병의 경우는 평균 보상건수는 1.0건으로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보상건수가 적었고, 평균 보상액수는 10,666,667원으로 가장 컸음

〈표 III-36〉 손해보험 보상건수 및 보상액수

(단위: 건, 원)

구분	사례 수	평균 보상건수	평균 보상액수
전체	(401)	5.2	553,943.1
실손의료보험	(357)	5.5	453,156.0
중증 질병	(3)	1.0	10,666,666.7
일반 질병	(17)	1.9	354,823.5
성인병	(3)	1.7	125,000.0
재해(상해)	(13)	1.1	580,000.0
교통사고	(14)	1.0	771,428.6
재산손실	(1)	1.0	500,000.0
자녀에 대한 보상	(16)	1.7	194,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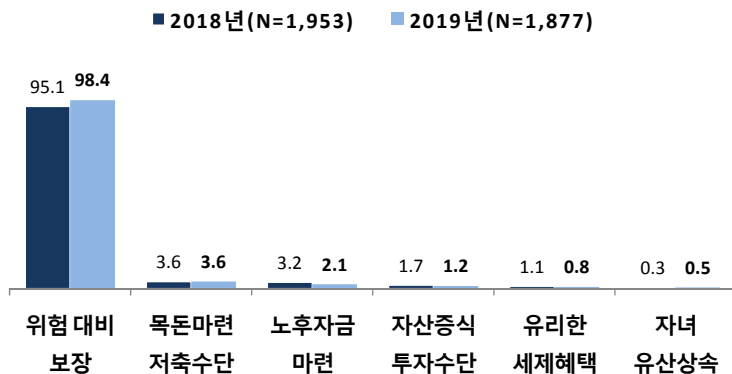
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8.4%)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상대적으로 저축, 노후 대비, 투자수단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남

〈그림 III-5〉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종목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이유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37〉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동차보험	98.3	0.3	-	0.5	-	0.5
장기손해보험	96.8	3.8	2.8	0.6	0.5	1.0
상해보험	95.8	4.2	-	-	-	-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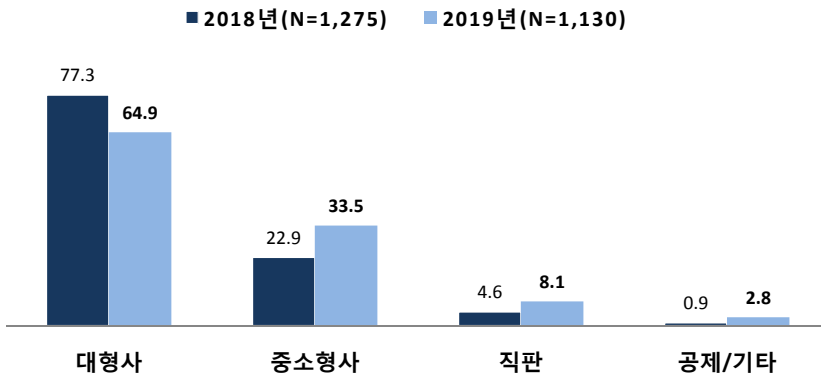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그리고 직판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⁶⁾

-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n=1,130) 가운데 64.9%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 대형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⁷⁾

〈그림 III-6〉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대형사의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6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50대(6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 회사이며, 중·소형사는 8개 회사, 직판사는 3개 회사임

7) 3년 이내에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한 1,130명 중에서 각 회사군별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0%를 초과함

- 중·소형사 가입률은 20대(38.7%), 블루칼라(39.4%), 군지역(41.5%)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판 가입률은 30대(11.5%), 대도시(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38.9%)이 중소득(33.1%)과 고소득(31.8%) 가구에 비해 중·소형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I-3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	공제/기타
전체		(1,130)	64.9	33.5	8.1	2.8
성별	남성	(741)	63.8	33.1	9.2	2.3
	여성	(389)	66.8	34.4	6.2	3.9
연령	20대	(137)	60.6	38.7	8.8	5.1
	30대	(252)	65.5	32.1	11.5	1.6
	40대	(285)	64.2	34.4	10.2	2.5
	50대	(249)	67.5	31.7	4.4	3.2
	60대 이상	(207)	64.7	32.9	5.3	2.9
지역규모	대도시	(537)	64.8	34.1	9.1	2.2
	중·소도시	(446)	65.9	30.3	7.4	3.8
	군지역	(147)	61.9	41.5	6.8	2.0
직업	화이트칼라	(375)	64.5	32.3	10.9	2.9
	블루칼라	(274)	60.6	39.4	9.5	1.8
	농/임/어업	(50)	66.0	28.0	6.0	4.0
	자영업	(276)	69.2	31.5	3.6	2.9
	주부	(125)	67.2	31.2	8.0	3.2
	은퇴자	(11)	72.7	27.3	0.0	0.0
	학생	(12)	50.0	33.3	16.7	8.3
	무직/기타	(7)	42.9	42.9	0.0	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	60.0	40.0	0.0	0.0
	고졸	(459)	65.6	34.0	5.7	3.3
	대재 이상	(641)	64.6	32.9	10.3	2.7
가구 소득	저소득	(167)	59.3	38.9	1.2	3.6
	중소득	(604)	64.2	33.1	9.8	2.5
	고소득	(359)	68.5	31.8	8.6	3.1

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이내에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이 4.0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장기손해보험이 3.97점, 상해보험이 3.83점 순서임

〈표 III-3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만족도(5점 만점)
자동차보험 ²⁾	37.1	4.01
장기손해보험	19.0	3.97
상해보험	0.7	3.83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

-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별 응답자 만족도가 대도시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가구 소득별로는 저소득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II-40〉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자동차 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해 보험
			실손	상해	질병	간병	종합	저축성	어린이 보장	
전체		4.01	3.99	3.96	3.96	3.80	3.89	4.18	3.94	3.83
성별	남성	4.01	3.97	3.92	3.89	4.00	3.88	4.33	4.00	3.80
	여성	4.02	4.01	4.03	4.02	3.50	3.90	4.13	3.94	3.88
연령	20대	4.04	3.95	4.00	3.88	-	3.50	4.50	4.00	3.67
	30대	3.99	4.00	4.00	4.00	-	4.00	4.00	4.00	4.00
	40대	4.00	3.97	3.93	4.04	4.00	3.85	4.00	3.80	3.83
	50대	4.00	4.06	3.80	3.86	3.50	4.00	4.00	-	-
	60대 이상	4.04	3.98	4.10	4.07	4.00	4.00	5.00	-	4.00
지역 규모	대도시	4.04	3.98	4.04	3.93	3.67	3.90	4.20	4.00	3.89
	중·소도시	3.98	3.97	3.88	3.92	4.00	4.00	4.50	3.75	3.67
	군지역	3.98	4.05	3.95	4.10	-	3.67	4.00	4.00	4.00
직업	화이트칼라	4.03	4.00	3.90	3.87	-	3.50	4.14	4.00	3.89
	블루칼라	4.05	4.04	3.98	4.10	4.00	4.00	4.00	4.00	4.00
	농/임/어업	3.98	3.80	4.00	3.00	-	-	-	-	4.00
	자영업	3.98	3.94	3.94	3.95	4.00	3.94	4.50	3.00	3.50
	주부	3.92	4.00	4.07	4.06	3.00	4.00	-	4.00	4.00
	은퇴자	4.18	4.00	4.00	-	-	-	-	-	-
	학생	4.00	3.75	4.00	-	-	4.00	-	-	3.00
	무직/기타	3.80	4.00	4.33	-	-	-	-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94	4.00	4.40	4.00	-	-	-	-	-
	고졸	4.03	3.97	3.97	4.09	3.75	4.00	4.33	4.00	3.80
	대재 이상	4.00	4.00	3.93	3.84	4.00	3.78	4.13	3.94	3.85
가구 소득	저소득	4.03	4.09	4.12	4.11	4.00	4.00	-	4.00	4.00
	중소득	4.00	3.99	3.91	4.03	3.67	3.94	4.29	4.00	4.00
	고소득	4.01	3.94	3.96	3.88	4.00	3.83	4.00	3.90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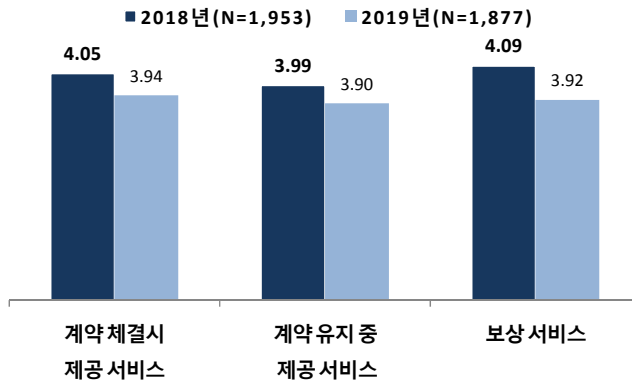
마.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n=1,877)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3.92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3.94점, 계약 유지 서비스가 3.90점으로 나타남
- 전년도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소폭 하락함

〈그림 III-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도별 가입자 대비 / 단위: %)



2)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에서 성별, 지역규모, 직업, 교육 수준, 가구 연간 소득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III-41〉 손해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5점 만점)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서비스	사례 수	보상서비스
전체		(1,877)	3.94	3.90	(379)	3.92
성별	남성	(1,029)	3.93	3.90	(174)	3.90
	여성	(848)	3.96	3.91	(205)	3.94
연령	20대	(258)	3.88	3.89	(39)	3.90
	30대	(357)	4.00	3.94	(57)	3.96
	40대	(422)	3.98	3.92	(97)	4.01
	50대	(423)	3.93	3.87	(85)	3.87
	60대 이상	(417)	3.92	3.90	(101)	3.86
지역규모	대도시	(865)	3.93	3.92	(178)	3.96
	중·소도시	(755)	3.96	3.87	(154)	3.89
	군지역	(257)	3.93	3.92	(47)	3.89
직업	화이트칼라	(567)	3.96	3.92	(90)	3.94
	블루칼라	(439)	3.92	3.88	(96)	3.85
	농/임/어업	(64)	4.02	3.91	(3)	3.67
	자영업	(404)	3.97	3.93	(88)	4.01
	주부	(319)	3.93	3.90	(84)	3.94
	은퇴자	(16)	4.06	3.81	(3)	3.67
	학생	(41)	3.73	3.80	(8)	3.88
	무직/기타	(26)	3.77	3.77	(7)	3.43
	모름/무응답	(1)	5.00	5.00	-	-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9)	3.93	3.87	(9)	3.89
	고졸	(826)	3.95	3.92	(190)	3.92
	대재 이상	(981)	3.94	3.89	(180)	3.93
	모름/무응답	(1)	1.00	1.00	-	-
가구 소득	저소득	(306)	3.96	3.92	(58)	3.93
	중소득	(914)	3.96	3.89	(177)	3.91
	고소득	(657)	3.92	3.91	(144)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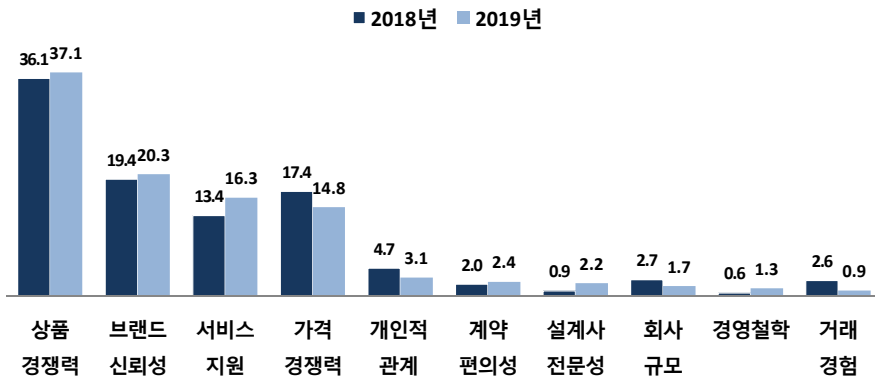
바.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37.1%)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20.3%), 서비스 지원(16.3%), 가격 경쟁력(14.8%) 등의 순임

〈그림 III-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기준)

(n=2,464 / 단위: %)



2)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함
 - 연령대에 관계없이 상품 경쟁력이 가장 많이 꼽혔으나, 브랜드 신뢰성의 경우에는 40대(2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40.5%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 소득별로는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저소득층 (40.3%)에서 가장 높음

〈표 III-4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 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 지원	가격 경쟁력	개인적 관계
전체		(2,464)	37.1	20.3	16.3	14.8	3.1
성별	남성	(1,224)	36.5	21.2	15.7	15.4	2.9
	여성	(1,240)	37.7	19.4	16.9	14.1	3.2
연령	20대	(388)	36.6	19.3	16.5	17.8	2.3
	30대	(432)	39.6	19.7	16.7	15.7	1.6
	40대	(492)	35.6	23.0	14.2	14.6	3.3
	50대	(505)	38.0	18.4	17.4	13.3	3.6
	60대 이상	(647)	36.3	20.6	16.7	13.6	4.0
지역규모	대도시	(1,118)	38.5	20.8	15.7	16.5	2.8
	중·소도시	(1,010)	40.5	19.9	14.5	13.2	3.7
	군지역	(336)	22.6	19.6	24.1	13.7	2.4
직업	화이트칼라	(678)	36.4	19.8	15.9	16.4	2.5
	블루칼라	(605)	37.7	20.8	16.7	12.9	3.1
	농/임/어업	(80)	36.3	13.8	17.5	21.3	5.0
	자영업	(478)	38.5	21.1	15.7	14.0	2.3
	주부	(482)	34.6	20.3	17.8	14.1	4.4
	은퇴자	(21)	52.4	28.6	4.8	0.0	4.8
	학생	(72)	38.9	22.2	13.9	20.8	1.4
	무직/기타	(47)	44.7	12.8	14.9	17.0	4.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31.8	13.9	17.2	17.9	6.6
	고졸	(1,131)	38.5	21.1	17.5	12.2	3.0
	대재 이상	(1,181)	36.4	20.2	15.1	16.9	2.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0.3	20.5	13.0	12.4	4.8
	중소득	(1,180)	37.3	21.2	16.5	14.8	2.5
	고소득	(768)	34.8	18.6	18.2	16.3	2.7

〈표 III-42〉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체결의 편의성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회사 규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과거 거래경험
전체		(2,464)	2.4	2.2	1.7	1.3	0.9
성별	남성	(1,224)	2.5	1.9	1.4	1.6	1.0
	여성	(1,240)	2.3	2.4	1.9	1.0	0.9
연령	20대	(388)	2.3	3.1	1.0	0.8	0.3
	30대	(432)	2.1	0.7	1.6	0.9	1.4
	40대	(492)	1.8	2.6	1.6	1.8	1.4
	50대	(505)	2.2	2.2	3.2	1.2	0.6
	60대 이상	(647)	3.2	2.2	0.9	1.5	0.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1.6	1.7	1.3	0.7	0.4
	중·소도시	(1,010)	2.2	2.2	1.3	1.3	1.4
	군지역	(336)	5.7	3.6	3.9	3.3	1.2
직업	화이트칼라	(678)	2.4	2.2	1.8	1.6	1.0
	블루칼라	(605)	2.3	1.7	2.0	1.5	1.3
	농/임/어업	(80)	3.8	2.5	0.0	0.0	0.0
	자영업	(478)	2.1	2.1	2.7	0.6	0.8
	주부	(482)	2.7	3.3	0.6	1.5	0.6
	은퇴자	(21)	4.8	0.0	0.0	4.8	0.0
	학생	(72)	1.4	0.0	1.4	0.0	0.0
	무직/기타	(47)	2.1	0.0	0.0	2.1	2.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6	4.0	0.7	2.6	0.7
	고졸	(1,131)	2.4	1.6	1.8	0.9	1.0
	대재 이상	(1,181)	2.1	2.5	1.7	1.5	0.9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3	2.7	1.6	1.6	0.8
	중소득	(1,180)	2.5	1.6	1.4	1.2	0.8
	고소득	(768)	2.2	2.6	2.1	1.3	1.2

IV.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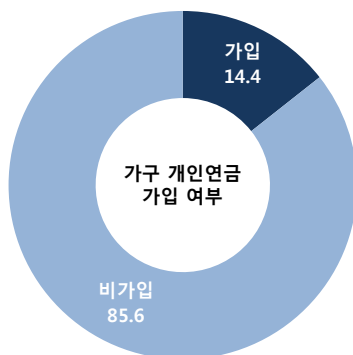
가. 개인연금

1) 개인연금 가입 여부

■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14.4%로 '비가입'(8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1〉 가구 개인연금 가입 여부

(n=2,464 / 단위: %)



- 개인연금 가입률은 40대 및 50대(각각 18.7%, 20.2%), 대재 이상(16.6%), 고소득(2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 가구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비가입
전체		(2,464)	14.4	85.6
성별	남성	(1,224)	13.8	86.2
	여성	(1,240)	14.9	85.1
연령	20대	(388)	11.6	88.4
	30대	(432)	13.7	86.3
	40대	(492)	18.7	81.3
	50대	(505)	20.2	79.8
	60대 이상	(647)	8.7	91.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14.9	85.1
	중·소도시	(1,010)	14.5	85.5
	군지역	(336)	12.2	87.8
직업	화이트칼라	(678)	16.4	83.6
	블루칼라	(605)	12.1	87.9
	농/임/어업	(80)	3.8	96.3
	자영업	(478)	15.1	84.9
	주부	(482)	14.7	85.3
	은퇴자	(21)	9.5	90.5
	학생	(72)	22.2	77.8
	무직/기타	(47)	12.8	87.2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5.3	94.7
	고졸	(1,131)	13.3	86.7
	대재 이상	(1,181)	16.6	83.4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7.0	93.0
	중소득	(1,180)	13.4	86.6
	고소득	(768)	20.8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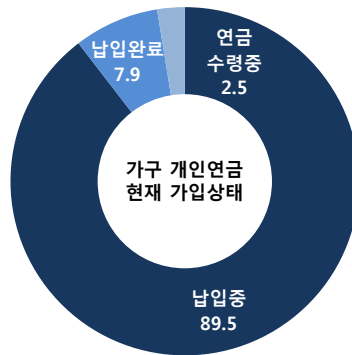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는 '납입 중'(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입완료(연금 대기 중)'(7.9%), '연금수령 중'(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 가구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n=354 / 단위: %)



- 개인연금 납입 중 상태는 연령별로는 30대(100.0%)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93.7%), 블루칼라(94.5%), 학생(93.8%)에서,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93.4%)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2〉 가구 개인연금 현재 가입 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납입 중	납입완료 (연금대기 중)	연금수령 중
전체		(354)	89.5	7.9	2.5
성별	남성	(169)	88.8	8.9	2.4
	여성	(185)	90.3	7.0	2.7
연령	20대	(45)	95.6	4.4	0.0
	30대	(59)	100.0	0.0	0.0
	40대	(92)	94.6	5.4	0.0
	50대	(102)	86.3	9.8	3.9
	60대 이상	(56)	71.4	19.6	8.9
지역규모	대도시	(167)	89.2	9.6	1.2
	중·소도시	(146)	89.7	6.8	3.4
	군지역	(41)	90.2	4.9	4.9
직업	화이트칼라	(111)	93.7	5.4	0.9
	블루칼라	(73)	94.5	4.1	1.4
	농/임/어업	(3)	100.0	0.0	0.0
	자영업	(72)	81.9	15.3	2.8
	주부	(71)	88.7	8.5	2.8
	은퇴자	(2)	0.0	50.0	50.0
	학생	(16)	93.8	6.3	0.0
	무직/기타	(6)	66.7	0.0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37.5	37.5	25.0
	고졸	(150)	87.3	9.3	3.3
	대재 이상	(196)	93.4	5.6	1.0
가구 소득	저소득	(36)	86.1	8.3	5.6
	중소득	(158)	88.6	8.9	2.5
	고소득	(160)	91.3	6.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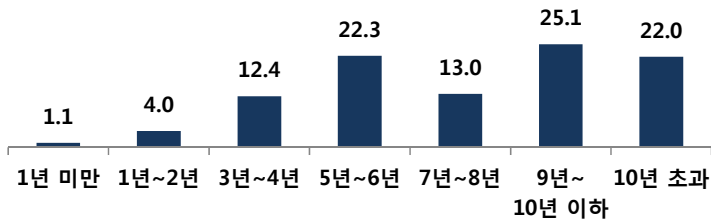
주: 은퇴자와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개인연금 현재 가입 기간

- 개인연금의 현재 가입 기간은 '9~10년 이하'가 2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6년'(22.3%), '10년 초과'(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기간

(n=354 / 단위: %)



- 개인연금을 ‘9~10년 이하’ 납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대(27.5%)와 군지역(41.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5~6년’ 납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27.5%), 블루칼라(32.9%), 중소득(27.2%)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3〉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이하	10년 초과
전체		(354)	1.1	4.0	12.4	22.3	13.0	25.1	22.0
성별	남성	(169)	1.2	4.1	14.8	18.9	13.6	25.4	21.9
	여성	(185)	1.1	3.8	10.3	25.4	12.4	24.9	22.2
연령	20대	(45)	2.2	6.7	6.7	8.9	17.8	33.3	24.4
	30대	(59)	3.4	3.4	28.8	27.1	6.8	25.4	5.1
	40대	(92)	0.0	4.3	15.2	29.3	10.9	19.6	20.7
	50대	(102)	1.0	2.0	6.9	21.6	15.7	27.5	25.5
	60대 이상	(56)	0.0	5.4	5.4	17.9	14.3	23.2	33.9
지역규모	대도시	(167)	0.6	3.6	14.4	27.5	16.2	19.2	18.6
	중·소도시	(146)	2.1	4.8	10.3	17.8	11.0	27.4	26.7
	군지역	(41)	0.0	2.4	12.2	17.1	7.3	41.5	19.5
직업	화이트칼라	(111)	2.7	6.3	17.1	21.6	15.3	19.8	17.1
	블루칼라	(73)	0.0	2.7	12.3	32.9	12.3	27.4	12.3
	농/임/어업	(3)	0.0	0.0	66.7	0.0	0.0	33.3	0.0
	자영업	(72)	1.4	5.6	9.7	23.6	6.9	26.4	26.4
	주부	(71)	0.0	1.4	7.0	18.3	18.3	26.8	28.2
	은퇴자	(2)	0.0	0.0	0.0	0.0	0.0	0.0	100.0
	학생	(16)	0.0	0.0	12.5	0.0	12.5	43.8	31.3
	무직/기타	(6)	0.0	0.0	0.0	16.7	0.0	16.7	6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0.0	12.5	0.0	0.0	12.5	25.0	50.0
	고졸	(150)	0.7	2.0	8.0	26.7	17.3	23.3	22.0
	대재 이상	(196)	1.5	5.1	16.3	19.9	9.7	26.5	20.9
가구 소득	저소득	(36)	2.8	2.8	11.1	11.1	13.9	19.4	38.9
	중소득	(158)	0.6	5.1	18.4	27.2	10.1	21.5	17.1
	고소득	(160)	1.3	3.1	6.9	20.0	15.6	30.0	23.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개인연금 납입 방법

- 개인연금의 납입 방법으로는 ‘월납’이 100.0%로 나타남

〈그림 IV-4〉 가구 개인연금 납입 방법

(n=354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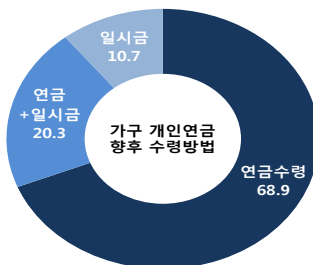


5) 개인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의향

- 향후 개인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의향은 ‘연금수령’(68.9%), ‘연금+일시금’(20.3%), ‘일시금’(1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 가구 개인연금 수령 방법

(n=354 / 단위: %)



- '연금수령'의 경우 대도시(80.8%), 중졸 이하(87.5%), 그리고 저소득(8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 가구 개인연금 수령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수령	연금+일시금	일시금
전체		(354)	68.9	20.3	10.7
성별	남성	(169)	65.1	21.9	13.0
	여성	(185)	72.4	18.9	8.6
연령	20대	(45)	66.7	15.6	17.8
	30대	(59)	66.1	22.0	11.9
	40대	(92)	69.6	19.6	10.9
	50대	(102)	67.6	23.5	8.8
	60대 이상	(56)	75.0	17.9	7.1
지역규모	대도시	(167)	80.8	12.0	7.2
	중·소도시	(146)	61.0	23.3	15.8
	군지역	(41)	48.8	43.9	7.3
직업	화이트칼라	(111)	64.9	18.9	16.2
	블루칼라	(73)	72.6	19.2	8.2
	농/임/어업	(3)	33.3	33.3	33.3
	자영업	(72)	69.4	26.4	4.2
	주부	(71)	71.8	18.3	9.9
	은퇴자	(2)	100.0	0.0	0.0
	학생	(16)	68.8	18.8	12.5
	무직/기타	(6)	66.7	16.7	16.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87.5	12.5	0.0
	고졸	(150)	73.3	17.3	9.3
	대재 이상	(196)	64.8	23.0	12.2
가구 소득	저소득	(36)	88.9	8.3	2.8
	중소득	(158)	73.4	20.9	5.7
	고소득	(160)	60.0	22.5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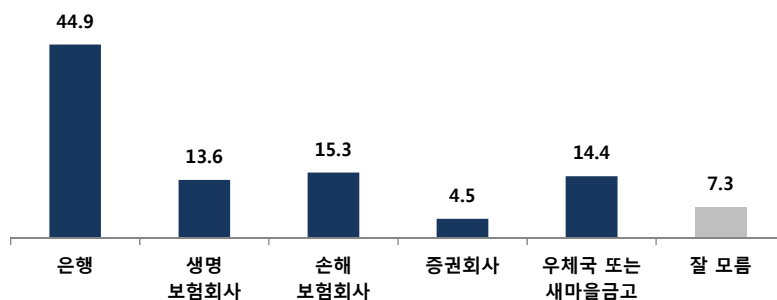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15.3%),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14.4%), ‘생명보험회사’(13.6%), ‘증권회사’(4.5%) 등의 순임

〈그림 IV-6〉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n=354 / 단위: %)



〈표 IV-5〉 가구 개인연금 가입 금융회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은행	생명 보험 회사	손해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우체국 또는 새마을 금고	잘 모름
전체		(354)	44.9	13.6	15.3	4.5	14.4	7.3
성별	남성	(169)	46.7	14.8	13.0	4.7	11.2	9.5
	여성	(185)	43.2	12.4	17.3	4.3	17.3	5.4
연령	20대	(45)	33.3	22.2	15.6	0.0	17.8	11.1
	30대	(59)	42.4	15.3	20.3	6.8	15.3	0.0
	40대	(92)	44.6	13.0	14.1	6.5	15.2	6.5
	50대	(102)	45.1	11.8	11.8	4.9	12.7	13.7
	60대 이상	(56)	57.1	8.9	17.9	1.8	12.5	1.8
지역규모	대도시	(167)	43.7	16.8	20.4	3.6	6.6	9.0
	중·소도시	(146)	49.3	11.0	8.9	4.1	19.9	6.8
	군지역	(41)	34.1	9.8	17.1	9.8	26.8	2.4
직업	화이트칼라	(111)	39.6	9.9	19.8	3.6	16.2	10.8
	블루칼라	(73)	50.7	9.6	13.7	5.5	17.8	2.7
	농/임/어업	(3)	0.0	33.3	33.3	0.0	33.3	0.0
	자영업	(72)	44.4	19.4	9.7	5.6	12.5	8.3
	주부	(71)	47.9	12.7	16.9	5.6	11.3	5.6
	은퇴자	(2)	100.0	0.0	0.0	0.0	0.0	0.0
	학생	(16)	43.8	37.5	6.3	0.0	0.0	12.5
	무직/기타	(6)	50.0	0.0	16.7	0.0	33.3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37.5	25.0	12.5	0.0	12.5	12.5
	고졸	(150)	48.0	8.7	20.7	2.7	12.0	8.0
	대재 이상	(196)	42.9	16.8	11.2	6.1	16.3	6.6
가구 소득	저소득	(36)	55.6	13.9	13.9	0.0	16.7	0.0
	중소득	(158)	45.6	10.8	13.9	6.3	12.7	10.8
	고소득	(160)	41.9	16.3	16.9	3.8	15.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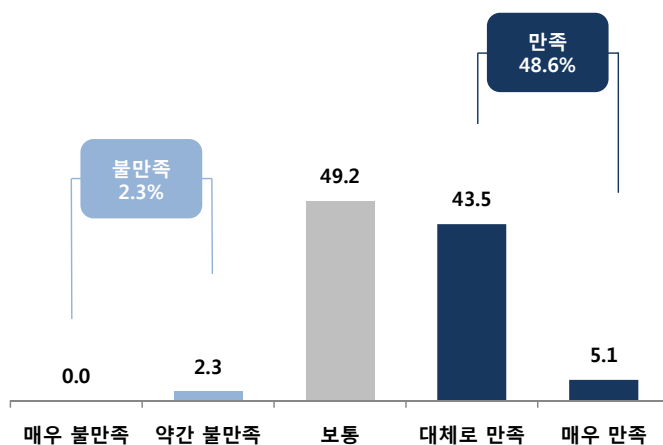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8.6%로 응답자 10명 중 약 4명 정도가 개인연금상품에 만족하고 있었음

〈그림 IV-7〉 가구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n=354 / 단위: %)



○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는 평균 3.5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표 IV-6〉 가구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개인연금 가입 만족도				종합결과			평균 (5점)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354)	2.3	49.2	43.5	5.1	2.3	49.2	48.6	3.51
성별	남성	(169)	3.6	49.7	40.8	5.9	3.6	49.7	46.7	3.49
	여성	(185)	1.1	48.6	45.9	4.3	1.1	48.6	50.3	3.54
연령	20대	(45)	0.0	57.8	31.1	11.1	0.0	57.8	42.2	3.53
	30대	(59)	1.7	52.5	40.7	5.1	1.7	52.5	45.8	3.49
	40대	(92)	0.0	47.8	44.6	7.6	0.0	47.8	52.2	3.60
	50대	(102)	5.9	46.1	45.1	2.9	5.9	46.1	48.0	3.45
	60대 이상	(56)	1.8	46.4	51.8	0.0	1.8	46.4	51.8	3.50
지역규모	대도시	(167)	3.0	38.9	50.3	7.8	3.0	38.9	58.1	3.63
	중·소도시	(146)	2.1	58.9	37.0	2.1	2.1	58.9	39.0	3.39
	군지역	(41)	0.0	56.1	39.0	4.9	0.0	56.1	43.9	3.49
직업	화이트칼라	(111)	2.7	57.7	35.1	4.5	2.7	57.7	39.6	3.41
	블루칼라	(73)	0.0	50.7	43.8	5.5	0.0	50.7	49.3	3.55
	농/임/어업	(3)	0.0	33.3	66.7	0.0	0.0	33.3	66.7	3.67
	자영업	(72)	5.6	33.3	56.9	4.2	5.6	33.3	61.1	3.60
	주부	(71)	1.4	47.9	46.5	4.2	1.4	47.9	50.7	3.54
	은퇴자	(2)	0.0	0.0	100.0	0.0	0.0	0.0	100.0	4.00
	학생	(16)	0.0	62.5	18.8	18.8	0.0	62.5	37.5	3.56
	무직/기타	(6)	0.0	66.7	33.3	0.0	0.0	66.7	33.3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0.0	50.0	50.0	0.0	0.0	50.0	50.0	3.50
	고졸	(150)	2.0	46.0	45.3	6.7	2.0	46.0	52.0	3.57
	대재 이상	(196)	2.6	51.5	41.8	4.1	2.6	51.5	45.9	3.47
가구 소득	저소득	(36)	0.0	36.1	63.9	0.0	0.0	36.1	63.9	3.64
	중소득	(158)	2.5	46.8	44.9	5.7	2.5	46.8	50.6	3.54
	고소득	(160)	2.5	54.4	37.5	5.6	2.5	54.4	43.1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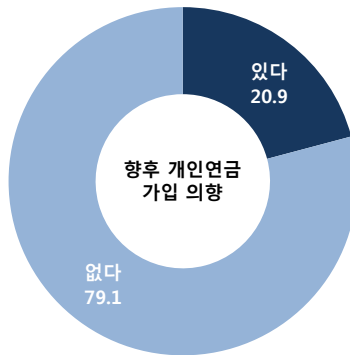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8)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0.9%로 ‘없다’(79.1%)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IV-8〉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n=2,110 / 단위: %)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있음’은 20대(31.5%)와 30대(38.9%), 군지역(28.5%), 화이트칼라(31.2%), 대재 이상(29.9%), 중소득(24.6%)과 고소득(2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110)	20.9	79.1
성별	남성	(1,055)	21.9	78.1
	여성	(1,055)	19.8	80.2
연령	20대	(343)	31.5	68.5
	30대	(373)	38.9	61.1
	40대	(400)	27.5	72.5
	50대	(403)	15.4	84.6
	60대 이상	(591)	2.5	97.5
지역규모	대도시	(951)	20.3	79.7
	중·소도시	(864)	18.9	81.1
	군지역	(295)	28.5	71.5
직업	화이트칼라	(567)	31.2	68.8
	블루칼라	(532)	24.2	75.8
	농/임/어업	(77)	5.2	94.8
	자영업	(406)	14.0	86.0
	주부	(411)	14.4	85.6
	은퇴자	(19)	0.0	100.0
	학생	(56)	17.9	82.1
	무직/기타	(41)	9.8	90.2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3)	2.8	97.2
	고졸	(981)	14.4	85.6
	대재 이상	(985)	29.9	70.1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80)	9.6	90.4
	중소득	(1,022)	24.6	75.4
	고소득	(608)	23.5	76.5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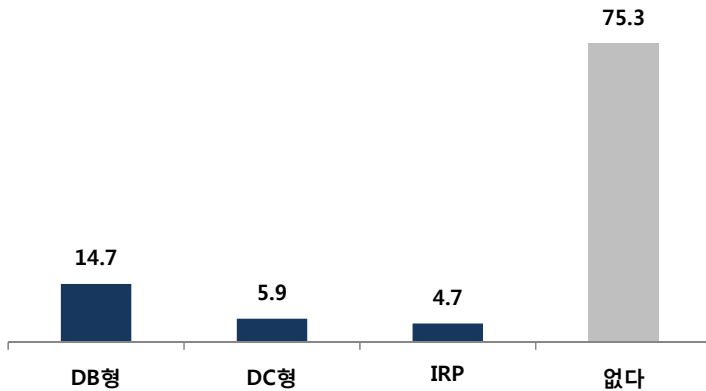
나. 퇴직연금

1)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 전체 응답자 중 학생, 무직, 주부를 제외한 1,862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유형을 물었을 때,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75.3%로 가장 많았고, ‘DB형’(확정급여형, 14.7%), ‘DC형’(확정기여형, 5.9%), ‘IRP’(개인형 퇴직연금, 4.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 퇴직연금 가입 유형

(n=1,862 / 단위: %)



- DB형 개인연금은 남성(16.0%), 20대(21.3%) 및 30대(21.7%), 대도시(17.1%), 화이트칼라(27.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DB형 개인연금 가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22.3%),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18.2%)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8〉 퇴직연금 가입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DB형	DC형	IRP	없음
전체		(1,862)	14.7	5.9	4.7	75.3
성별	남성	(1,149)	16.0	5.4	4.7	74.4
	여성	(713)	12.5	6.7	4.6	76.9
연령	20대	(305)	21.3	7.2	7.2	64.9
	30대	(351)	21.7	10.5	7.4	61.5
	40대	(397)	15.9	8.1	5.5	71.3
	50대	(386)	13.7	4.7	2.6	79.5
	60대 이상	(423)	3.8	0.2	1.7	94.3
지역규모	대도시	(856)	17.1	6.9	7.2	69.6
	중·소도시	(748)	12.3	4.7	3.2	80.1
	군지역	(258)	13.6	6.2	0.4	80.6
직업	화이트칼라	(678)	27.6	11.8	7.8	54.0
	블루칼라	(605)	11.1	3.8	4.8	80.8
	농/임/어업	(80)	1.3	0.0	0.0	98.8
	자영업	(478)	2.7	1.3	1.0	95.0
	은퇴자	(21)	23.8	4.8	0.0	7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2)	3.3	0.0	0.0	96.7
	고졸	(778)	6.3	2.2	2.4	89.5
	대재 이상	(992)	22.3	9.4	6.9	62.3
가구 소득	저소득	(360)	8.6	3.9	3.3	84.2
	중소득	(886)	14.7	5.9	4.7	75.3
	고소득	(616)	18.2	7.1	5.4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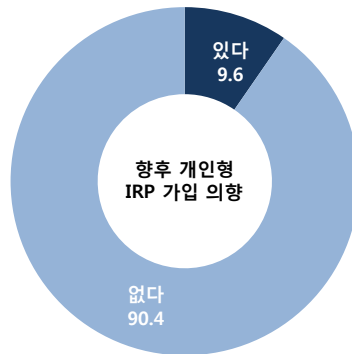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의향

-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6%로 '가입 의향이 없다'(90.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10〉 향후 개인형 IRP 가입 의향

(n=1,775 / 단위: %)



- 20대(16.6%) 및 30대(18.2%), 화이트칼라(14.7%),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13.0%) IRP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 향후 개인형 IRP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775)	9.6	90.4
성별	남성	(1,095)	8.6	91.4
	여성	(680)	11.3	88.7
연령	20대	(283)	16.6	83.4
	30대	(325)	18.2	81.8
	40대	(375)	10.9	89.1
	50대	(376)	5.3	94.7
	60대 이상	(416)	1.0	99.0
지역규모	대도시	(794)	9.4	90.6
	중·소도시	(724)	10.1	89.9
	군지역	(257)	8.9	91.1
직업	화이트칼라	(625)	14.7	85.3
	블루칼라	(576)	9.4	90.6
	농/임/어업	(80)	0.0	100.0
	자영업	(473)	5.3	94.7
	은퇴자	(2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2)	2.2	97.8
	고졸	(759)	6.5	93.5
	대재 이상	(924)	13.0	87.0
가구 소득	저소득	(348)	6.0	94.0
	중소득	(844)	10.0	90.0
	고소득	(583)	11.3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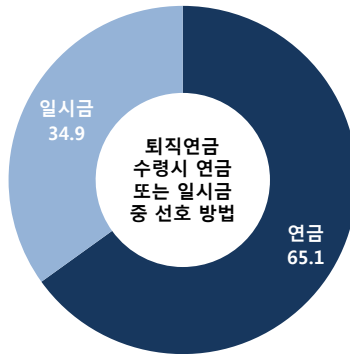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은퇴시점이 다가 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본 결과, '연금'이라는 응답이 65.1%로 '일시금'(34.9%)이라는 응답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11〉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호 방법

(n=2,464 / 단위: %)



- 농/임/어업(78.8%),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72.1%)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호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	일시금
전체		(2,464)	65.1	34.9
성별	남성	(1,224)	64.5	35.5
	여성	(1,240)	65.6	34.4
연령	20대	(388)	63.1	36.9
	30대	(432)	65.5	34.5
	40대	(492)	67.9	32.1
	50대	(505)	65.5	34.5
	60대 이상	(647)	63.4	36.6
지역규모	대도시	(1,118)	64.8	35.2
	중·소도시	(1,010)	65.9	34.1
	군지역	(336)	63.4	36.6
직업	화이트칼라	(678)	62.1	37.9
	블루칼라	(605)	65.8	34.2
	농/임/어업	(80)	78.8	21.3
	자영업	(478)	67.4	32.6
	주부	(482)	64.7	35.3
	은퇴자	(21)	71.4	28.6
	학생	(72)	65.3	34.7
	무직/기타	(47)	53.2	46.8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68.9	31.1
	고졸	(1,131)	66.7	33.3
	대재 이상	(1,181)	63.0	37.0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72.1	27.9
	중소득	(1,180)	69.4	30.6
	고소득	(768)	53.6	46.4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보험금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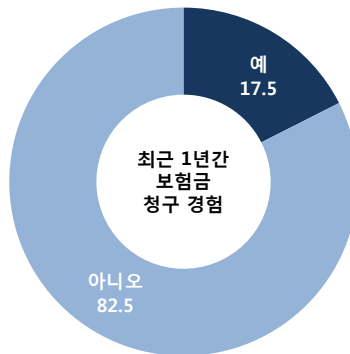
가. 보험금 청구, 심사 및 서류 처리 관련

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5%로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n=2,464 / 단위: %)



-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19.0%), 40~60대(40대 20.7%, 50대 19.0%, 60대 이상 20.2%), 주부(23.9%), 고졸(19.7%),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21.6%) 비교적 높았음

〈표 IV-1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17.5	82.5
성별	남성	(1,224)	16.0	84.0
	여성	(1,240)	19.0	81.0
연령	20대	(388)	11.1	88.9
	30대	(432)	13.9	86.1
	40대	(492)	20.7	79.3
	50대	(505)	19.0	81.0
	60대 이상	(647)	20.2	79.8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1.6	78.4
	중·소도시	(1,010)	14.2	85.8
	군지역	(336)	14.0	86.0
직업	화이트칼라	(678)	15.5	84.5
	블루칼라	(605)	17.2	82.8
	농/임/어업	(80)	5.0	95.0
	자영업	(478)	18.4	81.6
	주부	(482)	23.9	76.1
	은퇴자	(21)	9.5	90.5
	학생	(72)	13.9	86.1
	무직/기타	(47)	8.5	91.5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6.6	83.4
	고졸	(1,131)	19.7	80.3
	대재 이상	(1,181)	15.6	84.4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3.0	87.0
	중소득	(1,180)	16.9	83.1
	고소득	(768)	21.6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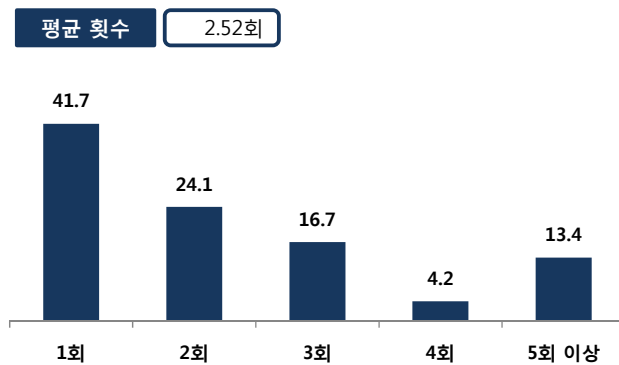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횟수를 살펴본 결과, '1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24.1%), '3회'(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평균 보험금 청구 횟수는 2.52회임

〈그림 IV-13〉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n=432 / 단위: %)



〈표 IV-1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회)
전체		(432)	41.7	24.1	16.7	4.2	13.4	2.52
성별	남성	(196)	43.4	24.0	15.3	2.6	14.8	2.63
	여성	(236)	40.3	24.2	17.8	5.5	12.3	2.43
연령	20대	(43)	48.8	25.6	7.0	4.7	14.0	2.56
	30대	(60)	38.3	31.7	20.0	5.0	5.0	2.07
	40대	(102)	40.2	26.5	18.6	2.0	12.7	2.40
	50대	(96)	45.8	24.0	10.4	6.3	13.5	2.61
	60대 이상	(131)	38.9	18.3	21.4	3.8	17.6	2.75
지역규모	대도시	(242)	43.8	23.1	13.2	5.0	14.9	2.45
	중·소도시	(143)	36.4	24.5	21.0	4.2	14.0	2.86
	군지역	(47)	46.8	27.7	21.3	0.0	4.3	1.87
직업	화이트칼라	(105)	46.7	22.9	18.1	2.9	9.5	2.28
	블루칼라	(104)	34.6	26.9	20.2	2.9	15.4	2.85
	농/임/어업	(4)	50.0	0.0	25.0	0.0	25.0	2.50
	자영업	(88)	50.0	20.5	11.4	2.3	15.9	2.52
	주부	(115)	36.5	25.2	16.5	7.8	13.9	2.50
	은퇴자	(2)	0.0	100.0	0.0	0.0	0.0	2.00
	학생	(10)	60.0	30.0	0.0	10.0	0.0	1.60
	무직/기타	(4)	25.0	0.0	50.0	0.0	25.0	3.7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52.0	12.0	12.0	0.0	24.0	3.12
	고졸	(223)	37.2	24.7	17.5	6.7	13.9	2.53
	대재 이상	(184)	45.7	25.0	16.3	1.6	11.4	2.43
가구 소득	저소득	(67)	46.3	22.4	13.4	3.0	14.9	2.60
	중소득	(199)	41.7	24.1	15.6	4.0	14.6	2.48
	고소득	(166)	39.8	24.7	19.3	4.8	11.4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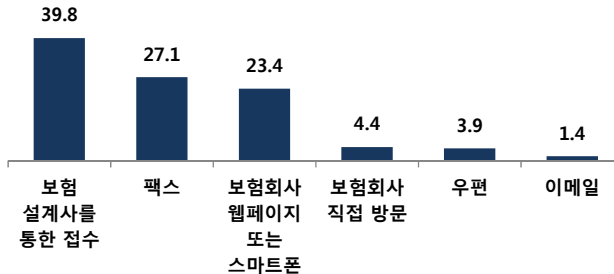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 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접수'가 39.8%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팩스'(27.1%), '보험회사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23.4%)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V-14〉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n=432 / 단위: %)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접수'는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63.4%), 대도시(45.0%), 자영업(50.0%), 주부(48.7%), 중졸 이하(76.0%),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79.1%) 비교적 높았음

〈표 IV-13〉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는 주요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 설계사 를 통한 접수	팩스	보험회사 웹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보험회사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전체		(432)	39.8	27.1	23.4	4.4	3.9	1.4
성별	남성	(196)	37.8	26.5	28.1	4.6	2.0	1.0
	여성	(236)	41.5	27.5	19.5	4.2	5.5	1.7
연령	20대	(43)	16.3	30.2	39.5	4.7	7.0	2.3
	30대	(60)	20.0	28.3	45.0	1.7	3.3	1.7
	40대	(102)	28.4	35.3	27.5	2.0	5.9	1.0
	50대	(96)	42.7	26.0	20.8	6.3	1.0	3.1
	60대 이상	(131)	63.4	19.8	6.9	6.1	3.8	0.0
지역규모	대도시	(242)	45.0	28.9	14.5	4.1	5.8	1.7
	중·소도시	(143)	31.5	24.5	35.0	5.6	2.1	1.4
	군지역	(47)	38.3	25.5	34.0	2.1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105)	20.0	36.2	33.3	2.9	3.8	3.8
	블루칼라	(104)	40.4	26.9	25.0	5.8	1.9	0.0
	농/임/어업	(4)	100.0	0.0	0.0	0.0	0.0	0.0
	자영업	(88)	50.0	27.3	10.2	9.1	2.3	1.1
	주부	(115)	48.7	21.7	20.0	1.7	7.0	0.9
	은퇴자	(2)	50.0	0.0	50.0	0.0	0.0	0.0
	학생	(10)	20.0	20.0	50.0	0.0	10.0	0.0
	무직/기타	(4)	50.0	0.0	5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76.0	4.0	0.0	12.0	8.0	0.0
	고졸	(223)	52.0	30.0	9.9	3.6	4.0	0.4
	대재 이상	(184)	20.1	26.6	42.9	4.3	3.3	2.7
가구 소득	저소득	(67)	79.1	6.0	4.5	9.0	1.5	0.0
	중소득	(199)	33.2	29.1	25.6	4.0	6.5	1.5
	고소득	(166)	31.9	33.1	28.3	3.0	1.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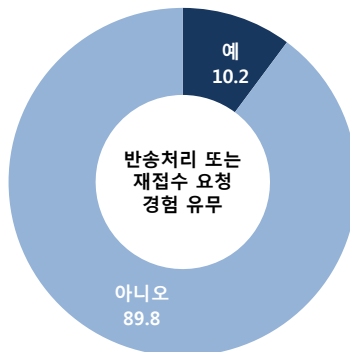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0.2%로 10명 중 약 1명 정도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유무

(n=432 / 단위: %)



-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은 대도시 (13.6%), 저소득(17.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14〉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32)	10.2	89.8
성별	남성	(196)	9.7	90.3
	여성	(236)	10.6	89.4
연령	20대	(43)	16.3	83.7
	30대	(60)	6.7	93.3
	40대	(102)	5.9	94.1
	50대	(96)	11.5	88.5
	60대 이상	(131)	12.2	87.8
지역규모	대도시	(242)	13.6	86.4
	중·소도시	(143)	5.6	94.4
	군지역	(47)	6.4	93.6
직업	화이트칼라	(105)	8.6	91.4
	블루칼라	(104)	13.5	86.5
	농/임/어업	(4)	25.0	75.0
	자영업	(88)	5.7	94.3
	주부	(115)	10.4	89.6
	은퇴자	(2)	0.0	100.0
	학생	(10)	20.0	80.0
	무직/기타	(4)	25.0	7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28.0	72.0
	고졸	(223)	12.1	87.9
	대재 이상	(184)	5.4	94.6
가구 소득	저소득	(67)	17.9	82.1
	중소득	(199)	9.0	91.0
	고소득	(166)	8.4	91.6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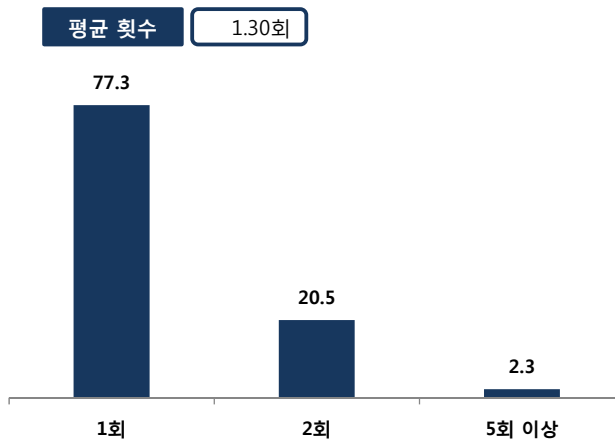
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경험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77.3%로 가장 많았음

■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 관련 평균 횟수는 1.30회로 나타남

〈그림 IV-1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n=44 / 단위: %)



〈표 IV-15〉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5회 이상	평균 (회)
전체		(44)	77.3	20.5	2.3	1.30
성별	남성	(19)	73.7	21.1	5.3	1.42
	여성	(25)	80.0	20.0	0.0	1.20
연령	20대	(7)	71.4	28.6	0.0	1.29
	30대	(4)	100.0	0.0	0.0	1.00
	40대	(6)	83.3	16.7	0.0	1.17
	50대	(11)	81.8	18.2	0.0	1.18
	60대 이상	(16)	68.8	25.0	6.3	1.50
지역규모	대도시	(33)	81.8	18.2	0.0	1.18
	중·소도시	(8)	50.0	37.5	12.5	1.88
	군지역	(3)	100.0	0.0	0.0	1.00
직업	화이트칼라	(9)	100.0	0.0	0.0	1.00
	블루칼라	(14)	50.0	42.9	7.1	1.71
	농/임/어업	(1)	100.0	0.0	0.0	1.00
	자영업	(5)	80.0	20.0	0.0	1.20
	주부	(12)	91.7	8.3	0.0	1.08
	학생	(2)	100.0	0.0	0.0	1.00
	무직/기타	(1)	0.0	100.0	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71.4	14.3	14.3	1.71
	고졸	(27)	81.5	18.5	0.0	1.19
	대재 이상	(10)	70.0	30.0	0.0	1.30
가구 소득	저소득	(12)	75.0	16.7	8.3	1.50
	중소득	(18)	83.3	16.7	0.0	1.17
	고소득	(14)	71.4	28.6	0.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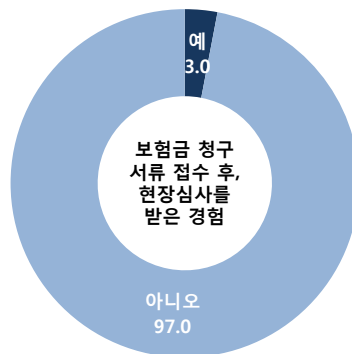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0%로 대부분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n=432 / 단위: %)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은 60대 이상(6.1%),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9.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32)	3.0	97.0
성별	남성	(196)	2.0	98.0
	여성	(236)	3.8	96.2
연령	20대	(43)	0.0	100.0
	30대	(60)	0.0	100.0
	40대	(102)	2.0	98.0
	50대	(96)	3.1	96.9
	60대 이상	(131)	6.1	93.9
지역규모	대도시	(242)	2.9	97.1
	중·소도시	(143)	2.8	97.2
	군지역	(47)	4.3	95.7
직업	화이트칼라	(105)	1.9	98.1
	블루칼라	(104)	1.9	98.1
	농/임/어업	(4)	25.0	75.0
	자영업	(88)	3.4	96.6
	주부	(115)	3.5	96.5
	은퇴자	(2)	0.0	100.0
	학생	(10)	0.0	100.0
	무직/기타	(4)	25.0	7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20.0	80.0
	고졸	(223)	3.1	96.9
	대재 이상	(184)	0.5	99.5
가구 소득	저소득	(67)	9.0	91.0
	중소득	(199)	2.5	97.5
	고소득	(166)	1.2	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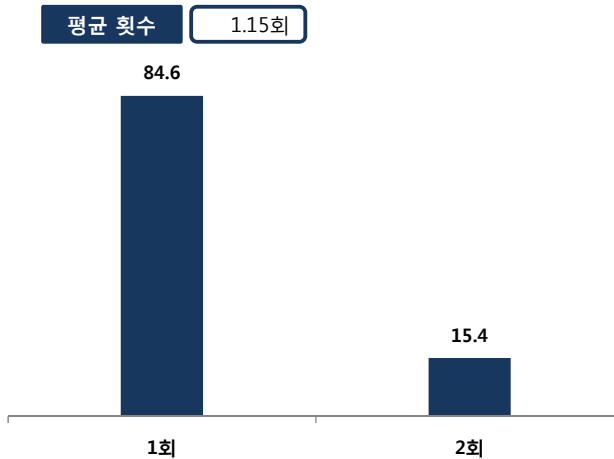
주: 은퇴자와 농/임/어업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IV-1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n=13 / 단위: %)



〈표 IV-1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평균(회)
전체		(13)	84.6	15.4	1.15
성별	남성	(4)	75.0	25.0	1.25
	여성	(9)	88.9	11.1	1.11
연령	40대	(2)	100.0	0.0	1.00
	50대	(3)	100.0	0.0	1.00
	60대 이상	(8)	75.0	25.0	1.25
지역규모	대도시	(7)	85.7	14.3	1.14
	중·소도시	(4)	75.0	25.0	1.25
	군지역	(2)	100.0	0.0	1.00
직업	화이트칼라	(2)	100.0	0.0	1.00
	블루칼라	(2)	50.0	50.0	1.50
	농/임/어업	(1)	100.0	0.0	1.00
	자영업	(3)	66.7	33.3	1.33
	주부	(4)	100.0	0.0	1.00
	무직/기타	(1)	10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80.0	20.0	1.20
	고졸	(7)	85.7	14.3	1.14
	대재 이상	(1)	100.0	0.0	1.00
가구 소득	저소득	(6)	66.7	33.3	1.33
	중소득	(5)	100.0	0.0	1.00
	고소득	(2)	100.0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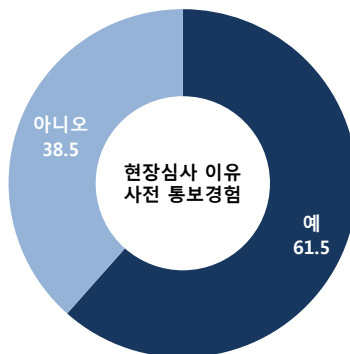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8)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61.5%로 '없다'(38.5%)에 비해 23.0%p 높게 나타남

〈그림 IV-1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n=13 / 단위: %)



〈표 IV-18〉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	61.5	38.5
성별	남성	(4)	25.0	75.0
	여성	(9)	77.8	22.2
연령	40대	(2)	50.0	50.0
	50대	(3)	66.7	33.3
	60대 이상	(8)	62.5	37.5
지역규모	대도시	(7)	71.4	28.6
	중·소도시	(4)	50.0	50.0
	군지역	(2)	50.0	50.0
직업	화이트칼라	(2)	50.0	50.0
	블루칼라	(2)	0.0	100.0
	농/임/어업	(1)	100.0	0.0
	자영업	(3)	66.7	33.3
	주부	(4)	75.0	25.0
	무직/기타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40.0	60.0
	고졸	(7)	85.7	14.3
	대재 이상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6)	66.7	33.3
	중소득	(5)	60.0	40.0
	고소득	(2)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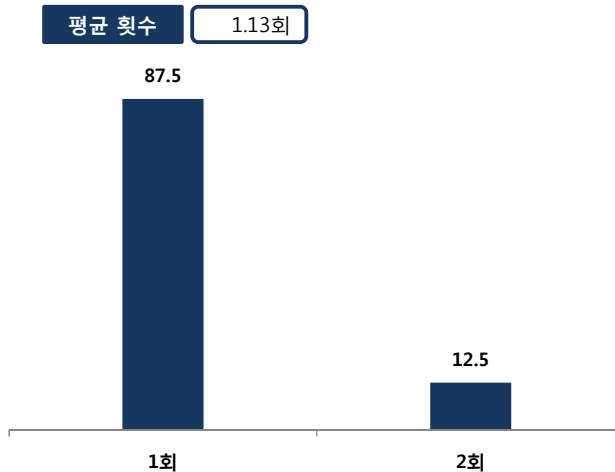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라는 응답이 87.5%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IV-20〉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n=8 / 단위: %)



〈표 IV-19〉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평균(회)
전체		(8)	87.5	12.5	1.13
성별	남성	(1)	100.0	0.0	1.00
	여성	(7)	85.7	14.3	1.14
연령	40대	(1)	100.0	0.0	1.00
	50대	(2)	100.0	0.0	1.00
	60대 이상	(5)	80.0	20.0	1.20
지역규모	대도시	(5)	80.0	20.0	1.20
	중·소도시	(2)	100.0	0.0	1.00
	군지역	(1)	100.0	0.0	1.00
직업	화이트칼라	(1)	100.0	0.0	1.00
	농/임/어업	(1)	100.0	0.0	1.00
	자영업	(2)	50.0	50.0	1.50
	주부	(3)	100.0	0.0	1.00
	무직/기타	(1)	10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1.00
	고졸	(6)	83.3	16.7	1.17
가구 소득	저소득	(4)	75.0	25.0	1.25
	중소득	(3)	100.0	0.0	1.00
	고소득	(1)	100.0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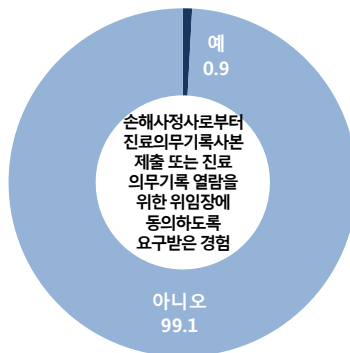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0)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0.9%로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1〉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n=2,464 / 단위: %)



〈표 IV-20〉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0.9	99.1
성별	남성	(1,224)	0.7	99.3
	여성	(1,240)	1.0	99.0
연령	20대	(388)	0.5	99.5
	30대	(432)	0.2	99.8
	40대	(492)	1.0	99.0
	50대	(505)	1.2	98.8
	60대 이상	(647)	1.1	98.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0.8	99.2
	중·소도시	(1,010)	1.1	98.9
	군지역	(336)	0.3	99.7
직업	화이트칼라	(678)	0.4	99.6
	블루칼라	(605)	0.7	99.3
	농/임/어업	(80)	1.3	98.8
	자영업	(478)	0.6	99.4
	주부	(482)	1.5	98.5
	은퇴자	(21)	4.8	95.2
	학생	(72)	1.4	98.6
	무직/기타	(47)	2.1	97.9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3	98.7
	고졸	(1,131)	1.1	98.9
	대재 이상	(1,181)	0.6	99.4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2	98.8
	중소득	(1,180)	0.5	99.5
	고소득	(768)	1.2	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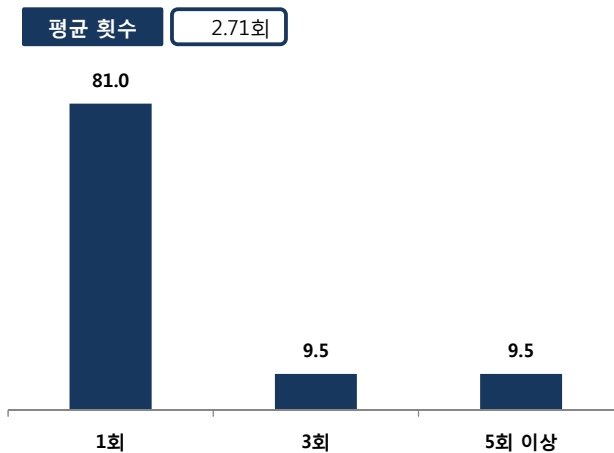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1)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81.0%로 대부분을 차지함
-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평균 횟수는 2.71회임

〈그림 IV-22〉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n=21 / 단위: %)



〈표 IV-21〉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로부터 진료의무기록사본 제출 또는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3회	5회 이상	평균(회)
전체		(21)	81.0	9.5	9.5	2.71
성별	남성	(8)	75.0	0.0	25.0	5.00
	여성	(13)	84.6	15.4	0.0	1.31
연령	20대	(2)	50.0	0.0	50.0	7.50
	30대	(1)	100.0	0.0	0.0	1.00
	40대	(5)	80.0	20.0	0.0	1.40
	50대	(6)	66.7	16.7	16.7	4.50
	60대 이상	(7)	100.0	0.0	0.0	1.00
지역규모	대도시	(9)	88.9	11.1	0.0	1.22
	중·소도시	(11)	72.7	9.1	18.2	4.09
	군지역	(1)	100.0	0.0	0.0	1.00
직업	화이트칼라	(3)	66.7	0.0	33.3	7.33
	블루칼라	(4)	50.0	25.0	25.0	4.75
	농/임/어업	(1)	100.0	0.0	0.0	1.00
	자영업	(3)	100.0	0.0	0.0	1.00
	주부	(7)	85.7	14.3	0.0	1.29
	은퇴자	(1)	100.0	0.0	0.0	1.00
	학생	(1)	100.0	0.0	0.0	1.00
	무직/기타	(1)	100.0	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0.0	1.00
	고졸	(12)	83.3	16.7	0.0	1.33
	대재 이상	(7)	71.4	0.0	28.6	5.57
가구 소득	저소득	(6)	100.0	0.0	0.0	1.00
	중소득	(6)	83.3	16.7	0.0	1.33
	고소득	(9)	66.7	11.1	22.2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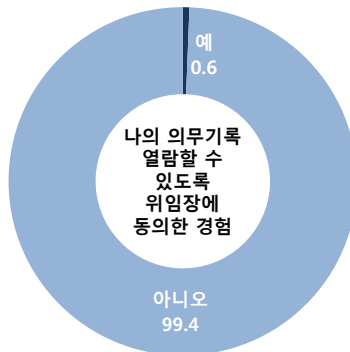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2)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0.6%로 대부분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n=2,464 / 단위: %)



〈표 IV-22〉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0.6	99.4
성별	남성	(1,224)	0.5	99.5
	여성	(1,240)	0.7	99.3
연령	20대	(388)	0.0	100.0
	30대	(432)	0.5	99.5
	40대	(492)	0.2	99.8
	50대	(505)	1.0	99.0
	60대 이상	(647)	1.1	98.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0.6	99.4
	중·소도시	(1,010)	0.6	99.4
	군지역	(336)	0.6	99.4
직업	화이트칼라	(678)	0.4	99.6
	블루칼라	(605)	0.5	99.5
	농/임/어업	(80)	1.3	98.8
	자영업	(478)	0.6	99.4
	주부	(482)	0.8	99.2
	은퇴자	(21)	4.8	95.2
	학생	(72)	0.0	100.0
	무직/기타	(4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3	98.7
	고졸	(1,131)	0.9	99.1
	대재 이상	(1,181)	0.3	99.7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0.8	99.2
	중소득	(1,180)	0.4	99.6
	고소득	(768)	0.8	99.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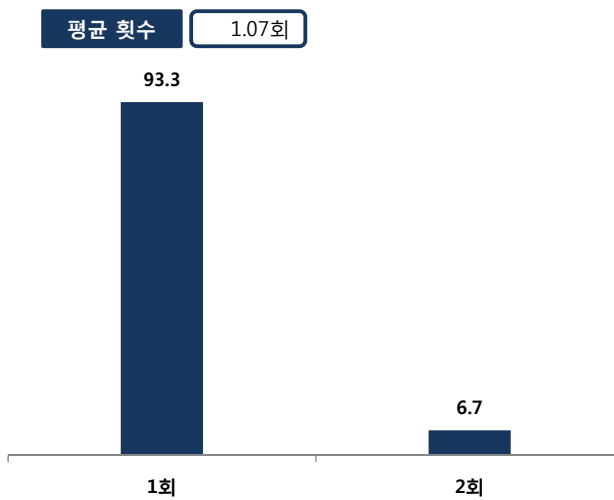
1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경험 횟수는 '1회'가 93.3%로 나타남

■ 위임장에 동의한 평균 횟수는 1.07회임

〈그림 IV-24〉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n=15 / 단위: %)



〈표 IV-23〉 최근 1년간 손해사정사가 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평균 (회)
전체		(15)	93.3	6.7	1.07
성별	남성	(6)	100.0	0.0	1.00
	여성	(9)	88.9	11.1	1.11
연령	30대	(2)	100.0	0.0	1.00
	40대	(1)	100.0	0.0	1.00
	50대	(5)	80.0	20.0	1.20
	60대 이상	(7)	100.0	0.0	1.00
지역규모	대도시	(7)	100.0	0.0	1.00
	중·소도시	(6)	100.0	0.0	1.00
	군지역	(2)	50.0	50.0	1.50
직업	화이트칼라	(3)	100.0	0.0	1.00
	블루칼라	(3)	66.7	33.3	1.33
	농/임/어업	(1)	100.0	0.0	1.00
	자영업	(3)	100.0	0.0	1.00
	주부	(4)	100.0	0.0	1.00
	은퇴자	(1)	10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1.00
	고졸	(10)	90.0	10.0	1.10
	대재 이상	(3)	100.0	0.0	1.00
가구 소득	저소득	(4)	100.0	0.0	1.00
	중소득	(5)	80.0	20.0	1.20
	고소득	(6)	100.0	0.0	1.0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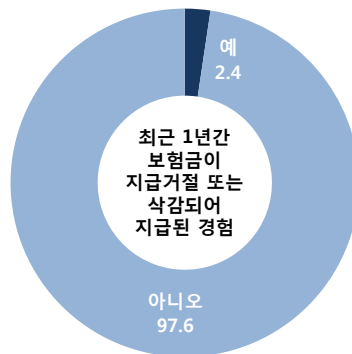
나.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1)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4%로 대부분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5〉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n=2,464 / 단위: %)



-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은 대도시(4.6%), 주부(4.6%),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4.0%)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4〉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2.4	97.6
성별	남성	(1,224)	2.1	97.9
	여성	(1,240)	2.6	97.4
연령	20대	(388)	2.3	97.7
	30대	(432)	2.5	97.5
	40대	(492)	2.2	97.8
	50대	(505)	2.8	97.2
	60대 이상	(647)	2.0	98.0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6	95.4
	중·소도시	(1,010)	0.6	99.4
	군지역	(336)	0.3	99.7
직업	화이트칼라	(678)	2.1	97.9
	블루칼라	(605)	2.6	97.4
	농/임/어업	(80)	1.3	98.8
	자영업	(478)	0.6	99.4
	주부	(482)	4.6	95.4
	은퇴자	(21)	0.0	100.0
	학생	(72)	2.8	97.2
	무직/기타	(4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0	96.0
	고졸	(1,131)	3.6	96.4
	대재 이상	(1,181)	0.9	99.1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7	98.3
	중소득	(1,180)	2.1	97.9
	고소득	(768)	3.1	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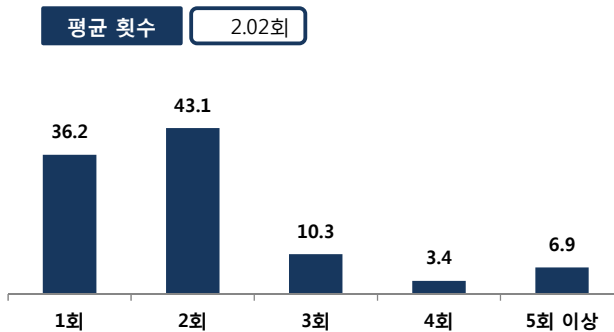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험 횟수를 살펴본 결과, '2회'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회'(3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횟수는 2.02회임

〈그림 IV-26〉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n=58 / 단위: %)



〈표 IV-25〉 최근 1년간 보험금이 지급 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회)
전체		(58)	36.2	43.1	10.3	3.4	6.9	2.02
성별	남성	(26)	38.5	46.2	3.8	3.8	7.7	1.96
	여성	(32)	34.4	40.6	15.6	3.1	6.3	2.06
연령	20대	(9)	11.1	66.7	11.1	0.0	11.1	2.33
	30대	(11)	27.3	27.3	36.4	9.1	0.0	2.27
	40대	(11)	54.5	45.5	0.0	0.0	0.0	1.45
	50대	(14)	35.7	42.9	7.1	0.0	14.3	2.14
	60대 이상	(13)	46.2	38.5	0.0	7.7	7.7	1.92
지역규모	대도시	(51)	31.4	49.0	9.8	3.9	5.9	2.04
	중·소도시	(6)	66.7	0.0	16.7	0.0	16.7	2.00
	군지역	(1)	100.0	0.0	0.0	0.0	0.0	1.00
직업	화이트칼라	(14)	28.6	50.0	7.1	7.1	7.1	2.14
	블루칼라	(16)	43.8	37.5	12.5	0.0	6.3	1.88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0.0	1.00
	자영업	(3)	33.3	33.3	0.0	0.0	33.3	2.67
	주부	(22)	36.4	40.9	13.6	4.5	4.5	2.00
	학생	(2)	0.0	100.0	0.0	0.0	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	0.0	83.3	0.0	0.0	16.7	2.50
	고졸	(41)	41.5	39.0	12.2	2.4	4.9	1.90
	대재 이상	(11)	36.4	36.4	9.1	9.1	9.1	2.18
가구 소득	저소득	(9)	44.4	44.4	0.0	0.0	11.1	1.89
	중소득	(25)	44.0	40.0	12.0	4.0	0.0	1.76
	고소득	(24)	25.0	45.8	12.5	4.2	12.5	2.3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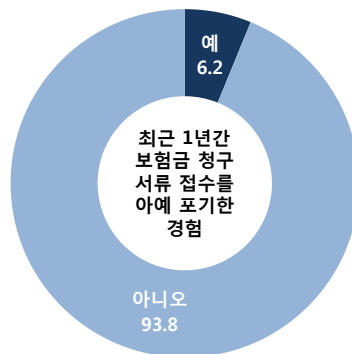
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포기 관련

1)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남

〈그림 IV-2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n=2,464 / 단위: %)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은 대도시(9.7%), 화이트칼라(7.8%), 주부(10.4%),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7.9%)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6〉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6.2	93.8
성별	남성	(1,224)	5.4	94.6
	여성	(1,240)	6.9	93.1
연령	20대	(388)	6.2	93.8
	30대	(432)	6.9	93.1
	40대	(492)	6.3	93.7
	50대	(505)	6.1	93.9
	60대 이상	(647)	5.6	94.4
지역규모	대도시	(1,118)	9.7	90.3
	중·소도시	(1,010)	3.0	97.0
	군지역	(336)	3.9	96.1
직업	화이트칼라	(678)	7.8	92.2
	블루칼라	(605)	5.8	94.2
	농/임/어업	(80)	0.0	100.0
	자영업	(478)	2.1	97.9
	주부	(482)	10.4	89.6
	은퇴자	(21)	0.0	100.0
	학생	(72)	5.6	94.4
	무직/기타	(4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7.3	92.7
	고졸	(1,131)	7.0	93.0
	대재 이상	(1,181)	5.2	94.8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3.7	96.3
	중소득	(1,180)	6.1	93.9
	고소득	(768)	7.9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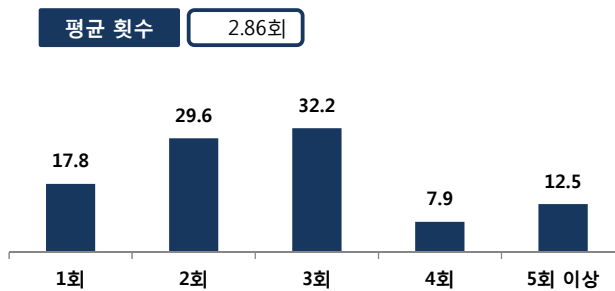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3회'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29.6%), '1회'(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보험금 청구 포기 횟수는 2.86회임

〈그림 IV-2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n=152 / 단위: %)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가 '2회'인 경우는 대도시(36.7%)와 자영업(40.0%)에서, '3회'는 남성(40.9%), 30대(40.0%), 대도시(34.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27〉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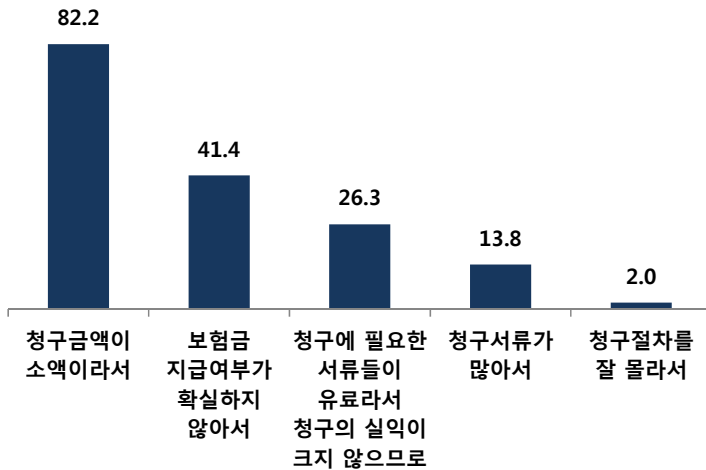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회)
전체		(152)	17.8	29.6	32.2	7.9	12.5	2.86
성별	남성	(66)	18.2	28.8	40.9	4.5	7.6	2.85
	여성	(86)	17.4	30.2	25.6	10.5	16.3	2.86
연령	20대	(24)	20.8	25.0	33.3	4.2	16.7	3.13
	30대	(30)	13.3	26.7	40.0	6.7	13.3	2.80
	40대	(31)	19.4	29.0	19.4	16.1	16.1	2.81
	50대	(31)	16.1	32.3	32.3	9.7	9.7	3.16
	60대 이상	(36)	19.4	33.3	36.1	2.8	8.3	2.50
지역규모	대도시	(109)	12.8	36.7	34.9	9.2	6.4	2.60
	중·소도시	(30)	20.0	10.0	23.3	6.7	40.0	4.27
	군지역	(13)	53.8	15.4	30.8	0.0	0.0	1.77
직업	화이트칼라	(53)	18.9	22.6	39.6	3.8	15.1	3.11
	블루칼라	(35)	0.0	37.1	40.0	8.6	14.3	3.14
	자영업	(10)	40.0	40.0	20.0	0.0	0.0	1.80
	주부	(50)	24.0	30.0	20.0	14.0	12.0	2.64
	학생	(4)	25.0	25.0	50.0	0.0	0.0	2.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	18.2	0.0	63.6	0.0	18.2	3.00
	고졸	(79)	12.7	35.4	29.1	12.7	10.1	2.75
	대재 이상	(62)	24.2	27.4	30.6	3.2	14.5	2.97
가구 소득	저소득	(19)	31.6	15.8	36.8	5.3	10.5	2.53
	중소득	(72)	15.3	33.3	31.9	9.7	9.7	2.65
	고소득	(61)	16.4	29.5	31.1	6.6	16.4	3.20

3)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로는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가 82.2%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41.4%),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유료라서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26.3%), ‘청구서류가 많아서’(13.8%)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V-29〉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n=152 / 단위: %)



〈표 IV-28〉 최근 1년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청구 금액이 소액 이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유료라서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서류 가 많아서	청구 절차를 잘 몰라서
전체		(152)	82.2	41.4	26.3	13.8	2.0
성별	남성	(66)	75.8	45.5	25.8	18.2	1.5
	여성	(86)	87.2	38.4	26.7	10.5	2.3
연령	20대	(24)	87.5	54.2	16.7	8.3	4.2
	30대	(30)	70.0	40.0	30.0	10.0	3.3
	40대	(31)	87.1	22.6	25.8	19.4	0.0
	50대	(31)	77.4	51.6	29.0	16.1	0.0
	60대 이상	(36)	88.9	41.7	27.8	13.9	2.8
지역규모	대도시	(109)	81.7	45.9	30.3	11.9	0.0
	중·소도시	(30)	83.3	30.0	20.0	10.0	10.0
	군지역	(13)	84.6	30.8	7.7	38.5	0.0
직업	화이트칼라	(53)	83.0	45.3	20.8	15.1	1.9
	블루칼라	(35)	77.1	37.1	34.3	11.4	5.7
	자영업	(10)	70.0	50.0	50.0	20.0	0.0
	주부	(50)	86.0	40.0	24.0	10.0	0.0
	학생	(4)	100.0	25.0	0.0	5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	90.9	45.5	18.2	9.1	9.1
	고졸	(79)	79.7	46.8	31.6	11.4	0.0
	대재 이상	(62)	83.9	33.9	21.0	17.7	3.2
가구 소득	저소득	(19)	84.2	31.6	21.1	15.8	5.3
	중소득	(72)	81.9	43.1	26.4	15.3	1.4
	고소득	(61)	82.0	42.6	27.9	11.5	1.6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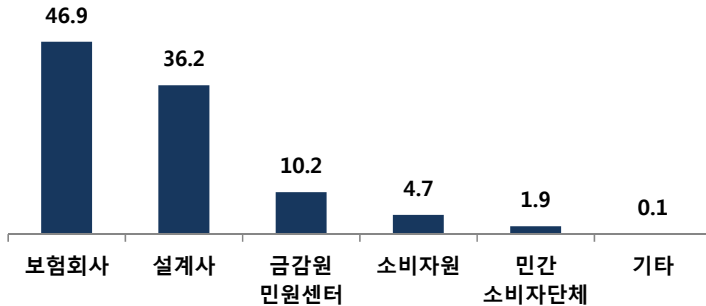
가.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처 및 이유

1)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로 ‘보험회사’가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계사’(36.2%), ‘금감원 민원센터’(10.2%), ‘소비자원’(4.7%), ‘민간 소비자단체’(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0〉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n=2,464 / 단위: %)



-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로 ‘보험회사’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53.4%), 중·소도시(49.7%), 학생(6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설계사’라는 응답은 여성(38.2%),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47.1%), 농/임/어업(41.3%),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53.0%), 저소득(42.8%)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29〉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회사	설계사	금감원 민원센터	소비자원	민간 소비자 단체	기타
전체		(2,464)	46.9	36.2	10.2	4.7	1.9	0.1
성별	남성	(1,224)	48.9	34.2	10.8	4.2	1.8	0.1
	여성	(1,240)	44.9	38.2	9.7	5.1	2.0	0.1
연령	20대	(388)	53.4	26.3	11.3	8.5	0.5	0.0
	30대	(432)	51.2	27.5	12.7	6.5	2.1	0.0
	40대	(492)	48.8	33.3	11.2	3.9	2.8	0.0
	50대	(505)	45.3	40.2	10.1	2.6	1.6	0.2
	60대 이상	(647)	39.9	47.1	7.3	3.4	2.2	0.2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4.3	37.0	11.5	5.5	1.6	0.0
	중·소도시	(1,010)	49.7	35.1	8.7	5.0	1.2	0.2
	군지역	(336)	47.0	36.9	10.4	0.6	5.1	0.0
직업	화이트칼라	(678)	48.7	30.2	13.0	6.5	1.6	0.0
	블루칼라	(605)	47.9	37.5	8.9	4.6	0.8	0.2
	농/임/어업	(80)	36.3	41.3	13.8	1.3	6.3	1.3
	자영업	(478)	45.0	40.0	8.8	4.0	2.3	0.0
	주부	(482)	44.6	40.7	9.1	3.1	2.5	0.0
	은퇴자	(21)	42.9	38.1	14.3	0.0	4.8	0.0
	학생	(72)	63.9	15.3	8.3	11.1	1.4	0.0
	무직/기타	(47)	44.7	44.7	8.5	0.0	2.1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35.8	53.0	7.9	2.0	0.7	0.7
	고졸	(1,131)	47.2	38.0	8.4	3.8	2.5	0.1
	대재 이상	(1,181)	47.9	32.4	12.3	5.8	1.5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1.9	42.8	9.7	2.9	2.3	0.4
	중소득	(1,180)	48.4	33.2	11.4	4.7	2.4	0.0
	고소득	(768)	47.9	36.5	8.9	5.9	0.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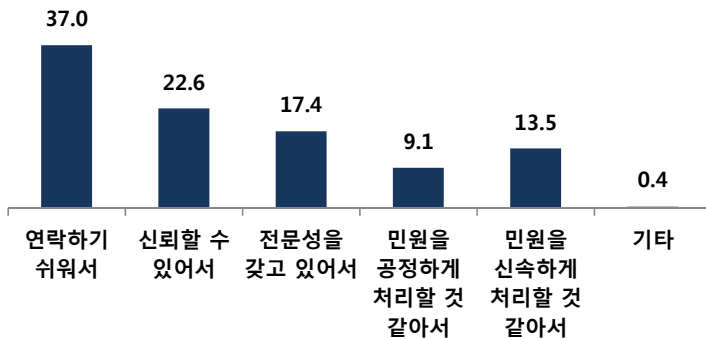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연락하기 쉬워서'가 37.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신뢰할 수 있어서'(22.6%),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17.4%),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13.5%),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9.1%) 등의 순임

〈그림 IV-31〉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n=2,464 / 단위: %)



- 보험계약에 대한 문의처로 설계사를 꼽은 이유로는 '연락하기 쉬워서'(69.0%)가 많았고, 보험회사의 경우 '신뢰할 수 있어서'(26.9%)로 나타남
- 한편, 금감원 민원센터, 소비자원, 민간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이 꼽힘

〈표 IV-30〉 향후 보험계약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선택한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락하기 쉬워서	신뢰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2,464)	37.0	22.6	17.4	9.1	13.5	0.4
성별	남성	(1,224)	34.8	23.4	17.6	9.2	14.5	0.4
	여성	(1,240)	39.2	21.8	17.2	9.0	12.5	0.3
연령	20대	(388)	32.0	23.7	19.3	10.6	14.2	0.3
	30대	(432)	30.6	21.5	18.3	13.0	16.2	0.5
	40대	(492)	32.3	21.7	20.5	9.1	16.1	0.2
	50대	(505)	38.8	23.0	17.2	7.5	13.1	0.4
	60대 이상	(647)	46.5	23.0	13.4	6.8	9.7	0.5
지역규모	대도시	(1,118)	39.4	20.4	16.8	10.6	12.3	0.4
	중·소도시	(1,010)	34.4	25.3	18.4	6.6	14.8	0.5
	군지역	(336)	36.9	21.7	16.4	11.3	13.7	0.0
직업	화이트칼라	(678)	32.9	19.3	20.2	10.5	16.2	0.9
	블루칼라	(605)	38.7	24.3	17.7	8.1	11.1	0.2
	농/임/어업	(80)	45.0	16.3	11.3	13.8	13.8	0.0
	자영업	(478)	36.2	25.5	16.7	7.9	13.4	0.2
	주부	(482)	39.8	23.4	14.5	8.7	13.3	0.2
	은퇴자	(21)	42.9	23.8	28.6	4.8	0.0	0.0
	학생	(72)	26.4	22.2	22.2	11.1	18.1	0.0
	무직/기타	(47)	53.2	21.3	8.5	8.5	8.5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55.0	17.2	12.6	8.6	6.0	0.7
	고졸	(1,131)	38.9	24.9	15.2	8.7	12.1	0.2
	대재 이상	(1,181)	32.9	21.1	20.2	9.6	15.8	0.5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38.2	25.2	17.6	8.7	10.1	0.2
	중소득	(1,180)	35.2	24.3	18.1	9.2	12.8	0.4
	고소득	(768)	39.1	18.2	16.3	9.1	16.9	0.4
문의처	설계사	(893)	69.0	18.9	5.4	1.5	4.8	0.4
	보험회사	(1,155)	24.8	26.9	22.1	5.2	20.8	0.2
	금감원 민원센터	(252)	2.4	17.1	31.0	37.3	11.5	0.8
	소비자원	(115)	1.7	22.6	28.7	36.5	10.4	-
	민간 소비자단체	(47)	2.1	17.0	29.8	31.9	19.1	-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보험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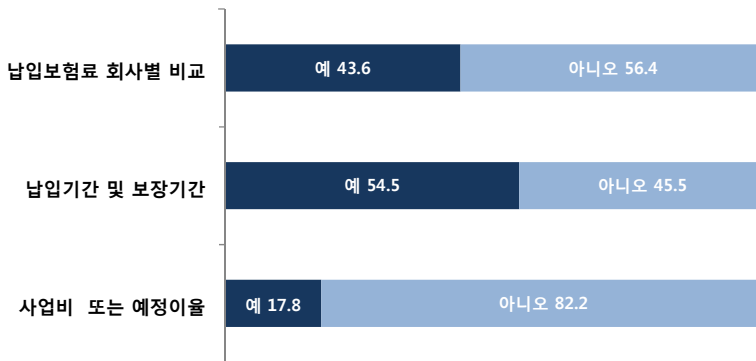
가. 보험 가입 전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경로, 인지 정도

1) 정보 탐색 경험: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사업비나 예정이율

- 보험 가입 전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납입보험료 회사별 비교’에 대해서는 43.6%, ‘납입기간 및 보장기간’에 대해서 54.5%, 마지막으로 ‘사업비 또는 예정이율’에 대해서 17.8%의 응답자가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2〉 정보 탐색 경험

(n=2,464 / 단위: %)



- ‘납입보험료 회사별 비교’는 30대(55.6%) 및 40대(50.6%), 대도시(46.2%), 화이트칼라(55.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4.1%),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56.0%) 상대적으로 높았음
- ‘납입기간 및 보장기간’의 경우 30대(64.6%) 및 40대(59.3%), 대도시(58.4%), 화이트칼라(64.6%),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61.2%),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65.6%)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사업비 또는 예정이율'은 남성(19.8%), 30대(22.7%), 대도시와 군지역(각각 20.0%, 20.2%), 화이트칼라(25.4%),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21.3%),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21.9%) 특히 높았음

〈표 IV-31〉 정보 탐색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납입보험료 회사별 비교		납입기간 및 보장기간		사업비 또는 예정이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464)	43.6	56.4	54.5	45.5	17.8	82.2
성별	남성	(1,224)	42.1	57.9	53.5	46.5	19.8	80.2
	여성	(1,240)	45.1	54.9	55.4	44.6	15.9	84.1
연령	20대	(388)	43.6	56.4	46.9	53.1	17.5	82.5
	30대	(432)	55.6	44.4	64.6	35.4	22.7	77.3
	40대	(492)	50.6	49.4	59.3	40.7	20.1	79.9
	50대	(505)	44.0	56.0	58.2	41.8	19.0	81.0
	60대 이상	(647)	30.0	70.0	45.6	54.4	12.1	87.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6.2	53.8	58.4	41.6	20.0	80.0
	중·소도시	(1,010)	39.8	60.2	51.2	48.8	14.6	85.4
	군지역	(336)	46.4	53.6	51.2	48.8	20.2	79.8
직업	화이트칼라	(678)	55.3	44.7	64.6	35.4	25.4	74.6
	블루칼라	(605)	40.0	60.0	50.7	49.3	16.7	83.3
	농/임/어업	(80)	27.5	72.5	35.0	65.0	12.5	87.5
	자영업	(478)	42.9	57.1	56.7	43.3	15.5	84.5
	주부	(482)	40.9	59.1	52.9	47.1	13.7	86.3
	은퇴자	(21)	14.3	85.7	28.6	71.4	9.5	90.5
	학생	(72)	19.4	80.6	25.0	75.0	8.3	91.7
	무직/기타	(47)	34.0	66.0	40.4	59.6	17.0	83.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1.9	88.1	27.2	72.8	2.6	97.4
	고졸	(1,131)	36.9	63.1	51.0	49.0	16.3	83.7
	대재 이상	(1,181)	54.1	45.9	61.2	38.8	21.3	78.7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7.5	72.5	41.1	58.9	7.4	92.6
	중소득	(1,180)	42.5	57.5	53.1	46.9	19.7	80.3
	고소득	(768)	56.0	44.0	65.6	34.4	21.9	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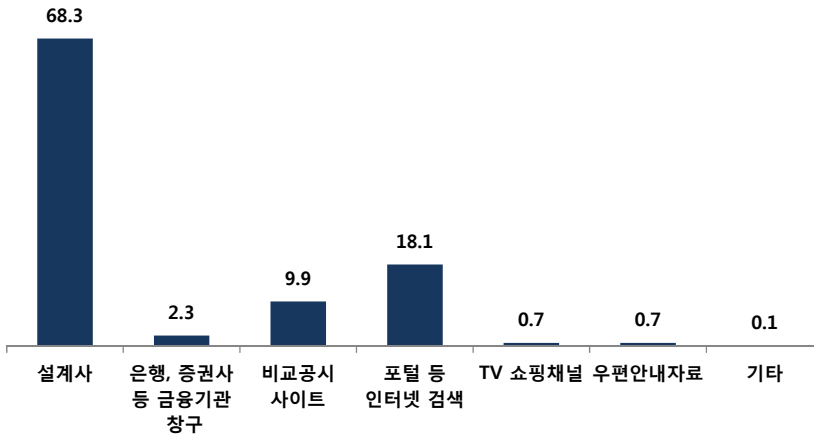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를 정보 탐색해 본 경로로 '설계사'가 68.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포털 등 인터넷 검색'(18.1%), '비교공시 사이트'(9.9%),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2.3%)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V-33〉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n=1,074 / 단위: %)



-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에 대한 정보 탐색 경로로 '설계사'라는 응답은 여성(73.3%),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93.8%), 군지역(80.8%), 자영업(80.5%) 및 주부(77.2%),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100.0%),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72.1%)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2〉 정보 탐색 경로: 회사별 납입할 보험료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금융 기관 창구	비교 공시 사이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쇼핑 채널	보험회사 등 우편 안내 자료	기타
전체		(1,074)	68.3	2.3	9.9	18.1	0.7	0.7	0.1
성별	남성	(515)	62.9	2.1	12.6	21.0	1.0	0.4	0.0
	여성	(559)	73.3	2.5	7.3	15.4	0.4	0.9	0.2
연령	20대	(169)	46.2	0.6	16.0	34.9	2.4	0.0	0.0
	30대	(240)	48.8	3.8	17.1	29.6	0.4	0.4	0.0
	40대	(249)	71.5	2.0	10.4	14.1	0.4	1.6	0.0
	50대	(222)	80.6	3.2	3.6	11.3	0.5	0.9	0.0
	60대 이상	(194)	93.8	1.5	2.1	2.1	0.0	0.0	0.5
지역규모	대도시	(516)	64.7	2.1	9.3	22.1	0.8	1.0	0.0
	중·소도시	(402)	68.2	3.2	10.4	16.7	0.7	0.5	0.2
	군지역	(156)	80.8	0.6	10.3	8.3	0.0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75)	58.1	2.4	14.1	23.5	1.3	0.5	0.0
	블루칼라	(242)	67.4	2.9	10.7	18.2	0.0	0.8	0.0
	농/임/어업	(22)	77.3	0.0	13.6	9.1	0.0	0.0	0.0
	자영업	(205)	80.5	1.5	2.4	14.1	1.0	0.5	0.0
	주부	(197)	77.2	3.0	7.1	11.2	0.0	1.0	0.5
	은퇴자	(3)	100.0	0.0	0.0	0.0	0.0	0.0	0.0
	학생	(14)	50.0	0.0	14.3	35.7	0.0	0.0	0.0
	무직/기타	(16)	56.3	0.0	18.8	25.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	100.0	0.0	0.0	0.0	0.0	0.0	0.0
	고졸	(417)	82.5	2.2	2.9	10.3	0.7	1.2	0.2
	대재 이상	(639)	58.2	2.5	14.7	23.6	0.6	0.3	0.0
가구 소득	저소득	(142)	64.8	0.7	11.3	22.5	0.7	0.0	0.0
	중소득	(502)	66.1	2.6	9.4	19.7	0.8	1.2	0.2
	고소득	(430)	72.1	2.6	10.0	14.7	0.5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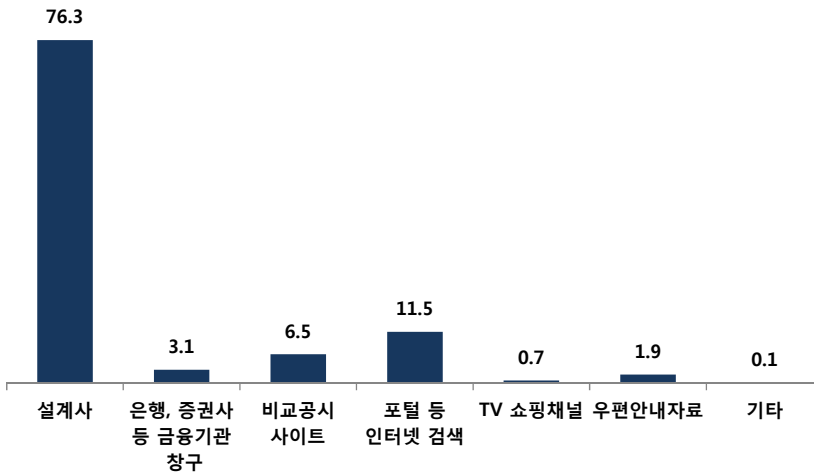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정보 탐색해 본 경로로 '설계사'가 76.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포털 등 인터넷 검색'(11.5%), '비교공시 사이트'(6.5%),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4〉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n=1,342 / 단위: %)



-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에 대한 정보 탐색 경로로 '설계사'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89.8%), 지역규모가 작을수록(군지역 85.5%), 농/임/어업(92.9%), 자영업(81.9%), 주부(81.2%), 고졸(86.5%)에서 특히 높았음

〈표 IV-33〉 정보 탐색 경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금융 기관 창구	비교 공시 사이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 쇼핑 채널	보험회사 등 우편 안내 자료	기타
전체		(1,342)	76.3	3.1	6.5	11.5	0.7	1.9	0.1
성별	남성	(655)	75.7	2.4	7.8	11.6	0.6	1.8	0.0
	여성	(687)	76.9	3.6	5.2	11.4	0.7	2.0	0.1
연령	20대	(182)	61.5	0.5	10.4	25.3	0.0	2.2	0.0
	30대	(279)	62.4	3.2	12.2	17.6	1.8	2.9	0.0
	40대	(292)	76.4	3.1	6.5	11.6	1.0	1.4	0.0
	50대	(294)	85.0	3.7	3.7	5.8	0.3	1.4	0.0
	60대 이상	(295)	89.8	3.7	1.4	2.7	0.0	2.0	0.3
지역규모	대도시	(653)	74.6	2.0	6.7	13.9	0.6	2.1	0.0
	중·소도시	(517)	75.4	5.2	6.0	10.3	0.8	2.1	0.2
	군지역	(172)	85.5	0.6	7.0	5.8	0.6	0.6	0.0
직업	화이트칼라	(438)	70.1	3.2	9.8	14.2	1.1	1.6	0.0
	블루칼라	(307)	75.6	2.9	4.9	13.7	1.0	2.0	0.0
	농/임/어업	(28)	92.9	0.0	3.6	3.6	0.0	0.0	0.0
	자영업	(271)	81.9	2.2	3.0	10.7	0.4	1.8	0.0
	주부	(255)	81.2	4.3	5.5	6.3	0.0	2.4	0.4
	은퇴자	(6)	100.0	0.0	0.0	0.0	0.0	0.0	0.0
	학생	(18)	55.6	0.0	16.7	16.7	0.0	11.1	0.0
	무직/기타	(19)	73.7	5.3	15.8	5.3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1)	85.4	4.9	0.0	2.4	0.0	7.3	0.0
	고졸	(577)	86.5	3.3	2.1	5.9	0.3	1.7	0.2
	대재 이상	(723)	67.6	2.8	10.4	16.5	1.0	1.8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12)	75.0	3.8	6.6	13.7	0.0	0.9	0.0
	중소득	(626)	76.8	2.9	5.1	10.7	1.1	3.2	0.2
	고소득	(504)	76.2	3.0	8.1	11.5	0.4	0.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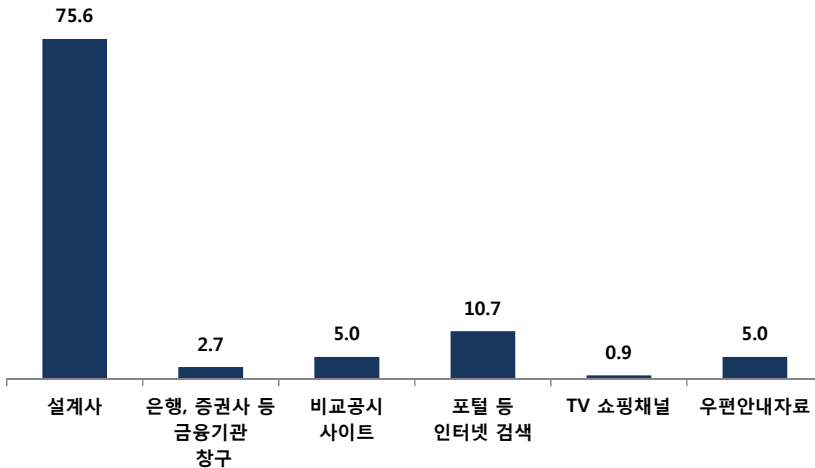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 사업비나 예정이율을 정보 탐색해 본 경로로 '설계사'가 75.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포털 등 인터넷 검색'(10.7%), '비교공시 사이트' 및 '우편안내자료'(5.0%),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2.7%)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V-35〉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n=439 / 단위: %)



- 사업비나 예정이율에 대한 정보 탐색 경로로 '설계사'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 수록(60대 이상 92.3%), 군지역(92.6%), 주부(86.4%), 고졸(89.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4〉 정보 탐색 경로: 사업비나 예정이율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설계사	금융 기관 창구	비교 공시 사이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쇼핑 채널	보험회사 등 우편안내 자료
전체		(439)	75.6	2.7	5.0	10.7	0.9	5.0
성별	남성	(242)	75.6	2.9	6.6	10.3	0.8	3.7
	여성	(197)	75.6	2.5	3.0	11.2	1.0	6.6
연령	20대	(68)	47.1	1.5	13.2	26.5	1.5	10.3
	30대	(98)	64.3	1.0	10.2	14.3	1.0	9.2
	40대	(99)	77.8	6.1	1.0	10.1	1.0	4.0
	50대	(96)	91.7	2.1	2.1	2.1	1.0	1.0
	60대 이상	(78)	92.3	2.6	0.0	3.8	0.0	1.3
지역규모	대도시	(224)	74.1	1.8	6.3	11.2	0.9	5.8
	중·소도시	(147)	70.1	4.8	5.4	12.9	1.4	5.4
	군지역	(68)	92.6	1.5	0.0	4.4	0.0	1.5
직업	화이트칼라	(172)	70.3	3.5	5.2	12.8	0.6	7.6
	블루칼라	(101)	73.3	3.0	6.9	11.9	1.0	4.0
	농/임/어업	(10)	80.0	10.0	10.0	0.0	0.0	0.0
	자영업	(74)	82.4	2.7	1.4	8.1	1.4	4.1
	주부	(66)	86.4	0.0	0.0	9.1	1.5	3.0
	은퇴자	(2)	100.0	0.0	0.0	0.0	0.0	0.0
	학생	(6)	50.0	0.0	33.3	16.7	0.0	0.0
	무직/기타	(8)	75.0	0.0	25.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75.0	0.0	0.0	0.0	0.0	25.0
	고졸	(184)	89.1	2.7	2.7	3.3	1.1	1.1
	대재 이상	(251)	65.7	2.8	6.8	16.3	0.8	7.6
가구 소득	저소득	(38)	60.5	5.3	2.6	23.7	0.0	7.9
	중소득	(233)	74.7	1.7	6.0	10.3	1.7	5.6
	고소득	(168)	80.4	3.6	4.2	8.3	0.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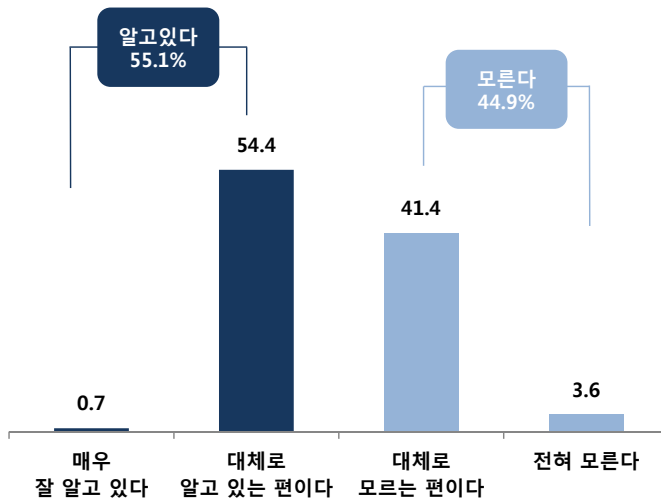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5.1%로 '모른다(대체로+전혀)'(44.9%)에 비해 10.2%p 높게 나타남

〈그림 IV-36〉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n=2,464 / 단위: %)



-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 (71.1%) 및 40대(66.9%), 군지역(60.1%), 화이트칼라(69.2%), 학력이 높을수록 (대재 이상 67.3%),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68.0%)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5〉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인지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장내용 인지 정도				종합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2,464)	0.7	54.4	41.4	3.6	55.1	44.9
성별	남성	(1,224)	0.5	52.9	43.6	3.0	53.3	46.7
	여성	(1,240)	0.9	55.9	39.1	4.1	56.8	43.2
연령	20대	(388)	1.0	46.6	44.3	8.0	47.7	52.3
	30대	(432)	0.5	70.6	27.3	1.6	71.1	28.9
	40대	(492)	1.0	65.9	32.9	0.2	66.9	33.1
	50대	(505)	0.6	57.6	41.2	0.6	58.2	41.8
	60대 이상	(647)	0.5	36.9	55.5	7.1	37.4	62.6
지역규모	대도시	(1,118)	0.7	54.9	41.9	2.5	55.6	44.4
	중·소도시	(1,010)	0.8	52.0	42.3	5.0	52.8	47.2
	군지역	(336)	0.3	59.8	36.9	3.0	60.1	39.9
직업	화이트칼라	(678)	1.0	68.1	28.9	1.9	69.2	30.8
	블루칼라	(605)	1.0	50.1	46.3	2.6	51.1	48.9
	농/임/어업	(80)	0.0	35.0	60.0	5.0	35.0	65.0
	자영업	(478)	0.6	51.3	47.3	0.8	51.9	48.1
	주부	(482)	0.2	54.6	40.7	4.6	54.8	45.2
	은퇴자	(21)	0.0	38.1	52.4	9.5	38.1	61.9
	학생	(72)	0.0	23.6	54.2	22.2	23.6	76.4
	무직/기타	(47)	0.0	29.8	46.8	23.4	29.8	70.2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0.7	17.9	63.6	17.9	18.5	81.5
	고졸	(1,131)	0.5	46.6	49.5	3.4	47.1	52.9
	대재 이상	(1,181)	0.8	66.5	30.7	1.9	67.3	32.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0.4	38.0	54.1	7.6	38.4	61.6
	중소득	(1,180)	0.6	53.4	43.3	2.7	54.0	46.0
	고소득	(768)	1.0	66.9	29.8	2.2	68.0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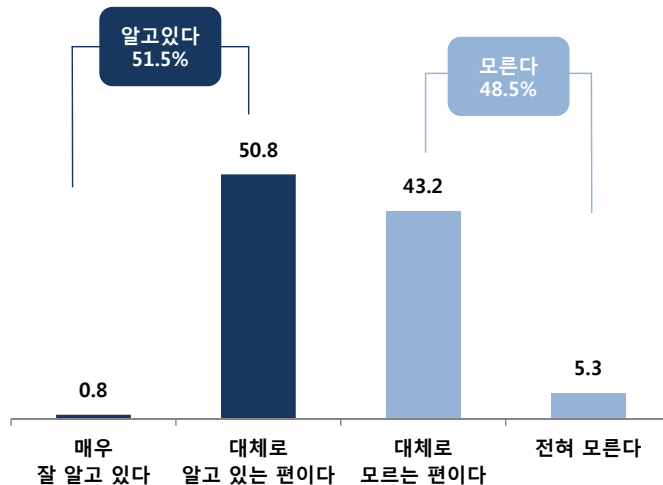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약 및 보장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1.5%로 ‘모른다(대체로+전혀)’(48.5%)에 비해 3.0%p 높게 나타남

〈그림 IV-37〉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n=2,464 / 단위: %)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주보험 외 특약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67.4%) 및 40대(62.4%), 군지역(60.4%), 화이트칼라(64.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61.3%),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62.9%)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6〉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특약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특약 보장내용 인지 정도				종합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2,464)	0.8	50.8	43.2	5.3	51.5	48.5
성별	남성	(1,224)	0.4	49.5	45.2	4.9	49.9	50.1
	여성	(1,240)	1.1	52.0	41.2	5.6	53.1	46.9
연령	20대	(388)	1.3	44.3	44.1	10.3	45.6	54.4
	30대	(432)	1.2	66.2	30.3	2.3	67.4	32.6
	40대	(492)	1.0	61.4	36.0	1.6	62.4	37.6
	50대	(505)	0.4	51.9	45.5	2.2	52.3	47.7
	60대 이상	(647)	0.3	35.4	54.9	9.4	35.7	64.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0.9	49.4	44.9	4.8	50.3	49.7
	중·소도시	(1,010)	0.8	49.2	43.8	6.2	50.0	50.0
	군지역	(336)	0.3	60.1	35.7	3.9	60.4	39.6
직업	화이트칼라	(678)	1.2	63.1	33.2	2.5	64.3	35.7
	블루칼라	(605)	1.2	47.1	46.3	5.5	48.3	51.7
	농/임/어업	(80)	0.0	33.8	61.3	5.0	33.8	66.3
	자영업	(478)	0.0	50.2	47.7	2.1	50.2	49.8
	주부	(482)	0.6	49.4	42.5	7.5	50.0	50.0
	은퇴자	(21)	4.8	23.8	57.1	14.3	28.6	71.4
	학생	(72)	0.0	20.8	54.2	25.0	20.8	79.2
	무직/기타	(47)	0.0	27.7	53.2	19.1	27.7	72.3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중졸 이하	(151)	0.0	17.9	62.9	19.2	17.9	82.1
교육 수준	고졸	(1,131)	0.7	45.2	48.4	5.7	45.9	54.1
	대재 이상	(1,181)	0.9	60.4	35.6	3.0	61.3	38.7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0.6	37.8	52.5	9.1	38.4	61.6
	중소득	(1,180)	0.8	49.1	45.5	4.6	49.9	50.1
	고소득	(768)	0.8	62.1	33.3	3.8	62.9	37.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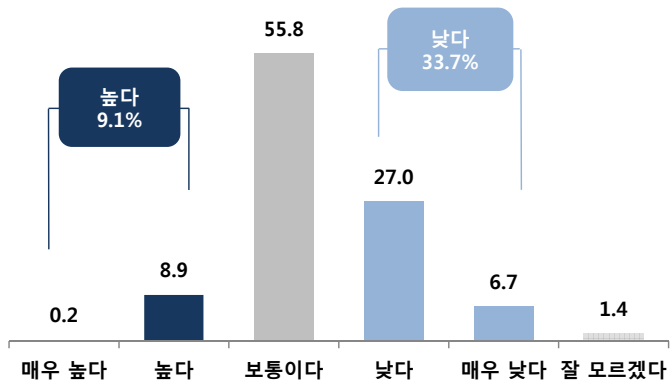
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1)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33.7%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높다'는 응답은 9.1%에 그침

〈그림 IV-38〉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n=2,464 / 단위: %)



-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에 대해 ‘높다’라는 평가는 30대(13.4%) 및 40대(13.6%), 중·소도시(11.3%), 화이트칼라(14.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12.3%),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11.7%)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7〉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 평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본인의 보험이해력 평가						종합결과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잘모 르겠 다	높다	보통	낮다	잘모 르겠 다
전체		(2,464)	0.2	8.9	55.8	27.0	6.7	1.4	9.1	55.8	33.7	1.4
성별	남성	(1,224)	0.2	9.0	55.0	28.4	6.3	1.1	9.2	55.0	34.7	1.1
	여성	(1,240)	0.2	8.9	56.5	25.6	7.1	1.7	9.0	56.5	32.7	1.7
연령	20대	(388)	0.0	8.8	48.7	29.4	9.5	3.6	8.8	48.7	38.9	3.6
	30대	(432)	0.5	13.0	68.5	13.7	3.9	0.5	13.4	68.5	17.6	0.5
	40대	(492)	0.2	13.4	62.6	20.9	2.8	0.0	13.6	62.6	23.8	0.0
	50대	(505)	0.0	9.9	56.0	29.5	4.4	0.2	9.9	56.0	33.9	0.2
	60대 이상	(647)	0.2	2.2	46.1	37.2	11.6	2.8	2.3	46.1	48.8	2.8
지역규모	대도시	(1,118)	0.0	7.6	57.2	28.4	6.5	0.4	7.6	57.2	34.9	0.4
	중·소도시	(1,010)	0.3	11.0	51.0	26.9	8.0	2.8	11.3	51.0	35.0	2.8
	군지역	(336)	0.3	7.1	65.5	22.9	3.3	0.9	7.4	65.5	26.2	0.9
직업	화이트칼라	(678)	0.3	14.6	62.5	18.7	3.4	0.4	14.9	62.5	22.1	0.4
	블루칼라	(605)	0.3	7.4	56.5	29.1	5.6	1.0	7.8	56.5	34.7	1.0
	농/임/어업	(80)	0.0	3.8	36.3	41.3	15.0	3.8	3.8	36.3	56.3	3.8
	자영업	(478)	0.0	6.5	57.9	30.8	4.2	0.6	6.5	57.9	34.9	0.6
	주부	(482)	0.0	7.9	54.8	27.4	8.5	1.5	7.9	54.8	35.9	1.5
	은퇴자	(21)	0.0	4.8	23.8	42.9	19.0	9.5	4.8	23.8	61.9	9.5
	학생	(72)	0.0	1.4	26.4	31.9	29.2	11.1	1.4	26.4	61.1	11.1
	무직/기타	(47)	0.0	4.3	29.8	38.3	21.3	6.4	4.3	29.8	59.6	6.4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중졸 이하	(151)	0.0	0.7	27.2	43.0	22.5	6.6	0.7	27.2	65.6	6.6
교육 수준	고졸	(1,131)	0.1	6.8	51.9	32.4	7.5	1.3	6.9	51.9	39.9	1.3
	대재 이상	(1,181)	0.3	12.0	63.2	19.8	3.9	0.8	12.3	63.2	23.7	0.8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0.2	3.5	48.4	32.8	12.0	3.1	3.7	48.4	44.8	3.1
	중소득	(1,180)	0.1	9.7	55.3	28.6	5.3	1.0	9.7	55.3	33.9	1.0
	고소득	(768)	0.3	11.5	61.3	20.8	5.2	0.9	11.7	61.3	26.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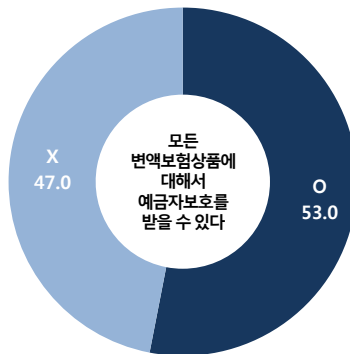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O/X

-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53.0%로 ‘X’(47.0%)에 비해 6.0%p 높게 나타남

〈그림 IV-39〉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O/X

(n=2,464 / 단위: %)



-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맞다'는 응답은 중·소도시(55.7%),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7.7%),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61.6%) 비교적 높았음

〈표 IV-38〉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O/X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O	X
전체		(2,464)	53.0	47.0
성별	남성	(1,224)	53.3	46.7
	여성	(1,240)	52.8	47.2
연령	20대	(388)	51.5	48.5
	30대	(432)	54.9	45.1
	40대	(492)	54.9	45.1
	50대	(505)	52.1	47.9
	60대 이상	(647)	52.1	47.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51.6	48.4
	중·소도시	(1,010)	55.7	44.3
	군지역	(336)	49.7	50.3
직업	화이트칼라	(678)	56.0	44.0
	블루칼라	(605)	54.4	45.6
	농/임/어업	(80)	40.0	60.0
	자영업	(478)	53.1	46.9
	주부	(482)	52.3	47.7
	은퇴자	(21)	47.6	52.4
	학생	(72)	34.7	65.3
	무직/기타	(47)	51.1	48.9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4.4	55.6
	고졸	(1,131)	49.3	50.7
	대재 이상	(1,181)	57.7	42.3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50.2	49.8
	중소득	(1,180)	48.7	51.3
	고소득	(768)	61.6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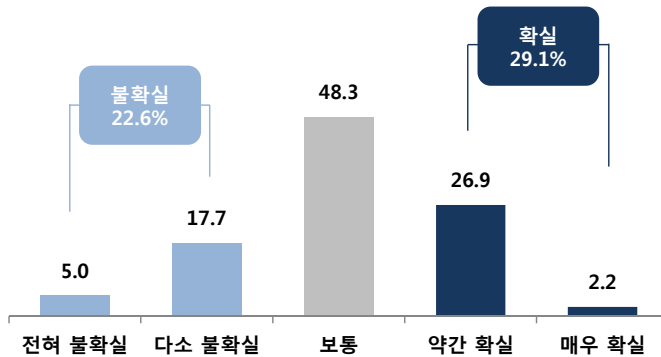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29.1%로 '불확실하다'(22.6%)는 응답에 비해 6.5%p 높게 나타남

〈그림 IV-40〉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n=2,464 / 단위: %)



-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서 선택한 O/X에 대해 '확신한다'는 응답은 30대(33.3%) 및 40대(35.2%), 학력이 높을수록 (대재 이상 31.7%)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39〉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확신 정도					종합결과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불확실	보통	확실
전체		(2,464)	5.0	17.7	48.3	26.9	2.2	22.6	48.3	29.1
성별	남성	(1,224)	4.2	18.1	48.5	27.2	2.0	22.3	48.5	29.2
	여성	(1,240)	5.6	17.3	48.0	26.7	2.4	22.9	48.0	29.
연령	20대	(388)	7.7	20.1	47.2	23.2	1.8	27.8	47.2	25.0
	30대	(432)	2.5	13.4	50.7	29.4	3.9	16.0	50.7	33.3
	40대	(492)	2.8	15.0	47.0	31.9	3.3	17.9	47.0	35.2
	50대	(505)	4.0	15.4	50.1	29.5	1.0	19.4	50.1	30.5
	60대 이상	(647)	7.3	22.7	46.8	21.8	1.4	30.0	46.8	23.2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9	19.0	48.2	27.4	2.6	21.8	48.2	30.0
	중·소도시	(1,010)	6.9	17.0	46.1	27.7	2.2	24.0	46.1	29.9
	군지역	(336)	6.0	15.2	54.8	23.2	0.9	21.1	54.8	24.1
직업	화이트칼라	(678)	3.1	13.0	52.5	28.2	3.2	16.1	52.5	31.4
	블루칼라	(605)	5.0	21.5	43.5	28.4	1.7	26.4	43.5	30.1
	농/임/어업	(80)	3.8	15.0	51.3	30.0	0.0	18.8	51.3	30.0
	자영업	(478)	3.1	16.9	47.7	30.5	1.7	20.1	47.7	32.2
	주부	(482)	7.3	17.2	50.8	22.2	2.5	24.5	50.8	24.7
	은퇴자	(21)	4.8	33.3	52.4	9.5	0.0	38.1	52.4	9.5
	학생	(72)	12.5	27.8	38.9	19.4	1.4	40.3	38.9	20.8
	무직/기타	(47)	17.0	29.8	34.0	17.0	2.1	46.8	34.0	19.1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3.2	35.8	32.5	17.9	0.7	49.0	32.5	18.5
	고졸	(1,131)	5.2	18.0	48.8	26.4	1.5	23.3	48.8	27.9
	대재 이상	(1,181)	3.6	15.0	49.7	28.6	3.0	18.6	49.7	31.7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7.0	23.1	39.7	28.5	1.7	30.0	39.7	30.2
	중소득	(1,180)	5.1	17.9	46.1	28.2	2.7	23.0	46.1	30.9
	고소득	(768)	3.4	13.7	57.3	24.0	1.7	17.1	57.3	25.7
O/X	O	(1,307)	2.8	13.7	51.6	29.8	2.1	16.4	51.6	31.9
	X	(1,157)	7.4	22.1	44.4	23.7	2.3	29.6	44.4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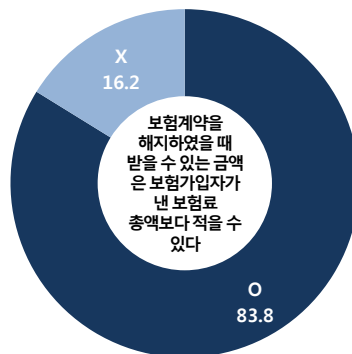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O/X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83.8%로 ‘X’(16.2%)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IV-4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O/X

(n=2,464 / 단위: %)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맞다’는 응답은 30대(88.2%), 군지역(88.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85.8%),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87.5%) 비교적 높았음

〈표 IV-40〉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O/X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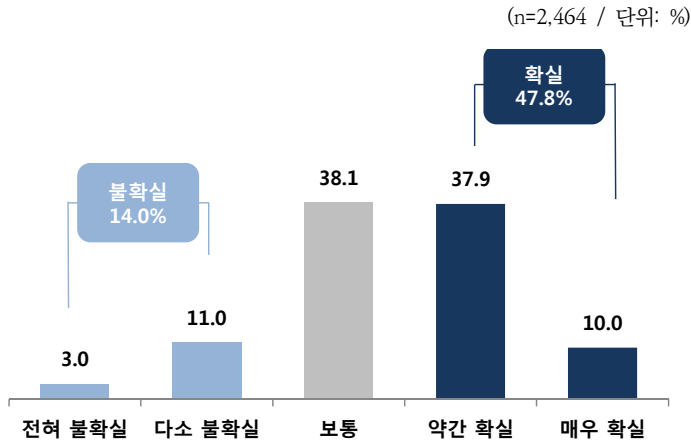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O	X
전체		(2,464)	83.8	16.2
성별	남성	(1,224)	84.1	15.9
	여성	(1,240)	83.5	16.5
연령	20대	(388)	82.5	17.5
	30대	(432)	88.2	11.8
	40대	(492)	85.0	15.0
	50대	(505)	85.0	15.0
	60대 이상	(647)	79.9	20.1
지역규모	대도시	(1,118)	85.0	15.0
	중·소도시	(1,010)	81.1	18.9
	군지역	(336)	88.1	11.9
직업	화이트칼라	(678)	85.5	14.5
	블루칼라	(605)	81.5	18.5
	농/임/어업	(80)	87.5	12.5
	자영업	(478)	83.9	16.1
	주부	(482)	84.6	15.4
	은퇴자	(21)	81.0	19.0
	학생	(72)	79.2	20.8
	무직/기타	(47)	80.9	19.1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73.5	26.5
	고졸	(1,131)	83.1	16.9
	대재 이상	(1,181)	85.8	14.2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78.3	21.7
	중소득	(1,180)	83.8	16.2
	고소득	(768)	87.5	12.5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47.8%로 ‘불확실하다’(14.0%)는 응답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4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에서 선택한 O/X에 대해 '확신한다'는 응답은 30대(52.8%) 및 40대(52.2%), 화이트칼라(53.4%),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0.7%), 중소득(51.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4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확신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확신 정도					종합결과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불확실	보통	확실
전체		(2,464)	3.0	11.0	38.1	37.9	10.0	14.0	38.1	47.8
성별	남성	(1,224)	2.9	10.9	38.5	37.6	10.1	13.8	38.5	47.7
	여성	(1,240)	3.1	11.1	37.8	38.1	9.8	14.2	37.8	48.0
연령	20대	(388)	4.4	12.4	38.4	34.5	10.3	16.8	38.4	44.8
	30대	(432)	1.6	8.6	37.0	38.2	14.6	10.2	37.0	52.8
	40대	(492)	1.0	8.5	38.2	41.1	11.2	9.6	38.2	52.2
	50대	(505)	1.8	11.3	39.4	39.6	7.9	13.1	39.4	47.5
	60대 이상	(647)	5.4	13.6	37.7	35.9	7.4	19.0	37.7	43.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5	11.9	36.0	37.7	12.0	14.4	36.0	49.6
	중·소도시	(1,010)	4.0	9.8	36.3	39.9	10.0	13.8	36.3	49.9
	군지역	(336)	1.5	11.9	50.9	32.4	3.3	13.4	50.9	35.7
직업	화이트칼라	(678)	1.2	9.0	36.4	39.5	13.9	10.2	36.4	53.4
	블루칼라	(605)	3.5	10.7	39.7	38.3	7.8	14.2	39.7	46.1
	농/임/어업	(80)	3.8	11.3	41.3	36.3	7.5	15.0	41.3	43.8
	자영업	(478)	2.5	12.1	35.8	38.9	10.7	14.6	35.8	49.6
	주부	(482)	3.9	10.6	40.5	36.5	8.5	14.5	40.5	45.0
	은퇴자	(21)	0.0	33.3	28.6	33.3	4.8	33.3	28.6	38.1
	학생	(72)	6.9	16.7	43.1	29.2	4.2	23.6	43.1	33.3
	무직/기타	(47)	10.6	19.1	36.2	29.8	4.3	29.8	36.2	34.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9.9	28.5	30.5	25.8	5.3	38.4	30.5	31.1
	고졸	(1,131)	3.4	11.0	38.5	39.8	7.3	14.4	38.5	47.0
	대재 이상	(1,181)	1.6	8.9	38.8	37.6	13.1	10.5	38.8	50.7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8	15.1	33.3	40.3	6.4	20.0	33.3	46.7
	중소득	(1,180)	3.4	10.4	34.7	39.8	11.6	13.8	34.7	51.4
	고소득	(768)	1.0	9.2	46.6	33.2	9.9	10.3	46.6	43.1
O/X	O	(2,065)	1.8	8.6	38.3	39.9	11.4	10.4	38.3	51.3
	X	(399)	8.8	23.8	37.3	27.6	2.5	32.6	37.3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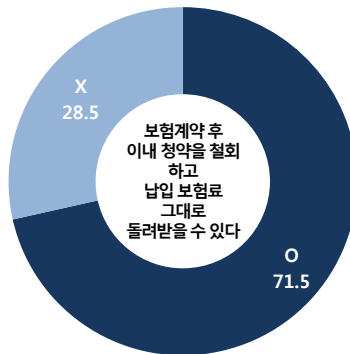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O/X

-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71.5%로 ‘X’(28.5%)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43〉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O/X

(n=2,464 / 단위: %)



-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맞다'는 응답은 30대(76.9%), 군지역(77.1%), 화이트칼라, 농/임/어업, 자영업(각각 74.6%, 76.3%, 74.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74.2%),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77.7%) 비교적 높았음

〈표 IV-42〉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O/X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O	X
전체		(2,464)	71.5	28.5
성별	남성	(1,224)	72.1	27.9
	여성	(1,240)	70.9	29.1
연령	20대	(388)	67.3	32.7
	30대	(432)	76.9	23.1
	40대	(492)	75.0	25.0
	50대	(505)	73.7	26.3
	60대 이상	(647)	66.0	34.0
지역규모	대도시	(1,118)	70.8	29.2
	중·소도시	(1,010)	70.3	29.7
	군지역	(336)	77.1	22.9
직업	화이트칼라	(678)	74.6	25.4
	블루칼라	(605)	69.3	30.7
	농/임/어업	(80)	76.3	23.8
	자영업	(478)	74.9	25.1
	주부	(482)	68.0	32.0
	은퇴자	(21)	47.6	52.4
	학생	(72)	59.7	40.3
	무직/기타	(47)	74.5	25.5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64.9	35.1
	고졸	(1,131)	69.5	30.5
	대재 이상	(1,181)	74.2	25.8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64.9	35.1
	중소득	(1,180)	70.3	29.7
	고소득	(768)	77.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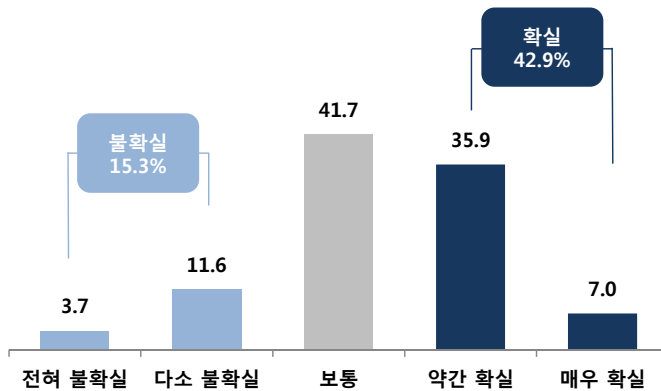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42.9%로 ‘불확실하다’(15.3%)는 응답에 비해 27.6%p 높았음

〈그림 IV-44〉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n=2,464 / 단위: %)



-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서 선택한 O/X에 대해 '확신한다'는 응답은 30대(49.3%) 및 40대(47.0%), 중소득(4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3〉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확신 정도					종합결과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불확실	보통	확실
전체		(2,464)	3.7	11.6	41.7	35.9	7.0	15.3	41.7	42.9
성별	남성	(1,224)	3.3	11.0	43.9	35.0	6.9	14.3	43.9	41.8
	여성	(1,240)	4.1	12.3	39.6	36.9	7.2	16.4	39.6	44.0
연령	20대	(388)	6.4	11.9	41.5	33.8	6.4	18.3	41.5	40.2
	30대	(432)	2.3	8.6	39.8	39.6	9.7	10.9	39.8	49.3
	40대	(492)	1.6	10.2	41.3	38.6	8.3	11.8	41.3	47.0
	50대	(505)	3.2	9.9	42.2	38.8	5.9	13.1	42.2	44.8
	60대 이상	(647)	4.9	16.1	43.1	30.4	5.4	21.0	43.1	35.9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6	12.9	37.7	36.8	8.1	17.4	37.7	44.9
	중·소도시	(1,010)	3.7	12.0	43.0	34.6	6.8	15.6	43.0	41.4
	군지역	(336)	0.9	6.5	51.5	37.2	3.9	7.4	51.5	41.1
직업	화이트칼라	(678)	2.5	8.6	43.4	37.5	8.1	11.1	43.4	45.6
	블루칼라	(605)	2.8	12.7	41.3	37.4	5.8	15.5	41.3	43.1
	농/임/어업	(80)	2.5	8.8	41.3	37.5	10.0	11.3	41.3	47.5
	자영업	(478)	2.7	12.1	40.2	36.2	8.8	14.9	40.2	45.0
	주부	(482)	5.2	13.7	42.1	33.2	5.8	18.9	42.1	39.0
	은퇴자	(21)	0.0	19.0	42.9	33.3	4.8	19.0	42.9	38.1
	학생	(72)	15.3	11.1	41.7	29.2	2.8	26.4	41.7	31.9
	무직/기타	(47)	12.8	19.1	36.2	29.8	2.1	31.9	36.2	31.9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9.9	25.2	36.4	25.8	2.6	35.1	36.4	28.5
	고졸	(1,131)	4.2	11.4	41.1	37.3	6.0	15.6	41.1	43.3
	대재 이상	(1,181)	2.5	10.2	43.0	35.9	8.5	12.6	43.0	44.4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5	16.1	38.8	35.7	5.0	20.5	38.8	40.7
	중소득	(1,180)	3.6	10.8	38.8	38.8	8.0	14.4	38.8	46.8
	고소득	(768)	3.4	9.9	48.2	31.6	6.9	13.3	48.2	38.5
O/X	O	(1,761)	1.9	8.5	41.2	39.8	8.7	10.4	41.2	48.4
	X	(703)	8.1	19.6	43.1	26.3	2.8	27.7	43.1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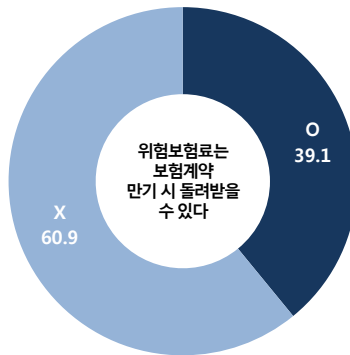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8)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O/X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39.1%로 'X'(60.9%)에 비해 21.8%p 낮게 나타남

〈그림 IV-45〉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O/X

(n=2,464 / 단위: %)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맞다'는 응답은 중·소도시(43.1%)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44〉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O/X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O	X
전체		(2,464)	39.1	60.9
성별	남성	(1,224)	39.6	60.4
	여성	(1,240)	38.5	61.5
연령	20대	(388)	39.2	60.8
	30대	(432)	36.8	63.2
	40대	(492)	39.0	61.0
	50대	(505)	38.2	61.8
	60대 이상	(647)	41.3	58.7
지역규모	대도시	(1,118)	37.9	62.1
	중·소도시	(1,010)	43.1	56.9
	군지역	(336)	31.0	69.0
직업	화이트칼라	(678)	35.8	64.2
	블루칼라	(605)	38.8	61.2
	농/임/어업	(80)	36.3	63.8
	자영업	(478)	42.3	57.7
	주부	(482)	38.4	61.6
	은퇴자	(21)	57.1	42.9
	학생	(72)	44.4	55.6
	무직/기타	(47)	53.2	46.8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2.4	57.6
	고졸	(1,131)	38.9	61.1
	대재 이상	(1,181)	38.9	61.1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1.9	58.1
	중소득	(1,180)	39.2	60.8
	고소득	(768)	37.1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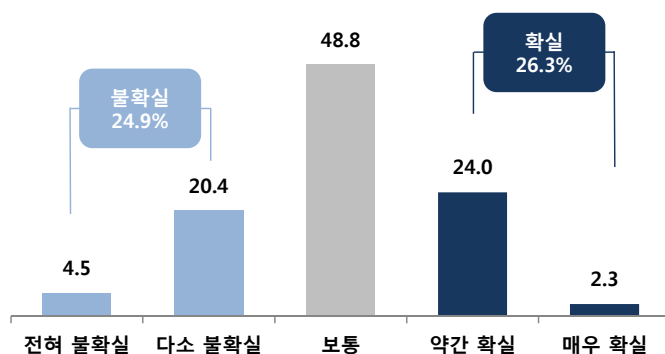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9)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26.3%로 '불확실하다'(24.9%)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V-46〉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n=2,464 / 단위: %)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서 선택한 O/X에 대해 ‘확신한다’는 응답은 블루칼라(30.2%), 중소득(2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5〉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신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확신 정도					종합결과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불확실	보통	확실
전체		(2,464)	4.5	20.4	48.8	24.0	2.3	24.9	48.8	26.3
성별	남성	(1,224)	3.6	20.8	49.1	24.6	2.0	24.3	49.1	26.6
	여성	(1,240)	5.3	20.1	48.5	23.5	2.7	25.4	48.5	26.1
연령	20대	(388)	7.0	22.2	47.7	22.2	1.0	29.1	47.7	23.2
	30대	(432)	3.0	15.5	55.8	23.1	2.5	18.5	55.8	25.7
	40대	(492)	2.4	17.3	50.8	26.8	2.6	19.7	50.8	29.5
	50대	(505)	3.2	20.8	49.1	24.2	2.8	24.0	49.1	26.9
	60대 이상	(647)	6.5	24.7	43.0	23.5	2.3	31.2	43.0	25.8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4	25.0	44.8	23.9	2.0	29.3	44.8	25.8
	중·소도시	(1,010)	5.4	18.3	49.3	24.8	2.2	23.8	49.3	26.9
	군지역	(336)	1.8	11.6	60.4	22.3	3.9	13.4	60.4	26.2
직업	화이트칼라	(678)	2.5	17.6	54.1	24.0	1.8	20.1	54.1	25.8
	블루칼라	(605)	4.1	19.5	46.1	27.9	2.3	23.6	46.1	30.2
	농/임/어업	(80)	3.8	17.5	51.3	25.0	2.5	21.3	51.3	27.5
	자영업	(478)	4.0	22.4	47.3	23.0	3.3	26.4	47.3	26.4
	주부	(482)	6.2	21.2	49.0	21.6	2.1	27.4	49.0	23.7
	은퇴자	(21)	0.0	33.3	38.1	28.6	0.0	33.3	38.1	28.6
	학생	(72)	15.3	27.8	38.9	16.7	1.4	43.1	38.9	18.1
	무직/기타	(47)	10.6	34.0	36.2	17.0	2.1	44.7	36.2	19.1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4.6	36.4	28.5	19.9	0.7	51.0	28.5	20.5
	고졸	(1,131)	5.0	21.0	46.4	25.0	2.6	26.0	46.4	27.6
	대재 이상	(1,181)	2.6	17.8	53.7	23.6	2.3	20.4	53.7	25.9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7.0	25.2	40.3	25.6	1.9	32.2	40.3	27.5
	중소득	(1,180)	3.9	19.2	48.1	26.6	2.2	23.1	48.1	28.8
	고소득	(768)	3.6	19.0	55.6	19.0	2.7	22.7	55.6	21.7
O/X	O	(963)	3.5	19.2	44.9	30.2	2.2	22.7	44.9	32.4
	X	(1,501)	5.1	21.2	51.3	20.1	2.4	26.2	51.3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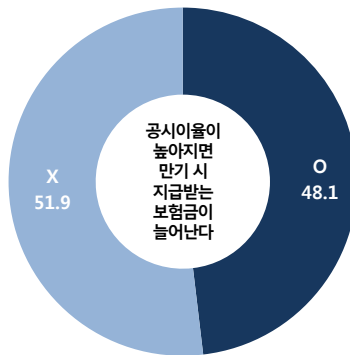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0)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O/X

-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에 O/X 응답을 물어본 결과, ‘O’가 48.1%로 ‘X’(51.9%)에 비해 3.8%p 낮게 나타남

〈그림 IV-47〉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O/X

(n=2,464 / 단위: %)



- 공사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에 '맞다'는 응답은 30대(54.2%) 및 40대(52.2%), 화이트칼라(54.0%),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4.3%),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58.3%)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46〉 공사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O/X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O	X
전체		(2,464)	48.1	51.9
성별	남성	(1,224)	48.5	51.5
	여성	(1,240)	47.7	52.3
연령	20대	(388)	46.4	53.6
	30대	(432)	54.2	45.8
	40대	(492)	52.2	47.8
	50대	(505)	47.1	52.9
	60대 이상	(647)	42.8	57.2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7.3	52.7
	중·소도시	(1,010)	48.4	51.6
	군지역	(336)	50.0	50.0
직업	화이트칼라	(678)	54.0	46.0
	블루칼라	(605)	46.4	53.6
	농/임/어업	(80)	47.5	52.5
	자영업	(478)	46.7	53.3
	주부	(482)	44.2	55.8
	은퇴자	(21)	38.1	61.9
	학생	(72)	40.3	59.7
	무직/기타	(47)	57.4	42.6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0.4	59.6
	고졸	(1,131)	42.7	57.3
	대재 이상	(1,181)	54.3	45.7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36.0	64.0
	중소득	(1,180)	46.8	53.2
	고소득	(768)	58.3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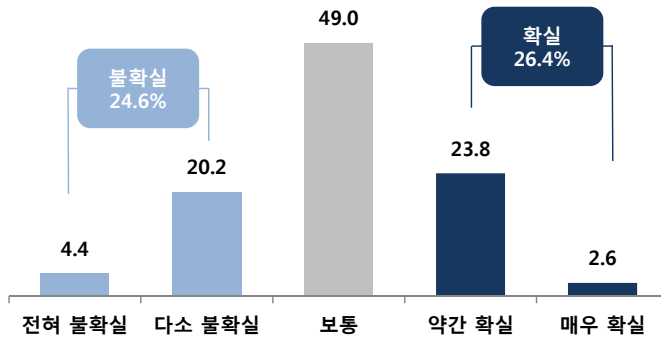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11)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확신 정도

-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에 응답한 O/X에 대해 확신 정도를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는 응답이 26.4%로 ‘불확실하다’(24.6%)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V-48〉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확신 정도

(n=2,464 / 단위: %)



- 공사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에서 선택한 O/X에 대해 ‘확신한다’는 응답은 40대(31.3%), 중·소도시(29.7%), 학력이 높을 수록(대재 이상 27.9%), 중소득(28.9%)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47〉 공사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확신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확신 정도					종합결과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불확실	보통	확실
전체		(2,464)	4.4	20.2	49.0	23.8	2.6	24.6	49.0	26.4
성별	남성	(1,224)	3.8	19.7	49.9	24.1	2.5	23.4	49.9	26.6
	여성	(1,240)	5.1	20.6	48.1	23.5	2.6	25.7	48.1	26.1
연령	20대	(388)	6.7	20.6	44.8	26.5	1.3	27.3	44.8	27.8
	30대	(432)	3.5	19.0	50.7	24.3	2.5	22.5	50.7	26.9
	40대	(492)	2.4	17.7	48.6	27.4	3.9	20.1	48.6	31.3
	50대	(505)	2.8	20.8	53.7	19.8	3.0	23.6	53.7	22.8
	60대 이상	(647)	6.5	22.1	47.1	22.3	2.0	28.6	47.1	24.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5.2	25.0	46.3	21.3	2.1	30.2	46.3	23.4
	중·소도시	(1,010)	4.9	17.4	48.0	26.8	2.9	22.3	48.0	29.7
	군지역	(336)	0.6	12.2	61.0	23.2	3.0	12.8	61.0	26.2
직업	화이트칼라	(678)	2.4	18.1	51.0	25.8	2.7	20.5	51.0	28.5
	블루칼라	(605)	4.0	19.8	47.3	26.1	2.8	23.8	47.3	28.9
	농/임/어업	(80)	2.5	15.0	56.3	23.8	2.5	17.5	56.3	26.3
	자영업	(478)	4.8	20.3	51.5	20.3	3.1	25.1	51.5	23.4
	주부	(482)	5.0	21.8	49.8	22.0	1.5	26.8	49.8	23.4
	은퇴자	(21)	4.8	38.1	23.8	28.6	4.8	42.9	23.8	33.3
	학생	(72)	18.1	26.4	31.9	22.2	1.4	44.4	31.9	23.6
	무직/기타	(47)	12.8	27.7	36.2	19.1	4.3	40.4	36.2	23.4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7.2	24.5	37.1	19.9	1.3	41.7	37.1	21.2
	고졸	(1,131)	4.5	21.4	48.6	22.8	2.7	25.9	48.6	25.5
	대재 이상	(1,181)	2.6	18.5	51.0	25.3	2.6	21.1	51.0	27.9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5.6	26.4	40.7	24.8	2.5	32.0	40.7	27.3
	중소득	(1,180)	4.3	17.5	49.2	26.2	2.7	21.9	49.2	28.9
	고소득	(768)	3.8	20.1	54.3	19.5	2.3	23.8	54.3	21.9
O/X	O	(1,186)	3.3	16.9	52.0	25.0	2.8	20.2	52.0	27.7
	X	(1,278)	5.5	23.2	46.2	22.8	2.3	28.6	46.2	25.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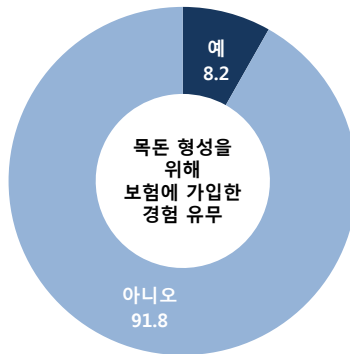
5. 보험 가입 및 판매 형태

가.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2%로 나타남

〈그림 IV-49〉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n=2,464 / 단위: %)



-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11.4%), 대도시(9.9%), 화이트칼라(10.2%),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10.0%)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48〉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8.2	91.8
성별	남성	(1,224)	7.8	92.2
	여성	(1,240)	8.5	91.5
연령	20대	(388)	3.6	96.4
	30대	(432)	10.0	90.0
	40대	(492)	11.4	88.6
	50대	(505)	9.5	90.5
	60대 이상	(647)	6.3	93.7
지역규모	대도시	(1,118)	9.9	90.1
	중·소도시	(1,010)	7.3	92.7
	군지역	(336)	5.1	94.9
직업	화이트칼라	(678)	10.2	89.8
	블루칼라	(605)	7.9	92.1
	농/임/어업	(80)	6.3	93.8
	자영업	(478)	8.4	91.6
	주부	(482)	7.3	92.7
	은퇴자	(21)	0.0	100.0
	학생	(72)	4.2	95.8
	무직/기타	(47)	4.3	95.7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6	95.4
	고졸	(1,131)	8.3	91.7
	대재 이상	(1,181)	8.5	91.5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4.8	95.2
	중소득	(1,180)	8.5	91.5
	고소득	(768)	10.0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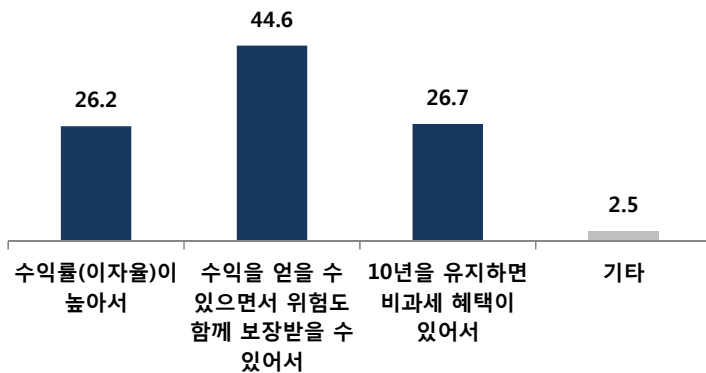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 결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서’가 44.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26.7%), ‘수익률(이자율)이 높아서’(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0〉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n=202 / 단위: %)



-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각각 64.3%, 58.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2.0%), 중소득(54.0%)에서 높게 나타남

〈표 IV-49〉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수익률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서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기타
전체		(202)	26.2	44.6	26.7	2.5
성별	남성	(96)	19.8	50.0	30.2	0.0
	여성	(106)	32.1	39.6	23.6	4.7
연령	20대	(14)	14.3	64.3	21.4	0.0
	30대	(43)	20.9	58.1	16.3	4.7
	40대	(56)	21.4	48.2	28.6	1.8
	50대	(48)	31.3	31.3	35.4	2.1
	60대 이상	(41)	36.6	34.1	26.8	2.4
지역규모	대도시	(111)	28.8	48.6	19.8	2.7
	중·소도시	(74)	21.6	44.6	31.1	2.7
	군지역	(17)	29.4	17.6	52.9	0.0
직업	화이트칼라	(69)	23.2	46.4	27.5	2.9
	블루칼라	(48)	20.8	50.0	25.0	4.2
	농/임/어업	(5)	0.0	40.0	60.0	0.0
	자영업	(40)	27.5	47.5	25.0	0.0
	주부	(35)	42.9	28.6	25.7	2.9
	학생	(3)	33.3	66.7	0.0	0.0
	무직/기타	(2)	0.0	50.0	5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71.4	28.6	0.0	0.0
	고졸	(94)	26.6	38.3	31.9	3.2
	대재 이상	(100)	22.0	52.0	24.0	2.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5)	44.0	32.0	20.0	4.0
	중소득	(100)	17.0	54.0	26.0	3.0
	고소득	(77)	32.5	36.4	29.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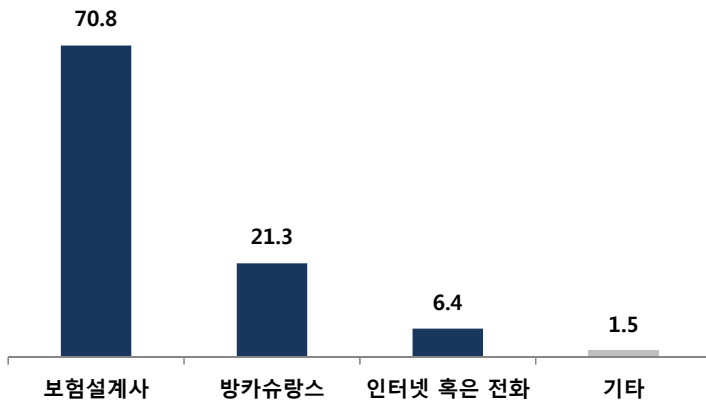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는 ‘보험설계사’가 70.8%로 가장 많았고, ‘방카슈랑스’(21.3%), ‘인터넷 혹은 전화’(6.4%) 등의 순임

〈그림 IV-51〉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n=202 / 단위: %)



-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로 ‘보험설계사’라는 응답은 50대 (83.3%), 대도시(80.2%), 자영업(90.0%), 고졸(78.7%)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50〉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설계사	방키슈랑스	인터넷 혹은 전화	기타
전체		(202)	70.8	21.3	6.4	1.5
성별	남성	(96)	70.8	21.9	7.3	0.0
	여성	(106)	70.8	20.8	5.7	2.8
연령	20대	(14)	71.4	14.3	14.3	0.0
	30대	(43)	69.8	20.9	7.0	2.3
	40대	(56)	62.5	30.4	5.4	1.8
	50대	(48)	83.3	10.4	4.2	2.1
	60대 이상	(41)	68.3	24.4	7.3	0.0
지역규모	대도시	(111)	80.2	13.5	6.3	0.0
	중·소도시	(74)	55.4	32.4	8.1	4.1
	군지역	(17)	76.5	23.5	0.0	0.0
직업	화이트칼라	(69)	60.9	30.4	8.7	0.0
	블루칼라	(48)	66.7	18.8	10.4	4.2
	농/임/어업	(5)	80.0	20.0	0.0	0.0
	자영업	(40)	90.0	7.5	2.5	0.0
	주부	(35)	68.6	25.7	2.9	2.9
	학생	(3)	100.0	0.0	0.0	0.0
	무직/기타	(2)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57.1	28.6	14.3	0.0
	고졸	(94)	78.7	18.1	2.1	1.1
	대재 이상	(100)	64.0	24.0	10.0	2.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5)	60.0	36.0	4.0	0.0
	중소득	(100)	68.0	22.0	7.0	3.0
	고소득	(77)	77.9	15.6	6.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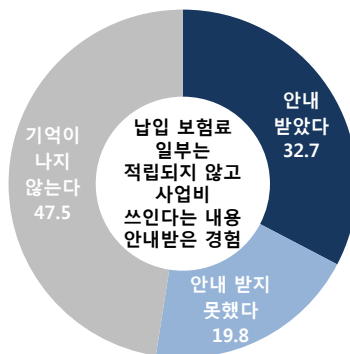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안내 받았다’는 응답이 32.7%로 ‘안내 받지 못했다’(19.8%)는 응답에 비해 12.9%p 높게 나타남

〈그림 IV-52〉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n=202 / 단위: %)



-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43.5%),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41.0%),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41.6%)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1〉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에 쓰인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안내 받았다	안내 받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체		(202)	32.7	19.8	47.5
성별	남성	(96)	31.3	20.8	47.9
	여성	(106)	34.0	18.9	47.2
연령	20대	(14)	57.1	14.3	28.6
	30대	(43)	32.6	14.0	53.5
	40대	(56)	32.1	17.9	50.0
	50대	(48)	33.3	22.9	43.8
	60대 이상	(41)	24.4	26.8	48.8
지역규모	대도시	(111)	33.3	20.7	45.9
	중·소도시	(74)	28.4	21.6	50.0
	군지역	(17)	47.1	5.9	47.1
직업	화이트칼라	(69)	43.5	15.9	40.6
	블루칼라	(48)	27.1	25.0	47.9
	농/임/어업	(5)	20.0	40.0	40.0
	자영업	(40)	32.5	12.5	55.0
	주부	(35)	20.0	25.7	54.3
	학생	(3)	33.3	33.3	33.3
	무직/기타	(2)	50.0	0.0	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	14.3	0.0	85.7
	고졸	(94)	25.5	27.7	46.8
	대재 이상	(100)	41.0	13.0	46.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5)	16.0	40.0	44.0
	중소득	(100)	30.0	15.0	55.0
	고소득	(77)	41.6	19.5	39.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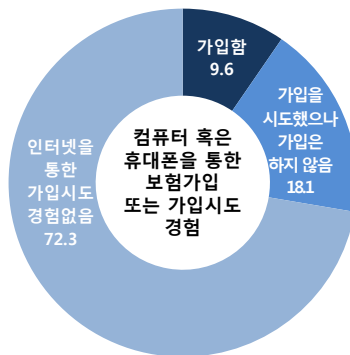
6. 비대면 채널 이용 현황

가.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남
- 반면, ‘가입을 시도했으나 가입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8.1%, ‘인터넷을 통해 가입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2.3%로 나타남

〈그림 IV-53〉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n=2,464 / 단위: %)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보았다는 응답은 남성(12.6%), 20대(17.0%) 및 30대(20.8%), 대도시(12.1%), 화이트칼라(19.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16.9%), 중소득(11.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52〉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 또는 가입을 시도해 본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해 보았다	가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가입은 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없다
전체		(2,464)	9.6	18.1	72.3
성별	남성	(1,224)	12.6	18.2	69.2
	여성	(1,240)	6.6	18.0	75.4
연령	20대	(388)	17.0	27.1	55.9
	30대	(432)	20.8	25.7	53.5
	40대	(492)	11.8	24.0	64.2
	50대	(505)	3.0	14.1	83.0
	60대 이상	(647)	1.1	6.3	92.6
지역규모	대도시	(1,118)	12.1	21.8	66.1
	중·소도시	(1,010)	8.0	14.2	77.8
	군지역	(336)	6.0	17.6	76.5
직업	화이트칼라	(678)	19.3	24.9	55.8
	블루칼라	(605)	8.9	20.5	70.6
	농/임/어업	(80)	6.3	5.0	88.8
	자영업	(478)	4.6	14.2	81.2
	주부	(482)	3.3	13.3	83.4
	은퇴자	(21)	4.8	0.0	95.2
	학생	(72)	6.9	19.4	73.6
	무직/기타	(47)	4.3	6.4	89.4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0.7	4.6	94.7
	고졸	(1,131)	3.1	14.7	82.2
	대재 이상	(1,181)	16.9	23.1	6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6.8	14.3	78.9
	중소득	(1,180)	11.4	20.3	68.3
	고소득	(768)	8.7	17.2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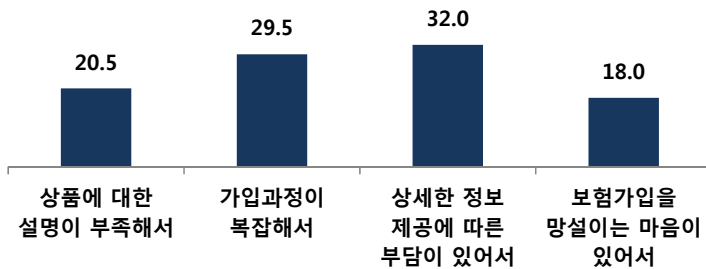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상세한 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가 32.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가입과정이 복잡해서’(29.5%),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20.5%),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서’(18.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4〉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n=682 / 단위: %)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상세한 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저소득(44.0%)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53〉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또는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가입과정이 복잡해서	상세한 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서
전체		(682)	20.5	29.5	32.0	18.0
성별	남성	(377)	23.3	27.6	30.8	18.3
	여성	(305)	17.0	31.8	33.4	17.7
연령	20대	(171)	18.1	26.3	29.2	26.3
	30대	(201)	20.9	31.8	32.8	14.4
	40대	(176)	23.9	28.4	30.1	17.6
	50대	(86)	19.8	29.1	36.0	15.1
	60대 이상	(48)	16.7	35.4	37.5	10.4
지역규모	대도시	(379)	20.8	30.1	31.9	17.2
	중·소도시	(224)	22.3	27.2	29.9	20.5
	군지역	(79)	13.9	32.9	38.0	15.2
직업	화이트칼라	(300)	24.0	30.7	31.3	14.0
	블루칼라	(178)	15.7	29.8	32.0	22.5
	농/임/어업	(9)	0.0	22.2	33.3	44.4
	자영업	(90)	25.6	30.0	33.3	11.1
	주부	(80)	15.0	31.3	28.8	25.0
	은퇴자	(1)	0.0	100.0	0.0	0.0
	학생	(19)	26.3	5.3	36.8	31.6
	무직/기타	(5)	0.0	0.0	80.0	2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	0.0	25.0	37.5	37.5
	고졸	(201)	15.4	26.4	36.3	21.9
	대재 이상	(472)	22.9	30.9	30.1	16.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9)	14.7	21.1	44.0	20.2
	중소득	(374)	20.3	33.2	29.7	16.8
	고소득	(199)	24.1	27.1	29.6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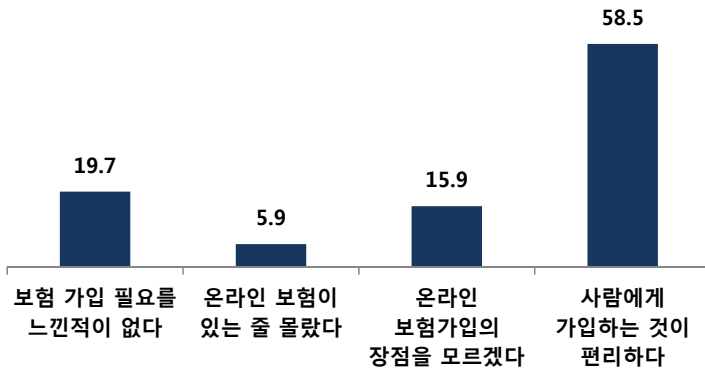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편하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가입 필요를 느낀 적이 없다’(19.7%), ‘온라인 보험 가입의 장점을 모르겠다’(15.9%), ‘온라인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5.9%)는 응답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V-55〉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n=1,782 / 단위: %)



-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67.1%), 농/임/어업(74.6%), 자영업(66.5%), 고졸(63.5%), 저소득(65.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표 IV-54〉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 가입 필요를 느낀 적이 없어서	온라인 보험이 있는 줄 몰라서	온라인 보험 가입의 장점을 모르겠어서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편리해서
전체		(1,782)	19.7	5.9	15.9	58.5
성별	남성	(847)	20.3	5.2	16.8	57.7
	여성	(935)	19.1	6.6	15.1	59.1
연령	20대	(217)	38.2	1.8	21.7	38.2
	30대	(231)	21.6	2.2	26.8	49.4
	40대	(316)	14.9	3.8	23.1	58.2
	50대	(419)	17.9	6.4	13.8	61.8
	60대 이상	(599)	16.0	9.7	7.2	67.1
지역규모	대도시	(739)	18.8	6.0	15.6	59.7
	중·소도시	(786)	21.2	5.0	15.6	58.1
	군지역	(257)	17.5	8.9	17.5	56.0
직업	화이트칼라	(378)	22.0	2.9	23.5	51.6
	블루칼라	(427)	17.8	7.3	18.7	56.2
	농/임/어업	(71)	19.7	2.8	2.8	74.6
	자영업	(388)	14.7	8.0	10.8	66.5
	주부	(402)	18.4	6.7	13.7	61.2
	은퇴자	(20)	20.0	0.0	20.0	60.0
	학생	(53)	58.5	0.0	15.1	26.4
	무직/기타	(42)	26.2	9.5	7.1	57.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43)	20.3	10.5	7.7	61.5
	고졸	(930)	17.5	6.3	12.6	63.5
	대재 이상	(709)	22.4	4.5	21.9	51.2
가구 소득	저소득	(407)	19.4	6.6	8.6	65.4
	중소득	(806)	20.0	5.3	14.0	60.7
	고소득	(569)	19.5	6.3	23.7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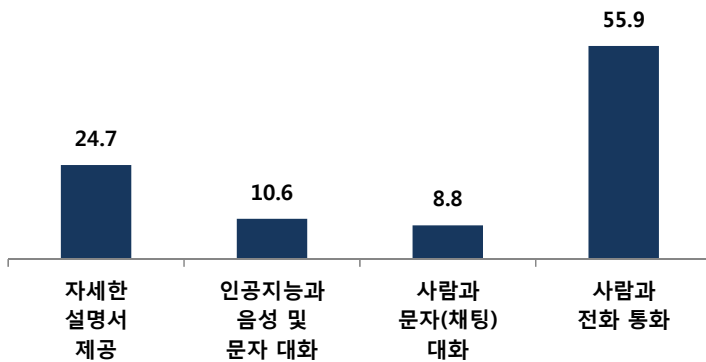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을 살펴본 결과, '사람과 전화 통화'가 55.9%로 가장 많았고, '자세한 설명서 제공'(24.7%), '인공지능과 음성 및 문자 대화'(10.6%), '사람과 문자(채팅) 대화'(8.8%)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V-56〉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n=2,464 / 단위: %)



-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선호하는 도움 방법으로 '사람과 전화 통화'라는 응답은 여성(58.5%),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77.0%), 지역규모가 작을수록(군지역 63.1%), 블루칼라(49.1%), 농/임/어업(83.8%), 자영업(67.8%), 주부(67.4%),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82.8%), 그리고 저소득층(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5〉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호하는 도움 방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자세한 설명서 제공	인공지능과 음성 및 문자 대화	사람과 문자(채팅) 대화	사람과 전화 통화
전체		(2,464)	24.7	10.6	8.8	55.9
성별	남성	(1,224)	26.6	11.3	8.9	53.3
	여성	(1,240)	22.8	9.8	8.8	58.5
연령	20대	(388)	32.2	21.9	13.4	32.5
	30대	(432)	31.0	15.3	14.6	39.1
	40대	(492)	27.2	12.0	8.9	51.8
	50대	(505)	21.4	6.1	7.1	65.3
	60대 이상	(647)	16.5	2.9	3.6	77.0
지역규모	대도시	(1,118)	31.0	11.1	8.2	49.6
	중·소도시	(1,010)	19.6	9.7	10.2	60.5
	군지역	(336)	18.8	11.3	6.8	63.1
직업	화이트칼라	(678)	29.9	15.8	10.8	43.5
	블루칼라	(605)	28.1	12.7	10.1	49.1
	농/임/어업	(80)	13.8	1.3	1.3	83.8
	자영업	(478)	20.1	5.6	6.5	67.8
	주부	(482)	18.7	6.4	7.5	67.4
	은퇴자	(21)	14.3	0.0	4.8	81.0
	학생	(72)	36.1	19.4	15.3	29.2
	무직/기타	(47)	19.1	6.4	8.5	66.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1.9	2.6	2.6	82.8
	고졸	(1,131)	21.0	7.9	8.5	62.7
	대재 이상	(1,181)	29.9	14.1	9.9	46.1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2.1	8.3	8.3	61.2
	중소득	(1,180)	27.5	11.9	9.6	51.0
	고소득	(768)	22.0	10.0	8.1	59.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보험계약 전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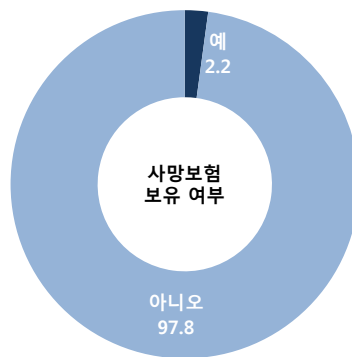
가. 보험계약 전환 의향

1)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2.2%로 대부분 사망(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7〉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n=2,464 / 단위: %)



-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대(3.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56〉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사망(종신)보험 보유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2.2	97.8
성별	남성	(1,224)	1.9	98.1
	여성	(1,240)	2.4	97.6
연령	20대	(388)	0.8	99.2
	30대	(432)	1.4	98.6
	40대	(492)	3.0	97.0
	50대	(505)	3.4	96.6
	60대 이상	(647)	1.9	98.1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8	97.2
	중·소도시	(1,010)	1.9	98.1
	군지역	(336)	0.9	99.1
직업	화이트칼라	(678)	2.4	97.6
	블루칼라	(605)	2.3	97.7
	농/임/어업	(80)	0.0	100.0
	자영업	(478)	2.3	97.7
	주부	(482)	2.1	97.9
	은퇴자	(21)	4.8	95.2
	학생	(72)	1.4	98.6
	무직/기타	(4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2.0	98.0
	고졸	(1,131)	2.2	97.8
	대재 이상	(1,181)	2.0	98.0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9	98.1
	중소득	(1,180)	2.2	97.8
	고소득	(768)	2.2	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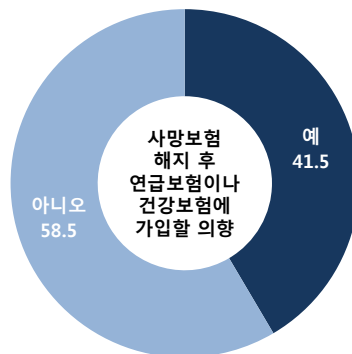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41.5%로 ‘없다’(58.5%)에 비해 17.0%p 낮게 나타남

〈그림 IV-58〉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n=53 / 단위: %)



〈표 IV-57〉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53)	41.5	58.5
성별	남성	(23)	52.2	47.8
	여성	(30)	33.3	66.7
연령	20대	(3)	33.3	66.7
	30대	(6)	66.7	33.3
	40대	(15)	33.3	66.7
	50대	(17)	35.3	64.7
	60대 이상	(12)	50.0	50.0
지역규모	대도시	(31)	29.0	71.0
	중·소도시	(19)	63.2	36.8
	군지역	(3)	33.3	66.7
직업	화이트칼라	(16)	37.5	62.5
	블루칼라	(14)	35.7	64.3
	자영업	(11)	54.5	45.5
	주부	(10)	50.0	50.0
	은퇴자	(1)	0.0	100.0
	학생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33.3	66.7
	고졸	(25)	36.0	64.0
	대재 이상	(24)	45.8	54.2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50.0	50.0
	중소득	(26)	38.5	61.5
	고소득	(17)	41.2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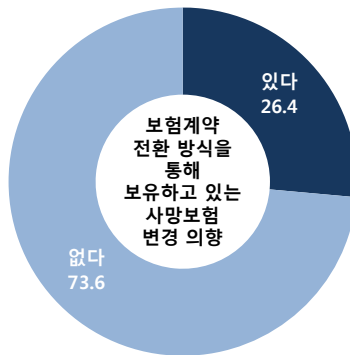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26.4%로 나타남

〈그림 IV-59〉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n=53 / 단위: %)



〈표 IV-58〉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53)	26.4	73.6
성별	남성	(23)	17.4	82.6
	여성	(30)	33.3	66.7
연령	20대	(3)	0.0	100.0
	30대	(6)	16.7	83.3
	40대	(15)	26.7	73.3
	50대	(17)	35.3	64.7
	60대 이상	(12)	25.0	75.0
지역규모	대도시	(31)	25.8	74.2
	중·소도시	(19)	26.3	73.7
	군지역	(3)	33.3	66.7
직업	화이트칼라	(16)	18.8	81.3
	블루칼라	(14)	28.6	71.4
	자영업	(11)	36.4	63.6
	주부	(10)	30.0	70.0
	은퇴자	(1)	0.0	100.0
	학생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33.3	66.7
	고졸	(25)	28.0	72.0
	대재 이상	(24)	25.0	75.0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10)	10.0	90.0
	중소득	(26)	26.9	73.1
	고소득	(17)	35.3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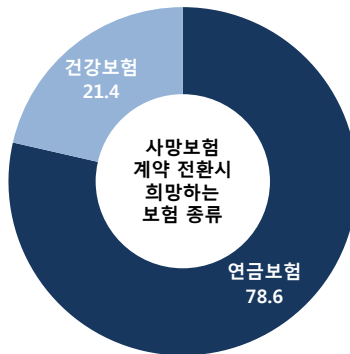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를 알아본 결과 ‘연금보험’이 78.6%, ‘건강보험’이 21.4%로 나타남

〈그림 IV-60〉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n=14 / 단위: %)



〈표 IV-59〉 사망(종신)보험 계약 전환 시 희망하는 보험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보험	건강보험
전체		(14)	78.6	21.4
성별	남성	(4)	50.0	50.0
	여성	(10)	90.0	10.0
연령	30대	(1)	100.0	0.0
	40대	(4)	100.0	0.0
	50대	(6)	66.7	33.3
	60대 이상	(3)	66.7	33.3
지역규모	대도시	(8)	87.5	12.5
	중·소도시	(5)	60.0	40.0
	군지역	(1)	100.0	0.0
직업	화이트칼라	(3)	100.0	0.0
	블루칼라	(4)	75.0	25.0
	자영업	(4)	50.0	50.0
	주부	(3)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고졸	(7)	71.4	28.6
	대재 이상	(6)	83.3	16.7
가구 소득	저소득	(1)	100.0	0.0
	중소득	(7)	71.4	28.6
	고소득	(6)	83.3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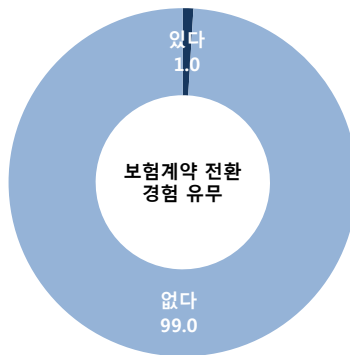
나. 보험계약 전환 경험

1)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0%로 대부분 보험계약 전환 방식으로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61〉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n=2,464 / 단위: %)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은 40대(2.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60〉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64)	1.0	99.0
성별	남성	(1,224)	0.7	99.3
	여성	(1,240)	1.2	98.8
연령	20대	(388)	0.5	99.5
	30대	(432)	0.7	99.3
	40대	(492)	2.0	98.0
	50대	(505)	1.0	99.0
	60대 이상	(647)	0.6	99.4
지역규모	대도시	(1,118)	0.9	99.1
	중·소도시	(1,010)	0.9	99.1
	군지역	(336)	1.5	98.5
직업	화이트칼라	(678)	1.5	98.5
	블루칼라	(605)	0.2	99.8
	농/임/어업	(80)	0.0	100.0
	자영업	(478)	1.0	99.0
	주부	(482)	1.5	98.5
	은퇴자	(21)	0.0	100.0
	학생	(72)	0.0	100.0
	무직/기타	(47)	2.1	97.9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0.7	99.3
	고졸	(1,131)	0.8	99.2
	대재 이상	(1,181)	1.1	98.9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0.8	99.2
	중소득	(1,180)	1.2	98.8
	고소득	(768)	0.8	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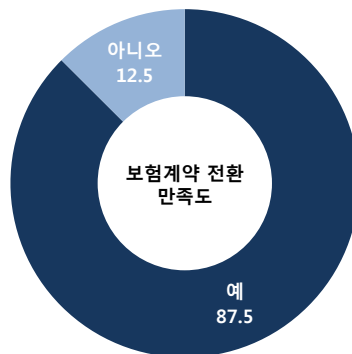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10명 중 약 8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62〉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n=24 / 단위: %)



〈표 IV-61〉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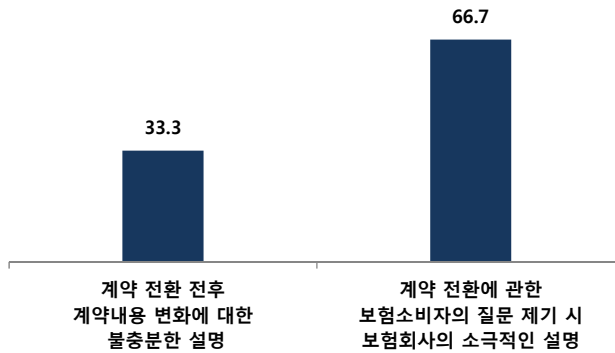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	87.5	12.5
성별	남성	(9)	88.9	11.1
	여성	(15)	86.7	13.3
연령	20대	(2)	100.0	0.0
	30대	(3)	100.0	0.0
	40대	(10)	70.0	30.0
	50대	(5)	100.0	0.0
	60대 이상	(4)	100.0	0.0
지역규모	대도시	(10)	90.0	10.0
	중·소도시	(9)	88.9	11.1
	군지역	(5)	80.0	20.0
직업	화이트칼라	(10)	90.0	10.0
	블루칼라	(1)	100.0	0.0
	자영업	(5)	100.0	0.0
	주부	(7)	71.4	28.6
	무직/기타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고졸	(9)	88.9	11.1
	대재 이상	(13)	92.3	7.7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4)	75.0	25.0
	중소득	(14)	85.7	14.3
	고소득	(6)	100.0	0.0

3)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계약 전환에 관한 보험소비자의 질문 제기 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설명'이 66.7%, '계약 전환 후 계약내용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 33.3%로 나타남

〈그림 IV-63〉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n=3 / 단위: %)



〈표 IV-62〉 보험계약 전환 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계약 전환 전후 계약내용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계약 전환에 관한 질문 제기 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설명
전체		(3)	33.3	66.7
성별	남성	(1)	0.0	100.0
	여성	(2)	50.0	50.0
연령	40대	(3)	33.3	66.7
지역규모	대도시	(1)	0.0	100.0
	중·소도시	(1)	100.0	0.0
	군지역	(1)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1)	0.0	100.0
	주부	(2)	50.0	50.0
교육 수준	고졸	(1)	0.0	100.0
	대재 이상	(1)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	100.0	0.0
	중소득	(2)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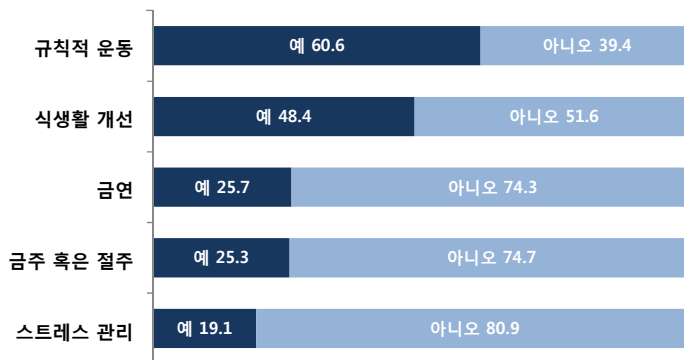
8. 건강생활서비스⁸⁾

가. 현재 건강생활습관 개선 필요성

- 현재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규칙적 운동’은 60.6%, ‘식생활 개선’은 48.4%, ‘금연’은 25.7%, ‘금주 혹은 절주’는 25.3%, ‘스트레스 관리’는 19.1%가 해당 분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IV-64〉 생활습관 개선 필요

(n=1,644 / 단위: %)



8) 건강생활서비스 관련 문항 응답 대상은 만 40세 이상임

- 규칙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63.3%), 중·소도시(66.1%), 자영업(6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3〉 생활습관 개선 필요: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644)	60.6	39.4
성별	남성	(795)	57.9	42.1
	여성	(849)	63.3	36.7
연령	40대	(492)	62.8	37.2
	50대	(505)	62.8	37.2
	60대 이상	(647)	57.3	42.7
지역규모	대도시	(724)	59.0	41.0
	중·소도시	(684)	66.1	33.9
	군지역	(236)	50.0	50.0
직업	화이트칼라	(297)	56.2	43.8
	블루칼라	(373)	62.5	37.5
	농/임/어업	(76)	46.1	53.9
	자영업	(439)	65.8	34.2
	주부	(401)	62.3	37.7
	은퇴자	(21)	28.6	71.4
	무직/기타	(36)	47.2	52.8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9.7	50.3
	고졸	(942)	61.4	38.6
	대재 이상	(550)	62.4	37.6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96)	56.1	43.9
	중소득	(776)	62.8	37.2
	고소득	(472)	61.0	39.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소도시(53.4%), 자영업(52.8%),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2.9%) 비교적 높았음

〈표 IV-64〉 생활습관 개선 필요: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644)	48.4	51.6
성별	남성	(795)	47.7	52.3
	여성	(849)	49.1	50.9
연령	40대	(492)	51.6	48.4
	50대	(505)	51.1	48.9
	60대 이상	(647)	43.9	56.1
지역규모	대도시	(724)	46.3	53.7
	중·소도시	(684)	53.4	46.6
	군지역	(236)	40.7	59.3
직업	화이트칼라	(297)	46.5	53.5
	블루칼라	(373)	46.6	53.4
	농/임/어업	(76)	36.8	63.2
	자영업	(439)	52.8	47.2
	주부	(401)	49.4	50.6
	은퇴자	(21)	23.8	76.2
	무직/기타	(36)	58.3	41.7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43.0	57.0
	고졸	(942)	46.6	53.4
	대재 이상	(550)	52.9	47.1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96)	44.2	55.8
	중소득	(776)	48.6	51.4
	고소득	(472)	51.7	48.3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46.3%), 연령이 낮을수록(40대 30.9%), 중·소도시(31.1%), 화이트칼라(40.1%), 자영업(32.6%),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34.4%), 중소득 및 고소득(모두 28.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IV-65〉 생활습관 개선 필요: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644)	25.7	74.3
성별	남성	(795)	46.3	53.7
	여성	(849)	6.4	93.6
연령	40대	(492)	30.9	69.1
	50대	(505)	27.3	72.7
	60대 이상	(647)	20.4	79.6
지역규모	대도시	(724)	22.9	77.1
	중·소도시	(684)	31.1	68.9
	군지역	(236)	18.2	81.8
직업	화이트칼라	(297)	40.1	59.9
	블루칼라	(373)	26.3	73.7
	농/임/어업	(76)	31.6	68.4
	자영업	(439)	32.6	67.4
	주부	(401)	5.7	94.3
	은퇴자	(21)	33.3	66.7
	무직/기타	(36)	22.2	77.8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7.2	82.8
	고졸	(942)	22.0	78.0
	대재 이상	(550)	34.4	65.6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396)	17.7	82.3
	중소득	(776)	28.2	71.8
	고소득	(472)	28.2	71.8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주 혹은 절주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42.3%), 연령이 낮을수록(40대 31.7%), 중·소도시(28.5%), 화이트칼라(38.0%), 자영업(32.6%),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33.6%),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29.9%) 비교적 높았음

〈표 IV-66〉 생활습관 개선 필요: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644)	25.3	74.7
성별	남성	(795)	42.3	57.7
	여성	(849)	9.4	90.6
연령	40대	(492)	31.7	68.3
	50대	(505)	27.3	72.7
	60대 이상	(647)	18.9	81.1
지역규모	대도시	(724)	24.0	76.0
	중·소도시	(684)	28.5	71.5
	군지역	(236)	19.9	80.1
직업	화이트칼라	(297)	38.0	62.0
	블루칼라	(373)	26.5	73.5
	농/임/어업	(76)	28.9	71.1
	자영업	(439)	32.6	67.4
	주부	(401)	6.5	93.5
	은퇴자	(21)	38.1	61.9
	무직/기타	(36)	13.9	86.1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3.9	86.1
	고졸	(942)	22.2	77.8
	대재 이상	(550)	33.6	66.4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96)	17.7	82.3
	중소득	(776)	26.4	73.6
	고소득	(472)	29.9	70.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40대 22.6%), 자영업(23.5%),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23.3%)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7〉 생활습관 개선 필요: 스트레스 관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644)	19.1	80.9
성별	남성	(795)	20.9	79.1
	여성	(849)	17.4	82.6
연령	40대	(492)	22.6	77.4
	50대	(505)	19.2	80.8
	60대 이상	(647)	16.4	83.6
지역규모	대도시	(724)	20.3	79.7
	중·소도시	(684)	21.2	78.8
	군지역	(236)	9.3	90.7
직업	화이트칼라	(297)	20.9	79.1
	블루칼라	(373)	20.1	79.9
	농/임/어업	(76)	14.5	85.5
	자영업	(439)	23.5	76.5
	주부	(401)	14.2	85.8
	은퇴자	(21)	9.5	90.5
	무직/기타	(36)	11.1	88.9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0.6	89.4
	고졸	(942)	18.0	82.0
	대재 이상	(550)	23.3	76.7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396)	16.7	83.3
	중소득	(776)	19.1	80.9
	고소득	(472)	21.2	78.8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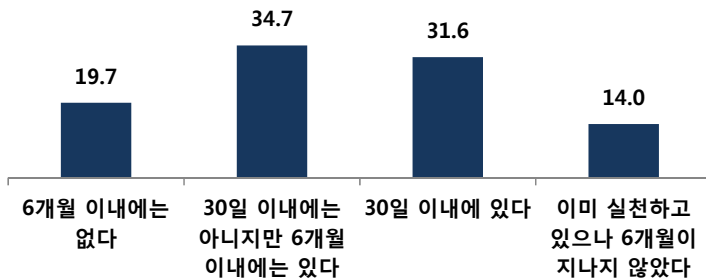
나.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

- 규칙적인 운동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일 이내에 있다'(31.6%), '6개월 이내에는 없다'(19.7%),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5〉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규칙적 운동하기

(n=997 / 단위: %)



-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군지역(45.8%), 화이트칼라(41.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40.8%), 고소득(4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8〉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997)	19.7	34.7	31.6	14.0
성별	남성	(460)	24.8	33.0	28.9	13.3
	여성	(537)	15.3	36.1	33.9	14.7
연령	40대	(309)	18.4	36.9	33.0	11.7
	50대	(317)	19.9	35.0	32.5	12.6
	60대 이상	(371)	20.5	32.6	29.6	17.3
지역규모	대도시	(427)	15.9	30.2	36.8	17.1
	중·소도시	(452)	24.3	36.1	27.2	12.4
	군지역	(118)	15.3	45.8	29.7	9.3
직업	화이트칼라	(167)	19.2	41.9	23.4	15.6
	블루칼라	(233)	19.7	35.6	31.8	12.9
	농/임/어업	(35)	42.9	34.3	20.0	2.9
	자영업	(289)	21.5	31.5	34.3	12.8
	주부	(250)	13.6	33.6	37.6	15.2
	은퇴자	(6)	16.7	16.7	16.7	50.0
	무직/기타	(17)	35.3	29.4	5.9	29.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5)	30.7	30.7	21.3	17.3
	고졸	(578)	19.9	31.7	34.3	14.2
	대재 이상	(343)	16.6	40.8	29.4	13.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22)	23.0	33.3	27.0	16.7
	중소득	(487)	19.9	30.4	36.3	13.3
	고소득	(288)	16.7	43.1	27.1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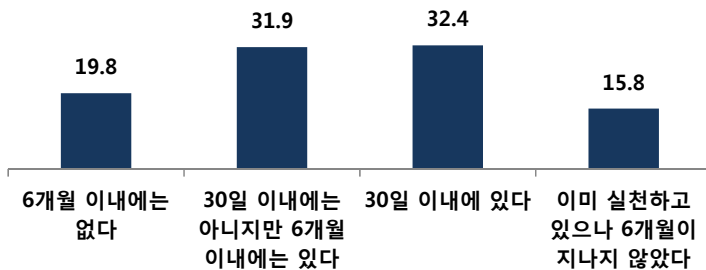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습관

- 식생활 습관 개선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9%),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6〉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식생활 개선

(n=796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여성(35.7%), 대도시(37.0%), 중소득(3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9〉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796)	19.8	31.9	32.4	15.8
성별	남성	(379)	24.8	31.4	28.8	15.0
	여성	(417)	15.3	32.4	35.7	16.5
연령	40대	(254)	17.7	31.9	33.1	17.3
	50대	(258)	21.3	31.8	33.7	13.2
	60대 이상	(284)	20.4	32.0	30.6	16.9
지역규모	대도시	(335)	14.6	30.4	37.0	17.9
	중·소도시	(365)	24.9	31.5	27.7	15.9
	군지역	(96)	18.8	38.5	34.4	8.3
직업	화이트칼라	(138)	18.1	33.3	29.0	19.6
	블루칼라	(174)	19.5	28.7	37.9	13.8
	농/임/어업	(28)	32.1	46.4	21.4	0.0
	자영업	(232)	22.0	30.6	31.0	16.4
	주부	(198)	15.2	32.8	36.4	15.7
	은퇴자	(5)	20.0	60.0	0.0	20.0
	무직/기타	(21)	38.1	28.6	9.5	23.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	26.2	24.6	38.5	10.8
	고졸	(439)	21.9	28.0	33.9	16.2
	대재 이상	(291)	15.1	39.5	28.9	16.5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75)	24.6	28.6	28.0	18.9
	중소득	(377)	19.4	27.6	36.9	16.2
	고소득	(244)	17.2	41.0	28.7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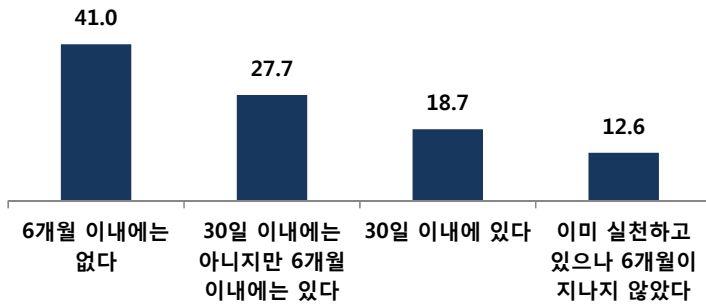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흡연

- 생활습관 중 흡연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실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4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7.7%), '30일 이내에 있다'(18.7%),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7〉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연

(n=422 / 단위: %)



-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은 남성(42.1%),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44.7%), 중·소도시(46.5%),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57.7%),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4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0〉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422)	41.0	27.7	18.7	12.6
성별	남성	(368)	42.1	30.2	19.0	8.7
	여성	(54)	33.3	11.1	16.7	38.9
연령	40대	(152)	36.8	28.3	21.7	13.2
	50대	(138)	42.0	29.7	18.1	10.1
	60대 이상	(132)	44.7	25.0	15.9	14.4
지역규모	대도시	(166)	38.0	26.5	24.1	11.4
	중·소도시	(213)	46.5	24.4	14.1	15.0
	군지역	(43)	25.6	48.8	20.9	4.7
직업	화이트칼라	(119)	29.4	39.5	19.3	11.8
	블루칼라	(98)	43.9	23.5	24.5	8.2
	농/임/어업	(24)	50.0	29.2	16.7	4.2
	자영업	(143)	44.8	26.6	17.5	11.2
	주부	(23)	34.8	8.7	13.0	43.5
	은퇴자	(7)	71.4	0.0	0.0	28.6
	무직/기타	(8)	75.0	0.0	0.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6)	57.7	19.2	19.2	3.8
	고졸	(207)	42.5	22.2	21.3	14.0
	대재 이상	(189)	37.0	34.9	15.9	12.2
가구 소득	저소득	(70)	48.6	18.6	20.0	12.9
	중소득	(219)	45.2	20.5	21.0	13.2
	고소득	(133)	30.1	44.4	14.3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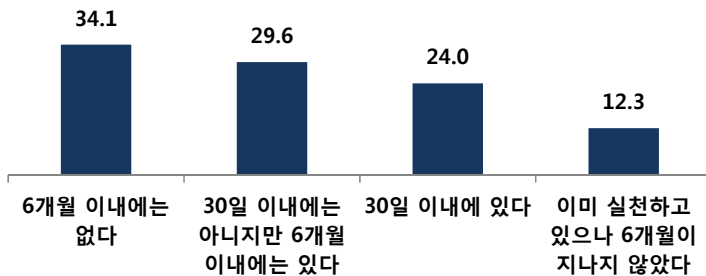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음주

- 음주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실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6%), '30일 이내에 있다'(24.0%),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8〉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주 혹은 절주

(n=416 / 단위: %)



〈표 IV-71〉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416)	34.1	29.6	24.0	12.3
성별	남성	(336)	36.3	29.5	25.0	9.2
	여성	(80)	25.0	30.0	20.0	25.0
연령	40대	(156)	32.7	30.8	26.3	10.3
	50대	(138)	37.7	28.3	23.9	10.1
	60대 이상	(122)	32.0	29.5	21.3	17.2
지역규모	대도시	(174)	33.9	22.4	32.8	10.9
	중·소도시	(195)	35.9	32.3	16.9	14.9
	군지역	(47)	27.7	44.7	21.3	6.4
직업	화이트칼라	(113)	30.1	35.4	24.8	9.7
	블루칼라	(99)	37.4	27.3	25.3	10.1
	농/임/어업	(22)	45.5	13.6	27.3	13.6
	자영업	(143)	34.3	29.4	25.9	10.5
	주부	(26)	23.1	34.6	11.5	30.8
	은퇴자	(8)	62.5	12.5	0.0	25.0
	무직/기타	(5)	20.0	20.0	20.0	4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28.6	23.8	38.1	9.5
	고졸	(209)	37.8	24.9	22.0	15.3
	대재 이상	(185)	30.3	35.7	24.9	9.2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0)	38.6	22.9	22.9	15.7
	중소득	(205)	34.6	23.9	28.8	12.7
	고소득	(141)	31.2	41.1	17.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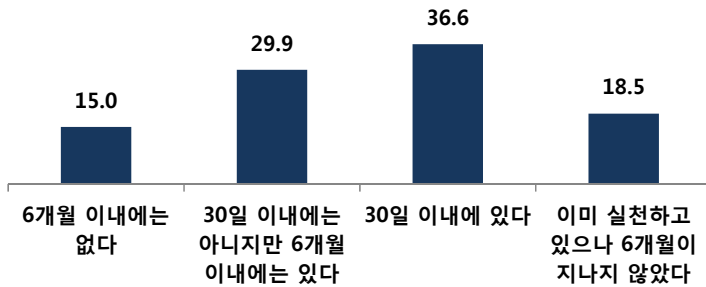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 스트레스 관리 개선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18.5%), '6개월 이내에는 없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9〉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스트레스 관리

(n=314 / 단위: %)



〈표 IV-72〉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 스트레스 관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전체		(314)	15.0	29.9	36.6	18.5
성별	남성	(166)	18.1	31.9	33.7	16.3
	여성	(148)	11.5	27.7	39.9	20.9
연령	40대	(111)	17.1	36.0	33.3	13.5
	50대	(97)	13.4	26.8	42.3	17.5
	60대 이상	(106)	14.2	26.4	34.9	24.5
지역규모	대도시	(147)	15.0	27.2	40.8	17.0
	중·소도시	(145)	14.5	32.4	30.3	22.8
	군지역	(22)	18.2	31.8	50.0	0.0
직업	화이트칼라	(62)	22.6	32.3	30.6	14.5
	블루칼라	(75)	12.0	32.0	37.3	18.7
	농/임/어업	(11)	27.3	27.3	36.4	9.1
	자영업	(103)	15.5	26.2	37.9	20.4
	주부	(57)	7.0	33.3	42.1	17.5
	은퇴자	(2)	50.0	0.0	0.0	50.0
	무직/기타	(4)	0.0	25.0	25.0	5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6.3	25.0	37.5	31.3
	고졸	(170)	15.3	26.5	37.1	21.2
	대재 이상	(128)	15.6	35.2	35.9	13.3
가구 소득	저소득	(66)	13.6	18.2	43.9	24.2
	중소득	(148)	14.9	31.8	37.2	16.2
	고소득	(100)	16.0	35.0	31.0	18.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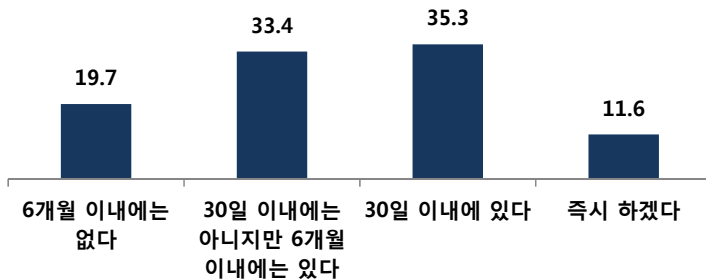
다.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5.3%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3.4%), '6개월 이내에는 없다'(19.7%), '즉시 하겠다'(11.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0〉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997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대재 이상(38.2%)과 중소득(3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 공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997)	19.7	33.4	35.3	11.6
성별	남성	(460)	21.5	34.1	35.0	9.3
	여성	(537)	18.1	32.8	35.6	13.6
연령	40대	(309)	19.1	34.3	36.9	9.7
	50대	(317)	20.5	32.8	34.7	12.0
	60대 이상	(371)	19.4	33.2	34.5	12.9
지역규모	대도시	(427)	18.5	32.8	37.9	10.8
	중·소도시	(452)	21.0	31.9	33.0	14.2
	군지역	(118)	18.6	41.5	34.7	5.1
직업	화이트칼라	(167)	18.6	38.9	32.9	9.6
	블루칼라	(233)	16.7	31.3	36.9	15.0
	농/임/어업	(35)	31.4	37.1	25.7	5.7
	자영업	(289)	22.8	31.8	36.0	9.3
	주부	(250)	16.8	32.8	37.6	12.8
	은퇴자	(6)	0.0	50.0	33.3	16.7
	무직/기타	(17)	41.2	29.4	11.8	1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5)	25.3	29.3	33.3	12.0
	고졸	(578)	21.3	31.7	33.9	13.1
	대재 이상	(343)	15.5	37.3	38.2	9.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22)	23.9	30.2	36.5	9.5
	중소득	(487)	16.6	30.4	38.4	14.6
	고소득	(288)	21.5	41.0	29.2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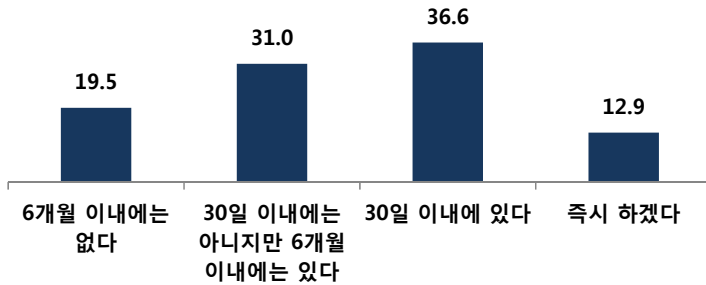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6.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0%), '6개월 이내에는 없다'(19.5%), '즉시 하겠다'(12.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1〉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796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여성(38.1%), 연령이 낮을수록(40대 39.8%), 블루칼라(41.4%), 중졸 이하(40.0%), 그리고 중소득(40.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7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796)	19.5	31.0	36.6	12.9
성별	남성	(379)	21.9	32.7	34.8	10.6
	여성	(417)	17.3	29.5	38.1	15.1
연령	40대	(254)	18.1	29.5	39.8	12.6
	50대	(258)	19.0	30.2	37.6	13.2
	60대 이상	(284)	21.1	33.1	32.7	13.0
지역규모	대도시	(335)	17.6	29.6	39.4	13.4
	중·소도시	(365)	21.6	30.7	32.9	14.8
	군지역	(96)	17.7	37.5	40.6	4.2
직업	화이트칼라	(138)	15.9	37.7	29.7	16.7
	블루칼라	(174)	19.0	25.9	41.4	13.8
	농/임/어업	(28)	21.4	42.9	28.6	7.1
	자영업	(232)	22.4	28.4	38.8	10.3
	주부	(198)	16.7	32.3	37.9	13.1
	은퇴자	(5)	0.0	80.0	20.0	0.0
	무직/기타	(21)	42.9	19.0	19.0	19.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	23.1	24.6	40.0	12.3
	고졸	(439)	23.0	29.4	34.4	13.2
	대재 이상	(291)	13.1	35.1	39.2	12.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75)	26.9	26.3	33.7	13.1
	중소득	(377)	17.2	27.9	40.8	14.1
	고소득	(244)	17.6	39.3	32.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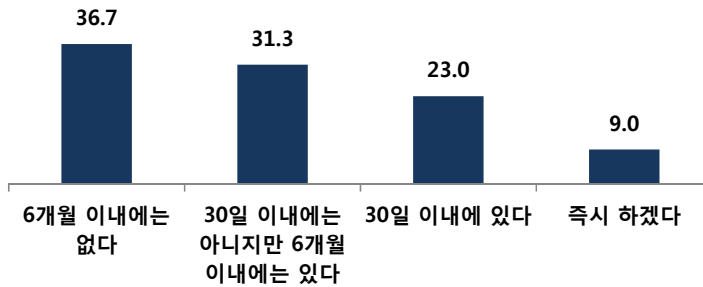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가 36.7%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3%), '30일 이내에 있다'(23.0%), '즉시 하겠다'(9.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2〉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22 / 단위: %)



〈표 IV-75〉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22)	36.7	31.3	23.0	9.0
성별	남성	(368)	35.3	34.5	22.3	7.9
	여성	(54)	46.3	9.3	27.8	16.7
연령	40대	(152)	36.8	29.6	22.4	11.2
	50대	(138)	37.7	30.4	25.4	6.5
	60대 이상	(132)	35.6	34.1	21.2	9.1
지역규모	대도시	(166)	33.7	30.7	25.3	10.2
	중·소도시	(213)	39.9	27.7	23.0	9.4
	군지역	(43)	32.6	51.2	14.0	2.3
직업	화이트칼라	(119)	30.3	41.2	20.2	8.4
	블루칼라	(98)	32.7	29.6	25.5	12.2
	농/임/어업	(24)	58.3	12.5	20.8	8.3
	자영업	(143)	36.4	32.9	24.5	6.3
	주부	(23)	52.2	8.7	26.1	13.0
	은퇴자	(7)	57.1	14.3	28.6	0.0
	무직/기타	(8)	62.5	12.5	0.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6)	42.3	23.1	30.8	3.8
	고졸	(207)	38.2	26.6	24.2	11.1
	대재 이상	(189)	34.4	37.6	20.6	7.4
가구 소득	저소득	(70)	42.9	22.9	18.6	15.7
	중소득	(219)	35.2	26.0	30.6	8.2
	고소득	(133)	36.1	44.4	12.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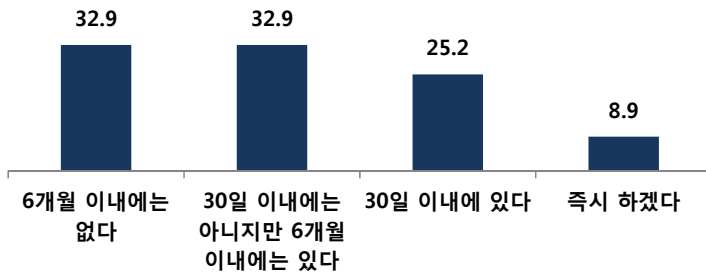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개월 이내에는 없다’와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2.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일 이내에 있다’(25.2%), ‘즉시 하겠다’(8.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3〉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416 / 단위: %)



-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남성(35.7%), 군지역(42.6%), 화이트칼라(41.6%),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37.8%),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48.2%)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6〉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16)	32.9	32.9	25.2	8.9
성별	남성	(336)	33.6	35.7	23.5	7.1
	여성	(80)	30.0	21.3	32.5	16.3
연령	40대	(156)	33.3	34.6	21.8	10.3
	50대	(138)	34.8	30.4	28.3	6.5
	60대 이상	(122)	30.3	33.6	26.2	9.8
지역규모	대도시	(174)	33.3	31.6	26.4	8.6
	중·소도시	(195)	31.8	31.8	25.6	10.8
	군지역	(47)	36.2	42.6	19.1	2.1
직업	화이트칼라	(113)	28.3	41.6	22.1	8.0
	블루칼라	(99)	35.4	31.3	25.3	8.1
	농/임/어업	(22)	54.5	9.1	27.3	9.1
	자영업	(143)	32.9	32.9	27.3	7.0
	주부	(26)	23.1	26.9	30.8	19.2
	은퇴자	(8)	37.5	37.5	25.0	0.0
	무직/기타	(5)	40.0	0.0	0.0	6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33.3	23.8	38.1	4.8
	고졸	(209)	34.9	29.7	26.8	8.6
	대재 이상	(185)	30.3	37.8	22.2	9.7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0)	38.6	20.0	28.6	12.9
	중소득	(205)	29.3	26.8	34.1	9.8
	고소득	(141)	35.5	48.2	10.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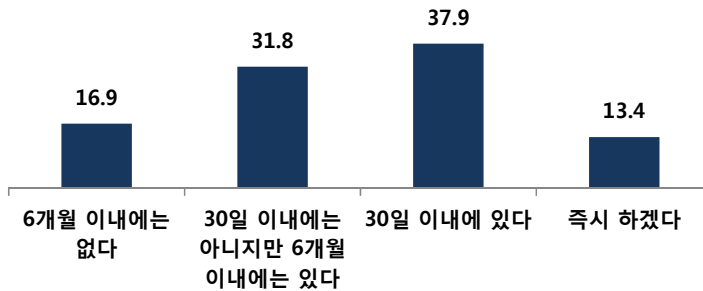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보험회사가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7.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8%), '6개월 이내에는 없다'(16.9%), '즉시 하겠다'(13.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4〉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n=314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여성(41.9%), 50대(41.2%), 주부(45.6%),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62.5%),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53.0%) 비교적 높았음

〈표 IV-77〉 보험회사 무료 지원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314)	16.9	31.8	37.9	13.4
성별	남성	(166)	17.5	37.3	34.3	10.8
	여성	(148)	16.2	25.7	41.9	16.2
연령	40대	(111)	16.2	37.8	34.2	11.7
	50대	(97)	19.6	25.8	41.2	13.4
	60대 이상	(106)	15.1	31.1	38.7	15.1
지역규모	대도시	(147)	16.3	33.3	36.1	14.3
	중·소도시	(145)	16.6	29.7	39.3	14.5
	군지역	(22)	22.7	36.4	40.9	0.0
직업	화이트칼라	(62)	21.0	37.1	27.4	14.5
	블루칼라	(75)	13.3	30.7	41.3	14.7
	농/임/어업	(11)	36.4	27.3	36.4	0.0
	자영업	(103)	18.4	31.1	37.9	12.6
	주부	(57)	10.5	29.8	45.6	14.0
	은퇴자	(2)	0.0	100.0	0.0	0.0
	무직/기타	(4)	25.0	0.0	50.0	25.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6.3	12.5	62.5	18.8
	고졸	(170)	19.4	28.2	38.8	13.5
	대재 이상	(128)	14.8	39.1	33.6	12.5
가구 소득	저소득	(66)	16.7	16.7	53.0	13.6
	중소득	(148)	14.2	34.5	35.1	16.2
	고소득	(100)	21.0	38.0	32.0	9.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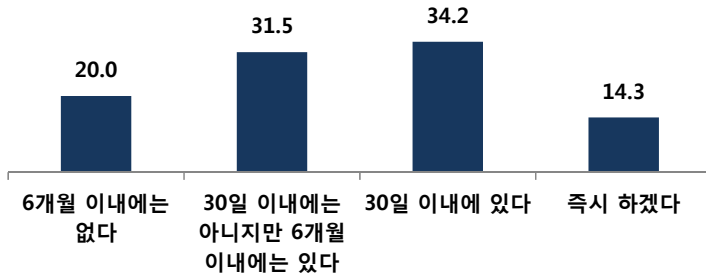
라.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4.2%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5%), '6개월 이내에는 없다'(20.0%), '즉시 하겠다'(14.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5〉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997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37.9%), 주부(38.4%), 그리고 중소득(3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997)	20.0	31.5	34.2	14.3
성별	남성	(460)	20.9	33.7	33.7	11.7
	여성	(537)	19.2	29.6	34.6	16.6
연령	40대	(309)	20.7	31.4	33.3	14.6
	50대	(317)	19.2	32.5	34.4	13.9
	60대 이상	(371)	19.9	30.7	34.8	14.6
지역규모	대도시	(427)	19.4	30.0	37.9	12.6
	중·소도시	(452)	20.8	30.5	29.9	18.8
	군지역	(118)	18.6	40.7	37.3	3.4
직업	화이트칼라	(167)	20.4	35.9	27.5	16.2
	블루칼라	(233)	17.2	30.5	35.6	16.7
	농/임/어업	(35)	31.4	37.1	28.6	2.9
	자영업	(289)	22.8	29.8	35.6	11.8
	주부	(250)	16.8	29.6	38.4	15.2
	은퇴자	(6)	16.7	66.7	0.0	16.7
	무직/기타	(17)	29.4	35.3	17.6	1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5)	25.3	24.0	34.7	16.0
	고졸	(578)	22.1	29.6	34.1	14.2
	대재 이상	(343)	14.9	36.4	34.4	14.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22)	23.9	27.9	36.0	12.2
	중소득	(487)	17.5	28.3	38.2	16.0
	고소득	(288)	21.2	39.6	26.0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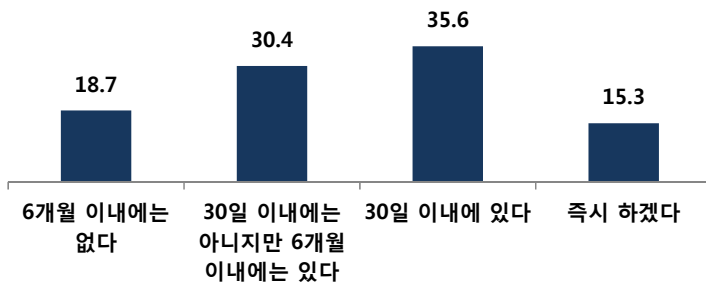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5.6%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4%), '6개월 이내에는 없다'(18.7%), '즉시 하겠다'(15.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6〉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796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50대(38.4%), 블루칼라와 자영업(각각 41.4%, 40.1%), 그리고 중소득(3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796)	18.7	30.4	35.6	15.3
성별	남성	(379)	20.1	32.2	36.1	11.6
	여성	(417)	17.5	28.8	35.0	18.7
연령	40대	(254)	18.1	31.1	34.3	16.5
	50대	(258)	19.0	28.7	38.4	14.0
	60대 이상	(284)	19.0	31.3	34.2	15.5
지역규모	대도시	(335)	15.2	30.4	37.9	16.4
	중·소도시	(365)	21.4	29.0	32.3	17.3
	군지역	(96)	20.8	35.4	39.6	4.2
직업	화이트칼라	(138)	17.4	39.1	23.9	19.6
	블루칼라	(174)	17.8	25.3	41.4	15.5
	농/임/어업	(28)	21.4	39.3	35.7	3.6
	자영업	(232)	20.7	27.2	40.1	12.1
	주부	(198)	16.7	30.8	34.3	18.2
	은퇴자	(5)	0.0	40.0	60.0	0.0
	무직/기타	(21)	33.3	33.3	19.0	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	23.1	27.7	29.2	20.0
	고졸	(439)	22.1	26.2	36.7	15.0
	대재 이상	(291)	12.4	37.5	35.4	14.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75)	24.0	28.6	30.3	17.1
	중소득	(377)	17.0	27.3	38.5	17.2
	고소득	(244)	17.6	36.5	34.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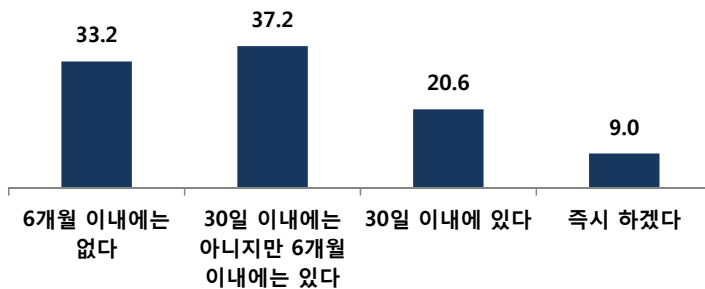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7.2%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는 없다'(33.2%), '30일 이내에 있다'(20.6%), '즉시 하겠다'(9.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7〉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22 / 단위: %)



-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남성(41.0%), 군지역(53.5%), 화이트칼라(44.5%), 대재 이상(42.3%),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47.4%) 특히 높았음

〈표 IV-80〉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22)	33.2	37.2	20.6	9.0
성별	남성	(368)	31.8	41.0	20.9	6.3
	여성	(54)	42.6	11.1	18.5	27.8
연령	40대	(152)	34.2	34.9	23.0	7.9
	50대	(138)	31.9	37.7	19.6	10.9
	60대 이상	(132)	33.3	39.4	18.9	8.3
지역규모	대도시	(166)	31.3	34.9	26.5	7.2
	중·소도시	(213)	34.3	35.7	18.3	11.7
	군지역	(43)	34.9	53.5	9.3	2.3
직업	화이트칼라	(119)	26.9	44.5	20.2	8.4
	블루칼라	(98)	28.6	37.8	19.4	14.3
	농/임/어업	(24)	45.8	29.2	20.8	4.2
	자영업	(143)	34.3	38.5	22.4	4.9
	주부	(23)	52.2	8.7	17.4	21.7
	은퇴자	(7)	57.1	14.3	28.6	0.0
	무직/기타	(8)	50.0	25.0	12.5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6)	42.3	34.6	23.1	0.0
	고졸	(207)	34.8	32.9	20.8	11.6
	대재 이상	(189)	30.2	42.3	20.1	7.4
가구 소득	저소득	(70)	37.1	25.7	22.9	14.3
	중소득	(219)	32.4	34.7	23.3	9.6
	고소득	(133)	32.3	47.4	15.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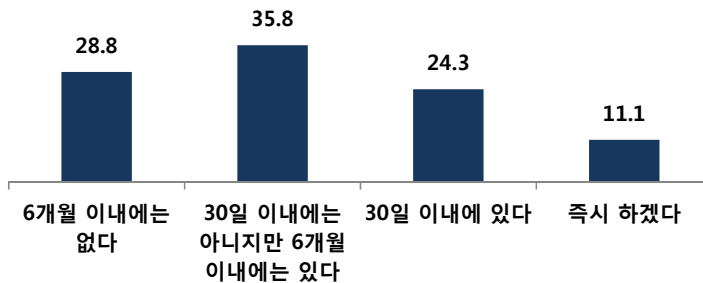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5.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는 없다'(28.8%), '30일 이내에 있다'(24.3%), '즉시 하겠다'(11.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8〉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416 / 단위: %)



-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남성(39.3%), 군지역(51.1%), 화이트칼라(45.1%), 대재 이상(40.0%),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48.2%)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1〉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 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16)	28.8	35.8	24.3	11.1
성별	남성	(336)	28.6	39.3	24.7	7.4
	여성	(80)	30.0	21.3	22.5	26.3
연령	40대	(156)	30.1	37.2	23.1	9.6
	50대	(138)	29.7	31.9	26.8	11.6
	60대 이상	(122)	26.2	38.5	23.0	12.3
지역규모	대도시	(174)	29.3	31.6	28.7	10.3
	중·소도시	(195)	28.2	35.9	22.1	13.8
	군지역	(47)	29.8	51.1	17.0	2.1
직업	화이트칼라	(113)	26.5	45.1	21.2	7.1
	블루칼라	(99)	29.3	32.3	26.3	12.1
	농/임/어업	(22)	40.9	22.7	31.8	4.5
	자영업	(143)	28.7	35.0	25.9	10.5
	주부	(26)	26.9	26.9	19.2	26.9
	은퇴자	(8)	37.5	37.5	12.5	12.5
	무직/기타	(5)	20.0	20.0	20.0	4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28.6	38.1	23.8	9.5
	고졸	(209)	30.6	32.1	26.3	11.0
	대재 이상	(185)	26.5	40.0	22.2	11.4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0)	30.0	25.7	30.0	14.3
	중소득	(205)	26.8	30.7	29.3	13.2
	고소득	(141)	31.2	48.2	14.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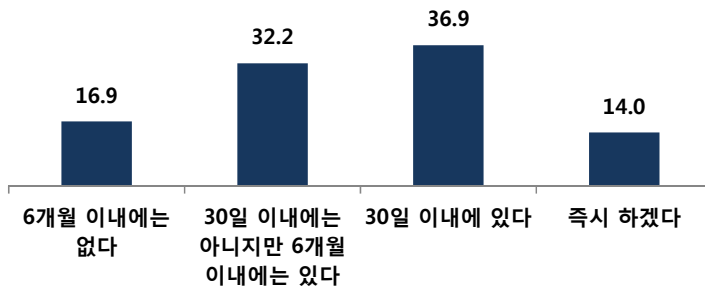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

-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6.9%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2.2%), '6개월 이내에는 없다'(16.9%), '즉시 하겠다'(14.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9〉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n=314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군지역(40.9%), 중졸 이하(56.3%),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51.5%) 비교적 높았음

〈표 IV-82〉 보험회사 대면 안내 등 개입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314)	16.9	32.2	36.9	14.0
성별	남성	(166)	15.7	36.7	36.7	10.8
	여성	(148)	18.2	27.0	37.2	17.6
연령	40대	(111)	22.5	37.8	28.8	10.8
	50대	(97)	14.4	26.8	43.3	15.5
	60대 이상	(106)	13.2	31.1	39.6	16.0
지역규모	대도시	(147)	15.6	33.3	35.4	15.6
	중·소도시	(145)	17.2	30.3	37.9	14.5
	군지역	(22)	22.7	36.4	40.9	0.0
직업	화이트칼라	(62)	22.6	40.3	24.2	12.9
	블루칼라	(75)	16.0	30.7	37.3	16.0
	농/임/어업	(11)	27.3	36.4	36.4	0.0
	자영업	(103)	15.5	28.2	40.8	15.5
	주부	(57)	12.3	33.3	40.4	14.0
	은퇴자	(2)	0.0	50.0	50.0	0.0
	무직/기타	(4)	25.0	0.0	75.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6.3	18.8	56.3	18.8
	고졸	(170)	17.6	30.6	35.9	15.9
	대재 이상	(128)	17.2	35.9	35.9	10.9
가구 소득	저소득	(66)	13.6	15.2	51.5	19.7
	중소득	(148)	16.9	34.5	34.5	14.2
	고소득	(100)	19.0	40.0	3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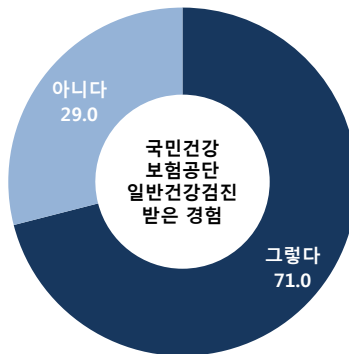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1.0%로 10명 중 7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험

(n=1,644 / 단위: %)



-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응답은 50대(74.9%), 대도시(72.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72.9%),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80.9%)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644)	71.0	29.0
성별	남성	(795)	70.1	29.9
	여성	(849)	71.8	28.2
연령	40대	(492)	69.5	30.5
	50대	(505)	74.9	25.1
	60대 이상	(647)	69.1	30.9
지역규모	대도시	(724)	72.9	27.1
	중·소도시	(684)	70.5	29.5
	군지역	(236)	66.5	33.5
직업	화이트칼라	(297)	73.1	26.9
	블루칼라	(373)	70.0	30.0
	농/임/어업	(76)	57.9	42.1
	자영업	(439)	72.4	27.6
	주부	(401)	70.3	29.7
	은퇴자	(21)	71.4	28.6
	무직/기타	(36)	80.6	19.4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57.0	43.0
	고졸	(942)	72.1	27.9
	대재 이상	(550)	72.9	27.1
가구 소득	모름/무응답	(1)	100.0	0.0
	저소득	(396)	65.2	34.8
	중소득	(776)	67.9	32.1
	고소득	(472)	80.9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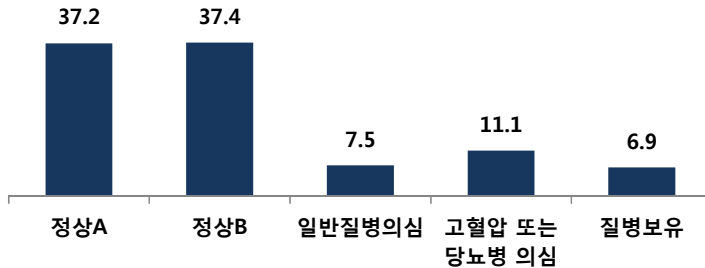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정상A + 정상B)’이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11.1%), ‘일반질병 의심’(7.5%), ‘질병 보유’(6.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급

(n=1,167 / 단위: %)



〈표 IV-8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급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정상A	정상B	일반질병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질병 보유
전체		(1,167)	37.2	37.4	7.5	11.1	6.9
성별	남성	(557)	33.9	39.3	7.7	11.7	7.4
	여성	(610)	40.2	35.6	7.2	10.5	6.6
연령	40대	(342)	58.2	36.8	3.2	1.8	0.0
	50대	(378)	37.0	42.9	6.1	9.0	5.0
	60대 이상	(447)	21.3	33.1	11.9	19.9	13.9
지역규모	대도시	(528)	34.5	37.9	8.5	12.3	6.8
	중·소도시	(482)	38.2	35.5	7.3	10.2	8.9
	군지역	(157)	43.3	41.4	4.5	9.6	1.3
직업	화이트칼라	(217)	52.5	36.4	5.5	3.7	1.8
	블루칼라	(261)	38.3	36.4	6.9	13.4	5.0
	농/임/어업	(44)	22.7	45.5	13.6	9.1	9.1
	자영업	(318)	31.4	35.5	9.4	13.2	10.4
	주부	(282)	37.6	38.3	6.4	10.6	7.1
	은퇴자	(15)	13.3	53.3	6.7	20.0	6.7
	무직/기타	(29)	6.9	44.8	6.9	20.7	20.7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6)	23.3	23.3	10.5	19.8	23.3
	고졸	(679)	32.0	36.5	9.0	14.4	8.1
	대재 이상	(401)	49.1	41.6	4.2	3.5	1.5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58)	22.5	29.1	11.6	20.5	16.3
	중소득	(527)	38.7	37.8	7.6	10.2	5.7
	고소득	(382)	45.0	42.4	4.5	5.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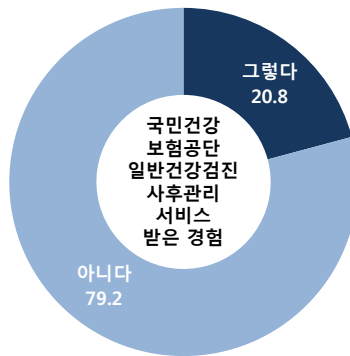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20.8%로 약 10명 중 2명 정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

(n=1,167 / 단위: %)



-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27.7%),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24.1%), 고졸(23.3%),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25.2%)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167)	20.8	79.2
성별	남성	(557)	21.7	78.3
	여성	(610)	20.0	80.0
연령	40대	(342)	11.1	88.9
	50대	(378)	21.4	78.6
	60대 이상	(447)	27.7	72.3
지역규모	대도시	(528)	24.1	75.9
	중·소도시	(482)	19.5	80.5
	군지역	(157)	14.0	86.0
직업	화이트칼라	(217)	17.1	82.9
	블루칼라	(261)	23.4	76.6
	농/임/어업	(44)	18.2	81.8
	자영업	(318)	21.1	78.9
	주부	(282)	19.9	80.1
	은퇴자	(15)	20.0	80.0
	무직/기타	(29)	34.5	65.5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6)	22.1	77.9
	고졸	(679)	23.3	76.7
	대재 이상	(401)	16.5	83.5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258)	25.2	74.8
	중소득	(527)	19.9	80.1
	고소득	(382)	19.1	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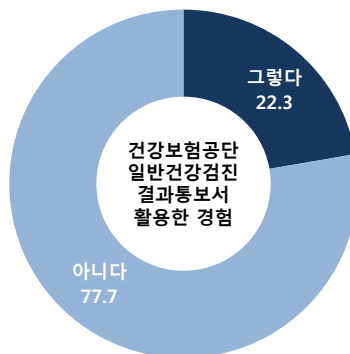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 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22.3%로 10명 중 약 2명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8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n=1,167 / 단위: %)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28.2%), 지역규모가 클수록(대도시 25.6%), 고졸(24.9%),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24.0%)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V-8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1,167)	22.3	77.7
성별	남성	(557)	23.5	76.5
	여성	(610)	21.1	78.9
연령	40대	(342)	15.2	84.8
	50대	(378)	21.7	78.3
	60대 이상	(447)	28.2	71.8
지역규모	대도시	(528)	25.6	74.4
	중·소도시	(482)	21.4	78.6
	군지역	(157)	14.0	86.0
직업	화이트칼라	(217)	19.4	80.6
	블루칼라	(261)	21.1	78.9
	농/임/어업	(44)	18.2	81.8
	자영업	(318)	25.5	74.5
	주부	(282)	21.3	78.7
	은퇴자	(15)	20.0	80.0
	무직/기타	(29)	34.5	65.5
	모름/무응답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6)	24.4	75.6
	고졸	(679)	24.9	75.1
	대재 이상	(401)	17.5	82.5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258)	24.0	76.0
	중소득	(527)	23.9	76.1
	고소득	(382)	18.8	81.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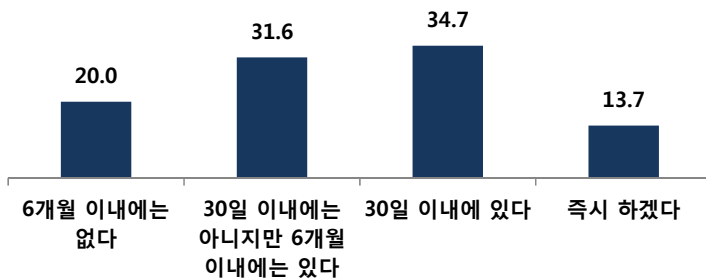
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1) 규칙적 운동하기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규칙적 운동하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4.7%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1.6%), '6개월 이내에는 없다'(20.0%) '즉시 하겠다'(13.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4〉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n=997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블루칼라와 주부(각각 39.1%, 38.4%), 그리고 중소득(3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규칙적 운동하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997)	20.0	31.6	34.7	13.7
성별	남성	(460)	19.8	32.8	35.0	12.4
	여성	(537)	20.1	30.5	34.5	14.9
연령	40대	(309)	21.0	32.4	34.0	12.6
	50대	(317)	17.7	31.5	37.9	12.9
	60대 이상	(371)	21.0	31.0	32.6	15.4
지역규모	대도시	(427)	19.2	30.9	36.1	13.8
	중·소도시	(452)	20.6	30.5	33.2	15.7
	군지역	(118)	20.3	38.1	35.6	5.9
직업	화이트칼라	(167)	19.2	40.7	28.1	12.0
	블루칼라	(233)	16.7	27.5	39.1	16.7
	농/임/어업	(35)	31.4	42.9	20.0	5.7
	자영업	(289)	22.8	28.4	35.3	13.5
	주부	(250)	18.4	30.0	38.4	13.2
	은퇴자	(6)	0.0	83.3	0.0	16.7
	무직/기타	(17)	29.4	35.3	17.6	17.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5)	26.7	26.7	25.3	21.3
	고졸	(578)	22.3	28.7	35.8	13.1
	대재 이상	(343)	14.3	37.6	35.0	13.1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22)	24.3	31.1	29.7	14.9
	중소득	(487)	18.7	26.9	38.8	15.6
	고소득	(288)	18.8	39.9	31.6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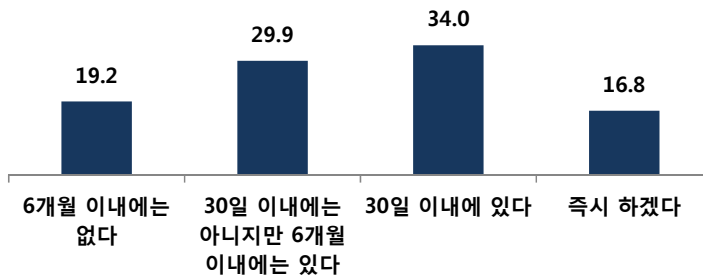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식생활 개선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4.0%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29.9%), '6개월 이내에는 없다'(19.2%), '즉시 하겠다'(16.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5〉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n=796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군지역(42.7%)과 중소득(38.5%)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 IV-8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식생활 개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796)	19.2	29.9	34.0	16.8
성별	남성	(379)	19.8	31.7	34.8	13.7
	여성	(417)	18.7	28.3	33.3	19.7
연령	40대	(254)	19.7	31.5	31.9	16.9
	50대	(258)	17.1	30.6	35.3	17.1
	60대 이상	(284)	20.8	27.8	34.9	16.5
지역규모	대도시	(335)	16.4	28.1	37.3	18.2
	중·소도시	(365)	21.6	31.0	28.8	18.6
	군지역	(96)	19.8	32.3	42.7	5.2
직업	화이트칼라	(138)	15.2	39.9	28.3	16.7
	블루칼라	(174)	16.7	24.7	39.1	19.5
	농/임/어업	(28)	21.4	50.0	25.0	3.6
	자영업	(232)	22.0	29.3	34.1	14.7
	주부	(198)	19.2	25.3	36.4	19.2
	은퇴자	(5)	0.0	40.0	40.0	20.0
	무직/기타	(21)	38.1	28.6	19.0	14.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5)	24.6	24.6	35.4	15.4
	고졸	(439)	21.9	26.9	34.2	17.1
	대재 이상	(291)	13.7	35.7	33.7	16.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75)	25.7	26.3	30.9	17.1
	중소득	(377)	19.6	24.1	38.5	17.8
	고소득	(244)	13.9	41.4	29.5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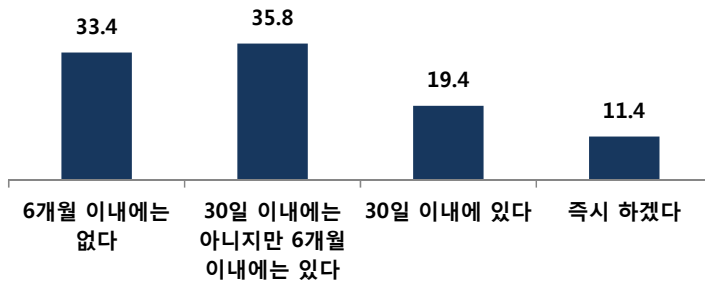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금연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5.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는 없다'(33.4%), '30일 이내에 있다'(19.4%), '즉시 하겠다'(11.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6〉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n=422 / 단위: %)



-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남성(38.9%), 지역규모가 작을수록(군지역 46.5%), 화이트칼라(42.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41.3%),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47.4%) 비교적 높았음

〈표 IV-89〉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22)	33.4	35.8	19.4	11.4
성별	남성	(368)	32.3	38.9	19.6	9.2
	여성	(54)	40.7	14.8	18.5	25.9
연령	40대	(152)	34.2	32.2	23.0	10.5
	50대	(138)	32.6	39.9	15.9	11.6
	60대 이상	(132)	33.3	35.6	18.9	12.1
지역규모	대도시	(166)	31.3	32.5	25.3	10.8
	중·소도시	(213)	35.7	36.2	15.0	13.1
	군지역	(43)	30.2	46.5	18.6	4.7
직업	화이트칼라	(119)	27.7	42.9	20.2	9.2
	블루칼라	(98)	27.6	39.8	18.4	14.3
	농/임/어업	(24)	58.3	16.7	20.8	4.2
	자영업	(143)	33.6	34.3	23.1	9.1
	주부	(23)	56.5	8.7	8.7	26.1
	은퇴자	(7)	28.6	42.9	0.0	28.6
	무직/기타	(8)	50.0	37.5	0.0	12.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6)	46.2	23.1	23.1	7.7
	고졸	(207)	35.3	32.4	18.4	14.0
	대재 이상	(189)	29.6	41.3	20.1	9.0
가구 소득	저소득	(70)	37.1	24.3	21.4	17.1
	중소득	(219)	35.6	32.4	21.0	11.0
	고소득	(133)	27.8	47.4	15.8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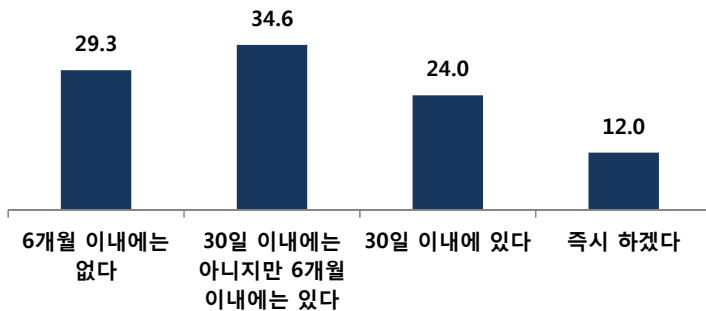
주: 은퇴자와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금주 혹은 절주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주 혹은 절주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가 34.6%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에는 없다'(29.3%), '30일 이내에 있다'(24.0%), '즉시 하겠다'(12.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7〉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n=416 / 단위: %)



-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는 응답은 남성(37.2%), 지역규모가 작을수록(군지역 44.7%), 화이트칼라(45.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41.1%),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51.1%) 특히 높게 나타남

〈표 IV-90〉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금주 혹은 절주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416)	29.3	34.6	24.0	12.0
성별	남성	(336)	29.8	37.2	25.3	7.7
	여성	(80)	27.5	23.8	18.8	30.0
연령	40대	(156)	28.2	39.1	21.2	11.5
	50대	(138)	28.3	32.6	26.8	12.3
	60대 이상	(122)	32.0	31.1	24.6	12.3
지역규모	대도시	(174)	29.3	31.0	27.6	12.1
	중·소도시	(195)	29.2	35.4	21.5	13.8
	군지역	(47)	29.8	44.7	21.3	4.3
직업	화이트칼라	(113)	23.9	45.1	22.1	8.8
	블루칼라	(99)	30.3	32.3	27.3	10.1
	농/임/어업	(22)	50.0	13.6	27.3	9.1
	자영업	(143)	30.1	31.5	27.3	11.2
	주부	(26)	26.9	30.8	11.5	30.8
	은퇴자	(8)	25.0	50.0	0.0	25.0
	무직/기타	(5)	40.0	20.0	0.0	4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	33.3	4.8	38.1	23.8
	고졸	(209)	32.5	32.1	23.4	12.0
	대재 이상	(185)	24.9	41.1	23.2	10.8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70)	35.7	22.9	21.4	20.0
	중소득	(205)	29.8	27.3	30.7	12.2
	고소득	(141)	25.5	51.1	15.6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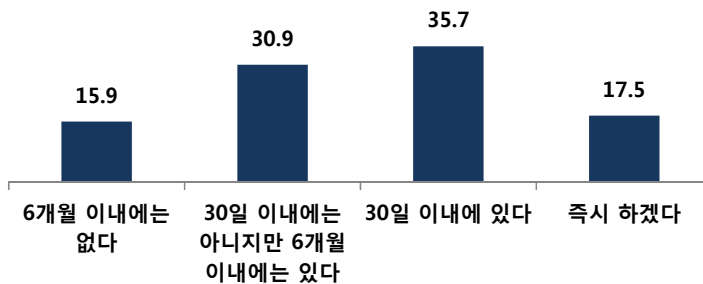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스트레스 관리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횟수 늘리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일 이내에 있다'가 35.7%로 가장 많았고,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30.9%), '즉시 하겠다'(17.5%), '6개월 이내에는 없다'(15.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88〉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n=314 / 단위: %)



- '30일 이내에 있다'는 응답은 지역규모가 작을수록(군지역 50.0%), 블루칼라(40.0%),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56.3%),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50.0%)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9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건강관리 개입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계획 여부: 스트레스 관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전체		(314)	15.9	30.9	35.7	17.5
성별	남성	(166)	17.5	33.7	37.3	11.4
	여성	(148)	14.2	27.7	33.8	24.3
연령	40대	(111)	19.8	36.0	30.6	13.5
	50대	(97)	11.3	27.8	43.3	17.5
	60대 이상	(106)	16.0	28.3	34.0	21.7
지역규모	대도시	(147)	11.6	38.1	34.0	16.3
	중·소도시	(145)	19.3	24.8	35.2	20.7
	군지역	(22)	22.7	22.7	50.0	4.5
직업	화이트칼라	(62)	19.4	45.2	24.2	11.3
	블루칼라	(75)	10.7	25.3	40.0	24.0
	농/임/어업	(11)	36.4	36.4	27.3	0.0
	자영업	(103)	16.5	28.2	39.8	15.5
	주부	(57)	12.3	26.3	36.8	24.6
	은퇴자	(2)	0.0	100.0	0.0	0.0
	무직/기타	(4)	50.0	0.0	5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6.3	6.3	56.3	31.3
	고졸	(170)	17.1	27.6	36.5	18.8
	대재 이상	(128)	15.6	38.3	32.0	14.1
가구 소득	저소득	(66)	15.2	15.2	50.0	19.7
	중소득	(148)	17.6	27.7	35.1	19.6
	고소득	(100)	14.0	46.0	27.0	13.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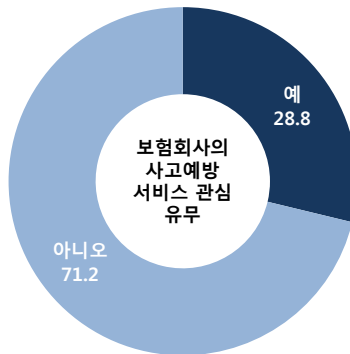
9. 사고예방 서비스

가.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관심있다'는 응답이 28.8%로 '관심없다'(71.2%)에 비해 약 2.5배 정도 낮게 나타남

〈그림 IV-89〉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n=2,464 / 단위: %)



〈표 IV-9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심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28.8	71.2
성별	남성	(1,224)	27.9	72.1
	여성	(1,240)	29.7	70.3
연령	20대	(388)	24.0	76.0
	30대	(432)	30.8	69.2
	40대	(492)	30.3	69.7
	50대	(505)	31.9	68.1
	60대 이상	(647)	26.7	73.3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9.9	70.1
	중·소도시	(1,010)	27.8	72.2
	군지역	(336)	28.0	72.0
직업	화이트칼라	(678)	26.7	73.3
	블루칼라	(605)	30.7	69.3
	농/임/어업	(80)	23.8	76.3
	자영업	(478)	30.3	69.7
	주부	(482)	29.7	70.3
	은퇴자	(21)	33.3	66.7
	학생	(72)	23.6	76.4
	무직/기타	(47)	23.4	76.6
	모름/무응답	(1)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18.5	81.5
	고졸	(1,131)	29.0	71.0
	대재 이상	(1,181)	29.9	70.1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29.5	70.5
	중소득	(1,180)	29.6	70.4
	고소득	(768)	27.1	72.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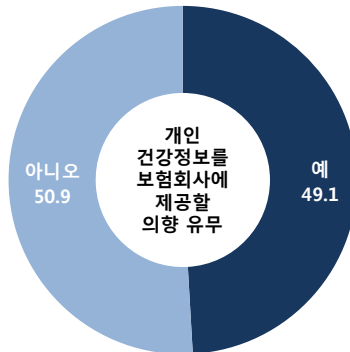
나.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련 개인건강정보 제공

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 보험회사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49.1%, ‘의향없다’는 응답이 50.9%로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V-90〉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n=709 / 단위: %)



〈표 IV-9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709)	49.1	50.9
성별	남성	(341)	49.6	50.4
	여성	(368)	48.6	51.4
연령	20대	(93)	50.5	49.5
	30대	(133)	46.6	53.4
	40대	(149)	44.3	55.7
	50대	(161)	52.2	47.8
	60대 이상	(173)	51.4	48.6
지역규모	대도시	(334)	48.8	51.2
	중·소도시	(281)	48.0	52.0
	군지역	(94)	53.2	46.8
직업	화이트칼라	(181)	48.1	51.9
	블루칼라	(186)	53.2	46.8
	농/임/어업	(19)	52.6	47.4
	자영업	(145)	48.3	51.7
	주부	(143)	45.5	54.5
	은퇴자	(7)	42.9	57.1
	학생	(17)	52.9	47.1
	무직/기타	(11)	45.5	54.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8)	57.1	42.9
	고졸	(328)	53.0	47.0
	대재 이상	(353)	44.8	55.2
가구 소득	저소득	(152)	40.8	59.2
	중소득	(349)	51.3	48.7
	고소득	(208)	51.4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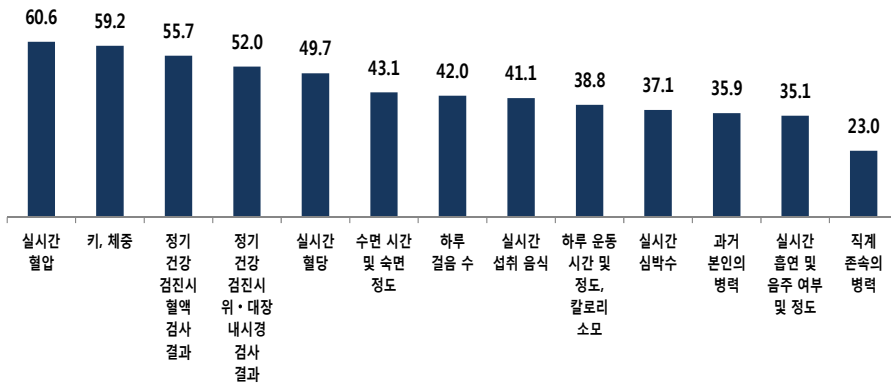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실시간 혈압’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키, 체중’(59.2%), ‘정기 건강검진 시 혈액 검사 결과’(55.7%), ‘정기 건강검진 시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5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n=348 / 단위: %)



〈표 IV-94〉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정보 종류(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시간 혈압	키, 체중	정기 건강 검진 시 혈액 검사 결과	정기 건강 검진 시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실시간 혈당	수면 시간 및 숙면 정도	하루 걸음 수
전체		(348)	60.6	59.2	55.7	52.0	49.7	43.1	42.0
성별	남성	(169)	58.6	58.0	55.6	52.1	48.5	35.5	37.3
	여성	(179)	62.6	60.3	55.9	52.0	50.8	50.3	46.4
연령	20대	(47)	63.8	61.7	55.3	40.4	57.4	42.6	42.6
	30대	(62)	53.2	62.9	53.2	51.6	43.5	51.6	46.8
	40대	(66)	60.6	62.1	57.6	54.5	54.5	51.5	50.0
	50대	(84)	65.5	60.7	58.3	51.2	57.1	40.5	36.9
	60대 이상	(89)	59.6	51.7	53.9	57.3	39.3	33.7	37.1
지역규모	대도시	(163)	63.2	55.8	54.0	42.9	46.6	38.7	45.4
	중·소도시	(135)	62.2	63.0	55.6	57.0	53.3	45.9	45.2
	군지역	(50)	48.0	60.0	62.0	68.0	50.0	50.0	22.0
직업	화이트칼라	(87)	55.2	59.8	54.0	44.8	50.6	48.3	35.6
	블루칼라	(99)	64.6	60.6	56.6	56.6	54.5	44.4	53.5
	농/임/어업	(10)	70.0	70.0	90.0	90.0	70.0	40.0	20.0
	자영업	(70)	58.6	57.1	60.0	55.7	44.3	41.4	32.9
	주부	(65)	63.1	60.0	49.2	50.8	47.7	41.5	43.1
	은퇴자	(3)	33.3	0.0	33.3	66.7	33.3	0.0	33.3
	학생	(9)	66.7	66.7	55.6	11.1	44.4	11.1	44.4
	무직/기타	(5)	60.0	40.0	40.0	40.0	20.0	60.0	8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75.0	37.5	56.3	50.0	43.8	56.3	43.8
	고졸	(174)	64.4	58.0	55.2	55.2	48.9	37.4	41.4
	대재 이상	(158)	55.1	62.7	56.3	48.7	51.3	48.1	42.4
가구 소득	저소득	(62)	62.9	56.5	48.4	59.7	46.8	38.7	38.7
	중소득	(179)	55.3	55.9	58.7	50.3	49.7	43.0	41.9
	고소득	(107)	68.2	66.4	55.1	50.5	51.4	45.8	43.9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IV-94〉 계속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실시간 섭취 음식	하루 운동 시간 및 정도, 칼로리 소모	실시간 심박수	과거 본인의 병력	실시간 흡연 및 음주 여부 및 정도	직계 존속의 병력
전체		(348)	41.1	38.8	37.1	35.9	35.1	23.0
성별	남성	(169)	37.9	33.7	34.9	39.1	42.6	24.9
	여성	(179)	44.1	43.6	39.1	33.0	27.9	21.2
연령	20대	(47)	38.3	38.3	51.1	31.9	36.2	21.3
	30대	(62)	38.7	43.5	30.6	40.3	41.9	30.6
	40대	(66)	42.4	37.9	43.9	37.9	39.4	27.3
	50대	(84)	39.3	38.1	32.1	36.9	31.0	21.4
	60대 이상	(89)	44.9	37.1	33.7	32.6	30.3	16.9
지역규모	대도시	(163)	43.6	43.6	31.9	27.0	34.4	17.8
	중·소도시	(135)	43.0	37.8	41.5	39.3	33.3	25.9
	군지역	(50)	28.0	26.0	42.0	56.0	42.0	32.0
직업	화이트칼라	(87)	32.2	37.9	36.8	39.1	36.8	27.6
	블루칼라	(99)	41.4	32.3	39.4	44.4	36.4	25.3
	농/임/어업	(10)	30.0	20.0	70.0	60.0	40.0	40.0
	자영업	(70)	45.7	50.0	35.7	27.1	41.4	18.6
	주부	(65)	49.2	38.5	33.8	32.3	21.5	18.5
	은퇴자	(3)	0.0	66.7	0.0	33.3	0.0	33.3
	학생	(9)	44.4	44.4	33.3	0.0	55.6	11.1
	무직/기타	(5)	60.0	40.0	20.0	0.0	4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	43.8	31.3	25.0	37.5	37.5	31.3
	고졸	(174)	42.5	36.2	36.2	33.3	34.5	17.8
	대재 이상	(158)	39.2	42.4	39.2	38.6	35.4	27.8
가구 소득	저소득	(62)	35.5	32.3	43.5	27.4	29.0	22.6
	중소득	(179)	41.3	39.1	33.0	36.3	34.1	24.0
	고소득	(107)	43.9	42.1	40.2	40.2	40.2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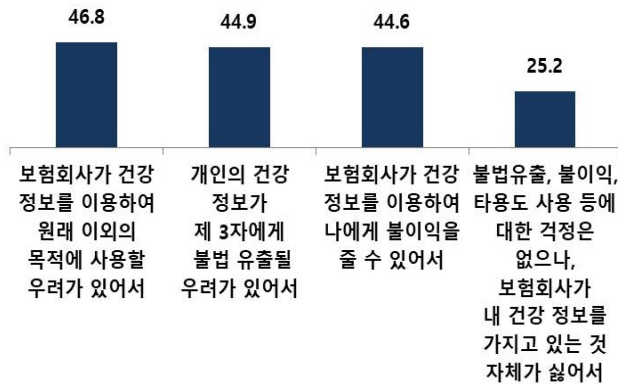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본 결과,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원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가 46.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개인의 건강정보가 제3자에게 불법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44.9%)임

〈그림 IV-9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n=361 / 단위: %)



-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원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라는 응답은 20대(52.2%)와 60대(51.2%), 학생(87.5%),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50.0%),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48.5%) 높게 나타났음

〈표 IV-95〉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원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의 건강정보가 제3자에게 불법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불법유출, 불이익,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내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전체	(361)	46.8	44.9	44.6	25.2
성별					
남성	(172)	45.9	42.4	38.4	25.6
여성	(189)	47.6	47.1	50.3	24.9
연령					
20대	(46)	52.2	58.7	23.9	30.4
30대	(71)	42.3	57.7	38.0	26.8
40대	(83)	45.8	33.7	50.6	25.3
50대	(77)	44.2	44.2	49.4	22.1
60대 이상	(84)	51.2	38.1	51.2	23.8
지역규모					
대도시	(171)	48.0	43.3	46.2	19.3
중·소도시	(146)	44.5	46.6	39.7	33.6
군지역	(44)	50.0	45.5	54.5	20.5
직업					
화이트칼라	(94)	45.7	48.9	37.2	25.5
블루칼라	(87)	41.4	42.5	39.1	25.3
농/임/어업	(9)	55.6	33.3	33.3	22.2
자영업	(75)	50.7	41.3	57.3	21.3
주부	(78)	46.2	46.2	51.3	26.9
은퇴자	(4)	25.0	75.0	0.0	25.0
학생	(8)	87.5	50.0	25.0	37.5
무직/기타	(6)	50.0	33.3	66.7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	50.0	25.0	50.0	25.0
고졸	(154)	49.4	44.2	51.9	24.7
대재 이상	(195)	44.6	46.7	38.5	25.6
가구 소득					
저소득	(90)	43.3	44.4	48.9	14.4
중소득	(170)	47.6	44.1	42.4	32.9
고소득	(101)	48.5	46.5	44.6	21.8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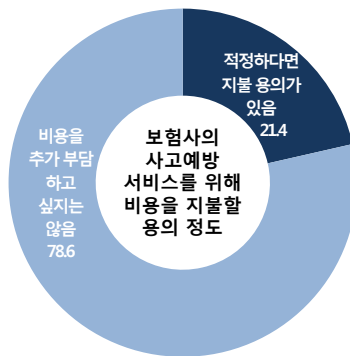
다.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 관련 비용 지불

1)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비용이 적당하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가 21.4%로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비용 지불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9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n=709 / 단위: %)



- ‘비용이 적정하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50대(27.3%),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24.0%) 비교적 높았음

〈표 IV-96〉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비용이 적정하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서비스 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싶지는 않다
전체		(709)	21.4	78.6
성별	남성	(341)	21.1	78.9
	여성	(368)	21.7	78.3
연령	20대	(93)	21.5	78.5
	30대	(133)	20.3	79.7
	40대	(149)	18.8	81.2
	50대	(161)	27.3	72.7
	60대 이상	(173)	19.1	80.9
지역규모	대도시	(334)	20.4	79.6
	중·소도시	(281)	24.2	75.8
	군지역	(94)	17.0	83.0
직업	화이트칼라	(181)	21.5	78.5
	블루칼라	(186)	21.5	78.5
	농/임/어업	(19)	21.1	78.9
	자영업	(145)	20.0	80.0
	주부	(143)	23.1	76.9
	은퇴자	(7)	28.6	71.4
	학생	(17)	17.6	82.4
	무직/기타	(11)	18.2	81.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8)	10.7	89.3
	고졸	(328)	22.3	77.7
	대재 이상	(353)	21.5	78.5
가구 소득	저소득	(152)	13.2	86.8
	중소득	(349)	23.5	76.5
	고소득	(208)	24.0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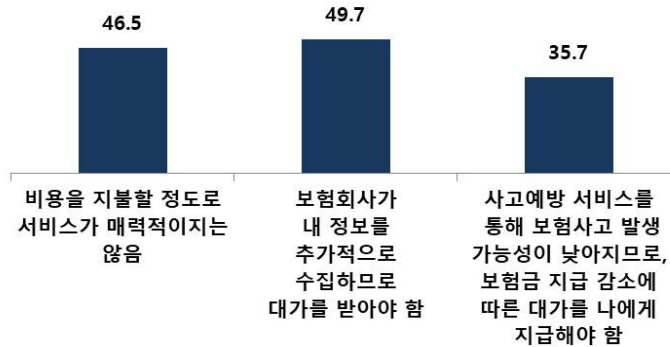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 (복수응답)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험회사가 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므로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서비스가 매력적이지는 않다’(46.5%), ‘사고예방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대가를 보험회사가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35.7%)는 의견이 그 뒤를 이음

〈그림 IV-94〉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n=557 / 단위: %)



- ‘보험회사가 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므로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군지역(62.8%)과 저소득(5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7〉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의가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내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서비스가 매력적이지는 않다	보험회사가 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므로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사고예방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대가를 보험회사가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체		(557)	46.5	49.7	35.7
성별	남성	(269)	43.9	47.6	36.8
	여성	(288)	49.0	51.7	34.7
연령	20대	(73)	45.2	41.1	37.0
	30대	(106)	48.1	50.0	37.7
	40대	(121)	44.6	52.9	31.4
	50대	(117)	53.0	47.0	34.2
	60대 이상	(140)	42.1	53.6	38.6
지역규모	대도시	(266)	49.2	47.0	36.1
	중·소도시	(213)	43.7	48.4	37.6
	군지역	(78)	44.9	62.8	29.5
직업	화이트칼라	(142)	40.1	54.2	37.3
	블루칼라	(146)	50.0	51.4	31.5
	농/임/어업	(15)	40.0	46.7	13.3
	자영업	(116)	46.6	50.0	38.8
	주부	(110)	52.7	47.3	38.2
	은퇴자	(5)	60.0	0.0	40.0
	학생	(14)	28.6	21.4	57.1
	무직/기타	(9)	44.4	55.6	11.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5)	36.0	68.0	20.0
	고졸	(255)	50.6	45.9	40.0
	대재 이상	(277)	43.7	51.6	33.2
가구 소득	저소득	(132)	34.8	57.6	31.1
	중소득	(267)	53.9	44.2	35.6
	고소득	(158)	43.7	52.5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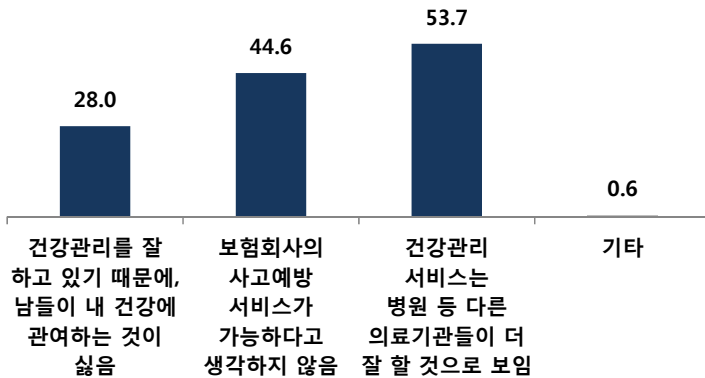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알아본 결과, '건강관리 서비스는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더 잘할 것으로 보임'이 5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44.6%),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건강에 관여하는 것이 싫음'(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5〉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n=1,755 / 단위: %)



- '건강관리 서비스는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더 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은 60대 이상(61.8%), 중·소도시(58.0%), 농/임/어업(82.0%),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60.2%) 높게 나타남

〈표 IV-98〉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건강에 관여하는 것이 싫음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건강관리 서비스는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더 잘할 것으로 보임	기타
전체		(1,755)	28.0	44.6	53.7	0.6
성별	남성	(883)	28.4	43.5	55.7	0.6
	여성	(872)	27.6	45.6	51.6	0.6
연령	20대	(295)	35.3	40.3	50.2	0.3
	30대	(299)	31.1	49.2	48.2	1.0
	40대	(343)	30.6	48.4	51.0	0.9
	50대	(344)	26.2	47.4	52.9	0.9
	60대 이상	(474)	21.1	39.5	61.8	0.0
지역규모	대도시	(784)	34.3	42.3	50.6	0.4
	중·소도시	(729)	24.1	42.4	58.0	0.8
	군지역	(242)	19.4	58.3	50.4	0.4
직업	화이트칼라	(497)	30.2	43.1	54.3	1.6
	블루칼라	(419)	26.5	52.0	49.2	0.5
	농/임/어업	(61)	14.8	36.1	82.0	0.0
	자영업	(333)	28.5	42.9	52.9	0.0
	주부	(339)	27.1	41.9	53.7	0.0
	은퇴자	(14)	14.3	57.1	35.7	0.0
	학생	(55)	49.1	36.4	43.6	0.0
	무직/기타	(36)	13.9	41.7	80.6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3)	18.7	43.1	60.2	0.0
	고졸	(803)	27.0	43.8	55.0	0.2
	대재 이상	(828)	30.4	45.5	51.3	1.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364)	23.4	48.4	54.1	0.0
	중소득	(831)	30.3	43.9	53.8	0.5
	고소득	(560)	27.7	43.0	53.2	1.1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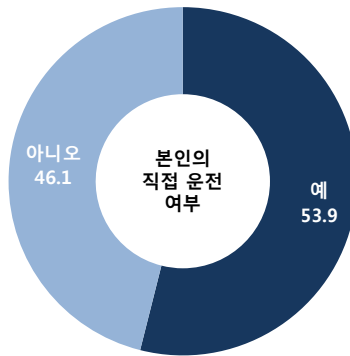
10. 자동차보험

가.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가 53.9%로 ‘아니다’(46.1%)에 비해 7.8%p 높게 나타남

〈그림 IV-96〉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n=2,464 / 단위: %)



- 본인이 직접 운전한다는 응답은 남성(78.8%), 30대(65.7%), 40대(73.4%), 50대(63.2%), 화이트칼라(70.8%), 농/임/어업(68.8%), 자영업(72.6%),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66.5%), 소득이 높을수록(고소득 61.8%)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9〉 본인의 직접 운전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464)	53.9	46.1
성별	남성	(1,224)	78.8	21.2
	여성	(1,240)	29.4	70.6
연령	20대	(388)	31.7	68.3
	30대	(432)	65.7	34.3
	40대	(492)	73.4	26.6
	50대	(505)	63.2	36.8
	60대 이상	(647)	37.4	62.6
지역규모	대도시	(1,118)	54.7	45.3
	중·소도시	(1,010)	52.6	47.4
	군지역	(336)	55.7	44.3
직업	화이트칼라	(678)	70.8	29.2
	블루칼라	(605)	52.1	47.9
	농/임/어업	(80)	68.8	31.3
	자영업	(478)	72.6	27.4
	주부	(482)	20.7	79.3
	은퇴자	(21)	66.7	33.3
	학생	(72)	5.6	94.4
	무직/기타	(47)	29.8	70.2
교육 수준	모름/무응답	(1)	0.0	100.0
	중졸 이하	(151)	17.9	82.1
	고졸	(1,131)	45.6	54.4
	대재 이상	(1,181)	66.5	33.5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30.8	69.2
	중소득	(1,180)	58.9	41.1
	고소득	(768)	61.8	38.2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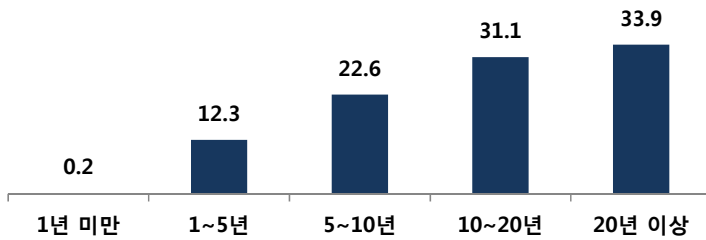
나. 운전면허 취득 시기 및 자차 정보

1) 운전면허 취득 시기

- 직접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년 이상'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20년'(31.1%), '5~10년'(22.6%), '1~5년'(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7〉 운전면허 취득 시기

(n=1,329 / 단위: %)



- '20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남성(42.5%),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60대 이상 76.4%), 지역규모가 작을수록(37.4%), 농/임/어업(60.0%)과 자영업(55.0%)에서,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85.2%),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47.2%)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100〉 운전면허 취득 시기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1,329)	0.2	12.3	22.6	31.1	33.9
성별	남성	(965)	0.1	10.1	18.0	29.3	42.5
	여성	(364)	0.3	18.1	34.6	35.7	11.3
연령	20대	(123)	0.8	68.3	30.9	0.0	0.0
	30대	(284)	0.0	20.4	50.7	26.1	2.8
	40대	(361)	0.3	2.5	21.9	54.6	20.8
	50대	(319)	0.0	1.9	8.2	32.6	57.4
	60대 이상	(242)	0.0	2.5	5.4	15.7	76.4
지역규모	대도시	(611)	0.3	13.6	23.2	30.8	32.1
	중·소도시	(531)	0.0	11.9	21.8	31.5	34.8
	군지역	(187)	0.0	9.1	22.5	31.0	37.4
직업	화이트칼라	(480)	0.2	16.7	28.3	32.5	22.3
	블루칼라	(315)	0.0	16.5	25.4	31.1	27.0
	농/임/어업	(55)	0.0	1.8	16.4	21.8	60.0
	자영업	(347)	0.3	4.6	11.8	28.2	55.0
	주부	(100)	0.0	11.0	31.0	46.0	12.0
	은퇴자	(14)	0.0	0.0	0.0	7.1	92.9
	학생	(4)	0.0	50.0	50.0	0.0	0.0
	무직/기타	(14)	0.0	7.1	7.1	14.3	71.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7)	0.0	0.0	3.7	11.1	85.2
	고졸	(516)	0.0	5.0	14.3	30.0	50.6
	대재 이상	(785)	0.3	17.5	28.7	32.4	21.3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59)	0.0	11.9	19.5	21.4	47.2
	중소득	(695)	0.0	10.6	24.2	31.5	33.7
	고소득	(475)	0.4	14.7	21.3	33.7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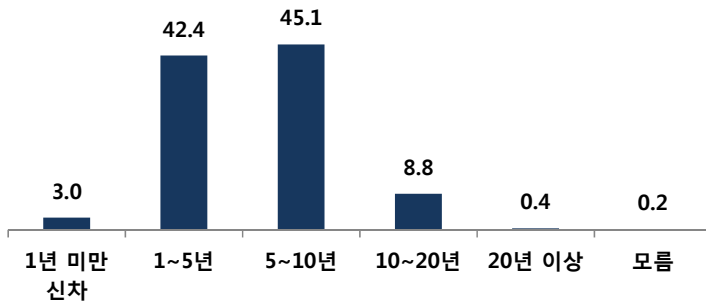
주: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보유 차량 연식

-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5~10년'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년'(42.4%), '10~20년'(8.8%), '1년 미만 신차'(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8〉 보유 차량 연식

(n=1,329 / 단위: %)



〈표 IV-101〉 보유 차량 연식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미만 신차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모름
전체		(1,329)	3.0	42.4	45.1	8.8	0.4	0.2
성별	남성	(965)	2.9	39.4	46.8	10.4	0.4	0.1
	여성	(364)	3.3	50.5	40.7	4.7	0.3	0.5
연령	20대	(123)	5.7	74.0	17.1	3.3	0.0	0.0
	30대	(284)	3.2	65.8	28.9	1.8	0.0	0.4
	40대	(361)	2.5	39.9	51.2	5.3	0.8	0.3
	50대	(319)	3.4	28.8	53.9	13.2	0.6	0.0
	60대 이상	(242)	1.7	20.7	57.9	19.4	0.0	0.4
지역규모	대도시	(611)	2.9	49.6	40.6	6.9	0.0	0.0
	중·소도시	(531)	3.4	34.3	50.7	10.5	0.8	0.4
	군지역	(187)	2.1	42.2	44.4	10.2	0.5	0.5
직업	화이트칼라	(480)	2.9	53.1	37.5	6.3	0.2	0.0
	블루칼라	(315)	3.5	41.3	42.5	12.1	0.3	0.3
	농/임/어업	(55)	0.0	10.9	65.5	21.8	1.8	0.0
	자영업	(347)	2.9	36.0	53.3	7.2	0.6	0.0
	주부	(100)	2.0	40.0	51.0	5.0	0.0	2.0
	은퇴자	(14)	14.3	28.6	35.7	21.4	0.0	0.0
	학생	(4)	25.0	50.0	25.0	0.0	0.0	0.0
	무직/기타	(14)	0.0	14.3	57.1	28.6	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7)	0.0	3.7	63.0	33.3	0.0	0.0
	고졸	(516)	2.5	26.6	55.6	14.5	0.8	0.0
	대재 이상	(785)	3.4	54.3	37.6	4.2	0.1	0.4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59)	1.3	31.4	49.7	17.6	0.0	0.0
	중소득	(695)	2.9	39.9	47.3	9.2	0.3	0.4
	고소득	(475)	3.8	49.9	40.4	5.3	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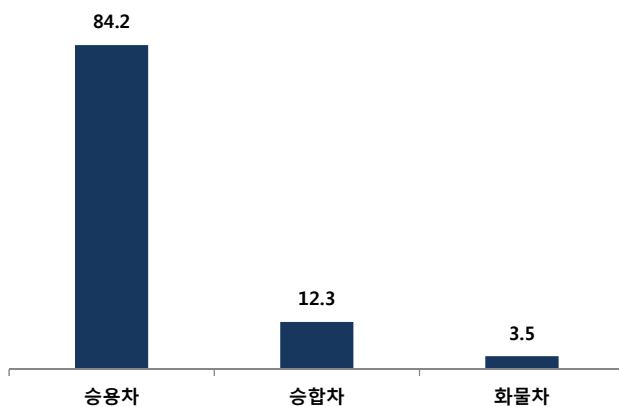
주: 은퇴자와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차종

- 보유하고 있는 차종은 '승용차'가 84.2%로 10명 중 약 8명 정도 차지했고, 이어서 승합차(12.3%), 화물차(3.5%) 순이었음

〈그림 IV-99〉 차종

(n=1,329 / 단위: %)



〈표 IV-102〉 차종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체		(1,329)	84.2	12.3	3.5
성별	남성	(965)	80.4	14.9	4.7
	여성	(364)	94.2	5.5	0.3
연령	20대	(123)	97.6	2.4	0.0
	30대	(284)	90.5	8.8	0.7
	40대	(361)	84.5	14.7	0.8
	50대	(319)	79.9	13.5	6.6
	60대 이상	(242)	75.2	16.5	8.3
지역규모	대도시	(611)	85.1	13.6	1.3
	중·소도시	(531)	84.7	10.9	4.3
	군지역	(187)	79.7	12.3	8.0
직업	화이트칼라	(480)	89.8	9.4	0.8
	블루칼라	(315)	89.2	8.6	2.2
	농/임/어업	(55)	38.2	25.5	36.4
	자영업	(347)	76.4	19.6	4.0
	주부	(100)	92.0	7.0	1.0
	은퇴자	(14)	92.9	7.1	0.0
	학생	(4)	100.0	0.0	0.0
	무직/기타	(14)	85.7	14.3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7)	74.1	0.0	25.9
	고졸	(516)	76.9	16.1	7.0
	대재 이상	(785)	89.3	10.3	0.4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59)	79.9	8.2	11.9
	중소득	(695)	81.9	14.5	3.6
	고소득	(475)	89.1	10.5	0.4

주: 은퇴자와 학생은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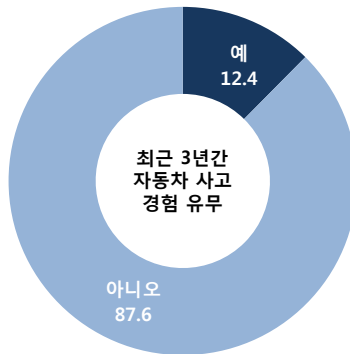
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관련

1)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경험 있다’는 응답이 12.4%로 10명 중 약 1명 정도가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00〉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유무

(n=1,329 / 단위: %)



-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은 여성(17.6%), 대도시(14.1%), 주부(19.0%), 중졸 이하(1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3〉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유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329)	12.4	87.6
성별	남성	(965)	10.5	89.5
	여성	(364)	17.6	82.4
연령	20대	(123)	8.1	91.9
	30대	(284)	14.1	85.9
	40대	(361)	10.8	89.2
	50대	(319)	15.4	84.6
	60대 이상	(242)	11.2	88.8
지역규모	대도시	(611)	14.1	85.9
	중·소도시	(531)	11.5	88.5
	군지역	(187)	9.6	90.4
직업	화이트칼라	(480)	10.8	89.2
	블루칼라	(315)	12.4	87.6
	농/임/어업	(55)	12.7	87.3
	자영업	(347)	13.3	86.7
	주부	(100)	19.0	81.0
	은퇴자	(14)	7.1	92.9
	학생	(4)	0.0	100.0
	무직/기타	(14)	7.1	92.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7)	18.5	81.5
	고졸	(516)	14.1	85.9
	대재 이상	(785)	11.1	88.9
	모름/무응답	(1)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159)	12.6	87.4
	중소득	(695)	12.7	87.3
	고소득	(475)	12.0	88.0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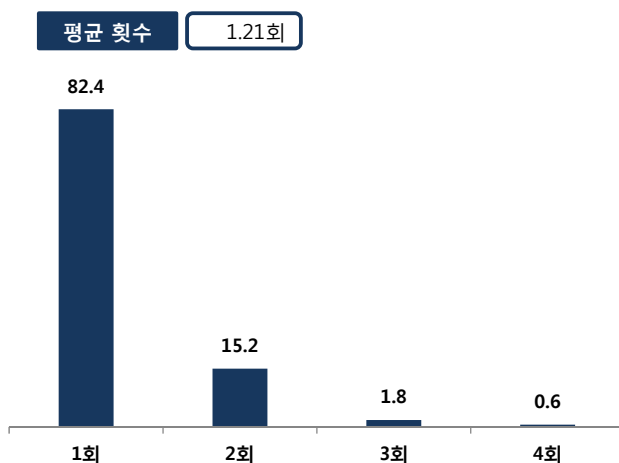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횟수

■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고 횟수를 알아본 결과, '1회'가 8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15.2%), '3회'(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겪은 평균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는 1.21회임

〈그림 IV-101〉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

(n=165 / 단위: %)



〈표 IV-104〉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경험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평균 (회)
전체		(165)	82.4	15.2	1.8	0.6	1.21
성별	남성	(101)	82.2	14.9	2.0	1.0	1.22
	여성	(64)	82.8	15.6	1.6	0.0	1.19
연령	20대	(10)	80.0	20.0	0.0	0.0	1.20
	30대	(40)	80.0	17.5	2.5	0.0	1.23
	40대	(39)	82.1	12.8	2.6	2.6	1.26
	50대	(49)	81.6	16.3	2.0	0.0	1.20
	60대 이상	(27)	88.9	11.1	0.0	0.0	1.11
지역규모	대도시	(86)	76.7	19.8	2.3	1.2	1.28
	중·소도시	(61)	86.9	11.5	1.6	0.0	1.15
	군지역	(18)	94.4	5.6	0.0	0.0	1.06
직업	화이트칼라	(52)	78.8	19.2	1.9	0.0	1.23
	블루칼라	(39)	82.1	15.4	0.0	2.6	1.23
	농/임/어업	(7)	100.0	0.0	0.0	0.0	1.00
	자영업	(46)	80.4	15.2	4.3	0.0	1.24
	주부	(19)	89.5	10.5	0.0	0.0	1.11
	은퇴자	(1)	100.0	0.0	0.0	0.0	1.00
	무직/기타	(1)	100.0	0.0	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100.0	0.0	0.0	0.0	1.00
	고졸	(73)	80.8	15.1	4.1	0.0	1.23
	대재 이상	(87)	82.8	16.1	0.0	1.1	1.20
가구 소득	저소득	(20)	95.0	5.0	0.0	0.0	1.05
	중소득	(88)	81.8	14.8	2.3	1.1	1.23
	고소득	(57)	78.9	19.3	1.8	0.0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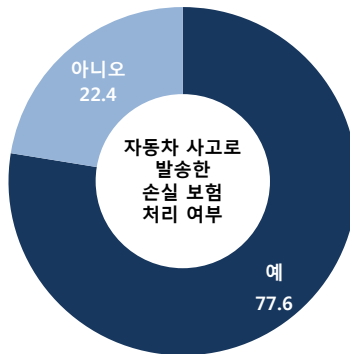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7.6%로 10명 중 약 7명 정도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02〉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n=165 / 단위: %)



-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는 여성(81.3%), 20대(90.0%), 대도시(81.4%), 화이트칼라(88.5%), 그리고 저소득(85.0%)에서 비교적 많았음

〈표 IV-105〉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65)	77.6	22.4
성별	남성	(101)	75.2	24.8
	여성	(64)	81.3	18.8
연령	20대	(10)	90.0	10.0
	30대	(40)	85.0	15.0
	40대	(39)	79.5	20.5
	50대	(49)	69.4	30.6
	60대 이상	(27)	74.1	25.9
지역규모	대도시	(86)	81.4	18.6
	중·소도시	(61)	72.1	27.9
	군지역	(18)	77.8	22.2
직업	화이트칼라	(52)	88.5	11.5
	블루칼라	(39)	84.6	15.4
	농/임/어업	(7)	57.1	42.9
	자영업	(46)	67.4	32.6
	주부	(19)	63.2	36.8
	은퇴자	(1)	100.0	0.0
	무직/기타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	80.0	20.0
	고졸	(73)	78.1	21.9
	대재 이상	(87)	77.0	23.0
가구 소득	저소득	(20)	85.0	15.0
	중소득	(88)	80.7	19.3
	고소득	(57)	70.2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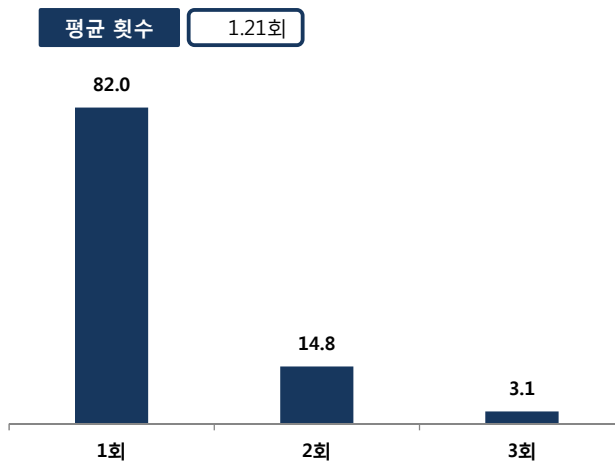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를 살펴본 결과, '1회'가 8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회'(14.8), '3회'(3.1%) 등으로 나타남
-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평균 손실 보험 처리 횟수는 1.21회임

〈그림 IV-103〉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n=128 / 단위: %)



〈표 IV-106〉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실 보험 처리 횟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회	2회	3회	평균 (회)
전체		(128)	82.0	14.8	3.1	1.21
성별	남성	(76)	81.6	14.5	3.9	1.22
	여성	(52)	82.7	15.4	1.9	1.19
연령	20대	(9)	100.0	0.0	0.0	1.00
	30대	(34)	82.4	14.7	2.9	1.21
	40대	(31)	80.6	12.9	6.5	1.26
	50대	(34)	76.5	20.6	2.9	1.26
	60대 이상	(20)	85.0	15.0	0.0	1.15
지역규모	대도시	(70)	75.7	20.0	4.3	1.29
	중·소도시	(44)	88.6	9.1	2.3	1.14
	군지역	(14)	92.9	7.1	0.0	1.07
직업	화이트칼라	(46)	84.8	10.9	4.3	1.20
	블루칼라	(33)	78.8	18.2	3.0	1.24
	농/임/어업	(4)	100.0	0.0	0.0	1.00
	자영업	(31)	77.4	19.4	3.2	1.26
	주부	(12)	83.3	16.7	0.0	1.17
	은퇴자	(1)	100.0	0.0	0.0	1.00
	무직/기타	(1)	100.0	0.0	0.0	1.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100.0	0.0	0.0	1.00
	고졸	(57)	78.9	15.8	5.3	1.26
	대재 이상	(67)	83.6	14.9	1.5	1.18
가구 소득	저소득	(17)	94.1	5.9	0.0	1.06
	중소득	(71)	80.3	16.9	2.8	1.23
	고소득	(40)	80.0	15.0	5.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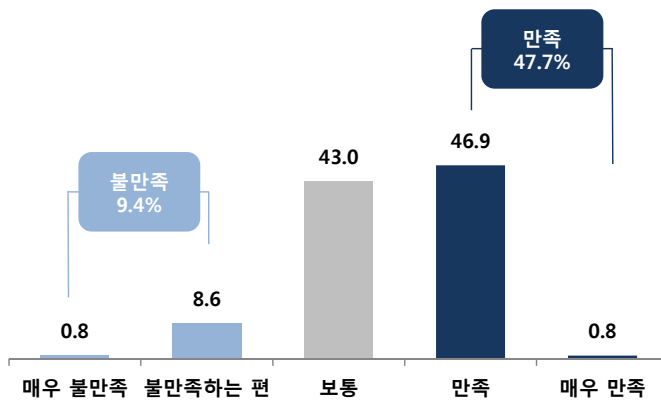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만족'이 47.7%로 '불만족'에 비해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104〉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n=128 / 단위: %)



-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도시(52.9%), 화이트칼라(63.0%), 대재 이상(5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7〉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과실비율 산정 만족도				종합결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보통	만족 하는 편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28)	0.8	8.6	43.0	46.9	0.8	9.4	43.0	47.7
성별	남성	(76)	0.0	11.8	42.1	44.7	1.3	11.8	42.1	46.1
	여성	(52)	1.9	3.8	44.2	50.0	0.0	5.8	44.2	50.0
연령	20대	(9)	0.0	0.0	44.4	55.6	0.0	0.0	44.4	55.6
	30대	(34)	0.0	2.9	38.2	58.8	0.0	2.9	38.2	58.8
	40대	(31)	0.0	9.7	41.9	45.2	3.2	9.7	41.9	48.4
	50대	(34)	2.9	11.8	47.1	38.2	0.0	14.7	47.1	38.2
	60대 이상	(20)	0.0	15.0	45.0	40.0	0.0	15.0	45.0	40.0
지역규모	대도시	(70)	1.4	12.9	32.9	51.4	1.4	14.3	32.9	52.9
	중·소도시	(44)	0.0	4.5	54.5	40.9	0.0	4.5	54.5	40.9
	군지역	(14)	0.0	0.0	57.1	42.9	0.0	0.0	57.1	42.9
직업	화이트칼라	(46)	0.0	4.3	32.6	60.9	2.2	4.3	32.6	63.0
	블루칼라	(33)	0.0	18.2	48.5	33.3	0.0	18.2	48.5	33.3
	농/임/어업	(4)	0.0	0.0	50.0	50.0	0.0	0.0	50.0	50.0
	자영업	(31)	0.0	6.5	41.9	51.6	0.0	6.5	41.9	51.6
	주부	(12)	8.3	0.0	66.7	25.0	0.0	8.3	66.7	25.0
	은퇴자	(1)	0.0	100.0	0.0	0.0	0.0	100.0	0.0	0.0
	무직/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0.0	25.0	25.0	50.0	0.0	25.0	25.0	50.0
	고졸	(57)	0.0	12.3	50.9	36.8	0.0	12.3	50.9	36.8
	대재 이상	(67)	1.5	4.5	37.3	55.2	1.5	6.0	37.3	56.7
가구 소득	저소득	(17)	0.0	5.9	41.2	52.9	0.0	5.9	41.2	52.9
	중소득	(71)	1.4	7.0	45.1	46.5	0.0	8.5	45.1	46.5
	고소득	(40)	0.0	12.5	40.0	45.0	2.5	12.5	40.0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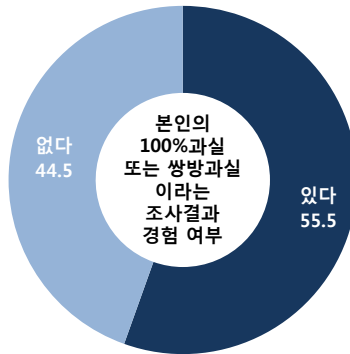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가 55.5%로 ‘없다’(44.5%)에 비해 11.0%p 높게 나타남

〈그림 IV-105〉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n=128 / 단위: %)



〈표 IV-108〉 사고원인에 대해 본인의 100% 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 경험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28)	55.5	44.5
성별	남성	(76)	57.9	42.1
	여성	(52)	51.9	48.1
연령	20대	(9)	55.6	44.4
	30대	(34)	50.0	50.0
	40대	(31)	41.9	58.1
	50대	(34)	67.6	32.4
	60대 이상	(20)	65.0	35.0
지역규모	대도시	(70)	57.1	42.9
	중·소도시	(44)	54.5	45.5
	군지역	(14)	50.0	50.0
직업	화이트칼라	(46)	43.5	56.5
	블루칼라	(33)	66.7	33.3
	농/임/어업	(4)	75.0	25.0
	자영업	(31)	58.1	41.9
	주부	(12)	58.3	41.7
	은퇴자	(1)	0.0	100.0
	무직/기타	(1)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	75.0	25.0
	고졸	(57)	63.2	36.8
	대재 이상	(67)	47.8	52.2
가구 소득	저소득	(17)	52.9	47.1
	중소득	(71)	53.5	46.5
	고소득	(40)	6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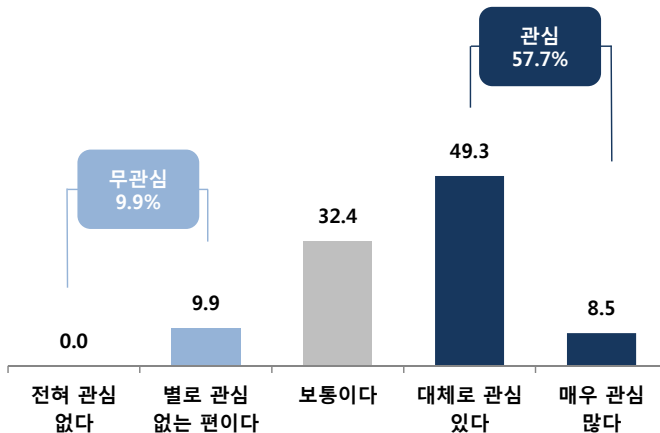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심있다’는 응답이 57.7%로 ‘관심 없다’(9.9%)는 응답에 비해 약 6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106〉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n=71 / 단위: %)



〈표 IV-109〉 본인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관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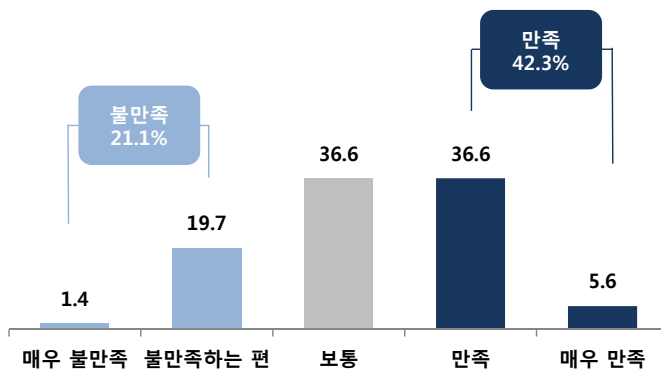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된 금액 관심도				종합결과		
			별로 관심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관심 있다	매우 관심 많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체		(71)	9.9	32.4	49.3	8.5	9.9	32.4	57.7
성별	남성	(44)	11.4	29.5	47.7	11.4	11.4	29.5	59.1
	여성	(27)	7.4	37.0	51.9	3.7	7.4	37.0	55.6
연령	20대	(5)	40.0	20.0	20.0	20.0	40.0	20.0	40.0
	30대	(17)	11.8	29.4	52.9	5.9	11.8	29.4	58.8
	40대	(13)	7.7	38.5	46.2	7.7	7.7	38.5	53.8
	50대	(23)	0.0	43.5	52.2	4.3	0.0	43.5	56.5
	60대 이상	(13)	15.4	15.4	53.8	15.4	15.4	15.4	69.2
지역규모	대도시	(40)	10.0	22.5	57.5	10.0	10.0	22.5	67.5
	중·소도시	(24)	8.3	41.7	41.7	8.3	8.3	41.7	50.0
	군지역	(7)	14.3	57.1	28.6	0.0	14.3	57.1	28.6
직업	화이트칼라	(20)	15.0	20.0	60.0	5.0	15.0	20.0	65.0
	블루칼라	(22)	13.6	36.4	31.8	18.2	13.6	36.4	50.0
	농/임/어업	(3)	0.0	33.3	66.7	0.0	0.0	33.3	66.7
	자영업	(18)	5.6	38.9	50.0	5.6	5.6	38.9	55.6
	주부	(7)	0.0	42.9	57.1	0.0	0.0	42.9	57.1
	무직/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0.0	0.0	100.0	0.0	0.0	0.0	100.0
	고졸	(36)	8.3	27.8	52.8	11.1	8.3	27.8	63.9
	대재 이상	(32)	12.5	40.6	40.6	6.3	12.5	40.6	46.9
가구 소득	저소득	(9)	0.0	11.1	55.6	33.3	0.0	11.1	88.9
	중소득	(38)	10.5	34.2	50.0	5.3	10.5	34.2	55.3
	고소득	(24)	12.5	37.5	45.8	4.2	12.5	37.5	50.0

8)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본 결과, '만족'이 42.3%로 '불만족'(21.1%)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107〉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n=71 / 단위: %)



〈표 IV-110〉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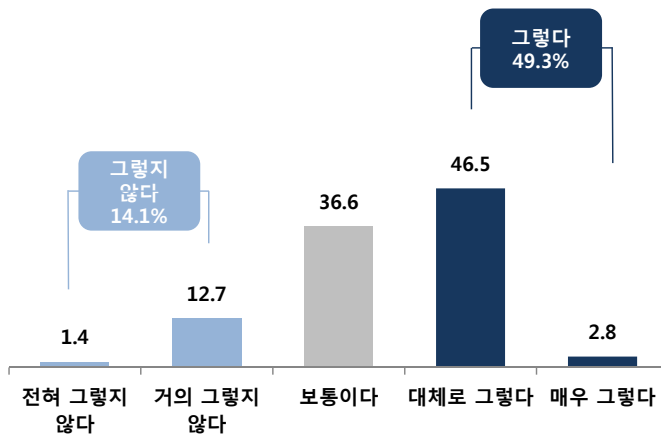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된 금액 만족도					종합결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71)	1.4	19.7	36.6	36.6	5.6	21.1	36.6	42.3
성별	남성	(44)	0.0	25.0	38.6	34.1	2.3	25.0	38.6	36.4
	여성	(27)	3.7	11.1	33.3	40.7	11.1	14.8	33.3	51.9
연령	20대	(5)	0.0	0.0	20.0	80.0	0.0	0.0	20.0	80.0
	30대	(17)	0.0	11.8	41.2	41.2	5.9	11.8	41.2	47.1
	40대	(13)	0.0	15.4	30.8	46.2	7.7	15.4	30.8	53.8
	50대	(23)	4.3	34.8	34.8	26.1	0.0	39.1	34.8	26.1
	60대 이상	(13)	0.0	15.4	46.2	23.1	15.4	15.4	46.2	38.5
지역규모	대도시	(40)	2.5	25.0	35.0	30.0	7.5	27.5	35.0	37.5
	중·소도시	(24)	0.0	16.7	33.3	45.8	4.2	16.7	33.3	50.0
	군지역	(7)	0.0	0.0	57.1	42.9	0.0	0.0	57.1	42.9
직업	화이트칼라	(20)	0.0	25.0	35.0	40.0	0.0	25.0	35.0	40.0
	블루칼라	(22)	0.0	27.3	22.7	40.9	9.1	27.3	22.7	50.0
	농/임/어업	(3)	0.0	0.0	33.3	66.7	0.0	0.0	33.3	66.7
	자영업	(18)	0.0	11.1	55.6	27.8	5.6	11.1	55.6	33.3
	주부	(7)	14.3	14.3	28.6	28.6	14.3	28.6	28.6	42.9
	무직/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0.0	33.3	0.0	33.3	33.3	33.3	0.0	66.7
	고졸	(36)	0.0	13.9	44.4	38.9	2.8	13.9	44.4	41.7
	대재 이상	(32)	3.1	25.0	31.3	34.4	6.3	28.1	31.3	40.6
가구 소득	저소득	(9)	0.0	22.2	22.2	44.4	11.1	22.2	22.2	55.6
	중소득	(38)	2.6	18.4	42.1	34.2	2.6	21.1	42.1	36.8
	고소득	(24)	0.0	20.8	33.3	37.5	8.3	20.8	33.3	45.8

9)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9.3%로 ‘그렇지 않다’(14.1%)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108〉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n=71 / 단위: %)



〈표 IV-111〉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종합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체		(71)	1.4	12.7	36.6	46.5	2.8	14.1	36.6	49.3
성별	남성	(44)	0.0	18.2	38.6	40.9	2.3	18.2	38.6	43.2
	여성	(27)	3.7	3.7	33.3	55.6	3.7	7.4	33.3	59.3
연령	20대	(5)	0.0	20.0	40.0	40.0	0.0	20.0	40.0	40.0
	30대	(17)	0.0	11.8	52.9	35.3	0.0	11.8	52.9	35.3
	40대	(13)	0.0	7.7	38.5	53.8	0.0	7.7	38.5	53.8
	50대	(23)	4.3	17.4	26.1	43.5	8.7	21.7	26.1	52.2
	60대 이상	(13)	0.0	7.7	30.8	61.5	0.0	7.7	30.8	61.5
지역규모	대도시	(40)	0.0	12.5	37.5	45.0	5.0	12.5	37.5	50.0
	중·소도시	(24)	4.2	16.7	29.2	50.0	0.0	20.8	29.2	50.0
	군지역	(7)	0.0	0.0	57.1	42.9	0.0	0.0	57.1	42.9
직업	화이트칼라	(20)	0.0	20.0	45.0	35.0	0.0	20.0	45.0	35.0
	블루칼라	(22)	4.5	13.6	27.3	50.0	4.5	18.2	27.3	54.5
	농/임/어업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18)	0.0	11.1	44.4	44.4	0.0	11.1	44.4	44.4
	주부	(7)	0.0	0.0	42.9	42.9	14.3	0.0	42.9	57.1
	무직/기타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0.0	0.0	0.0	66.7	33.3	0.0	0.0	100.0
	고졸	(36)	2.8	8.3	41.7	47.2	0.0	11.1	41.7	47.2
	대재 이상	(32)	0.0	18.8	34.4	43.8	3.1	18.8	34.4	46.9
가구 소득	저소득	(9)	0.0	55.6	0.0	33.3	11.1	55.6	0.0	44.4
	중소득	(38)	0.0	7.9	50.0	39.5	2.6	7.9	50.0	42.1
	고소득	(24)	4.2	4.2	29.2	62.5	0.0	8.3	29.2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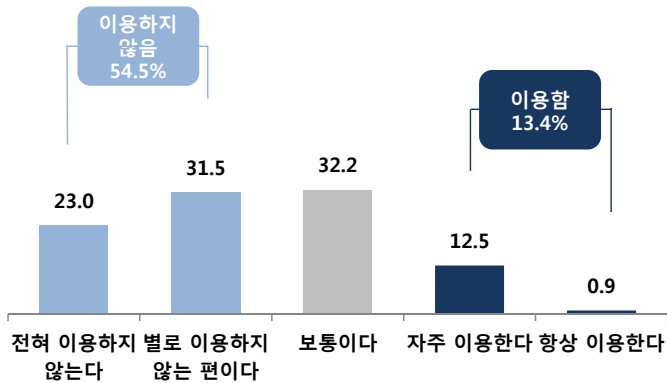
라. 한방병원 이용 관련

1)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 평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이용한다'는 응답이 13.4%로 '이용하지 않는다'(54.5%)에 비해 41.1%p 낮게 나타남

〈그림 IV-109〉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n=2,464 / 단위: %)



- 평소 한방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여성(18.8%),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29.5%), 농/임/어업(21.3%), 주부(23.0%), 무직/기타(25.5%),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37.1%),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25.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12〉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평소 한방의료기관 이용 정도					종합결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 이용한다	항상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전체		(2,464)	23.0	31.5	32.2	12.5	0.9	54.5	13.4
성별	남성	(1,224)	30.0	33.7	28.5	7.6	0.2	63.6	7.8
	여성	(1,240)	16.0	29.4	35.8	17.3	1.5	45.4	18.8
연령	20대	(388)	43.6	35.8	19.6	1.0	0.0	79.4	1.0
	30대	(432)	35.9	36.6	23.8	3.7	0.0	72.5	3.7
	40대	(492)	21.5	35.6	35.2	6.9	0.8	57.1	7.7
	50대	(505)	13.9	33.3	37.0	15.0	0.8	47.1	15.8
	60대 이상	(647)	10.2	21.0	39.3	27.5	2.0	31.2	29.5
지역규모	대도시	(1,118)	22.8	33.1	30.5	12.8	0.8	55.9	13.6
	중·소도시	(1,010)	24.4	30.2	32.5	12.3	0.7	54.6	13.0
	군지역	(336)	19.3	30.1	36.9	12.2	1.5	49.4	13.7
직업	화이트칼라	(678)	35.5	36.7	23.6	4.0	0.1	72.3	4.1
	블루칼라	(605)	25.5	27.8	33.2	12.6	1.0	53.2	13.6
	농/임/어업	(80)	21.3	22.5	35.0	21.3	0.0	43.8	21.3
	자영업	(478)	13.4	33.5	38.3	14.2	0.6	46.9	14.9
	주부	(482)	9.1	28.6	39.2	21.0	2.1	37.8	23.0
	은퇴자	(21)	14.3	19.0	33.3	33.3	0.0	33.3	33.3
	학생	(72)	45.8	36.1	18.1	0.0	0.0	81.9	0.0
	무직/기타	(47)	21.3	27.7	25.5	23.4	2.1	48.9	25.5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6.6	24.5	31.8	35.1	2.0	31.1	37.1
	고졸	(1,131)	17.1	26.5	38.2	16.9	1.3	43.6	18.2
	대재 이상	(1,181)	30.7	37.1	26.5	5.4	0.3	67.8	5.7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4.5	25.6	34.9	23.1	1.9	40.1	25.0
	중소득	(1,180)	22.8	32.7	33.1	10.9	0.5	55.5	11.4
	고소득	(768)	28.9	33.6	29.0	7.8	0.7	62.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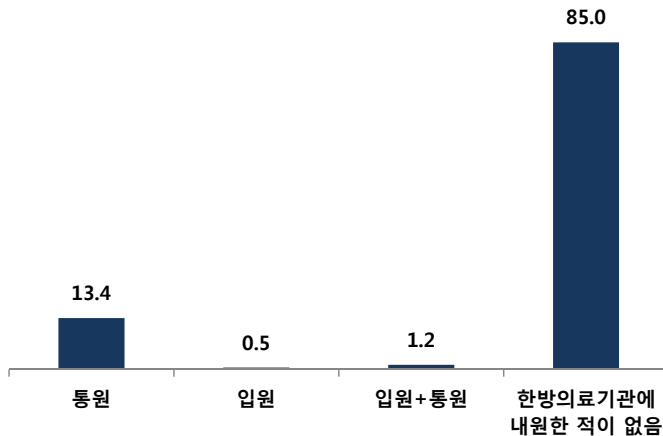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을 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있다’가 15.1%이고, 그 유형은 ‘통원’(13.4%), ‘입원+통원’(1.2%), ‘입원’(0.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0〉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n=2,464 / 단위: %)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한 경험에 있어는 응답은 여성(16.3%),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21.5%), 중·소도시(16.8%), 주부(17.4%),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27.8%),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18.0%) 비교적 높았음

〈표 IV-11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통원	입원	입원+통원	내원 경험 없음
전체		(2,464)	13.4	0.5	1.2	85.0
성별	남성	(1,224)	10.4	0.6	1.0	88.1
	여성	(1,240)	16.3	0.4	1.4	81.9
연령	20대	(388)	3.6	0.3	0.5	95.6
	30대	(432)	6.9	0.0	0.7	92.4
	40대	(492)	12.4	0.6	0.8	86.2
	50대	(505)	16.8	1.4	2.0	79.8
	60대 이상	(647)	21.5	0.2	1.5	76.8
지역규모	대도시	(1,118)	11.4	0.3	1.3	87.1
	중·소도시	(1,010)	16.8	0.6	0.8	81.8
	군지역	(336)	9.5	0.9	2.1	87.5
직업	화이트칼라	(678)	7.7	0.4	0.7	91.2
	블루칼라	(605)	15.7	0.8	2.1	81.3
	농/임/어업	(80)	17.5	1.3	0.0	81.3
	자영업	(478)	14.4	0.4	0.6	84.5
	주부	(482)	17.4	0.2	1.5	80.9
	은퇴자	(21)	19.0	0.0	4.8	76.2
	학생	(72)	2.8	0.0	0.0	97.2
	무직/기타	(47)	19.1	0.0	0.0	80.9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1)	27.8	0.7	0.7	70.9
	고졸	(1,131)	17.2	0.5	1.5	80.7
	대재 이상	(1,181)	7.8	0.4	0.9	90.9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저소득	(516)	18.0	0.8	1.9	79.3
	중소득	(1180)	14.6	0.5	1.3	83.6
	고소득	(768)	8.3	0.3	0.5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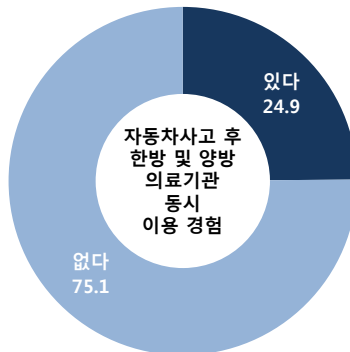
주: 은퇴자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4.9%로 10명 중 약 2명 정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11〉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n=370 / 단위: %)



〈표 IV-114〉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원)을 동시에 이용한 경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70)	24.9	75.1
성별	남성	(146)	20.5	79.5
	여성	(224)	27.7	72.3
연령	20대	(17)	11.8	88.2
	30대	(33)	18.2	81.8
	40대	(68)	25.0	75.0
	50대	(102)	26.5	73.5
	60대 이상	(150)	26.7	73.3
지역규모	대도시	(144)	29.2	70.8
	중·소도시	(184)	19.6	80.4
	군지역	(42)	33.3	66.7
직업	화이트칼라	(60)	28.3	71.7
	블루칼라	(113)	22.1	77.9
	농/임/어업	(15)	46.7	53.3
	자영업	(74)	23.0	77.0
	주부	(92)	25.0	75.0
	은퇴자	(5)	20.0	80.0
	학생	(2)	0.0	100.0
	무직/기타	(9)	22.2	77.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	34.1	65.9
	고졸	(218)	22.5	77.5
	대재 이상	(108)	25.9	74.1
가구 소득	저소득	(107)	23.4	76.6
	중소득	(193)	25.4	74.6
	고소득	(70)	25.7	74.3

주: 1) BASE: 한방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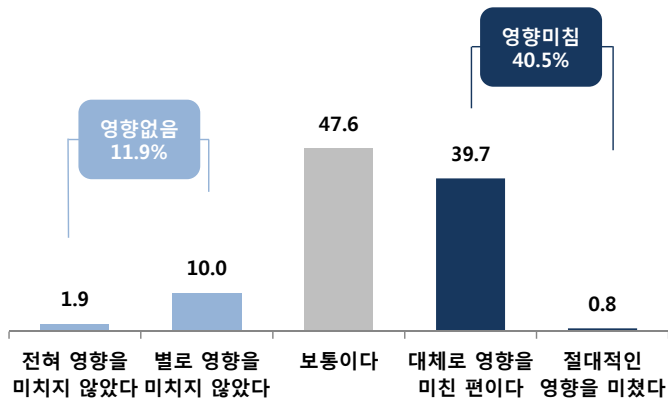
2)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0.5%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1.9%)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IV-112〉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n=370 / 단위: %)



-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여성(46.0%),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46.7%), 대도시(49.3%)와 군지역(50.0%), 농/임/어업(53.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IV-115〉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한방의료기관이 회복에 미친 영향					종합결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영향을 미친 편이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영향을 미침
전체		(370)	1.9	10.0	47.6	39.7	0.8	11.9	47.6	40.5
성별	남성	(146)	3.4	11.6	52.7	31.5	0.7	15.1	52.7	32.2
	여성	(224)	0.9	8.9	44.2	45.1	0.9	9.8	44.2	46.0
연령	20대	(17)	5.9	17.6	52.9	23.5	0.0	23.5	52.9	23.5
	30대	(33)	6.1	12.1	66.7	15.2	0.0	18.2	66.7	15.2
	40대	(68)	1.5	16.2	44.1	38.2	0.0	17.6	44.1	38.2
	50대	(102)	1.0	6.9	48.0	43.1	1.0	7.8	48.0	44.1
	60대 이상	(150)	1.3	8.0	44.0	45.3	1.3	9.3	44.0	46.7
지역규모	대도시	(144)	0.7	7.6	42.4	47.9	1.4	8.3	42.4	49.3
	중·소도시	(184)	3.3	12.0	53.3	31.5	0.0	15.2	53.3	31.5
	군지역	(42)	0.0	9.5	40.5	47.6	2.4	9.5	40.5	50.0
직업	화이트칼라	(60)	3.3	10.0	50.0	35.0	1.7	13.3	50.0	36.7
	블루칼라	(113)	1.8	9.7	41.6	46.9	0.0	11.5	41.6	46.9
	농/임/어업	(15)	0.0	0.0	46.7	53.3	0.0	0.0	46.7	53.3
	자영업	(74)	1.4	10.8	58.1	29.7	0.0	12.2	58.1	29.7
	주부	(92)	1.1	12.0	44.6	40.2	2.2	13.0	44.6	42.4
	은퇴자	(5)	0.0	0.0	40.0	60.0	0.0	0.0	40.0	60.0
	학생	(2)	0.0	0.0	100.0	0.0	0.0	0.0	100.0	0.0
	무직/기타	(9)	11.1	11.1	44.4	33.3	0.0	22.2	44.4	33.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	2.3	9.1	38.6	50.0	0.0	11.4	38.6	50.0
	고졸	(218)	1.4	11.0	47.7	39.0	0.9	12.4	47.7	39.9
	대재 이상	(108)	2.8	8.3	50.9	37.0	0.9	11.1	50.9	38.0
가구 소득	저소득	(107)	0.9	11.2	47.7	39.3	0.9	12.1	47.7	40.2
	중소득	(193)	2.6	11.4	48.7	36.8	0.5	14.0	48.7	37.3
	고소득	(70)	1.4	4.3	44.3	48.6	1.4	5.7	44.3	50.0

주: 1) BASE: 한방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2) 은퇴자, 학생, 무직/기타는 표본의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가 낮음

부록: 설문지

2019년도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보험소비자의 금융/보험 수요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마케팅 정책 등 경영전략의 방향을 수립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 자료는 향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및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며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2019년 5월

주 관 기 관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iri.or.kr/ ● 담당자 : 보험연구원 기획행정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여의도동 35-4)
조 사 기 관	 (주)코리아리서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홈페이지 : http://www.kric.com ● 담당자 : 사회여론조사본부 연구 2팀(02-3415-5111)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허바하빌딩

면접원 기록

면접원 이름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집계구 코드 (3자리)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소	※ 응답자 주소의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 일시	2019년 ____월 ____일		
본인은 본 조사의 응답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용(전화, 문자)으로 위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사항]		서명	
본인은 향후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수행하는 조사 대상 선정 시, 위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택사항]		서명	

SQ1.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세종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SQ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SQ3. 결혼여부	① 기혼 ② 미혼		
SQ4. 가구주 여부	※ 귀하께서는 현재 가구주이십니까? ① 예(가구주) ② 아니오(가구원) → SQ4-1번으로		
SQ4-1 가구주와 관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자녀의 배우자 ④ 가구주의 부모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친손자 친손녀 및 그 배우자 ⑦ 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 ⑧ 증손자, 증손녀 및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척·인척 ⑭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 (고용인, 하숙인 등)		
SQ5. 연령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본인 연령을 가구주 란에도 기재해 주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인 (만 ____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가구주 (만 ____세)</td> </tr> </table>	본인 (만 ____세)	가구주 (만 ____세)
본인 (만 ____세)	가구주 (만 ____세)		
SQ6. 성별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본인 성별을 가구주 란에도 기재해 주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① 남자(본인) ② 여자(본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① 남자(가구주) ② 여자(가구주)</td> </tr> </table>	① 남자(본인) ② 여자(본인)	① 남자(가구주) ② 여자(가구주)
① 남자(본인) ② 여자(본인)	① 남자(가구주) ② 여자(가구주)		
SQ7-1. 가구 구성 형태	① 1인 가구 ② 부부 가구 ③ 부부와 자녀 ④ 한부모와 자녀(이혼이나 사별로 한 쪽 부모만 함께 사는 경우) ⑤ 3세대 가구(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⑥ 4세대 이상 ⑦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⑧ 비친족가구 ⑨ 기타		
SQ7-2. 가구 구성원 수	※ 선생님 가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총 가족수: (____명) - 자녀수: (총 ____명 = 아들 ____명 + 딸 ____명)		
SQ8. 응답자 직업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농/임/어업 ⑧ 자영업자 ⑨ 주부 ⑩ 은퇴자(정년퇴직) ⑪ 학생 ⑫ 무직/기타 ⑬ 모름/무응답		
SQ9. 가구주 직업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SQ8 응답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농/임/어업 ⑧ 자영업자 ⑨ 주부 ⑩ 은퇴자(정년퇴직) ⑪ 학생 ⑫ 무직/기타 ⑬ 모름/무응답</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농/임/어업 ⑧ 자영업자 ⑨ 주부 ⑩ 은퇴자(정년퇴직) ⑪ 학생 ⑫ 무직/기타 ⑬ 모름/무응답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농/임/어업 ⑧ 자영업자 ⑨ 주부 ⑩ 은퇴자(정년퇴직) ⑪ 학생 ⑫ 무직/기타 ⑬ 모름/무응답			

1. 생명보험 가입실태

문1.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데에서는 현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2번으로](#) ② 없다 [문8번으로](#)

문2. (문1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데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2-1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3	재해(상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4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5	사망보험	중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중신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정기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2-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변액중신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문3.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데에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금액
3-1	실손의료보험	입원 ()건 ()원	
		외래 ()건 ()원	
		약 ()건 ()원	
3-2	중증질환(암, 심혈관질환 등)	()건 ()원	
3-3	일반질환	()건 ()원	
3-4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건 ()원	
3-5	재해(상해)	()건 ()원	
3-6	치매	()건 ()원	
3-7	사망	()건 ()원	
3-8	저축(전체 금액: 개인연금, 변액연금 등 포함)	()건 ()원	
3-8-1	저축(개인연금 또는 변액연금 지급금만)	()건 ()원	
3-9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건 ()원	
3-10	재산손실	()건 ()원	
3-11	자녀(15세 미만)에 대한 보장	()건 ()원	
3-12	기타	()건 ()원	
3-13	지급받은 경험 없음	문4번으로	

문4. (응답자 본인 기준) 귀하께서는 현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5번으로](#) ② 없다 [문8번으로](#)

문5. (문4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5-1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3	재해(상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4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5	사망보험	종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정기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5-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건			

(보기1)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

(보기2) 가입 이유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④ 노후자금 마련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⑦ 기타()

문6. 귀하께서 최근 3년 내(2017년~2019년)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3)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액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8번으로 가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회사 (보기3)	가입 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6-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6-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6-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⑤	
6-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6-5	사망보험	종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⑤	
6-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⑤	
6-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6-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6-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⑤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②	③	④	⑤
			종신		①	②	③	④	⑤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⑤	

(보기3) 생명 보험 회사		
① 교보라이프플래닛	② 교보생명	③ 동양생명
④ 라이나생명	⑤ 메트라이프 생명	
⑥ 미래에셋생명(구 PCA생명)	⑦ 삼성생명	⑧ 신한생명
⑨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⑩ 우체국	⑪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뉴욕생명)
⑫ 푸르덴셜생명	⑬ 푸본현대생명(구 현대라이프, 구 녹십자생명)	
⑭ 하나생명(구 하나HSBC)	⑮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⑯ 흥국생명	⑰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⑱ AIA생명(구 AIG생명)
⑲ BNP파리바카디프생명(구 카디프생명, 구 SH&C생명)		⑳ DB생명(구 동부생명)
㉑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G생명)	㉒ IBK연금보험	㉓ KB생명
㉔ KDB생명	㉕ NH농협생명	
㉖ 새마을금고 등 기타공제	㉗ 기타()	

문7. 귀하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회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편	보통	만족하는편	매우 만족	
7-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3	※ 문3.1~문3.12에서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⑨

문8.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아래 항목 중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의 ③, ④번 응답자만) 또한, 향후 생명보험 상품 가입 시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이유(보기5)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가입의향 ③,④ 응답자만) 선호 가입경로 (보기4)	가입경로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순위	2순위
8-1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8-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8-3	재해(상해)보험	①	②	③	④			
8-4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8-5	사망보험	중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중신보험 등)	①	②	③	④		
	정기보험		①	②	③	④		
8-6	저축성보험(저축중심)	①	②	③	④			
8-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8-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8-9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변액유니버설	연금	①	②	③	④	
			중신	①	②	③	④	
		변액중신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

(보기5) 가입 경로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⑦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좋아서 ⑧ 보험설계사가 친절해서
 ⑨ 기타()

문9. 귀하께서 향후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⑦ 회사 규모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⑩ 보험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⑪ 기타()

II. 손해보험 가입실태

문10.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택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11번으로](#)② 없다 [문17번으로](#)

문11. (문10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택에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11-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2	장기 손해 보험 (3년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1-4	기타 ()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문12.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집에서 가입하신 손해보험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금액
12-1	실손의료보험	()건	()원
	입원	()건	()원
	외래	()건	()원
	약	()건	()원
12-2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건	()원
12-3	일반질병	()건	()원
12-4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건	()원
12-5	재해(상해)	()건	()원
12-6	치매	()건	()원
12-7	사망	()건	()원
12-8	저축(전체 : 개인연금 등 포함)	()건	()원
12-8-1	저축(개인연금 만)	()건	()원
12-9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 교통사고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도 포함	()건	()원
12-10	재산손실	()건	()원
12-11	자녀(15세 미만)에 대한 보장	()건	()원
12-12	기타	()건	()원
12-13	지급받은 경험 없음	문13번으로	

문13. (응답자 본인 기준) 귀하께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14번으로 ② 없다 문17번으로

문14. (문13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6)와 가입이유(보기7)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류를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보험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6)	가입 이유 (보기7)
14-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2	장기손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3년이상)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2	실손의료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간병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3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14-4	기타()	① 가입 ② 비가입	()건		

(보기6)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

(보기7) 가입 이유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④ 노후자금 마련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한 세제혜택
 ⑦ 기타()

문15. 귀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7년~2019년) 가입하신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8)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17번으로 가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회사 (보기8)	가입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5-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①	②	③	④	⑤
	간병보험	①	②	③	④	⑤
	종합(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 손해 등)	①	②	③	④	⑤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⑤
15-3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15-4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15-4	기타()	①	②	③	④	⑤

(보기8) 손해보험회사

- | | |
|-----------------------------|-----------------------------------|
| ①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공무원나 자동차보험) | ②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
| ③ 메리츠화재(구 중앙화재) | ④ 삼성화재 |
| ⑤ 에이스아메리칸화재(ACE, CHUBB) | ⑥ 우체국 |
| ⑦ 현대해상(현대하리카다익트 포함) | ⑧ 흥국화재(구 흥국상용화재) |
| ⑨ AIG손해보험(구 자티스, AHA손해보험) | ⑩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
| ⑪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다움다익트) | |
| ⑫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 | |
| ⑬ KB손해보험(구 LG손해보험) | |
| ⑭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 |
| ⑮ NH농협손해보험 | ⑯ 기타공제 |
| ⑰ 기타() | |

문16. 귀하께서 가입하신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예: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손해보험회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6-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2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6-3 ☞ 문12-1 ~ 문12-12에서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7.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래 항목 중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의 ③, ④번 응답자만) 또한, 향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시,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9)와 선호이유(보기10)는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가입의향 ③,④ 응답자만) 선호 가입경로 (보기9)	가입 경로 선호 이유(보기10)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이유1	이유2
17-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②	③	④			
17-2	장기 손해 보험 (3년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①	②	③	④			
17-4	기타()	①	②	③	④			

(보기9)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

(보기10) 가입 경로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⑦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좋아서 ⑧ 보험설계사가 친절해서 ⑨ 기타()

문18. 귀하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⑦ 회사 규모 ⑦ 계약체결의 편의성
⑧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⑧ 보험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⑨ 기타() ⑩

III. 연금 가입 실태

문19.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맥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이 있으십니까? 다음과 같이 가입여부, 가입상태, 가입기간, 납입방법, 월납보험료, 향후 수령방법, 가입 금융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 가입하신 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 중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가입 여부	2.현재 가입 상태	3.가입 기간 (보기11)	4.납입방법	5.향후 수령방법	6.가입 금융회사 (보기12)	7.가입 만족도 (보기13)
①가입	①납입중	(보기11)	①월납	①연금수령 ②연금+일시금 ③일시금	(보기12)	(보기13)
	②납입완료		①월납 ②일시납	①연금수령 ②연금+일시금 ③일시금		
	③연금 수령중		①월납 ②일시납	①연금수령 ②연금+일시금 ③일시금		
②비가입						

(보기11) 가입 기간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3년~4년 ④ 5년~6년
 ⑤ 7년~8년 ⑥ 9년~10년 이하 ⑦ 10년 초과

(보기12) 가입 금융회사

-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④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잘 모름
 ⑦ 기타()

(보기13) 만족도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문20. (문19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의 댁에서는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용어 설명 ▣

- 퇴직연금제도 :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사업주가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사업주가 금융회사에 예치하지만 가입 근로자 개인이 운용한 실적이 지급금에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 IRP : IRP는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복지관리공단 등에 가입하는 '기업형IRP',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중간정산금 포함)이나 개인이 여유 돈을 추가로 금융회사의 계좌에 적립·운용하는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21.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DB형 ② DC형 ③ IRP ☞ 문23번으로 ④ 없다

문22. (문21에서 ①, ②, ④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향후 개인형 IRP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23. 퇴직연금 수령시점이 다가온다면 연금(5년 이상 분할 수령), 일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연금 ② 일시금

IV. 보험계약 및 효력상실

문24.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댁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해약을 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생명보험상품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5번으로 ② 없다 ☞ 문26번으로

문 25. (문 24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맥에서 해약(해력상실)된 생명보험상품의 종류와 가입한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또한 아래를 참고하여 해약 사유도 적어주십시오. 두 개 이상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해약 건수	가입 기간	해약 사유 (보기 14)
25-1	실손의료보험			(__)건	(__)년 (__)월	__번
25-2	질병보장보험(암, 심혈관질환 등)			(__)건	(__)년 (__)월	__번
25-3	재해(상해)보험			(__)건	(__)년 (__)월	__번
25-4	간병보험			(__)건	(__)년 (__)월	__번
25-5	사망보험	중신보험(지명적 질병보험(CI), 유니버설 중신보험 등)		(__)건	(__)년 (__)월	__번
		정기보험		(__)건	(__)년 (__)월	__번
25-6	저축성보험(저축종심)			(__)건	(__)년 (__)월	__번
25-7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__)건	(__)년 (__)월	__번
25-8	어린이보장보험(15세 미만)			(__)건	(__)년 (__)월	__번
25-9	변액보험	변액연금		(__)건	(__)년 (__)월	__번
		변액유니버설	연금	(__)건	(__)년 (__)월	__번
			중신	(__)건	(__)년 (__)월	__번
		변액중신		(__)건	(__)년 (__)월	__번

(보기14) 해약 사유

- ① 보험 조건이 좋지 않아서 ② 납입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③ 타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④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⑤ 보험설계사의 말과 보험상품의 내용이 달라서 ⑥ 기타()

문 26.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해약을 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손해보험상품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27번으로 ② 없다 문28번으로

문 27. (문 26에서 ①번 응답자만)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의 맥에서 해약(효적상실)된 손해보험상품의 종류와 가입한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또한 아래를 참고하여 해약 사유도 적어주십시오. 두 개 이상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건수	가입 기간	해약 사유 (보기 15)
27-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건 ()년 ()월	__번
27-2	장기 손해 보험 (3년이상)	실손의료보험	()건 ()년 ()월	__번
		상해(운전자보험, 장해보험 등)	()건 ()년 ()월	__번
		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건 ()년 ()월	__번
		간병보험	()건 ()년 ()월	__번
		중환(재물, 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등)	()건 ()년 ()월	__번
		저축성보험(전체 : 개인연금 포함)	()건 ()년 ()월	__번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만)	()건 ()년 ()월	__번
27-3	어린이보험(15세 미만)		()건 ()년 ()월	__번
27-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3년 이내)		()건 ()년 ()월	__번
27-4	기타 ()		()건 ()년 ()월	__번

(보기15) 해약 사유

- | | |
|---------------------------|-----------------|
| ① 보험 조건이 좋지 않아서 | ② 납입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
| ③ 타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 ④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
| ⑤ 보험설계사의 말과 보험상품의 내용이 달라서 | ⑤ 기타 |

V. 보험금 청구

문28.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29번으로

문28-1. (문28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십니까?

- ① 우편 ② 팩스 ③ 이메일
④ 보험회사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⑤ 보험설계사를 통한 접수
⑥ 보험회사 직접 방문 ⑦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 _____)

문28-2. (문28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반송처리 또는 재접수 요청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28-3. (문28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사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29번으로

문28-3-1. (문28-3에서 ㉔ 응답한 경우만) 만약 그렇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현장심사를 하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받으셨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 29.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위임한 손해사정사로부터 귀하의 진료의무기록 사본 제출을 요구받거나, 귀하의 진료의무기록 열람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30.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귀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31.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보험회사에 청구하신 보험금이 지급거절 또는 삭감되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32.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또는 삭감 조치에 불복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33.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또는 삭감 조치에 불복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34.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아예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 ① 예(회) ② 아니오  문35번으로

문34-1. (문3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 ② 청구서류가 많아서 ③ 청구금액이 소액이라서
④보험금 지급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⑤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 유료라서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⑥기타()

VI. 민원

문35.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35-1번으로](#) ② 없다 [문36번으로](#)

문35-1. (문3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가장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모두 선택)

- ① 설계사 ② 보험회사 ③ 금감원 민원센터 ④ 소비자원
⑤ 기타()

문35-2. (문3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민원 제기 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② 만족하지 않았다 ③ 보통 [문36번으로](#) ④ 만족했다 [문36번으로](#)
⑤ 매우 만족했다 [문36번으로](#)

문35-3. (문35-2에서 ①, ② 응답한 경우만)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절차가 불편해서
② 진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설명 없이, 단순 결과 통보에 그쳐서
③ 처리기간이 길어서
④ 처리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서
⑤ 기타()

문36. 보험계약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생기면 다음 중 어느 곳에 문의하시겠습니까?

- ① 설계사
② 보험회사
③ 금감원 민원센터
④ 소비자원
⑤ 민간소비자단체
⑥ 기타()

문36-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락하기 쉬워서
② 신뢰할 수 있어서
③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④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
⑥ 기타()

VII. 보험이해도

문37. 귀하께서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아래의 정보에 관해 탐색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보를 탐색하신 경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중복가능)

항목	탐색 경험	탐색 경로 (보기 16)
37-1 납입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보았다.	① 예 ② 아니오	
37-2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확인하였다.	① 예 ② 아니오	
37-3 사업비나 예정이율을 확인하였다.	① 예 ② 아니오	

(보기 16) 탐색 경로

- ① 설계사(대리점, 중개사 포함) ②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
 ③ 비교공시 사이트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금감원 등) ④ 포털 등 인터넷 검색
 ⑤ TV 쇼핑채널 ⑥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우편안내자료
 ⑦ 기타 ()

문 38. 귀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문 39. 귀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계약에 주보험 외에 어떤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약의 보장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문 40. 귀하께서는 본인의 보험이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⑥ 잘 모르겠다

문 41. 보험과 관련한 아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시고, 각 항목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보기와 같이 1에서 5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O/X 선택	확신 정도 (보기 17)
41-1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O ② X	
41-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① O ② X	
41-3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① O ② X	
41-4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① O ② X	
41-5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① O ② X	

(보기 17) 확신정도

- 전혀 불확실 다소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①-----②-----③-----④-----⑤

VIII. 보험가입 및 판매 행태

문 42. 귀하께서는 보험료를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려 보험에 가입한 경험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46번으로](#)

문 43. (문 42에서 ④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익률(이자율)이 높아서
 ②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서
 ③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④ 기타

문 44. (문 42에서 ④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어떠한 경로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 ① 보험설계사
- ② 은행의 보험판매 - 방카슈랑스
- ③ 인터넷 혹은 전화
- ④ 기타

문 45. (문 42에서 ④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되지 않고 사업비 쓰인다는 내용을 판매자(혹은 판매매체)로부터 안내 받으셨습니까?

- ① 안내 받았다
- ② 안내 받지 못했다
- ③ 기억이 나지 않는다

IX. 비대면 채널 이용현황

문 46. 귀하께서는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을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가입해 보았다 [☞ 문 46-1번으로](#)
- ② 가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가입은 하지 않았다 [☞ 문 46-1번으로](#)
- ③ 인터넷을 통해 가입시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 문 46-2번으로](#)

문 46-1. (문 46에서 ①,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실 때 가장 불편한 점(혹은 가입까지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해서
- ② 가입과정의 복잡해서
- ③ 상세한 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 ④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서

문 46-2. (문 46에서 ③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을 시도 하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보험 가입 필요를 느낀 적이 없어서
- ② 온라인 보험이 있는 줄 몰라서
- ③ 온라인 보험가입의 장점을 모르겠어서
- ④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편리해서

문 47. 귀하께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 ① 자세한 설명서 제공
- ② 인공지능과 음성 및 문자 대화
- ③ 사람과 문자(채팅) 대화
- ④ 사람과 전화 통화

X. 보험계약 전환 관련

문 48. 귀하께서는 현재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 48-1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50번으로](#)

문 48-1. (문 48에서 ①을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보험계약 전환 설명 ■

※ **보험계약 전환**은 기존 보험계약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보험가입자가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 보유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계약 전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보험 가입나이를 새로운 계약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49. 귀하께서는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49-1으로](#) ② 없다 [문50으로](#)

문49-1. (문49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사망(종신)보험을 어떤 종류의 보험으로 전환하기 원하십니까?

- ① 연금보험
② 건강보험
③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50. 귀하께서는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50-1번으로](#) ② 없다 [문51번으로](#)

문50-1. (문50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보험계약 전환 방식을 통해 사망(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변경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예 [문51번으로](#) ② 아니오 [문50-2번으로](#)

문50-2. (문50-1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보험계약 전환과정에서 느낀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선택해주십시오(복수선택 가능)

- ① 계약 전환 전후 계약내용(보장내용, 보험금액 등) 변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② 계약 전환에 관한 질문 제기 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설명
③ 계약 전환 후 상품 약관 등 서류의 미제공
④ 기타(적어주세요:_____)

XI. 건강생활서비스 : 만40세 이상만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1) 새로운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 1)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모바일 앱(스마트폰, 웹사이트 등)은 고혈압, 비만, 당뇨 환자들이 영양섭취, 체중조절 등 생활습관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2)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만보기 등 웨어러블 기기)는 소비자가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거나, 만성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보기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그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요청할 경우 '대사증후군 관리지침서와 '나의 맞춤 건강노트'를 발송하고, 6개월 동안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가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영양상담, 체력 측정,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흡연자에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금연상담 및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병 신규 판정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유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문51. 현재 귀하께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생활습관	그렇다	아니다
문51-1	규칙적 운동하기	①	②
문51-2	식생활 개선	①	②
문51-3	금연 (현재 월평균 1일 1개비 이상 흡연자만 응답)	①	②
문51-4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문51-5	정기적 휴식 등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최근 6개월 긴 수면제 등 처방전 없는 스트레스 관련 약 복용 경험자만 응답)	①	②

문52. 현재 귀하께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 중이십니까?

문항	생활습관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이미 실천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문52-1	(문51-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규칙적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문52-2	(문51-2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식생활 개선	①	②	③	④
문52-3	(문51-3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연	①	②	③	④
문52-4	(문51-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문52-5	(문51-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정기적 휴식 등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문53. 만약, 보험회사가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를 무료(앱 및 기기 제공 포함)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귀하의 자율적 실천행동(예: 1만보 걷기, 녹색 식단, 건강관리프로그램 참여, 체중 감량 등)에 대해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문53-1	(문51-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규칙적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문53-2	(문51-2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식생활 개선	①	②	③	④
문53-3	(문51-3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연	①	②	③	④
문53-4	(문51-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문53-5	(문51-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정기적 휴식 등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문54. 만약, 귀하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비만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판단 및 설명함이 없이 대면안내, 문자, 이메일, 전화, 지도(규칙적 운동관리, 식단관리 등) 등의 개입을 하면서, 귀하의 실천행동(예: 1만보 걷기, 녹색 식단, 관리프로그램 참여, 체중 감량 등)에 대해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귀하의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변화를 위한 개입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문54-1	(문51-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규칙적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문54-2	(문51-2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식생활 개선	①	②	③	④
문54-3	(문51-3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연	①	②	③	④
문54-4	(문51-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문54-5	(문51-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정기적 휴식 등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문55. 귀하께서는 지난해에 건강보험공단이 만40세 이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문55-1번으로](#) ② 아니다 [문56번으로](#)

문55-1. (문5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지난해에 건강검진 결과 등급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상A는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를 말하고, 정상B는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의 자가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정상A ② 정상B ③ 일반질병의심 ④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⑤ 질병보유

문55-2. (문5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지난해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55-3. (문5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일반건강검진의 결과통보서를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관리에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56. 만약,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초하여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판단하여 설명함이 없이 보험회사가 생활습관 개선 혹은 만성질환 관리를 하도록 대면안내, 문자, 이메일, 전화, 지도(규칙적 운동관리, 식단관리 등) 등의 **개입**을 하면서, 귀하의 실천행동에 대해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지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번호	프로그램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문56-1	(문51-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규칙적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문56-2	(문51-2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식생활 개선	①	②	③	④
문56-3	(문51-3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연	①	②	③	④
문56-4	(문51-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금주 혹은 절주	①	②	③	④
문56-5	(문51-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정기적 휴식 등 스트레스관리 횟수 늘리기	①	②	③	④

XII. 사고예방서비스

(보기) 보험사 사고예방 서비스 예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이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형 보험이 보다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암, CI종신, 당뇨보험에 운동 등 건강관리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평소에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예: 만보) 걸었을 때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매우 단순하지만, 향후에는 건강 및 신체 상태, 생활습관 등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주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수준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제공 가능한 사고예방 서비스 예사:

- 1) 매일 심박수,혈압,혈당 등을 체크하고 적절한 수준의 운동과 수면을 하도록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
- 2) 출퇴근 시간 및 이동 동선에 맞춰서 고객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
- 3) 신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일시적인 쇼크(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등이 예상될 때에 이를 가입자나 지인, 119 등에 알려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4) 잦은 야근·회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에,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운전을 자제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

문57. 귀하께서는 앞에서 설명한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문63으로](#)

(보기) 제공 가능한 사고예방 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

이러한 사고예방 서비스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보험회사에 제공한 건강정보와 스마트워치(smart watch)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고객의 질병 진단 및 예측력을 높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규제에 의해 보험회사가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 수집 및 이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문 58. (문57에서 ㉠에 응답한 경우만) 사고예방 서비스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분석하여 예측력을 높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위에 예시한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이라도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0으로

문59. (문58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사고예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실시간 혈압 ② 실시간 심박수 ③ 실시간 혈당 ④ 수면 시간 및 숙면 정도
⑤ 실시간 흡연 및 음주 여부 및 정도 ⑥ 실시간 섭취 음식 ⑦ 키, 체중
⑧ 하루 걸음 수 ⑨ 하루 운동 시간 및 정도, 칼로리 소모 ⑩ 정기 건강검진시 혈액 검사 결과
⑪ 정기 건강검진시 위 내시경·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⑫ 과거 본인의 병력 (보험가입시 필요한 고지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보험가입시 불이익은 없음)
⑬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의 병력
⑭ 기타 ()

이 글 하 면 61호 이 동

문60. (문58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에도 건강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개인의 건강 정보가 제 3자에게 불법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 ② 보험회사가 건강 정보를 이용하여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향후 보험가입시 가입거절 등)
- ③ 보험회사가 건강 정보를 이용하여 원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 ④ 불법유출, 불법이익 타용 등 사용 등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보험회사가 내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 ⑤ 기타 (간략히라도 기재해 주세요 :)

문61. 사고예방 서비스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은 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 ① 비용이 적정하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다. 문64로
- ② 서비스 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싶지는 않다. 문62로

문 62. (문 61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사고예방 서비스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은 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내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서비스가 매력적이지는 않다.
- ② 보험회사 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므로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고예방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대가를 보험회사가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 문62 응답 후 문64로 이동

문 63. (문 57에서 ② 응답한 경우만)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건강에 관여하는 것이 싫음
- ②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③ 건강관리 서비스는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이 더 잘 할 것으로 보임
- ④ 기타 (간략히 기술: _____)

▶ 단63 이공 하 단64로 이공

XⅢ. 자동차보험

문64. 귀하께서는 직접 운전을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70으로 이동**

문64-1. (문6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그렇다면, 귀하께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시기와 주로 이용하시는 차량에 대해 답해주시시오.

운전면허 취득	차량연식	차종	차량명
① 1년 미만 ② 1~5년 ③ 5~10년 ④ 10~20년 ⑤ 20년 이상	① 1년 미만 신차 ② 1~5년 ③ 5~10년 ④ 10~20년 ⑤ 20년 이상 ⑥ 모름	① 승용차 ② 승합차 ③ 화물차 ④ 버스	

문65. (문64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지난 3년(2017~현재) 동안 자동차사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 ① 예(____회) ② 아니오 **☞ 문70으로 이동**

문65-1. (문65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그렇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처리하셨습니까?

- ① 예(____회) ② 아니오 **☞ 문70으로 이동**

문66. (문65-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66-1. (문65-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사고원인에 대해서 귀하의 100%과실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조사결과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70으로 이동**

문67. (문66-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귀하의 보험회사가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니까?

-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별로 관심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많다

문68. (문66-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 및 승객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 진료비, 합의금 등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얼마나 지급되는 관심 없다

문69. (문66-1에서 ①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상대 운전자 및 승객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70. 귀하께서는 평소에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십니까?

- 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②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이용한다 ⑤ 항상 이용한다

문71. 귀하께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통원 ② 입원 ③ 입원+통원 ④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없음 **※ DQ1로**

문72. (문71에서 ①, ②, ③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기관과 양방의료기관(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73. (문71에서 ①, ②, ③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가 귀하의 원상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영향을 미친 편이다 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DQ1. (SQ8 및 SQ9에서 ①~⑧번 응답자만) 귀하 또는 가구주가 소속된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 가구주

- ① 10인미만 ② 10~29인 ③ 30~99인
④ 100~299인 ⑤ 300~499인 ⑥ 500인이상

DQ2. (SQ8 및 SQ9에서 ⑥번 응답자만) 귀하 또는 가구주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본인 가구주

- ① 제조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운수업
④ 숙박 및 음식점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 및 임대업
⑦ 교육 서비스업 ⑧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아미용실 등) ⑨ 기타()

DQ3. 실례지만, 귀하 본인과 가구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가구주의 학력을 동일하게 작성

DQ3-1. 본인의 학력	DQ3-2. 가구주의 학력
① 중졸이하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③ 대졸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무응답	⑤ 모름/무응답

DQ4. 귀하의 개인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만 원

DQ5. 귀하의 소득을 포함한 귀하 택(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연 만 원

DQ5-1. 귀하 닥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 얼마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 (납입보험료 포함)하고 계십니까?

총 수입의 %

DQ6.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귀하 닥의 한 달 납입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월 만 원

DQ7. 귀하 닥에서 최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 여기에서 가구는 동일 거처에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⑥ 없음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제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금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

- 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

-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제 11 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회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 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최장훈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ames021@kiri.or.kr)

조용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wcho@kiri.or.kr)

송윤아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nuckleball@kiri.or.kr)

정원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이상우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일본 중앙대 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전용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ngsik.jeon@kiri.or.kr)

오승연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yoh@kiri.or.kr)

변혜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w.byun@kiri.or.kr)

김규동

Templ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gyudong.kim@kiri.or.kr)

김진익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
(E-mail : kjo990@kiri.or.kr)

연구보고서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발행일 2019년 10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13-6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